

碩士學位論文

영등할머니 신앙 연구

2009年 2月

韓南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科 民俗學專攻

南 香



한남대학교  
Hannam University

# 영등할머니 신앙 연구

指導教授 李 弼 泳

이 論文을 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9년 2월

韓南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科 民俗學專攻

南 香



한남대학교  
Hannam University

南 香의 碩士 學位論文으로 확인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2009년 2월

韓南大學校 大學院



한남대학교  
Hannam University

# 목 차

I. 머리말 .....	1
1) 연구 목적 .....	1
2) 연구사 .....	2
3) 연구 방법 .....	6
II. 영등할머니의 호칭(呼稱) .....	11
1) 민속자료 상의 호칭 .....	11
2) 역사문헌 자료상의 호칭 .....	20
III. 영등할머니의 성격(性格) .....	27
1) 정기적으로 내방하는 풍신(風神) .....	27
2) 영험과 욕심의 할머니 .....	31
3) 딸과 며느리를 동반하는 할머니 .....	34
4) 가내의 안과 태평과 농·어업을 돌보는 할머니 .....	38
IV. 영등할머니 신앙의 지역적 특성 .....	41
1) 경기 .....	41
2) 충청 .....	42
3) 영동·영서 .....	44
4) 호남 .....	47
5) 영남 .....	51
6) 제주 .....	56
V. 영등할머니 신앙 의례의 내용과 절차 .....	60
1) 제의 명칭 .....	60
2) 제일(祭日) .....	63
3) 제의 장소[祭場] .....	69
가. 부엌 .....	70



나. 장독대와 마당 .....	73
다. 보리밭 .....	74
4) 신체(神體) .....	77
가. 장소 .....	78
나. 신체의 유형 .....	79
다. 신체의 처리 .....	88
5) 제물(祭物)과 기원물(祈願物) .....	90
가. 제물의 종류 .....	91
나. 진설 방식 .....	105
다. 제물의 처리 .....	107
라. 기원물(祈願物) .....	110
6) 금기(禁忌)와 속신(俗信) .....	111
가. 바람올리기 의례에 나타나는 금기(禁忌) .....	112
나. 제물과 관련한 속신(俗信) .....	115
다. 기타 .....	121
라. 이월 동티[動土] .....	126
마. 일기(日氣)와 관련한 속신(俗信) .....	131
<b>VII. 맷음말 : 영등할머니 신앙의 성격과 의의 .....</b>	<b>135</b>
<b>참 고 문 헌 .....</b>	<b>140</b>
<b>사 진 설 명 .....</b>	<b>152</b>
<b>ABSTRACT .....</b>	<b>160</b>

### [지 도 차 례]

[지도 1] 호칭 분포 현황 .....	13
[지도 3] ‘영등까꾸지’ 분포 지역(경북 해안) .....	51
[지도 3] ‘요왕먹이기’를 행하는 지역(경남) .....	54
[지도 4] 神體의 지역별 분포 현황 .....	80

## I. 머리말

### 1) 연구 목적

영등할머니는 음력 2월의 계절풍을 인격화(人格化)한 집안의 신령이다. 매년 2월 1일에 하늘에서 내려와 지상의 가정에 머물다가 15일이나 20일에 다시 올라간다. 그녀가 내방(來訪)하는 시기는 절기상 경칩(驚蟄, 양력 3월 5일)과 춘분(春分, 양력 3월 19일) 사이이다. 계절적으로는 겨울에서 봄으로 변화하는 환절기이며, 꽃샘추위가 간헐적으로 찾아와 불안정한 기후를 보인다.

이 노파신(老婆神)은 풍신(風神)이기에 바람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바람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바람이 인간 생명의 한 원천이며 농사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비의 시기와 다과(多寡)에 지대한 영향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풍년을 기약하는 우순풍조(雨順風調)에 대한 갈망에는 바람이 고르게 분다는 뜻의 ‘풍조(風調)’가 기반이 된다.

그러나 풍조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전혀 상관이 없다. 여기서 인간은 ‘풍조에 대한 소망’을 현실적으로 극대화시키려는 자연스러운 의지가 집약된다. 이러한 인식과 열망 속에서 바람은 신격화의 과정을 겪고 마침내 민속상에서 영등할머니로 태어난다. 신격화의 경로에서 한국 민속의 구성 요소들이 그녀에게 적절하게 수용되었음을 물론이다.

영등할머니는 바람 자체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신령이기도 하다. 비록 매년 2월에만 ‘주기적으로’ 또한 ‘한시적으로’ 천상과 지상을 왕래하는 풍신이지만, 농사를 준비하는 2월달에 영등할머니를 정성껏 모시면 그녀의 가호(加護)로 인하여 한 해 농사의 성공은 물론 온갖 가내화평(家內和平)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농촌에서는 풍농(豐農)을 위해서, 어촌에서는 어장(漁場) 개시 절기에 바람의 피해를 없애고 풍어(豐漁)를 위해서 영등할머니를 위한다.

이 논문은 영등할머니 신앙과 그 의례를 전국을 단위로 하여 그 실태를 정리하고 그것이 지난 성격과 의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영등할머니에 대한 민속보고서와 역사문화학의 자료, 그리고 필자의 현지조사 자료를 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전국적으로 영등할머니 신

앙과 그 의례가 어떠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지니는지, 또한 지역적 분포의 특성은 무엇인지를 살폈다. 그리고 그 구체적 내용을 제의 명칭, 제일(祭日), 제장(祭場), 신체(神體), 제물(祭物)과 기원물(祈願物), 금기와 속신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영등할머니는 어떤 호칭으로 불려지며 그것은 어떤 의미와 지역적 특성을 지니는지를 살피고, 또한 역사문화현상에 보이는 호칭도 검토하였다. 이러한 자료와 분석을 통하여 영등할머니의 특성을 정기적으로 내방하는 풍신(風神), 영험과 욕심의 할머니, 딸과 며느리를 동반하는 할머니, 가내의 안과 태평과 농어업을 돌보는 할머니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이들 내용을 종합하여 영등할머니 신앙의 성격과 의의를 밝히고자 했다.

## 2) 연구사

영등할머니 신앙에 대한 연구는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영등할머니’라는 신령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은 일제강점기의 한국인 연구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마을공동체신앙과 무속의 기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여서 가정신앙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연구 분야였다. 이러한 연구 동향을 감안하면 영등할머니 신앙에 대한 초기 연구 업적은 다소 산발적일 수밖에 없었다.

영등할머니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 업적은 宋錫夏의 「風神考(附 禾竿考)」(『진단학보』 1, 1934.)라 할 수 있다. 그의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영등할머니를 “南朝鮮 一帶에 亘하야 信仰하여오는 ‘영동(風神)’을 現存의 形態로써 考察하여보면, 그 神은 擬人的인 老女神’라고 규정한 사실이다. 이는 영등할머니를 이해하는 관점의 토대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역사문화 및 구비전승 자료를 통하여 영등할머니 신앙의 起源을 살피고자 노력하였다. 지역별 영등할머니 신앙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영등할머니 신앙이 한반도 동남부 해안가 지역에서 우세하게 분포하고, 경기와 충남 일부 지역에서는 그 사례가 희박함을 지적하였다. ‘영등대’를 祈豐儀禮의 하나인 ‘벗가릿대 세우기’와 상관이 있는 넓은 의미의 立竿 민속으로 파악하였다.

宋錫夏의 논고에 제시된 역사문화의 상당부분은 이능화의 『朝鮮巫俗考』를

참고한 것이다.<sup>1)</sup> 이능화는 조선시대 세시기·왕조실록·개인 문집류 등의 문헌자료를 섭렵하여 「영호(嶺湖) 지방 일대의 영동신(嶺童神)」이라는 절에 별도로 기록하였다. 기존에는 영등할머니 신앙의 기원을 조선시대 후기로 파악한 바 있으나 宋錫夏는 민간신앙의 유구성을 감안하면 원시 시대까지 소급될 수 있는 신앙 형태임을 지적하였다.<sup>2)</sup>

宋錫夏는 영등할머니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첫째는 딸과 며느리를 차별하는 의인화된 ‘할머니 신령’이고, 둘째는 바람의 속성을 지녔기에 身體를 分割할 수 있는 組織體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마을 단위가 아닌 가정에서 모시는 ‘농어류신(農漁類神)’임을 지적하였다.

동시대 연구자인 孫晉泰 역시 경남 동래와 전남 여수 지역의 영등할머니 신앙을 조사한 바 있다. 「검출 문화의 토속학적 연구」에서는 영등할머니가 경상도와 그에 인접한 전라도 등지에서만 위하는 신령으로 기록되어 있다.<sup>3)</sup> 이는 영등할머니 신앙이 영남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상도와 가까운 호남 지역에서 영등할머니 신앙이 찾아지는 원인을 통혼권과 결부시켜 파악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제관학자들 역시 영등할머니 신앙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당시의 저작물인 『朝鮮風俗集』(1914, 今村鞏), 『朝鮮의 鬼神』(1929, 村山智順), 『朝鮮民俗誌』(1954, 秋葉隆)에 나타난 영등할머니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이능화의 『朝鮮巫俗考』를 참고한 것이다. 지역 사례를 기록한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일제 강점기 이후에 영등할머니 신앙에 대한 본격적인 현지 조사는 1960대 이후에 이루어졌다.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전국의 민속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바 있다.<sup>4)</sup> 본 자료에는 영등할머니 신앙이 가정신앙과 세시풍

1) 이능화는 역대 세시기 자료를 비롯하여 조선왕조실록 등의 문헌자료를 섭렵하여, 영등할머니 신앙의 연원을 밝힐 수 있도록 기초를 제시하고 있다.

2) 宋錫夏, 「風神考(附 禾竿考)」, 『진단학보』 1, 1934, 163쪽.

3) 孫晉泰, 『孫晉泰先生全集』 6권, 태학사, 1981, 89쪽.

4) 영등할머니 신앙이 찾아지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문공부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전라남도 편)』, 1969.  
문공부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전라북도 편)』, 1971.  
문공부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충청남도 편)』, 1975.  
문공부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충청북도 편)』, 1976.  
문공부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경상남도 편)』, 1972.  
문공부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경상북도 편)』, 1974.

속 분야에 중복 기술되거나 경우에 따라서 둘 중 한부분에서만 선택적으로 찾아진다. 영등할머니는 음력 2월의 시간성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므로 세시풍속 분야에서도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그 이외에 각 시·도·군의 관공서에서 발간한 자료, 대학 및 개인 연구소의 보고서류에도 영등할머니 신앙 자료가 소개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일부 자료는 조선시대 세시기류를 그대로 옮겨놓아서 자료의 지역적인 편중이 심한 편이다. 몇 가지 미흡한 점은 있으나 영등할머니 신앙의 지역적인 실태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영등할머니 신앙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조사는 국립민속박물관의 『한국의 세시 풍속 I』(1997)과 『한국의 세시풍속 II』(1998)를 들 수 있다.<sup>5)</sup> 본 기관에서는 이후에도 『경남어촌민속지』(2002)를 통하여 경남 해안가를 중심으로 영등할머니 신앙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한 바 있다. 이어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전국을 대상 지역으로 발행한 『세시풍속』과 『한국의 가정신앙』은 영등할머니 신앙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sup>6)</sup> 무엇보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영등할

---

문공부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강원도 편)』, 1977.

문공부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경기도 편)』, 1982.

문공부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주도 편)』, 1974.

문공부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함경도 편)』, 1982.

- 5) 『한국의 세시풍속 I』은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의 5개시도, 62개 마을을 표본으로 조사한 것이며, 『한국의 세시풍속 II』는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5개도를 대상으로 각 시군에서 8개 마을씩을 조사한 자료이다.
- 6)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세시풍속 조사에 이어서 가정신앙까지 전국단위로 조사를 하여 민속학의 여러 분야를 심도 있게 살필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영등할머니 신앙의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강원도 세시풍속』, 2001.  
국립문화재연구소, 『제주도 세시풍속』, 2001.  
국립문화재연구소, 『충청북도 세시풍속』, 2001.  
국립문화재연구소, 『충청남도 세시풍속』, 2002.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상북도 세시풍속』, 2002.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상남도 세시풍속』, 2002.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라북도 세시풍속』, 2003.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라남도 세시풍속』, 2003.  
국립문화재 연구소,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 편)』, 2005.  
국립문화재 연구소, 『한국의 가정신앙(강원도 편)』, 2006.  
국립문화재 연구소, 『한국의 가정신앙(충청북도 편)』, 2006.  
국립문화재 연구소, 『한국의 가정신앙(충청남도 편)』, 2006.  
국립문화재 연구소, 『한국의 가정신앙(경상북도 편)』, 2007.  
국립문화재 연구소, 『한국의 가정신앙(경상남도 편)』, 2007.

머니 신앙의 지역 실태를 파악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sup>7)</sup>

최근에는 영등할머니 신앙의 지역적인 사례를 조사·정리하고, 해석한 논문이 지속적으로 발간되고 있다. 우선 김택규는 영등할머니를 농업을 돌보는 신령으로 인식하고, 전국적인 분포를 밝힌 바 있다.<sup>8)</sup> 이어서 개별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조사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정리 및 분석을 한 연구 성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sup>9)</sup>

물론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시각으로 영등할머니 신앙을 바라본 경우도 있다. 송화섭은 영등신을 용신신앙과 결부시켜 이해하였으며,<sup>10)</sup> 김재호는 영등신 앙의 의례 방식, 목적, 참여자 등을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유형화하고 생태학적인 관계에 주목하였다.<sup>11)</sup>

최근 논문은 대부분이 연구자의 현지조사를 토대로 얻어진 성과물이다. 이를 통하여 영등할머니 신앙 뿐 아니라 지역의 민속도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 이전에 정확한 수집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영등할머니 신앙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선행 연구자들의 노력과 시도가 없는 상황에서 영등할머니 신앙의 전모를 이해하기란 요원한 일이다.

기존에는 육지와 제주도의 영등할머니 신앙을 복합적으로 기술하고, 두 지역의 영등할머니 신앙이 상호관련이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지적하는 연구 성과가 대부분이었다. 육지의 남해안과 제주도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영등할머니를 모시는 목적이나 그 성격 등 공통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호관련성

국립문화재 연구소, 『한국의 가정신앙(제주도 편)』, 2007.

국립문화재 연구소, 『한국의 가정신앙(전라남도 편)』, 2008.

국립문화재 연구소, 『한국의 가정신앙(전라북도 편)』, 2008.

7) 세시풍속이나 가정신앙 모두 대단히 방대한 연구 분야이고 조사자도 일치하지 않는 등 몇 가지 한계는 있다. 단기간에 개인 연구자가 할 수 없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축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8) 김택규, 『韓國農耕歲時의 研究』,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5.

9) 황경순, 「경북지역 영등신앙 연구」, 『향토문화』 17집, 사단법인 대구향토문화연구소, 2002.

황경숙, 「부산지방의 영동할미제」, 『부산의 민속문화』, 세종출판사, 2003.

이현수, 「정선지역의 세시풍속 연구 : 풍신제를 중심으로」, 『강원민속학』 21, 강원민속학회, 2007.

이승철, 「동해 ‘영등제’의 존재양상 분석」, 『강원민속학』 21, 강원도민속학회, 2007.

김미주, 『생업차이에 따른 영등신앙의 존재 양상 :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를 중심으로』, 안동대석사학위논문, 2007.

10) 송화섭, 「가정신앙에서 영등제와 철릉제」, 『한국의 가정신앙』 하권, 민속원, 2005.

11) 김재호, 「영등신앙의 제의적 특징과 생태학적 해석」, 『실천민속학연구』 10, 실천민속학회, 2007.

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제주도는 오랜 기간 육지와 동떨어져 독립된 문화를 형성한 섬이기에 또 다른 차원에서 연구되어야 할 지역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민간신앙의 두 범주 가운데 제주도의 ‘영등굿’은 마을 공동체 신앙에 가깝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개인 및 가정신앙으로써의 영등할머니 신앙과 동일 선상에서 거론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3) 연구 방법

영등할머니 신앙은 풍부한 현지 조사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가정신앙의 제분야가 그러하듯 1970년대 이래 현재까지 산업화·도시화로 상당 부분 쇠퇴·소멸하여 현지 조사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영등할머니 신앙 역시 동일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오늘날 가정에서 영등할머니를 모시지 않게 된 원인은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첫째는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영향으로 가옥 구조에 변화가 생기면서 신령을 모실 공간이 축소된 점이다. 영등할머니를 위하는 제장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장소는 단연 부엌이다. 입식 부엌의 등장으로 기존에 신령을 모셨던 부뚜막 시설이 사라진 점은 영등할머니 신앙의 쇠퇴를 부추기는 요소가 되었다.

두 번째는 세대교체로 인한 가정신앙 전반의 쇠퇴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시어머니가 작고하면서 그녀가 생전에 위하던 신앙대상도 따라서 없애게 되었다. 영등할머니 신영 역시 이러한 세대교체로 인하여 상당부분 자연 중단되는 위기에 처해있다.

세 번째는 기독교의 영향이다. 개종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기존에 가정에서 위하던 신령들을 더 이상 위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기독교 세가 강한 지역일수록 분명하게 나타난다.

종종 신령을 모시던 일을 중단한 이후에 집안에 갑자기 우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서운함을 느낀 신령에게 돌리기도 한다. 다만 그것이 ‘神罰’인지는 증명할 수 없다. 이는 신령에 대한 강한 믿음과 그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 마음자리이다. 특히 영등할머니는 성격이 순탄치 않은 신령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모시는 일을 중단하면

반드시 벌을 내린다고 믿어진다.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전국적인 영등할머니 신앙의 자료를 면밀하게 수집하는 일이다. 천만 다행은 이러한 급속한 변화 속에서도 2월 초하루에 신령을 위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조사가 전혀 불가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만 구체적인 영등 할머니 신앙의 모습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70세 이상의 노인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현지 조사만으로 부족한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역사문헌자료를 검토하는 일도 중요하다. 민속도 역사 과정의 산물이기에 우리는 늘 시간성을 고려하여 민속을 이해해야 한다.<sup>12)</sup> 영등할머니 신앙과 관련한 역사문헌자료는 조선시대 세시기, 개인 문집류, 왕조실록 및 일제강점기 자료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영등 할머니 신앙의 역사적인 측면을 역추적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사문헌자료 상의 기록이 19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民間에서 행하는 영등할머니 신앙의 모습과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다.

영등할머니 신앙은 오늘날의 민속현상이기에 문헌을 통하여 연원(淵源)을 밝혀내는 일이 대단히 조심스럽다.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19세기 후반부터 오늘날까지 파악된 영등할머니 신앙과 관련된 자료를 면밀히 수집·정리하고, 연구하는 일이다.

따라서 필자는 기존에 보고된 영등할머니 신앙에 관한 전국적인 현지조사 자료를 수집, 정리는 일을 기초적으로 수행하였다. 다행히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 『한국의 세시풍속』(국립민속박물관) ·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과 각 시·도·군청을 비롯하여 대학 연구소 등지에서 발간한 보고서류 및 개인 논문, 저서를 통하여 상당부분 조사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영등할머니 신앙의 전국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심층조사가 필요한 지역은 개인적인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필자가 직접 전국을 다니는 것은 현실적으로 역부족이기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매우 제한된 지역이기는 하나 필자가 참가한 바 있는 민속 지표조사 보고서의 자료를 이용하기도 했다.<sup>13)</sup> 지표조사를 통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제한적

12) 이필영, 「역사의 변화 발전과 민속」, 『한국민속사입문』, 1996, 66쪽.

13) 필자가 참여한 지표조사는 대부분 충남 및 경기 일부 지역으로 한정된다. 보고서 작업을 통하여 앞의 지역은 영등할머니 신앙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신앙과 세시풍속의 소주제로 영등할머니 신앙을 기록할 때에 찾아지지 않는 지역인 경

이나마 전국적인 영등할머니 신앙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필자는 크게 세 차례에 나누어서 관련 주제의 현지조사를 수행한바 있다. 필자의 조사 지역과 일시는 다음과 같다.

1. 경상남도 지역 (2008년 2월 1일)<sup>14)</sup>
  - 경남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내산리, 외산리
2. 전라도 및 충청도 지역(2008년 8월 5일~8월 10일)
  - 전남 나주시 노안면 영평리
  - 전남 나주시 영암구 덕진면 등강4구
  - 전남 진도군 군내면 금골리, 서동리
  - 전남 진도군 고금면 회동
  - 전남 진도군 지산면 소포
  - 전남 보성군 봉산리 덕정마을
  - 전남 남원시 산동면 식연마을
  - 전남 장수군 개남면 하음리 기산마을
  - 충북 옥천군 안내면 현리, 월외리
  -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강3리, 수북리

---

우에는 그 사실 자체를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영등할머니 신앙의 전국적인 양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그 구체적인 자료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충북대학교 박물관,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구간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株) 대우기술단, 2003.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파주 운정(2)택지개발사업지구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대한주택공사, 2004.

(재)충청문화재연구원, 『군장국가산업단지 장항지구(호환도로 및 토취장)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2005.

한양대학교박물관, 『의정부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부지 문화유적 지표조사』, 한양대학교박물관 · 대한주택공사, 2005.

(재)충청문화재연구원, 『아산배방 택지개발사업부지내 문화유적지표조사(추가) 보고서』, (재)충청문화재연구소, 2005.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가정신앙 충청남도 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재)충청문화재연구원,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문화유적지표조사 보고서』, (재)충청문화재연구원 · 대한주택공사, 2006.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여주-충주-문경간 철도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06.

(재)충청문화재연구원, 『행정중심 복합도시 연계 대전-천안간 광역도로 민간 투자사업(L-Project)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재)충청문화재연구원 · (주)한국해외기술공사, 2006.

14) 필자는 세 차례로 나누어서 조사를 하였는데, 2월 초하루에는 『한국의 가정신앙 : 경남』을 참고하여 경남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를 다녀왔다. 현재는 바람울리기를 행하지 않으나 과거에 하던 방식을 재연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 3. 경상도 및 강원도 지역(2008년 11월 3일 ~6일)

- 경남 합천군 남하면 무릉리 삼포 마을, 압곡 3구 신기 마을
- 경남 합천군 남계리 냉구 마을
- 경남 합천군 합천읍 인곡리, 영창리, 금양리
- 경남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양산리, 양금리, 아천리 한원마을,
-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 경북 달성군 농공읍 삼리 1리
- 경북 고령군 운수면 월상2리, 합2리 범암
-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리 구정말, 오천리, 수성1동
- 경북 성주군 대가면 봉동리 봉연 2리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호동
- 경북 포항시 영천 1동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당천3동, 반석2리
-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남호리
-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오보리
-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리
- 경북 영덕군 창수면 미곡리, 오촌리
- 경북 울진군 북면 덕우리, 고복2리, 노곡1리
- 강원 삼척시 근덕면 매월2리
- 강원 삼척시 교동
- 강원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갈남리, 장호리
- 강원 동해시 구호동, 추암동

기왕의 영등할머니 신앙 자료를 수집하기는 했으나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자료의 편중도 심하고, 일부의 자료는 정확성과 객관성에도 다소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제주도이다. 이 지역은 내지 연구자의 도움 없이는 현지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를 감안하고 수집된 자료를 정리·분석하여 영등할머니 신앙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신령의 호칭을 통하여 영등할머니 신앙의 지역적인 분포 및 특성을 이해하고, 역사문화 자료상에 나타나는 관련 호칭을 찾아보자 한다. 호칭은 신령의 성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단어이다.

다음으로 ‘바람올리기’라고 불리는 의례의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라고 살펴보자 한다. 의례의 내용은 제의 명칭·祭日·제의 장소·神體·祭物 및 祈願物·禁忌 및 俗信으로 구성된다. 각 구성요소에는 영등할머니의 성격이 반영된다. 또한 영등할머니 신앙의 지역적 분포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단 육지의 영등할머니 신앙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추후에 영등할머니 신앙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까지를 포함한 전국의 사례가 연구되어야 한다. 제주도 지역의 영등할머니 신앙은 별도의 논고가 필요하다.

## II. 영등할머니의 호칭(呼稱)

바람신을 한자로 그대로 옮기면 ‘風神’이지만, 역사문헌에는 ‘風伯’·‘風師’·‘飛廉’ 등으로도 표현된다. 민속 상에는 ‘영등할머니’·‘영등’·‘영동’·‘영두’·‘영등지석’·‘이월할머니’·‘이월’·‘이월영등’·‘이월제석’·‘풍신할머니’·‘제석할머니’·‘제석’·‘손님’·‘손’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불려진다. 이중 가장 보편적으로 불리는 명칭은 ‘영등할머니’이다. 이처럼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는 이유는 시대·계층·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영등할머니의 호칭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민속자료 상에 나타나는 대표적 호칭인 영등·이월·풍신·제석·손님을 살펴볼 것이다. 이들 호칭은 영등할머니 신앙의 지역적 분포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지역에 따른 의례의 특성을 아는데도 도움이 된다.

다음으로 역사문헌자료 상에 나타나는 호칭을 살피고자 한다. 역사문헌에서 영등할머니는 조선시대에만 제한적으로 찾아진다. 한자로 표현된 영등할머니의 호칭은 한자어를 통해 그 성격을 역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의 성격이 강한 영등할머니의 존재와 그 실체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sup>15)</sup>

### 1) 민속자료 상의 호칭<sup>16)</sup>

현지 조사 자료상에는 영등할머니라는 호칭이 대단히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더불어 ‘이월할머니’·‘풍신할머니’·‘제석할머니’·‘손님’ 등으로도 불린다. 현재 (2008)까지 발간된 각종 보고서나 개별 연구를 기초로 하여 지역별로 신령의 호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함경도 : 영등신

15) 대개의 민속이 그렇듯이 민간신앙은 ‘기록되지 않은 종교’이기 때문이다. 다른 일반의 세계 종교(World Religions)가 ‘기록된 종교’라면 민간신앙은 그 반대의 개념과 범위에 있다. 곧 역사가 없는 듯이 오해되는, 또 그렇게 잘못 인정되어 왔던 종교인 셈이다. 기록할 수 없었고, 때로는 기록할 필요도 없었던 종교이지만, 민간신앙에도 역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이필영, 「민속학에서 본 종교 : 마을 및 가정신앙을 중심으로」, 『한국종교문화비평』 2,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2, 97쪽.)

16) ‘민속자료’는 다음 절의 ‘역사문헌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현지조사 자료를 뜻한다.

황해도 · 평안도 : 영등할머니

경기도 : 영등할머니

강원도 : 영등할머니, 풍신할머니, 바람할머니, 바람님, 제석할머니

충청북도 : 영등할머니(영등할미), 영동할머니, 이월할머니, 이월지석, 이월손님, 이월풍신

충청남도 : 영등 할머니(영등할미), 이월 영등 할머니, 이월손님

경상남도 : 영등할머니(영등할만네, 영등할매, 영동할매, 영동할망네), 제석할머니  
(제석할매, 지석할매, 구름제석 할마씨네, 영등제석, 바람제석), 손, 풍  
신(風神), 이월 할머니(이월풍신님네, 이월할매, 이월할망네)

경상북도 : 영등할머니(영두, 영두할머니, 영두할만네, 영등, 영등할매), 이월할머  
니, 제석(지석, 영등지석, 이월지석), 할만네

전라북도 : 영등할머니(영동할매), 이월할머니, 이월제석할머니, 이월영동할머니

전라남도 : 영등할머니, 이월할머니, 이월함께

제주도 : 영등할망

편의상 행정구역 단위로 신령의 호칭을 정리하였지만,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면 같은 도내에서도 인문·자연 환경에 따라서 영등할머니 신앙의 편차는 대단히 심하다. 호칭을 통하여 영등할머니 신앙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한반도 동남부 곧 영남 지역으로 내려 갈수록 다양하게 나타난다. 호칭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점은 그만큼 영등할머니 신앙이 우세함을 반증한다.

경기·충남 일원에서는 영등할머니에 대한 호칭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경남·경북·강원·충북에서는 대단히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일찍이 소멸된 현상의 결과인지 아니면 신앙의 발생 혹은 중심영역(central area)이 경남인지는 현재로써는 명확히 밝히기가 어렵다.<sup>17)</sup>

북한에서의 영등할머니 신앙에 대해서는 자료가 희박하여 자세히 알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남한에서 찾아지는 다양한 호칭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영등신 혹은 영등할머니라는 호칭만이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남한에서처럼 보편적인 신앙형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파악된다.<sup>18)</sup> 영등할머니 신앙의 중

17) 경남은 영등 할머니에 대한 호칭이 가장 풍부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영등할머니를 바람을 관장하는 신령으로 인식하기는 하지만 ‘風神’이라는 호칭은 거의 찾았지 않는 지역이기도 하다. 남해안에 접한 부산·진해·마산·고성·통영·거제·사천·남해 등지에서는 영동·이월·풍신·제석 등의 수식어 없이 ‘할만네’ 혹은 ‘할망네’라 호칭하기도 한다. 또한 경남 내륙에 속하는 함안·의령·진주 등에서는 ‘제석할매’·‘지석할매’라는 호칭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8) 함남 홍원군의 사례로 해안가에서는 ‘영등신’을 모시지 않고 농촌에서만 신령을 모셨다는

심 지역이 한반도 동남부에 집중하고, 강원도 동부 해안가를 따라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북한에서도 강원도와 인접한 동해안에서 영등할머니 신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sup>19)</sup>

남한에서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기준으로 동서로 영등할머니 신앙이 집중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편이다. 영등할머니 신앙은 동쪽 지역에 해당하는 강원도, 경상도와 내륙의 충북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경기도 및 충남, 전라도 서쪽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 조차 회박할 정도로 드문 편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남한에서는 태백산맥, 소백산맥, 노령산맥 주변의 산악 지대와 태백산맥 동부 해안 및 동남해안 일대에 영등할머니 신앙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찾아지는 호칭은 ‘영등’, ‘이월’, ‘풍신’, ‘제석’, ‘손님’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호칭은 영등할머니의 여러 성격을 표현 한 핵심 단어이기도 하다.( [지도 1] 호칭 분포 현황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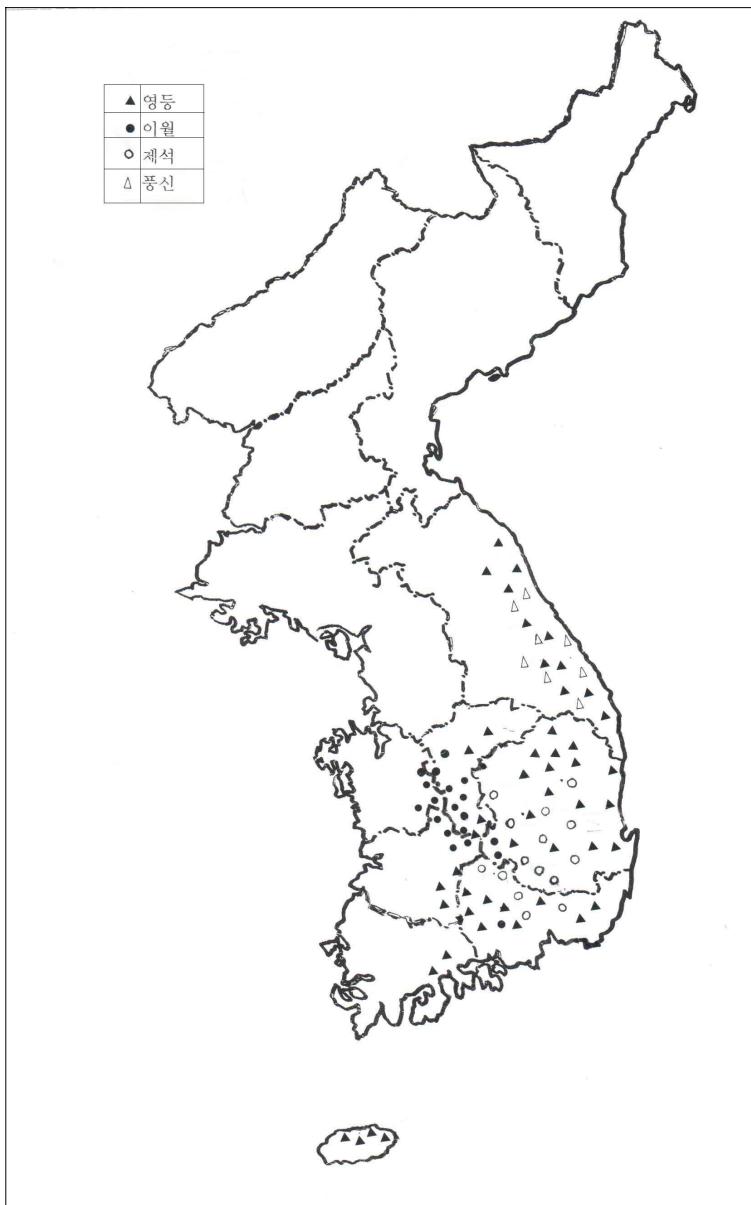
이들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호칭은 ‘영등할머니’이다. 이는 영등과 할머니 두 명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영등은 경우에 따라서 ‘영동·영두·영도’로도 불린다. 모두 다른 호칭처럼 보일 수 있으나 지역의 방언이나 발음상의 차이를 고려하면 모두 같은 계통의 낱말로 보인다.<sup>20)</sup> 영등은 바람신을 일컫는 우리 고유의 표현방식이다. 경우에 따라서 할머니를 생략하고, ‘영등’으로만 호칭하기도 하고, 글자의 앞머리에 ‘비’ 혹은 ‘바람’을 붙여서 ‘비영등’·‘바람영등’으로 불리기도 한다.<sup>21)</sup>

영등에 할머니라는 수식어가 붙음으로써 신령은 인격화(人格化)되어 진다. 영

---

기록이 전한다. 또한 함남 북청군 성대면 양평리 여촌에서는 영등할머니를 바람신으로 간주했고, 모든 집에서 주부들이 제사사상을 차려 가지고 도가(都家)로 가서 제사를 지냈다. (전경욱, 『함경도의 민속』, 고려대학교출판부, 1999, 36쪽.)

- 19) 영동 지역 중에서도 동해안에 치우친 지역에서 해안가의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태백, 평창, 영월을 중심으로 ‘풍신제’가 나타난다. 해안가를 따라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고성군에 풍신에 대한 의례가 행해지는 것으로 미루어 고성군과 접한 북한에도 풍신에 대한 관념이나 의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 20)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제보자들의 발음을 들어보면 ‘영등’·‘영동’·‘영두’·‘영도’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음하는 사람에 따라서 호칭이 달리 불리어질 수 있고, 이를 듣는 연구자도 기록하는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위의 표현들이 동일 계열의 호칭으로 보인다.
- 21) 이날 날씨의 좋고 나쁨으로 ‘비영등이 내렸다’ 혹은 ‘바람영등이 내렸다’라고 하여 일 년 동안의 일기 상황을 점치는 경우도 있다.(최남선, 『조선상식문답』, 삼성문화재단, 1972(1947), 101쪽.)



[지도 1] 호칭 분포 현황

등을 ‘영등신’·‘영등님’으로 부르는 것보다는 할머니라는 호칭을 붙임으로써 보다 친근한 존재가 된다. 영등제를 지낼 때에 소나무나 대나무로 신대를 만들고 그것에 오색천이나 백지를 달아주는 의해 속에서도 신령을 인격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오색천은 ‘영등할머니의 옷’으로 관념하기 때문이다.<sup>22)</sup>

할머니는 영등 뿐 아니라 풍신·이월·제석 등의 호칭에도 원래 하나의 명사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붙여진다. 지역의 방언에 따라서 ‘할미’·‘할매’·‘할맘네’·‘할만네’·‘할망’·‘할마시’ 등으로 달리 발음되기도 하나 모두 할머니를 지칭하는 것이다. 경남의 남해안 일대(부산·진해·마산·고성·통영·거제·사천·남해)에서는 영등할머니를 호칭할 때에 아예 영등을 생략하고, ‘할만네’·‘할맘네’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월할머니는 충청·호남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찾아지는 호칭이다. 특히 충청도에서는 충남 금산·대전 및 충북 영동·옥천·보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sup>23)</sup> 충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영등할머니’라는 호칭을 생소하게 여기거나 전혀 알지 못할 만큼 ‘이월할머니’가 대단히 보편적이다. 반면에 한반도의 중부 지역에 해당하는 경기도나 강원도에서는 이월할머니라는 호칭은 거의 찾아지지 않는다.

호칭에 나타나는 이월은 연중 음력 2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등할머니 의례가 갖는 시간성을 보여준다. 각 가정에서는 해마다 음력 이월 초하루에 영등할머니께 집안의 安過太平, 豊農, 豊漁을 기원하며 정성껏 제사를 지낸다. 이를 통하여 영등할머니가 바람신이면서 동시에 농업·어업 등의 생업과 관련이 있는 신령임을 알 수 있다.

“2월 바람에 소뿔 오그라진다”라는 속담이 있을 만큼 이 무렵에 부는 바람은 대단히 춥게 느껴진다. 한 여름에 부는 태풍처럼 風速이 빠른 것은 아니지만 기온이 낮기 때문에 평소보다 강하게 느낀다. 북서 계절풍의 영향으로 발생한 꽃샘추위는 2월 일기의 특징이다. 이로 인하여 겨우내 메말랐던 나뭇가지에 새움이 돋고 꽃이 핀다.<sup>24)</sup>

이때부터 해동기로 접어들어서 농촌에서는 한해 농사 준비로 바빠지기 시작한다. 2월 초하루를 ‘머슴날’·‘노비일’·‘일꾼날’·‘하리드랫날’ 등으로 부르는

- 
- 22) 장수군에서는 이를 할머니의 치마로 간주한다. 솔가지에 매단 종이는 떼어서 아이에게 주는데, 이 종이에 글을 쓰면 공부를 잘한다고 한다. 문종이는 할머니의 손수건이며 색천은 할머니의 옷이다. 할머니의 옷과 수건을 해주기 전에 청·홍색의 옷을 입고 출향(出鄉)을 하면 눈이 아프다. 그러나 할머니 옷을 먼저 해주면 탈이 없다.(국립문화재연구소, 『전라북도 세시 풍속』, 2003, 547쪽.)
- 23) 충북은 신령의 호칭으로 ‘영등’이 나타나는 지역과 ‘이월’이 나타나는 지역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지역이다. 대체로 남부 지역에 속하는 영동·옥천·보은에서는 이월할머니라가, 북부 지역에 속하는 단양·제천·충주·괴산·진천·음성·청원에서는 영등할머니가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 24)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 (경상남도 편)』, 1972, 726~731쪽.

이유는 이날 겨우내 쉬던 일꾼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등 하루를 풍성하게 보내기 때문이다. 일꾼들은 2월 초하루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농사지을 준비를 해야 하므로 “썩은 새끼줄 가지고 목매달려 간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아쉬움을 달래곤 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정월 보름날 마을 가운데에 세워두었던 벗가릿대를 내리고, 농사일에 전념할 준비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2월은 農閑期의 긴 휴식을 마무리 하고, 몸도 마음도 바쁜 일상으로 되돌릴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강원도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호칭인 풍신은 ‘풍신할머니(풍신할매)’·‘바람님’·‘바람할머니’라고도 한다. 강원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영등할머니가 어떤 신령인지 부연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風神’이라는 호칭이 사용된다. 심지어 의례 명칭도 ‘風神祭’라고 부를 정도이다.

풍신은 영등할머니의 바람신으로서의 성격을 한자화한 표현이다. 바람은 반드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분다. 영등할머니는 바람의 속성을 닮은 신령이기에 한 곳에 오래도록 정착하지 않는다. 성주〔成造〕·터주〔土主〕·삼신〔產神〕은 집안 어딘가에 그의 神體를 봉안하고, 정기적으로 정성껏 제물을 마련하여 대접을 한다. 반면에 영등할머니의 신체를 집안 어딘가에 마련하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드물다.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서는 ‘제석’이라는 호칭이 많이 찾아진다. 특히 해안보다 내륙 산간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제석(帝釋) 역시 ‘제석할매’ 혹은 ‘지석할매’로 뒤에 할머니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지역에 따라서 호칭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석과 지석은 동일 계열의 호칭으로 볼 수 있다. 제석은 壽命·子孫·運命·農業 등을 관장하고 천시 계열의 신령으로 믿어지며, 일반적으로 ‘삼불(三佛)제석’으로 불린다.<sup>25)</sup> 영등할머니를 제석으로 부르는 이유는 그녀의 고향을 하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등할머니를 ‘손님’이라고 부르는 지역도 ‘제석’과 마찬가지로 전라도와 경

25) 제석은 한국의 巫와 가신신앙에서 찾아 볼 수가 있으며, 궁의 제석거리와 제석신앙에서의 제석신의 신격은 대개 일치한다. 제석은 산신(產神)·수명신·생산신으로서 신앙되면서 인간 생존에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기능을 지닌 것으로 믿어져 왔다. 그러나 천신으로서의 제석에 대한 신앙이 약화되고 혼란스러워지면서 제석의 기능도 변화하게 된다. 그 점은 궁에서보다 가신신앙에서 더 심한데, 가신신앙에서는 제석을 지역에 따라 부귀영화의 신령이나 조상을 위하는 신령으로 믿는 경향을 보인다.(조홍윤, 「帝釋」,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상도 지역에 한정된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희박하게 찾아진다. 보통 ‘영등손님’·‘이월손님’이라 하고, 손님을 줄여서 손으로만 호칭하기도 한다.

손님은 오랜만에 집으로 찾아온 客으로 좀처럼 오랜 기간 머무르지 않고, 때가 되면 자신의 원거주지로 되돌아간다. 영등할머니는 매년 2월에만 찾아오는 신령이기에 이를 맞는 입장에서는 손님과 다를 바가 없다. 손님으로 불리어지는 신령으로는 천연두를 일으키는 손님마마가 대표적이다. 이 호칭은 瘟神을 손님처럼 잘 우대하여 별 탈을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되돌아가게 하려는 바람에서 붙여진 것이다. 역신을 쫓아내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손님처럼 공손히 정성껏 대하여 스스로 되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다.<sup>26)</sup>

다음은 일제강점기의 문헌 자료에 기록된 내용이다. 이 시기부터 영등할머니 신앙에 대한 현지 조사와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영등할머니 신앙에 대한 최초의 연구 논문은 宋錫夏의 「風神考(附 禾竿考)」이다. 그는 영등할머니를 ‘南朝鮮 一帶에 亘하야 信仰하여오는 영동(風神)을 現存의 形態로써 考察하여보면, 그 神은 擬人的인 老女神’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울산과 안성에서 현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신령의 호칭을 기록할 때에 반드시 한글로 ‘영등할머니’라 하고, 신령의 성격을 부연설명하기 위해서 한자로 風神이라고 附記하는 방식을 택했다.<sup>27)</sup>

孫晉泰는 동래·여수 두 지역의 영등할머니 신앙 사례를 기록한바 있다.<sup>28)</sup>

- 
- 26) 일제강점기의 일부 자료에 의하면 충북 지역에서는 풍신을 영등날에 오는 疾病神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2월에 풍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그 해에 가족의 병이 끊이지 않게 된다.(村山智順 著 김희경 옮김, 『朝鮮의 鬼神』, 동문선, 1990, 188쪽, 298쪽.) 이는 신령의 호칭이 ‘손님마마’와 유사하여 혼선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된다. 2월이 환절기이기는 하나 역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절기는 아니기 때문이다.
- 27) 宋錫夏는 영등할머니 신앙의 연원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문헌 자료를 인용한 바 있다. 그러나 역사문헌 자료에서 찾았다는 ‘영등’의 한자식 표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風神考(附 禾竿考)」, 『진단학보』 1, 1934.)
- 28) 두 지역 중 여수 지역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風神은 ‘영등함씨’라 하고 그녀는 陰曆 二月一日부터 同二十日까지의 사이에 山에서 마을로 내려온다. 俗稱 이것을 “영등함씨 내려온다”고 하며 그 때 萬一 비가 내리면 “할머니가 며느리를 다리고 왔다”고 하며 바람이 불면 “딸과 함께 왔다”고 한다. 이 비는 할머니가 내리게 하고 또 바람도 불게 한다고 하며 며느리는 밀고 천하니 그녀를 데리고 내려올 때는 며느리의 치마를 적시게 하기 위해 비를 내리게 하고 딸과 올 때는 딸의 치마가 바람에 날려 보기 좋으라고 바람을 불게 한다고 한다. 이 祭에는 巫女를 쓰지 않고 祭前 數日부터 대막대기(竹竿)을 門前에 비스듬이(對角으로) 불이고 門前에 黃土를 五, 六個所 줄지어 나란히 해놓고 잡곡밥을 반드시 바가지(瓢)에 넣어 부엌 또는 장독대에 나란히 놓고 主婦 또는 老婦 등이 손을 비비면

신령의 호칭, 신령의 하강 및 상천 시기, 의례 절차 및 내용(祭日·祭場·神體·禁忌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今村鞆(『朝鮮風俗集(1914)』), 村山智順(『朝鮮의 鬼神(1929)』), 秋葉隆(『朝鮮民俗誌(1954)』)은 영동할머니 신앙에 대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기록을 남겼다. 다음의 표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

제목	관련 내용	신령의 호칭
『朝鮮風俗集』 (今村鞆, 1914)	嶺東神 : 영동에서만 제사지내는 지방귀신으로 이 신은 영동날에서 그믐까지 집의 대들보 위에 온다고 하며 공물을 갖추어서 제사를 지낸다. 이 30일 동안 영동에서는 쌀매매를 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를 어기면 저주를 받아 빙곤해지거나 병자가 생긴다고 전해져 내려왔다. 이 신은 영동의 어부가 동해의 女人島에 漂着해서 여자에게 염살(艷殺)되었다는 전설과 관계가 있다.	嶺東神
『朝鮮의 鬼神』 (村山智順, 1929)	靈登날 바람의 신에게 제사지내면 연중의 재난을 그 바람이 날려 보내므로 복을 받는다.	靈登
	영동할머니 신 : 락 및 청수를 좋아한다. 영동날에 오는 疾病神이다.(충청북도)	영동할머니, 疾病神
	경주지방의 귀신 중 風神 : 바람의 신으로 공중에 있으며 여성이다.	風神
	2월에 풍신에게 제사 지내지 않으면 그 해에 가족의 병이 끊이지 않는다.	풍신
『朝鮮民俗誌』 (秋葉隆, 1954)	이 風神은 때로 永東郡 知印의 所化로 칭해지고 있다. 또한 영동 吏房의 죽은 영령이라고도 일컬어지며, 이것을 永同衙前이라 부른다. 또한 慶山郡 田童의 신이라고 전해지만, 보통은 제주도의 燃燈할머니(또는 迎	燃燈 할머니 靈登老 靈童老 嶺東老

서 祝詞를 외면서 祭祀를 지내는 것이다. 한편 또 祭場에 黃土의 小壇을 만들고 그 中央에 대막대를 세워 대나무의 끝을 쟁어 벌려서 그 위에 바가지에 뜯淨華水를 얹고 또 풋보리(穗麥)를 한줌 쯤 밭에서 과와 가지고 이것을 黃土의 壇에 심거나 또 書童들은 대나무 끝에 白紙를 매달았다가 祭後 이것을 거두어 쓰기도 한다. 그렇게 하면 麥作이 좋아지고 書童은 글씨가 좋아진다고 한다.(孫晉泰, 『孫晉泰先生全集』6권, 태학사, 1981, 342~344쪽.)

<p>燈 할머니)에 대한 영등할머니(靈燈老, 또는 靈童老 嶺東老, 嶺登老)이다. 소위 영등바람(靈燈風)은 무서운 여신이라고 하는 것이 원형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 여신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딸을 데리고 오는 해는 바람이 많이 불고,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해는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여 바람영등·비영등이라는 속칭도 있다. 그러나 이 섬에서는 三神이 함께 내려오고 승천할 때는 각각 다른 달 올라간다고 생각한다.</p>	<p>嶺登老 영등바람 (靈燈風)</p>
---	-------------------------------

今村鞆이 영동지역의 지방귀신이라는 뜻에서 嶺東神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 외에는 기존의 역사문헌 자료에 이미 기록한 바 있는 한자식 표현이 혼용되고 있다. 村山智順은 영등할머니를 疾病神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기록은 이후에는 거의 찾아지지 않는다. 秋葉隆은 燃燈, 靈燈, 靈童, 嶺東, 嶺登의 명칭에 老를 併記하여 영등에 할머니의 의미를 추가하였다.

일제 강점기 자료들에서는 ‘이월할머니’·‘제석할머니’·‘손님’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영등할머니’ 혹은 ‘영동할머니’라는 호칭이 대부분이다. 당시에는 민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호칭을 선택적으로 기록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근·현대 신문 자료에서도 영등할머니에 대한 기사를 종종 찾을 수 있다. 그 중 한 기사는 2월 초하루에 풍신제를 지내다가 가옥을 태운 일을 기록하고 있다.<sup>29)</sup> 지면에 한계로 풍신제에 대한 집중적인 언급은 없지만 신령을 風神으로 부르는 점과 신령에 대한 의례가 경상도에 우세하게 나타나는 점은 특기 할 만하다. 지역의 풍속을 소개하는 기사<sup>30)</sup>, 방화(放火) 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사<sup>31)</sup>

- 29) 그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風神祭 中에 住宅을 全燒 : 경남산청군 신동면단계리 정채구의 집에서는 지난 음력 2월 초하루 재래의 풍습에 의하여 바람제를 지낼 때 燒紙를 올리다가 그 불이 집에 붙었으며 때에 풍세가 심하여 큰 소동을 일으켰으나 민활한(민첩한) 소방대의 활동으로 다른 염려는 없이 세간 등은 구해 내고 곧 진화하였다더라.”(「단성」, 『동아일보』, 1929. 3. 16 기사 참조.)
- 30) 기장 지역의 사례를 다룬 기사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람 올리기 - 機張 : 지역에 따라 형식을 달리한 풍속관습이야 한두 가지 뿐 이겠습니까마는 이 ‘바람 올리기’란 風俗은 嶺南, 그 中에서도 특히 우리 고을 一帶를 中心으로 하고 流行되는 것인가 합니다. 전하는 말을 들으면 天上에 所謂 ‘嶺東할머니’라는 늙은이가 있는데 每年 二月初旬(陰曆)이 되면 人間事會를 視察하기 為하여 地上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현데 늙은이가 내려올 때는 딸이나

에서도 풍신에 대한 내용이 나타난다.

이상으로 민속자료 상에 나타난 신령의 호칭을 살펴보았다. 여러 호칭 가운데 영등·이월·풍신·제석·손님이 가장 많이 찾아진다. 이들 호칭은 경우에 따라서 ‘이월영등’·‘이월풍신’·‘바람제석’·‘이월손님’처럼 두세 개 명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2월의 바람신을 상징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각각의 호칭은 신령의 여러 모습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 수단이기도 하다. 풍신·손님·바람이 대기 현상인 바람의 특성을 대별하거나 그 자체를 표현한 것이라면, 이월은 시간성에 역점을 둔 호칭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 2) 역사문헌 자료상의 호칭

역사문헌 자료상의 영등할머니와 관련된 호칭은 조선시대에만 제한적으로 찾아진다. 먼저 이능화가 정리한 『朝鮮巫俗考(1927)』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빠져 있는 조선 후기의 개인 문집인 『樊巖集』(채재공, 1824), 『歲時風謠』(유만공, 1793~1869), 『鶴城誌』의 내용을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영등할머니 신앙에 대한 관심은 일제강점기의 이능화·宋錫夏·孫晉泰와 같은 한국인 연구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이능화는 자신의 논저인 『朝鮮巫俗考』에서 영등할머니 신앙과 관련 있는 역사문헌 자료를 최초로 정리하였다.<sup>32)</sup> 이를 참고하여 영등할머니 신앙과 관련이 있는 조선시대 문헌 자료를

---

며느리 중 한 사람씩을 태리고 오는데 마침 떨을 태리고 올 때 면 關係치 않으나 며느리와 같이 올 때면 턱없이 심술을 부려서 그 까닭으로 지상에 바람이 몹시 분다고 하며 이 바람을 嶺東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嶺東風의 災害를 免하려면 嶺東할머니에게 고사를 절해야 한다고 하며 그 까닭으로 집집마다 이때가 되면 밥과 갖은 菜蔬를 갖추어서 祈禱를 올립니다. 이것이 이른바 ‘바람올리기’인데 勿論일종의 迷信에 불과하는 것이려니와 現今 우리 社會의 姻婦관계의 일면을 이 전설에서까지 볼 수 있는가 합니다.”(「내 고장의 풍속·관습」, 『동아일보』, 1927 기사 참조.)

31) “風神의 使嗾로 할 수 없이 放火, 放火少女의 詭辯(新義州) : ‘바람귀신’이 불 놓으라기에 불을 놓았다는 17세소녀, 3일 오후 7시 반경 평북 박천군 덕안면 이봉동 차궁준의 집에서 불이 일어나 이를 진소하고 인접한 차영삼의 집을 연소하였는데 (손해도합 10원) 경찰이 발화 원인을 조사 중 의외로 이는 차명화라는 소녀가 성냥으로 차궁준의 청간에 불 놓은 사실이 발각되어 소녀를 검거 취조 한 바 ”바람귀신이 불을 노호라기에 할 수 없이 불을 놓았소.”하고 기괴한 대답을 하여 경찰도 ‘도깨비’에 홀린 듯이 머리를 모로 흔들었다고 한다.”(『동아일보』, 1936년 3월 9일 기사 참조.)

32) 이능화, 「嶺湖지방 일대의 靈童神」, 『조선무속고』, 동문선, 2002(1927), 284~287쪽.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출처 및 시대	지은 이	내 용	특징
一	『新增東國輿地勝覽』全羅道濟州牧風俗 (1530)		<p>二月朔日 於歸德金寧等地 立竿十二 迎神祭之 居涯月者 得槎形如馬頭者 飾以彩帛 作躍馬戲以娛神 至望日乃罷 謂之然燈 是月禁乘船.</p> <p>(2월 초하루에 귀덕 금녕 등지에서는 장대 12개를 세워 신을 맞이하여 제사지낸다. 애월에 사는 사람들은 흐 모양을 말머리와 같이 만들어 비단으로 꾸미고 악마회를 해서 신을 즐겁게 한다. 보름이 되어 끝내니 이를 연등이라 한다. 이달에는 승선을 금한다.)</p>	<p>지역 : 제주도</p> <p>명칭 : 然燈</p>
二	『石北集』卷之七(1764)	申光洙	<p>登城(濟州俗以二月謂迎燈月. 朝天館 在州城東北)</p> <p>石城東北是朝天 春色春風渺可憐. (석성 동북쪽이 조천인가 본데, 봄바람이 아지랑이 가련도 하다.)</p> <p>孤島似萍浮積水 遠帆如樹入蒼烟. (외로운 섬은 푸른 바다 부평초 같고, 뜻단배 가물가물 안개 속에 아득하네)</p> <p>今朝已盡迎燈月. 故國先歸御史船. (오늘 아침 영등월은 이미 끝났고, 고국의 어사선도 돌아갔는데)</p> <p>漫作飄零南斗客. 白頭慚愧漢犧仙. (부질없이 떠돌며 남斗客을 읊으니 한라산의 흰머리 신선이 부끄러워라.)</p>	<p>지역 : 제주도</p> <p>명칭 : 迎燈</p>
三	『正祖實錄』九年(1785) 4月 9日	柳河源의 상소문	<p>嶺南靈童之說，亦甚虛謬。自五十年前，始於沿海一邑，至尙·善等州，家奉戶祠，自二月至于月終，廢農務，謝人客，妖邪妄誕，甚於巫覡。亦令道臣，曉諭禁斷。</p> <p>(영남의 영동설은 50년 전 연해 일읍에</p>	<p>지역 : 영남</p> <p>명칭 : 瞞性童</p>

			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상주 선산 일대에 퍼져 집집마다 영동신 을 신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요사망탄한 풍속이 유행하고 있으니 마땅히 도신으로 하여금 백 성들을 효유하여 근절시켜야 합니다.)	
己	『東國歲時記』 (1840년 전후)	洪錫謨	<p>嶺南俗家家祭神名曰靈登神 降于巫 出遊 村閭人爭迎之而樂之 自是月朔日忌人物不接之至十五日或二十日</p> <p>(영남 풍속에 집집마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신을 영등신이라 한다. 무당은 신이 내렸다고 하며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다투어가며 불러들여 즐겁게 해준다. 이달 초하루부터 사람을 꺼려 만나지 않는데 그것이 보름 혹은 스무날 까지 지속된다.)</p>	<p>지역 : 영남 명칭 : 瞞登神</p>
口	『東寰錄』 「方言」 (1859)	尹廷琦	<p>嶺登神 嶺南二月祀風神之稱</p>	<p>지역 : 영남 명칭 : 嶺登</p>

柳河源 · 申光洙 · 洪錫謨 · 尹廷琦은 모두 당대 유학자들이다. 그들은 사물과 현상을 언문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에 합당한 한자로 바꾸어서 기록 하고 있다. 위 사료에서 제시한 然燈 · 靈童 · 迎燈 · 靈登 · 嶺登은 한자로 표기된 ‘영등’과 음이 같거나 유사한 명칭이다.

역사문헌 자료에 기록된 지역은 제주도와 육지의 영남 크게 두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己, 口이 영남의 자료이고, ㄱ과 ㄷ은 제주도 자료이다. 두 지역에서 ‘등’자를 표기하는 방식이 눈에 띄게 다른데, 己과 口에서는 ‘登’으로 ㄱ과 ㄷ에서는 ‘燈’으로 표기가 되어있다. 오늘날 한반도 내륙과 제주도의 영등 할머니 신앙의 형태가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두 지역 모두 신령의 명칭을 ‘영등’이라고 하고 2월에 의례를 거행하는 공통점이 찾아지므로 신앙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sup>33)</sup>

33) 宋錫夏는 제주도의 然燈도 영동(風神) 신앙의 一形態로 볼 것을 주장하였다.(宋錫夏, 「風神

ㄷ, ㄹ, ㅁ에서처럼 영등할머니 신앙이 한반도 내륙의 영남 지역의 풍속으로 기록된 점은 현행 민속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영남은 오늘날에도 영등할머니 신앙의 중심지로 볼 수 있을 만큼 이에 대한 인식이 보편적인 지역이기 때문이다. ㄷ의 유하원의 상소문에서는 嶺南의 靈童과 관련한 이야기가 심히 허황되므로 백성들이 이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약 50년 전부터 바닷가 마을에서 비롯된 풍속이 상주·선산 등지로 퍼져나간다는 기록으로 영남 지역에서도 해안가를 중심으로 비롯된 풍속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를 믿는 집에서는 2월 한 달 동안 농사를 폐지하고 사람과 손님을 드나들지 못하게 하였으며, 요사스럽고 황당하기가 巫覡보다 심하다고 하여 대단히 정성껏 위했음을 알 수 있다.

ㄷ에는 ‘家奉戶祠’라고 하여 각 가정에서 ‘靈童’께 제사를 지낸다는 기록이 있다. 靈童을 직역하면 ‘신령스러운 아이’로 이를 통해서는 오늘날의 할머니로 불리어지는 영등을 연상 할 수 없다. 다만 집집마다 2월 한 달 동안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고, 정성껏 신령을 맞으려는 노력은 오늘날의 영등제를 연상케 한다.

홍석모의 『東國歲時記』 2월 기사에는 ‘靈登神’이라는 명칭이 나타난다. 홍석모는 灵登을 風神이라고 덧붙여 설명하지는 않지만 한자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영등할머니가 연상될 정도로 중요한 기록이다. 신령이 어딘가로 올라간다는 표현에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영등할머니의 개념이 전제되어 있다.

ㅁ의 『東寰錄』 기사는 조선 후기에 영등할머니 신앙이 존재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기사이다. 嶺登神을 영남 지역에서 이월에 제사를 지내는 풍신으로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嶺의 의미는 山脈을 의미할 수도 있고, 嶺南의 앞 머리글자를 차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윤정기는 漢城에서 태어나서 다른 지역과는 인연이 없는 인물이다. 영등신에 관한 이야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 하지 못한 까닭은 외지인으로써의 한계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문헌을 종합해보면 영등은 1년 중 2월에 모셔지는 신령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특히 ㄴ, ㄹ, ㅁ의 자료는 지역이 영남으로 한정되어 있고, 시기적으로 2월에 제사를 지낸다는 점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영등할머니 신앙과 유사하다. 또 영등할머니 신앙이 북부 지역보다는 동남부를 중심으로 분화·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 영등할머니가 신앙 대상이 되었는지 그 起源을 밝히는 일은 대단히 조심스럽고, 한편으로

---

考(附 禾竿考)」, 『진단학보』 1, 1934, 163쪽.)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현재까지 밝혀진 역사문헌 자료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적어도 18세기 중·후반까지 오늘날과 유사한 형태의 영등할머니 신앙이 존재했을 가능성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신령의 존재는 이전 시기까지 소급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역사문헌에는 영등할머니 신앙의 구체적인 의례 절차나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늘날과 어떤 점에서 일치하고, 차이가 나는지 밝힐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 밖에 영등의 호칭과 관련이 있는 역사문헌 자료로는 『樊巖集』(蔡濟恭, 1824)과 『歲時風謠』(유만공, 1793~1869), 『鶴城誌』를 들 수 있다. 먼저 『樊巖集』에는 영등이라는 신령의 명칭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風神歌’라는 제목 하에 제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sup>34)</sup> 풍신가는 채제공이 살았던 시기(1720~1799)에 영남 지역의 풍속으로 풍신에 대한 별도의 제사가 행해 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sup>35)</sup> 당시에도 시의 제목에서처럼 영남에서는 風神이라 불리는 신령께 2월에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황토를 피는 모습을 통해 신령을 대단히 정성껏 맞이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

34) 風神歌

新婦作餅兒買肉 翁婆再拜神前伏.

(新婦는 떡 만들고 아이들은 고기 사오며 翁婆는 再拜하고 신 앞에 엎드렸네.)

神來但歛莫謂貧 昨日分糶儂亦得

(신이 와서 흠향하는데 가난하다 말하지 말라. 지난달 분조를 자네 또한 얻었겠지.)

黃土灑庭鼓鑿繫 村家有願誠不侈

(황토 깔고 뜰 쓸고 북소리 울리며, 村家에서도 이를 원해 정성을 다하네.)

宅中牛羊迭生雛 分與衆子爲生理

(소와 양은 즐비하게 새끼를 낳아 자손에게 나눠주며 生理를 삼네.)

東陂種禾多鳥雀 願神驅去滋我穡

(동파에 심은 곡식 새들이 모여드니 신이여, 새들을 몰아 우리 곡식 도와주오.)

秋成及時入官倉 令我肌膚免楚箋

(가을에 추수하여 관창에 들여 놓으니 굶주리지 않기 위해 미리 비축하는구나.)

生孫二歲或三歲 犹恐名入簽丁裏

(두세 살 손자들에게 침정에 기명될까 두렵네.)

神乎佑我一家人 明年二月復迎神

(신이여 우리 일가를 도우소서. 명년 2월에 또다시 정성껏 맞으리다.)

(이능화, 『朝鮮巫俗考』, 동문선, 2002(1927), 286~287쪽 재인용.)

35) 이는 1973년 채제공의 부친이 경상도 단성 현감으로 부임할 당시 그가 따라가서 1746년까지 지내는 동안 부근의 勝景과 山陰, 海印寺 등을 유람하며 지은 시이다.

『歲時風謠』에는 ‘旱魔潮減’이라는 명칭이 나타난다.<sup>36)</sup> 이를 와전하여 ‘老嫗潮減’이라고 표현하며, 2월 스무날의 날씨와 관련하여 생각하고 있다. ‘老嫗’은 할머니를 이르는 것이기에 의인화된 영등할머니의 한자화 된 표현으로 파악된다.

『鶴城誌』에는 풍신인 영등을 ‘盈騰帝釋’으로 기록하고 있다.<sup>37)</sup> 풍신께 제사를 지내는 2월 초하루에는 목욕재계를 하고, 외부인의 왕래를 철저하게 금하는 모습으로 신령에 대한 지극한 정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역사문헌을 종합해보면 然燈, 靈童, 迎燈, 靈登, 嶺登, 盈騰帝釋, 風神과 같이 영등의 호칭이 매우 다양하게 기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 지역이 제주도와 영남 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영등할머니 신앙이 발생한 지역이 제주도인지 아니면 영남 지역인지는 현재로써는 분명하게 밝힐 수가 없다. 그러나 육지에서는 영등에 대한 기사가 영남 지역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점으로 미루어 당시에 이들 지역이 영등할머니 신앙의 중심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오늘날 영등할머니 신앙이 우세한 지역 역시 육지의 영남과 제주도 지역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민속자료 및 역사문헌의 신령의 호칭을 종합해 보면, 영등할머니는 매년 2월에 찾아오는 바람신으로 오랜 기간 지상에 머무르지 않고, 하늘로 되돌아가는 신령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녀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인간 사회를 살피는데 있다. 『鶴城誌』나 근·현대 신문자료 상의 내용을 참고하면 영등할머니는 인간사를 하나하나 돌보는 신령으로 묘사된다.

36) 稱旱魔潮 (二月 二十日)

稱旱魔潮減 而訛傳老嫗潮減(한마조감이라고 하는데 와전되어 할매조감이라고 한다.)

頻頻春雨喜農家(자주 오는 봄비 농사를 즐겁게 하나)

瀾手將如婦子何(손 커지는 며느리 장차 어떻게 하나)

不怕旱魔潮減日(한마조감 날 두려워할 것 없으니)

烏雲天際似鳶過(하늘가에 검은 구름 솔개같이 지나가네)

(국립민속박물관, 『조선대시세시기Ⅱ』, 2005. 80쪽에 소개된 유만공의 「歲時風謠」 참조.)

37) 『鶴城誌』는 울산의 읍지로 영조11년(1735)에 권상일(1679~1759)이 부사로 부임하면서 편찬한 사찬읍지이다. 이에 ‘盈騰神 春陽發散之氣也 易名曰風神(俗謂盈騰帝釋) 以二月初一日(同風下降伺察 人間禍福故) 人家齋戒沐浴 又切禁商旅使不止宿(영등신은 봄의 양기를 발산하는 신령으로 쉽게 바꾸어 말하면 풍신이고, 속칭 영등제석이라 한다. 이월 초하루에는 영등신이 인간세계를 사찰하기 위해 내려오기 때문에 집에서는 목욕재계를 하고 또한 상인을 금하며 외부인을 집에서 재우지 않는다.)’라는 기록이 있다(황경숙, 「부산지방의 영동 할미제」, 『부산의 민속문화』, 세종출판사, 2003, 재인용.)

역사문헌 자료상에는 영등할머니가 然燈, 靈童, 迎燈, 靈登, 嶺登, 盈騰帝釋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 민속 상에서도 ‘영등할머니’라는 호칭이 가장 보편적으로 찾아진다. 이를 종합하면 ‘영등할머니’는 민간에서 전승되어 온 風神의 고유한 호칭임을 알 수 있다. 신령의 호칭을 ‘영등’이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할머니’라는 수식어를 붙이는데 이는 오랜 시간 민간에서 굳어진 신령의 이미지 때문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참고하여 ‘영등할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 III. 영등할머니의 성격(性格)

영등할머니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한 신령이다.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신령은 비단 영등할머니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월 열엿샛날의 야광귀(夜光鬼)를 비롯하여,<sup>38)</sup> 칠석날 뒤란에서 아이들의 수명장수를 위하여 모시는 칠성(七星)도 있다. 그렇지만 영등할머니는 바람을 관장하는 신령으로 이들과 전혀 다른 성격의 신령이다.

영등할머니는 대단히 욕심이 많고, 까다로워서 식구들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신령이다. 또한 지상으로 하강을 할 때에 딸과 며느리를 동반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녀가 남편과 아들·딸을 둔 가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영등할머니께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집안의 安過太平 및 豊年·豐漁를 간절히 비손한다. 영등할머니는 바람을 조절하여 농·어업의 성공을 관장하는 중요한 신령이다.

2월은 추위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매우 이른 봄이다. 한편으로 수시로 찾아오는 꽃샘추위로 인하여 한겨울보다 더 춥게 느껴지는 때이기도 하다. 영등할머니의 성격에는 이러한 환절기의 불안정한 일기상황이 투영 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영등할머니의 성격을 정기적으로 내방하는 풍신, 영험과 욕심의 할머니, 딸과 며느리를 동반하는 할머니, 집안의 안과태평 및 농·어업을 돌보는 할머니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각각의 성격은 상호 관련성을 맺고 있다.

#### 1) 정기적으로 내방하는 풍신(風神)

영등할머니는 매년 2월 초하루에 하늘로부터 내려와 각 가정을 내방한다. 그 시기가 정월 선달 그믐날 밤에서 2월 초하루 새벽으로 고정된 편이고, 하

38) 야광귀는 한 밤중에 사람들의 신발을 몰래 가져가는 귀신으로 신발 귀신·털귀 귀신·고마이·톳재비라고 부른다. 지역에 따라서 ‘할멈’·‘할미’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마구할멈’·‘야귀할멈’·‘마고할미’라고 부르기도 한다. 야광귀는 주로 음력 정월 열나흗날, 보름, 열엿샛날 밤에 지상에 내려온다. 야광귀가 신발을 가져가 버리면 일 년 내내 운수가 사납고, 잔병치레가 심하며 그 해를 넘기지 못하는 수도 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음력 정월 열엿샛날을 ‘귀신날’로 여긴다. 이날은 귀신이 인간세상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해를 준다. 그러므로 매사에 조심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국립문화재연구소, 『총괄편 세시풍속』, 2006, 46~47쪽.)

늘로 되돌아갈 때에도 그 달[月]을 넘기지 않는다.

집은 인간이 거주하는 삶의 터전임과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들이 임재한 공간이기도 하다. 가정의 안과태평에 관여하는 신령은 비단 ‘집 안의 신령’만이 아니다. ‘집 바깥의 거리신 · 용왕신 · 서낭신’ 그리고 ‘객귀(客鬼)’도 이와 관련이 있다.<sup>39)</sup> 가내 여러 신령의 加護 속에서 식구들은 보다 평안한 삶을 보장받는다.

영등할머니는 집 밖에 존재하는 신령이다. 그녀는 터주 · 칠성 · 조왕처럼 영구적(永久的)으로 집안에 좌정(坐定)한 신령이 아니다.<sup>40)</sup> 그렇다고 삼신이나 성주처럼 특정한 이유를 빌미로 집을 떠나는 신령도 아니다. 집 밖의 신령인 거리 · 서낭 · 용왕과도 구분이 된다. 이들 신령은 인간의 정주 공간에서 대단히 가까운 곳에 상시(常時)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영등할머니는 집 밖의 신령임에는 분명하나 이들처럼 가까운 곳에 있는 신령이 아니다.

2월은 차가운 기운이 남은 시기라 하여 여한(餘寒) 혹은 잔한(殘寒)이라고 한다. 이러한 때에 찾아온 추위를 ‘꽃샘추위’라 한다. 이는 북서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의한 자연현상이다.<sup>41)</sup> 봄을 맞을 준비를 하는 시기에 겨울의 찬바람은 더욱 매섭게 느껴진다. 2월의 강한 바람은 다음의 詩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① 꽃샘바람 (이규보(1168~1241), 『東國李相國集』 14권 古律詩)

花時多顧風(꽃 필 땐 미친바람도 많으니)/人道是妬花(사람들 이것을 꽃샘바람이라 했다)

天工放紅紫(조물주가 모든 꽃을 만들 제)/如剪綺與羅(마치 한없는 비단을 가위질해 놓은 듯)

39) 기준에는 집안을 관掌하는 여러 신령들과 의해를 가택신앙, 가정신앙, 가족신앙, 가신신앙 등으로 학자마다 다양하게 표현을 하였다. 최근의 연구 동향(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가정신앙』, 2006.)을 살펴보면 여러 명칭 가운데 ‘가정신앙’이라는 용어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 안팎에 모셔지는 家神과 客鬼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 가정신앙이라는 표현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이필영, 「가정신앙과 제물」, 『역사민속학』 24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40) 좌정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음을 높여서 표현한 것이다. 좌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자리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여러 가신 가운데 터주는 지신 · 당산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집안의 장독 부근에 좌정하는 신령으로 여긴다. 신령을 인간처럼 혹은 인간과 대단히 친근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41) 기후학적으로는 수년 동안 발생하는 특이한 기상상태를 특이일(特異日)이라고 한다. 꽃샘 추위는 시베리아 고기압 및 지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서쪽은 2월 하순에 꽃샘추위가 발생하여 4월 상순에 없어지는데, 동쪽은 그보다 늦게 4월 상순에 꽃샘추위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권영아 외, 「꽃샘추위의 발생 분포와 변화경향」, 『대한지리학회지』 40. 2005, 293~294쪽.)

既自費功力(이미 그토록 공력을 허비했으니)/愛惜固應多(꽃 아끼는 마음 응당 적지 않으면만)  
 豈反妬其艷(어찌 그 고운 것을 시기하여)/而遭顛風加(도리어 미친바람 보냈는가)  
 風若矯天令(바람이 만일 하늘을 어긴다면)/天豈不罪耶(하늘이 어찌 죄주지 않으랴)  
 此理必不爾(이런 이치 반드시 없을 것이니)/我道人言訛(나는 사람들 말이 잘못이라 한다네)  
 鼓舞風所職(바람의 직책은 만물을 고무하는 것)/彼物無耗阿(만물에 입하는 공덕 후박이 없는 걸세)  
 惜花若停簸(만일 꽃 아껴 불지 않는다면)/其奈生長何(그 꽃 영원히 생장할 수 있으랴)  
 花開雖可賞(꽃 피는 것도 좋지만)/花落亦何嗟(꽃 지는 것 또한 슬퍼할 게 뭐랴)  
 開落撫自然(피고 지는 것 모두가 자연인데)/有實必代華(열매가 있으면 또 꽃을 낳는 것아야)…

② 이월설(二月雪)(이규보, 『東國李相國集』 16권, 古律詩)

二月融怡氣欲舒(이월 날씨 포근한 기운 펴려는데)  
 連霄放雪意何如(하늘 가득히 눈 내리니 무슨 뜻이뇨)  
 狂風應散春工手(광풍이 아마 봄 솜씨를 흘으려)  
 無限梅花剪出餘(끝없이 매화를 가위질하는가 보다)

③ 감춘(感春) (신흠(1566~1628), 『象村先生集』 七言古詩)

催花雨妬花風(꽃 재촉하는 비 오고 꽃샘바람 또 부니)  
 纔到開時已敎落(꽃 필 때 되자마자 이미 꽃 떨어지게 하네)  
 誰言風雨總無情(비바람이 모두 무정하다 누가 말했는고)…

위의 시에서는 봄이 올 무렵에 찾아오는 바람을 광풍(狂風)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②의 시에서는 이러한 바람이 부는 시기가 정확하게 2월로 나타난다. 갑작스런 추위로 펴야 할 꽃을 지게 만드는 바람이기에 꽃을 질투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모른다. ③에서는 이 바람을 꽃을 질투 한다는 의미로 ‘투화풍(妬花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①의 시에서는 2월의 바람은 조물주가 만들어낸 자연의 조화로 식물의 생장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지적하고 있다. 꽃이 져야만 그 자리에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은 만고의 진리이다. 낙화한 자리에 어김없이 열매가 맺혀 있는 걸 보면 바람은 별·나비가 일일이 다 하기엔 역부족인 가루받이를 도와줬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고도 한두 차례 봄추위와 강풍이 지나고 나면 달렸던 열매들이 대폭 솟아져 실하게 자랄 것들만 남는다.<sup>42)</sup> 변덕이 심한 2월의 일기는 자연의 질서 안에서 바라보면 결실을 위한 신의 축복인 셈이다.

영등할머니는 꽃이 피는 것을 시기하여 ‘꽃샘추위’를 몰고오는 신령이다. 이

42) 박완서, 『호미』, 열림원, 2007, 20쪽.

무렵의 날씨는 햅볕은 따뜻해지지만 심한 바람으로 더 춥게 느껴지는 시기이다. 실제로 꽃샘추위가 시작될 무렵은 굉장히 춥다. “꽃샘추위에 설늙은이 얼어 죽는다.” 또는 “삼월 바바람이 겨울 눈바람을 쫓는다.”와 같은 속담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전설에 의하면 2월 초하루를 ‘영등할미가 얼어 죽은 날’이라고도 한다.<sup>43)</sup>

영등할머니의 고향은 하늘이다. 이는 2월의 바람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과학적으로 바람은 기압차에 의해 발생한 공기의 빠른 움직임이므로 다른 사물을 통해서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속성이 있다.<sup>44)</sup> 또한 사방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시작된 곳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2월에 부는 바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민간사고의 일면을 보여준다.

역사문헌자료에 나타나는 灵登 혹은 嶺登이라는 신령의 호칭에는 신령이 어딘가로 올라간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신령이 머무는 곳이 지상보다는 높은 곳임을 시사한다. 다음은 이와 같은 영등할머니의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① 영도는 하늘나라에서 8선녀를 키워주는 할머니 신으로 지상으로 내려와 사람들에게 명을 주고, 복을 주는 풍농, 풍어를 기원하는 신이다.<sup>45)</sup>

② 이월영동할머니는 스무날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어디에도 영동할매를 찾을 수 없다. 만약 스무날 이후 식구가 영동이 틀어져서 병이 났다면 뼙을 해서보리밭으로 나간다. 스무날이 지나면 영등할매가 이미 하늘로 올라갔으므로 집안에서는 더 이상 빌 데가 없어서 보리밭으로 나가는 것이다.<sup>46)</sup>

2월 초하루는 속칭 ‘영등 할머니 내려 오는 날(영등날, 영등할매날, 영등할매내려오는 날)’·‘바람 올리는 날(바람님 오는 날)’·‘풍신날’·‘이월밥 먹는날’이라고 한다. 바람은 항상 이동하는 속성을 지닌다. 풍신의 성격을 지닌 영등할머니 역시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지역에 따라서 하늘로 다시 되돌아가는 시간은 일정하지가 않다. 이르면 초사흘날 저녁에 올라가기도 하

43)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속의 세계』 5, 2001, 112쪽.

44) 바람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대기 현상의 일종이다. 그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다른 대상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로 인하여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바람’이라는 표현은 청각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서정범, 『國語語源辭典』, 2000.)

45) 국립문화재연구소, 「울진군」, 『한국의 가정신앙 : 경남』, 2007, 633쪽.

46) 국립문화재연구소, 「장수군」, 『전라북도 세시풍속』, 2003, 526~527쪽.

고, 늦으면 2월 한 달 내 머물러 있다가 그믐에 올라간다고 믿는 지역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보름이나 스무날에 상천한다.

②의 사례를 보면 영등할머니가 며난 이후에는 집 안에서 더 이상 신령을 모시지 않고, 보리밭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영등할머니가 상천한 이후에는 집안 어디에도 그를 위한 공간이 없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2월이 지나면 부엌은 조왕만이 임재하여 관장하는 공간으로 되돌아간다.

어떤 자신을 위할 때보다 정성을 기울이는 까닭은 때를 놓치면 일 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성주·터주·조왕과 같은 자신은 늘 집안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좋은 날을 택하여 위하면 되지만 영등할머니는 그럴 수가 없다. 영등할머니가 평소에 머무는 곳은 하늘이고, 2월이 되어야만 바람을 몰고 가정에 찾아오기 때문이다.

## 2) 영험과 욕심의 할머니

영등은 ‘영등할머니’로 불리는 바람신이다. 신령의 호칭 뒤에는 ‘할머니’라는 수식어가 반드시 붙는다.

여러 자신 중 ‘할머니’로 불리어지는 대표적인 신령으로는 삼신, 칠성, 조왕을 들 수 있다. 할머니는 나이가 지긋한 노인으로 외모만 보더라도 젊은 사람들과는 대비가 된다. 할머니의 모습을 그럼으로 표현한다면 제일 먼저 이마와 눈가의 주름을 빼놓을 수가 없고, 인자하게 웃는 모습이 연상 된다. 이처럼 한국인의 정서에는 친근하고, 온유한 할머니의 모습이 남아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에 비해 가깝게 느껴지는 이유는 모성애 때문이다. 자식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은 어머니가 아니면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다.<sup>47)</sup>

한 가정에서 노인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노인의 풍부한 경험은 젊은이들에게 삶의 지혜가 된다.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적절한 힘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인들은 당당하고, 강요하지 않고도 공경을 받으며, 노인이 계신 가정이 안 계신 가정에 비해 품위 있어 보이기까

47) 여류작가 쟈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일제 강점기에 학병에 끌려갔다. 그의 할머니는 아들이 학병에 끌려간 이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한수를 떠놓고 빙 분이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추운 겨울이면 개울에 나가 얼음을 깨고 그 속에 발을 담그고 계셨다. “우리 아들 있는 테가 이만큼 추울까.”하시며 고통을 함께 견디시려 한 분이었다고 한다.(송정숙, 「할머니의 향기」, 『한국논단』 173집, 2004. 139~140쪽.)

지 하다. 한집안에 노인이 계시다는 건 참으로 큰 福이다.<sup>48)</sup>

나이가 많아지면서 인간은 조금씩 죽음을 생각하고, 본능적으로 그에 가까워짐을 느낀다.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인간의 삶을 순차적으로 배열한다면 태어나기 전과 死後의 세계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이는 신의 영역에 보다 가깝다. 인간의 일생에서 신의 영역에 가장 가까운 시기는갓 태어났을 때와 죽음을 앞둔 노년기이다. 나이를 먹는 것은 신의 영역에 한 발짝 다가가는 것과 같다.

역사적으로 노구(老嫗)와 관련한 기사를 통해서도 노인이 神의 영역에 가까운 존재임을 확인 할 수가 있다. 『三國史記』와 『三國遺事』 기록의 老嫗는 단순히 나이 많은 늙은이가 아니라 神人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sup>49)</sup> 바람신인 영등을 ‘할머니’로 부르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 예나지금이나 노인의 지혜롭고 겸손한 모습은 존경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영등할머니는 식구들이 조금만 소홀하게 대접을 해도 쉽게 빼치는 매우 까다로운 신령이다. 성격이 까다롭고, 잘 빼치는 사람을 일러 “영동할매 빼치듯 한다.”라고 비꼬아 이야기 하는 것만 보더라도 너그러운 성품은 아닌 듯하다.<sup>50)</sup> 그런 면에서 인정 많고, 푸근한 시골 노인의 이미지를 느낄 수 없다.

또한 욕심도 대단히 많은 신령이다. 대표적인 예로 영등할머니가 지상에 머물러 있는 2월 한 달 동안에는 어떠한 신령에게도 제사를 지낼 수가 없다. 심지어 삼년상이 끝나지 않아서 집안에 궤연(几筵)이 있는 경우에도 문을 닫고 상식을 올리지 않는다.<sup>51)</sup> 마을의 공동 제사 역시 영등할머니를 모시는 기간에는 피한다. 식구들은 오직 영등할머니께만 정성을 다해야 한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정성을 시험하는 신령처럼 느껴진다. 때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정성이

48) 박완서,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 헛빛출판사, 1990, 47쪽, 지혜는 자아통합과 성숙, 판단과 대인관계 기술, 인생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같은 긍정적 자질을 포함하기 때문에 성공적 인간발달의 핵심이다. 지혜는 삶의 경험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빌달에 시간이 걸려서 노년기와 관련된다는 주장이 있다. 지혜의 핵심은 연령과 관련이 없을 수 있으나 ‘지혜의 질’이나 ‘지혜의 깊이’는 연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이수립·조성호, 「나이듦과 지혜 : 성공적 노화의 통합적 개념화」,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13, 한국심리학회, 2007, 70쪽 재인용.)

49) 최광식, 「三國史記 所載 老嫗의 性格」, 『史叢』 25, 역사학연구회, 1981, 15쪽.

50) 마음이 비틀어져 토라진 상태를 ‘빼치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대상이 여자일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한다. 아주 작은 일로 인간적인 서운함이 앞서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단고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다.

51) 옥천군 청산면 예곡리에서는 이월 할머니가 대단히 무서운 신령이므로 위하는 동안은 집안에 모신 신주 단지도 덮어 놓을 정도이다.(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가정신앙 : 충북』, 2006, 180쪽.)

부족하면 곧바로 서운해 하고, 그 기운이 지나쳐 怒氣를 띠기조차 한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일체의 부족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한다.

노인의 보편적인 성품을 이야기할 때에 “나이가 들수록 아이가 된다.”라고 한다. 이는 사소한 일에 쉽게 감동하고, 한편으로 서운함도 그만큼 빨리 느끼기 때문이다.<sup>52)</sup> 젊은 사람들에 비하면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어린 아이처럼 감정 표현이 솔직해지는 것뿐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자신감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면도 커진다. 영등 할머니의 욕심이 많고, 쉽게 빼치는 성격은 또 다른 인간적인 할머니의 모습이다. 삼신할머니도 주부의 정성이 부족하다 싶으면 빼쳐서 집을 떠나고 심지어 탈을 부린다.<sup>53)</sup>

이러한 영등할머니의 성격 때문에 가정에서는 2월 한 달 동안은 신령을 삶의 중심에 두고, 모든 일을 삼간다. 혼사가 있어도 이 달에는 피하고, 제사를 지내야 한다면 다른 집을 배려하여 곡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조심한다. 뿐만 아니라 초상이 나도弔問을 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가까운 이웃에서 초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예 영등할머니를 모시는 행위를 중단한다. 그 밖에도 이사, 집수리, 땅이나 물건의 賣買 등 모든 일을 삼간다. 이처럼 모든 행위를 조심하는 이유는 부정을 철저하게 가리려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된 것이다.

영등할머니의 욕심이 많고 까다로운 성품은 제물 마련 과정에서도 찾아진다. “제물로 쓸 나락을 새가 쪼아 먹으면 즉사한다.”는 속언은 이러한 신령의 성품을 잘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기 전에는 절대 제물에 먼저 손대는 일이 없다. 심지어 음식의 맛도 보지 않을 정도이다. 아이들에게도 주의를 주어서 음식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한다. 제물을 그릇에 담을 때에도 가능하면 푸짐하게 보이도록 밥은 큰 양푼에 가득 펴놓고, 국이나 나물도 그릇째 올린다.

간혹 영등을 위하지 않거나 정성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집안에 憂患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는 단순히 욕심이 많은 신령이 아니라 불행의 원인이 되는

52) 심리학에서는 나이가 드는 것을 노화(老化, aging)로 표현 한다. 노화란 개인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신체적·사회적·심리적 변화와 기능의 저하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또한 생물학적 측면에서는 신체·생리적인 기능이 절정의 순간을 거친 후 한참 그 효율성을 유지하다가 서서히 감퇴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이수림·조성호, 앞의 글, 67쪽.)

53) 정래진, 『삼신받기 연구』, 한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7, 9~15쪽.

대단히 무서운 신령으로 인식이 된다. ‘이월동터’는 영등할머니를 잘못 모신 것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동토(動土)를 말한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동토 가운데 음력 이월에 발생하는 것을 별도로 분류하고, 이를 가리키는 용어가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만큼 발생빈도가 높고 영등할머니 신앙이 민간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처럼 영험한 신령이 지상에 머무는 동안에는 인간의 행동이 여러모로 제약된다. 예상하지 못한 재앙이 신령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그에 대한 敬畏心은 더욱 커진다.

영등할머니의 영험한 능력은 식구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2월에 집안에 환자가 발생하면 영등할머니께 먼저 약을 올리고 먹게끔 시킨다. 이와 같이 하면 금세 약효를 볼 수가 있다. 또한 남의 집에서 영등할머니께 올린 ‘영등물’을 훔쳐 먹으면 봄을 타지 않고 얼굴에 벼침이 생기지 않는다. 이 또한 영등할머니를 영험한 신령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다.

요컨대 영등할머니가 빼치거나 영험한 능력을 보이는 것은 인간의 정성 여하에 달려있다. 예를들어 자손들은 집안의 어른이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면 손놓고 구경만 하지 않는다. 심기를 불편하게 한 이유를 여쭈고, 노여움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한다. 노인이 자손들로부터 바라는 것은 관심이고, 정성이다. 영등할머니 역시 인간적인 노인의 성품을 지닌 신령이다. 그는 자신을 정성껏 해주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을 구분하고,<sup>54)</sup> 식구들의 정성에 따라서 복을 주기도 하고,害를 입히기도 한다.

그러므로 기왕 영등할머니를 위하는 집에서는 영험하고 욕심 많은 신령의 성격을 이해하고, 더욱 정성을 드린다. 이러한 노력은 남보다 먼저 우물물을 떠다가 제물로 올리거나 모든 절차에 부정이 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 3) 딸과 며느리를 동반하는 할머니

영등할머니는 하강을 할 때에 반드시 딸과 며느리 둘 중 한 사람을 동반한

54) 충북 옥천의 사례로 이월할머니를 위하여 않는 사람이 제물을 먹으면 탈이 난다는 이야기가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식구들만 모여서 제물을 나누어 먹고, 영등할머니를 위하여 않는 가정에는 제물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한남대 역사교육과,『춘계답사 보고서 : 충북 옥천군』, 2001, 99쪽.)

다. 2월 초하룻날의 날씨에 따라서 그 대상이 달라지는데, 날씨가 궂고 비가 오면 며느리를, 화창하고 바람이 불면 딸을 데리고 온다. 비가 오면 으레 며느리가 함께 오는 것으로 여겨 “비 영등이 내렸다”라고 하고, 딸일 경우에는 “바람 영등이 내렸다”라고 표현한다.<sup>55)</sup> 경우에 따라서 함께 오는 대상이 아들, 손자가 될 수도 있으나 보편적이지는 않다.<sup>56)</sup> 또한 가족이 아닌 수부를 대동하기도 한다.<sup>57)</sup>

가내 신령들은 식구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독자적으로 존재한다.<sup>58)</sup> 영등할머니 역시 집 밖의 신령으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신령이다. 다만 이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또 다른 가족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딸과 며느리가 있다는 것은 남편과 아들, 손자도 있음을 의미한다. 며느리와 딸이 부각 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남편과 아들의 모습은 뒤에 가려져있다.

삼신이나 칠성도 할머니 신령으로 불리지만 영등할머니처럼 가족적인 차원의 신령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가족이 있다는 것은 본래의 생활터전이 있음을 의미한다. 영등할머니 역시 가족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본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만약 영등할머니가 남성의 이미지로 표현이 되었다면 며느리와 딸을 동반하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모습은 연상할 수 없다. 父女의 관계는 비교적 친숙하지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영등이 할머니 신

55) 이 風雨神은 남부 지역에서는 연등할머니로 칭해지며, 2월에 燃燈祭 또는 풍신올리기로 칭하는 風祭를 행한다. 이 늙은 여신은 젊은 딸과 며느리를 데리고 있어서 세 여신으로 이루어져있다. 또한 딸을 데리고 있을 때는 바람이 세차고, 며느리와 함께 있을 때는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여 바람연등(風燃燈) 비영등(雨燃燈)이라는 이름도 있다.(秋葉隆 著, 심우성 옮김, 『朝鮮民俗誌』, 동문선 문예신서 25, 1993(1954). 252쪽.)

56) 영등할머니가 아들과 손자를 대동하는 사례는 보편적으로 찾아지지는 않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경남 거창군의 사례로 2월 초하룻날 바람올리기가 끝나면 대문 밖에 제물을 내놓는데, 이는 영등할머니와 아들, 딸, 며느리, 손자 모두를 배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국립문화재연구소, 「거창군」, 『한국의 가정신앙 : 경남』, 2007, 74쪽.)

57) 강원도 삼척시에서는 영등할머니를 위한 이후에 제물을 대문 밖에 내놓는 풍습이 전한다. 이는 그녀를 따라온 수부를 대접하기 위함이다. 수부는 신령을 따라온 하수인을 말한다.(국립문화재연구소, 「삼척시」, 『강원도 세시풍속』, 2001.)

58) 집안의 터주, 칠성, 조왕, 성주, 삼신과 같은 신령들은 서로 긴밀히 협조하면서 하나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는 역할은 거의 하지 않는다. 각 가신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 ‘가정주부와 그녀의 남편인 대주를 비롯한 식구’하고만 관계를 맺는다. 주요 가신들에 따라서는 특정 식구들과 더욱 밀접하고 특수한 관계를 지니기도 한다. 성주와 大主, 삼신과 아기 또는 어린이, 칠성과 자손은 보다 특별한 관계이다.(이필영, 「가정신앙과 제물」, 『역사민속학』 24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395쪽.)

령인 점에서 아들이나 손자보다는 동성의 딸과 며느리를 동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는 성역할이 분명한 전근대사회의 인식을 반영한 부분이다.

영등할머니는 딸과 며느리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다. 곧 신령의 성격을 통하여 전통적인 姉婦 및 母女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영등할머니가 딸과 며느리를 차별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영도할머니가 인간이 그리워 내려오는데, 날씨가 따뜻한 날은 딸을 앞세우고 내려오고, 궂은 날은 며느리를 데려온다. 영도는 심술궂고, 욕심이 많아서, 나무가 없는 곳에는 딸을 보내고, 밥 동냥을 할 때는 며느리를 내보낸다. 농사를 지을 때에도 딸에게는 좋은 종자에 좋은 논을 주고, 며느리에게 줄 종자는 달달 볶고 형편없는 논을 준다. 이후에 천지신명이 내려다보니 딸이 뿌린 씨앗은 짹이 드문드문 나고, 며느리가 뿌린 씨앗은 짹이 소복하게 잘 나 있었다. 삼씨를 뿌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 씨가 자라서 삼베를 째는데 딸은 대충대충 짜고, 며느리는 삼베를 곱게 짰다. 영도할머니가 베를 짜라고 시켰는데, 며느리는 하루에 한 두 필을 째는데 반하여 딸은 온종일 한 두 자도 못 짰다. 딸이 베가 고파서 베를 짜지 못하나 싶어서 영도할머니가 먹을 것을 주었다. 며느리에게는 콩을 볶아서 주고, 이것을 하나씩 주워 먹다가 베를 짜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다. 반면에 딸에게는 얼른 먹고 일을 하라고 찰밥을 해주었다. 그런데 며느리는 베를 한 번 짜고 콩을 한 줌씩 입에 넣고 우물거리며 베를 짰고, 딸은 찰밥을 손으로 주워 먹으니 손에 찰밥이 달라붙어 베를 못 짰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꿔서 주었다. 그랬더니 딸은 콩을 하나하나 주워 먹느라 일을 못하고, 며느리는 손에 물을 묻혀서 찰밥을 한 줌씩 쥐어서 먹고 베를 짰다. 나중에 짠 베를 보니 며느리는 잘 했는데, 딸이 짠 베는 별로 좋지 않았다. 영도할머니가 며느리가 짠 베를 딸에게 한 필 주고 싶었으나, 줄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단골무당의 집에 가서 무당과 입을 맞추고는 며느리가 오면 장롱 안에 베 한 필을 내다버리라고 시켰는데 그 베 한 필을 가져다 딸의 집에 갖다 주었더니 동토가 났다.<sup>59)</sup>

여자는 혼인을 하기 전에는 어느 집에서나 귀한 딸이지만 시집을 가면 出嫁外人으로 완전히 남의 식구로 인식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가까운 듯 보이지만 좀처럼 가까워질 수 없는 불편한 관계에 있다. 비단 시어머니의 성품이 고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시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서먹한 관계로 발전하는 것만도 아니다. 아들에 대한 기대와 애착이 아들과 혼인을 한 며

59) 국립문화재연구소, 「울진군」, 『한국의 가정신앙 : 경북』, 2007, 663쪽.

느리를 곱게 보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며느리의 작은 실수에도 서운한 감정을 느끼고, 어느 순간 그러한 감정이 누적이 되어 시집살이를 시키게 된다.

위의 내용은 딸에게는 항상 너그럽지만 며느리에게는 심술만 부리는 고약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담고 있다. 영등할머니는 딸과 며느리를 차별하는 영락없는 시어머니이다. 시어머니의 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부각 될수록 며느리에 대한 시집살이는 더 크게 느껴진다.

“시어머니 좋아하는 며느리 없다.”라는 속담처럼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자리가 어렵고,<sup>60)</sup> 무서운 존재로 느껴진다. 이와 같은 시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신령의 성격에도 반영되어 ‘심술 맞은 신령’<sup>61)</sup> · ‘시샘이 많은 신령’<sup>62)</sup> · ‘잘 토라지는 신령’<sup>63)</sup>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어떻든 ‘고부간에 화목하지 않으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속담처럼 원만하지 않은 고부관계는 가정 不和의 한 원인이다.

영등할머니가 딸과 며느리를 대동하는 신령으로 인식되는 원인은 오랜 세월 축적된 경험에서 출발한다. 민속 상에서 바람신을 영등할머니로 인격화시켜 표현한 것처럼 비와 바람도 그와 가까운 존재인 딸과 며느리로 표현된 것이다. 그러한 관념 안에는 모녀, 고부간의 인간적인 관계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 
- 60) 불편한 고부 관계를 보여주는 속담은 대단히 많은 편이다. 대표적으로 “고양이 덕은 알아도 며느리 덕은 모른다.(고양이가 쥐를 잡아주는 고마움은 알아도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잘 해주는 것은 모른다는 뜻)”, “시어머니 미워도 똑배기 내붙인다.(시어머니께 한풀이를 그릇에 한다는 뜻)”, “며느리 구박은 아이 엉덩이 보고 한다.(시어머니에게 구박받은 며느리는 분풀이를 아이에게 하므로 아이 엉덩이만 보아도 안다는 뜻)”, “시어머니 드센 집 강아지 꼴이다.(시어머니가 드센 집에서는 며느리가 강아지에게 분풀이를 하여 꼴이 사납게 된다는 뜻)” 등이 있다.(송재선, 『우리말 속담 큰사전』, 서문당, 1983.)
  - 61) 온당하지 않게 고집을 부리는 마음을 ‘심술(心術) 궂다’라고 표현을 한다. 영등할머니의 성품을 심술궂다고 표현한 이유는 가족 내에서姑婦 관계가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온유한 어머니 보다는 대하기 어려운 시어머니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이다. 충북 보은군의 사례로 이월할머니가 오면 심술을 내기 때문에 집안에 나쁜 일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다. 다른 절기에 비해서 아이들이 2월에 손님을 많이 앓는 이유도 이월할머니의 심술 때문이라고 한다.(국립문화재연구소, 「보은군」, 『충청북도 세시풍속』, 2001, 221쪽.)
  - 62) 2월에 무색천을 만지면 영등할머니가 시샘을 하여 눈병이 난다. 무색천은 고운 색의 천으로 이것을 사용하면 영등할머니가 샘이 나서 병을 앓게 된다.(국립문화재연구소, 「진안군」, 『전라북도 세시풍속』, 2003, 607쪽.)
  - 63) 인간관계에서 토라지는 것은 상대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흔히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한동안 말도 하지 않고 있을 때에 ‘토라지다’라는 한다. 영등 할머니 역시 가정에서 정성껏 위해주지 않으면 토라져서 바람을 몰고와 고기잡이를 방해한다.(국립문화재연구소, 「부산 기장군」, 『경상남도 세시풍속』, 2002, 906~907쪽.)

#### 4) 가내의 안과태평과 농·어업을 돌보는 할머니

2월 초하루는 영등할머니가 하강하는 날이다. 주부는 가내의 안과태평 및 농사의 풍년을 위해서 제물을 마련하여 신령을 위한다. 근래에는 이러한 목적 이 변화되어서 농사를 위한 측면보다는 식구들의 건강과 집안의 안과태평으로 축소된 듯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영등할머니 신앙 뿐 아니라 가정신앙 전반에 적용이 된다. 과거 농업사회에서 영등할머니는 농업 및 어업을 관장하는 신령으로 특정한 역할이 있었다.

이는 영등할머니가 하강하는 2월 초하루의 시간성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다. 2월은 농사 준비로 바빠지기 시작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 이는 2월 초하루날을 ‘머슴날·선머슴날·일꾼날·농군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이날 부잣집에서는 일꾼들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특별한 음식 을 준비하여 대접한다. 농사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이월 초하루는 명절이나 다름없다.<sup>64)</sup>

전근대사회에서 농사는 생계 수단이고, 그 자체가 삶이었다. 농부는 온종일 논에 나가 일을 하고, 휴식을 취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수확량을 늘릴 수 있을지 고민했다. 추수가 끝난 이후에는 이듬해 농사를 준비하고, 농번기가 되면 또다시 바쁘게 일을 한다.

그러나 농사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쉽게 이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땅은 모든 생물에게 삶의 원동력이 되는 자양물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이끌 어내기 위해서는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늘의 도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계절과 기후와 강우(降雨) 등 자연현상의 도움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숨은 도움’, 즉 ‘천우신조(天佑神助)’의 도움이다.<sup>65)</sup> 영등할머니 신앙은 자연의 도움을 가정으로 이끄는데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월과 이월에는 한 해 농사의 豊凶을 다양한 방법으로 점쳐보는 풍습이 있다. 凶年이 들어서 생계가 묵연한 경우에는 이듬해 풍년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진다. 이러한 간절함이 歲時風俗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한 해의 시작은 正初지만 자연의 순환을 따르면 봄부터가 시작인 셈이다. 봄이 되어야

64) 이관호, 「머슴날」, 『세시풍속사전』 봄편, 국립민속박물관, 2005, 39~42쪽.

65) 송영규, 『프랑스의 세시풍속』, 만남, 2001, 13쪽.

비로소 만물이 生動하고, 자연이 생명을 되찾는다. 봄은 곧 생명이고 자연의 ‘깨어남’을 의미한다.<sup>66)</sup> 정월이 물리적인 한 해의 시작이라면 2월은 농사가 시작되는 또 다른 차원의 한 해의 시작인 셈이다.<sup>67)</sup>

이러한 기대는 초하룻날의 날씨로 그 해 풍흉을 점치는 모습이나,<sup>68)</sup> 영등할머니를 모시고 난 이후에 제장에 깔았던 짚을 그대로 추려서 모를 묶을 때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해안가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영등할머니를 어업을 관장하는 신령으로 인식 한다. 어촌의 모든 가정에서 농사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본업이 어업이므로 그에 겨는 기대가 크다. 물론 풍어는 海上에서의 안전이 보장된 후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동해안의 어촌에서는 정월에 잡은 좋은 물고기를 먹지 않고 잘 보관해 두었다가 영등할머니께 제물로 올린다.<sup>69)</sup> 또한 제주도에서는 영등할머니가 바닷가를 밭삼아 소라·전복·미역 등 해산물의 씨를 주는 신령으로 믿어지고 있다.<sup>70)</sup>

66) 송영규, 위의 책, 2001, 134쪽.

67) 예나 지금이나 2월은 시기적으로 농사 준비를 할 때이다. 다음은 고려 말 문신이었던 한수 (1333~1384)가 지은 『柳巷詩集』의 내용이다. 목은(牧隱) 선생 풍우편(風雨篇)을 차운(次韻)하여 바치다. / 중춘(仲春)의 봄빛이 날로 짙어 가는데 / 오늘 아침에는 바람따라 비가 내리도다. /무성한 만물은 다 잎이 피고 / 화기(和氣)는 온 천지(天地)에 충만하도다. /위를 보고 아래를 살펴 달력을 배포하니/ 어찌 팔정(八政) 중에서 농사보다 먼저 할 일이 있으랴.

68) 일기와 관련해서는 대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① 영등할머니가 딸을 데리고 내려 오면 바람이 많이 부는데, 그러면 봄에 가뭄이 든다. ② 영등할머니를 달래지 않으면 그 해 바람이 많이 불어 농사짓는데 방해가 된다. ③ 초하룻날 날 비가 오면 영등할머니가 심술을 부린다고 하여 그 해 농사가 잘 되지 않을 것이라 여긴다. ④ 초하룻날 비가 오면 풍년들고, 바람 불면 가뭄이 들어 사람이 마른다. ⑤ 머느리가 오면 이것저것 들보기 때문에 풍년이 드는 것이고, 딸은 가벼운 입을 놀려서 (농사가) 잘 안 된다.

69) 다음은 이와 관련이 있는 경북 지역의 사례이다. ‘영등까꾸리’라 하여 바닷가에서 잡아온 고기를 걸어주는 도구를 만들어서 정지 문 밖 처마아래에 걸어둔다. 배의 닻처럼 생겼는데 가지가 다섯으로 나뉘어져 고기를 걸어 놓기가 용이하다. 평상시에도 잡아 온 고기를 까꾸리에 걸면 재수가 있고, 고기가 잘 잡힌다고 여긴다.(황경순, 「경북지역 영등신앙 연구」, 『향토문화』 17집, 대구향토문화연구소, 2002, 17쪽.)

70) “영등하르방님, 영등할마님, 영등좌수, 영등별감님네, 제주 산 구경 물 구경 꽃 구경 오시 는디, 불상한 우리 마을 백성들 소찬 차려 축원올립네다. 영등하르바님, 어진 우리 아르바님, 밥이 없고 웃이 없는 마을 백성 부디 좋게 도와 줍서. 우마 변성 오곡 풍성 미역 풍성 시켜 줍서. 미역 씨 주고 갑서. 소라·전복 씨 주고 갑서. 산디 씨 주고 갑서. 줍씨도 주고 갑서. 모진 병, 官災口舌 모략도 막아 줍서. 영문 差使, 범 같은 나졸 군졸일랑 저 문 밖으로 훨쭉 퇴송시켜 줍서. 하르바님 아니며는 누계가 불쌍한 우리 마을 백성 눈에 든 가시를 내어 주며, 누계가 등창에 고름을 내어 줍네까. 부디 좋게 도와줍서.”(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들』, 창작과 비평사, 1983, 55~56쪽.)

영등할머니가 농업이나 어업을 관장하는 신령으로 인식되는 까닭은 신령이 하강하는 2월의 시간성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영등할머니는 인간사와 관련한 모든 일을 담당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농사나 어업은 2월의 시간성과 맞물려 더욱 부각된다.

요컨대 ‘할머니’라는 수식어가 신령의 호칭에 반드시 따라 오는 이유는 그녀의 성격 때문이다. 영험하고, 욕심이 많으며, 사소한 것에도 잘 토라지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영등’이 아닌 ‘영등할머니’로 불리는 것이다.

## IV. 영등할머니 신앙의 지역적 특성

본 장에서는 영등할머니 신앙의 지역적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적인 편차를 파악하는 작업은 영등할머니 신앙의 전체적인 모습을 알기 위한 기초가 된다.

영등할머니의 호칭 분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듯이 영등할머니 신앙은 동일 지역권 내에서도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의례의 내용(祭日, 祭場, 神體, 祭物 등) 및 절차, 금기 및 속신까지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영등할머니 신앙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는 영등할머니 신앙이 찾아지는 한반도 중·남부 지역을 경기, 충청, 영동·영서, 호남, 영남, 제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경기 이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문헌 자료도 희박하고, 현지조사 또한 불가능하기에 별도로 기술을 할 수 없다.<sup>71)</sup> 따라서 본 장에서는 대상 지역을 경기이남 지역으로 한정하도록 하겠다.

### 1) 경기

경기 지역은 영등할머니 신앙이 나타나지 않는 지역이다. 무엇보다 영등할머니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기에 이와 관련한 의례를 행하는 가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경기 동남부 지역은 충북과 경계에 위치하므로 영등할머니 신앙이 있을 가능성성이 있다. 실제로 경기 이천 일부 지역에서 영등할머니에 대한 인식이 나타난다는 기록이 있다.<sup>72)</sup> 경기에서는 이 지역을 제외하고는 신령의 호칭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sup>73)</sup> 따라서 이 지역은 영등할머니 신앙이

71) 북한의 민속학 관련 저서에는 영등할머니 신앙과 관련한 부분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남한에서 발간된 민속학 관련 저서에서는 2월초하루 지상에 내려오는 신령으로 영등할머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만 의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기록은 없다.(『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함경도 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황해·평안도 편)』 및 『함경도의 민속』(전경우, 고려대학교출판부, 1999, 36쪽).)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경기도 이북 지역의 영등할머니 신앙은 파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반도 중부 이남 지역의 영등할머니 신앙과 동일한 차원에서 비교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72) 경기도박물관, 『경기민속지』, 2000, 129쪽.

73) 외룡리에서는 2월경에 바람이 부는 날이 있다는 인식이 전하고, 조음1리의 경우에는 20일

전승되지 않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 2) 충청

충청의 영등할머니 신앙은 충남보다 충북 지역에 우세한 편이다. 특히 남쪽에 치우친 보은·옥천·영동 세 지역이 중심이 된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신령의 호칭, 신령의 하강·상천 시기, 초하룻날의 일기와 관련한 속신 및 금기만 구전으로 전승될 뿐 의례는 거의 행해지지 않는다. 이들 지역에서는 의례와 관련한 부분은 오래전에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와 가까운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충북 북서부에 위치한 충주는 서쪽으로는 경기 여주, 동쪽으로는 경북 문경과 접한다.<sup>74)</sup> 영등할머니 신앙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지역은 경북 문경에 가까운 지역이다. 경기 여주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신령의 호칭조차 좀처럼 찾아지지 않는다. 경기와 충북 사이의 차령산맥이 영등할머니 신앙의 유무를 가늠하는 분기점으로 파악된다.

반면 충북 남부의 보은·옥천·영동에서는 근래에도 2월 초하루에 영등할머니를 위하는 가정이 있다. 영남에서는 의례 과정을 ‘바람한다’ 혹은 ‘바람올린다’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이월밥 해먹는다’라고 표현한다.<sup>75)</sup> 이 날 형편이 넉넉한 가정에서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제물을 나누어 먹는다.

이 지역에서는 소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神體를 만든다.<sup>76)</sup> 크기가 약 50cm

---

에 영동할머니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정도의 인식이 전할 뿐이다.(경기도박물관, 위의 책, 129쪽.) 그 외의 경기도 민속 조사 보고서 및 학술 조사 자료에서도 영등할머니 신앙과 관련한 부분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의정부 지역에서도 영등할머니에 대한 인식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한양대학교박물관, 『의정부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부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2005, 178~179쪽.)

74) 경기 여주·충북 충주·경북 문경 세 지역을 조사 한 보고서에 의하면 영등할머니 신앙이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경상도에 가까운 문경이었으며 북서쪽으로 갈수록 의례와 관련한 부분은 물론 영등할머니에 대한 인식도 점차 약화됨을 발견할 수 있다.(財)한국선사문화연구원, 『여주-충주-문경간 철도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006.)

75) 충청도 지역의 특징으로 신령을 부를 때에도 ‘영등할머니’·‘제석할머니’·‘풍신’보다는 ‘이월할머니’라는 호칭이 보편적으로 찾아진다.

76) 충북 옥천·영동의 서쪽에 위치한 대전 일부 지역과 충남 금산은 영등할머니를 위하는 모습이 유사한 특징이 있다.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면 이는 산맥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 이 지역들은 소백산맥과 노령산맥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경상도나 전라도와는 또 다른

정도 되게 잘라서 솔잎이 붙어 있는 채로 부엌의 살강 위나 장독대 앞에 세워둔다. 이것을 고사가 끝난 이후에 집근처의 살아있는 나무에 끼워놓는다.<sup>77)</sup>

충남은 영등할머니 신앙이 보편적인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비교적 분명하게 구분되는 지역이다.<sup>78)</sup> 전자에 해당하는 지역은 서남쪽에 위치한 금산과 대전 일부 지역으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외의 지역에서는 영등할머니 신앙이 거의 찾아지지 않는다.

천안·연기와 청양·논산 일부 지역에서는 영등할머니에 대한 인식이 전하긴 하지만, 신앙 대상은 아니다.<sup>79)</sup> 이러한 현상은 서쪽 해안가 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분명해진다. 예산·홍성·보령·부여·아산·서산·서천 지역에서는 ‘영등할머니’ 혹은 ‘이월할머니’라는 신령의 호칭조차 생소하게 여긴다. 다만 삽시도와 같은 일부 도서 지역에서 ‘영등할머니’에 대한 호칭이 간혹 찾아지기는 하나 정성껏 위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신앙대상으로 깊이 인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sup>80)</sup>

충청 지역 중 충남은 영등할머니 신앙의 중심 문화권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지리적으로 경기 지역은 충남의 북쪽에 위치하여 영등할머니에 대한 인식은 물론 호칭조차 희박한 것이다. 한편으로 경기와 충남 두 지역은 2월 초하루의 풍습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경기에서는 이날 ‘나이떡’을 쪄먹고 하루를 쉬는 풍습이 있다. 충남에서는 나이떡을 쪄먹는 풍습이 나타나지 않으며,

---

차원의 영등할머니 신앙의 문화권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77) 신체를 매달아 두는 나무는 앵두나무·대추나무·소나무 등 수종에 관계없이 반드시 살아있는 나무여야만 한다. 한 번 걸어둔 것은 자연히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두고, 함부로 순대지 않는다. 이처럼 살아있는 나무에 신체를 옮기는 것은 영남 내륙 지역에서도 찾아진다.
- 78) 이와 관련하여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영등할머니 신앙은 남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풍습으로 영등할머니에 대한 믿음이 대전을 넘어서 북쪽 지방에서 모셔지게 되면 난리(전쟁)가 난다고 한다. 이는 영등할머니 신앙이 대전의 이북 지역에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음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한남대학교중앙박물관, 『경부선 대전-옥천간 선로개량 노반공사 구간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2002. 99쪽.)
- 79) 대전·연기·천안 세 지역에서는 신령의 호칭과 이월초하룻날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를 표현하는 속언만 전할 뿐 이월할머니를 신앙 대상으로 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財)충청문화재연구원, 『행정중심 복합도시 연계 대전~천안간 광역도로 민간투자사업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2006.)
- 80) 이월 초하루에는 ‘영등(영동)날’이라 하여, 영동할머니가 내려온다고 믿는다. 이때 영동할머니가 떨을 데리고 오면 바람이 불고,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비가 온다고 한다. 이달에는 장닭꼬리만 날려도 봄바람이 세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영동할머니에 대한 전설은 있지만 영동할머니를 따로 위하지는 않았다.(이필영, 「삽시도의 민속」, 『충청문화연구』 4집, 1996, 148쪽.)

내포의 일부 지역에서는 정월에 세워둔 벗가趺대를 내리는 풍습이 있다.

요컨대 충청의 영등할머니 신앙은 충남의 동남쪽에 치우친 대전·금산 일부 지역 및 충북의 남부 영동·옥천·보은에 우세하게 나타난다. 이를 지역에서는 영등할머니를 대단히 정성껏 모신다. 반면에 서쪽 평야 지대에 속한 지역에서는 영등할머니에 대한 호칭조차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통하여 충청의 영등할머니 신앙은 영남지역에 가까운 일부 지역에 한정적으로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 3) 영동·영서

강원도는 지리적으로 태백산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다. 지역 전체가 산맥을 기준으로 영동과 영서로 구분 된다. 이러한 지리적 특징은 두 지역의 문화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언어의 차이도 분명하다.<sup>81)</sup> 영등할머니 신앙 역시 지리적인 영향 때문인지 東西 지역의 차이가 분명하다. 다음은 남북한접경지대를 조사한 자료로 이는 영동·영서 두 지역의 영등할머니 신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동해안의 해안지역에서는 해난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풍신인 영등신을 섬긴다. 영등신은 하늘에서 바람과 비를 가지고 2월 초하룻날 내려와서 2월 보름에 승천하는 風雨의 신이다. 철원, 양구 등지의 내륙에 있는 농촌에는 이 신앙이 없으나 고성의 봉포와 대진 등지의 동해안 어촌에서는 지금도 부엌과 뒤울안 장

81) 영서지역은 서울·경기와 인접한 관계로 거의 표준어에 가깝게 구사하는 반면 영동지역은 전혀 색다른 어휘를 사용한다. 다음은 영동·영서의 언어문화를 보여주는 사례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김진순, 「강원도 민속의 지역적 정체성 : 산간민속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회, 2005의 이익섭, 『영동 영서의 언어문화』 내용 재인용.)

표준어	영동언어	영서언어
왕겨	새째	왕개, 왕겨, 왕제
시래기	건추	시례기, 씨례기
두레	질	두레
누릉지	소쨍이, 소꼴기, 소디끼, 소데끼	누릉지, 누렁지, 누룽기
질경이	짭짱우, 짭짱우, 배짱우, 빼장구	질챙이, 질경이, 질챙이, 질짱구
우물	옹굴	우물
잠자리	잠자리	소금쟁이
상추	불기	상추

독대에다 주파포 및 그 해 첫 출어 때 잡은 생선을 제물로 놓고 영등제를 지내는 집이 더러 있다. 특히 영서지역에서는 영등신에 대해 아는 사람도 드물다<sup>82)</sup>

영서 지역에 속하는 철원·화천·양구·춘천·홍천·횡성은 영등할머니에 대한 인식은 일정부분 남아 있지만 의례는 전혀 행해지지 않는다. 또한 2월 초하룻날 송편을 쪄먹는 풍습이 전하는데 이를 ‘나이떡’이라고 한다. 간혹 이를 두고 ‘영등떡’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신령께 올리는 제물의 의미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나이떡’에 가깝다.<sup>83)</sup> 2월 초하룻날 나이떡을 해먹는 것은 경기 지역의 특수한 풍습이다. 반면 영동 지역에서는 이날 영등할머니께 제물로 올릴 시루떡이나 백설기를 할 뿐 나이떡을 해먹는 풍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영서 지역은 경기에 가까운 지역으로 영등할머니 신앙이 보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영동과 영서를 구분하는 인식은 날씨와 관련한 속신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sup>84)</sup>

태백·영월·원주 일대는 영등할머니 신앙의 유무를 가늠 하는 분기점이 되는 지역으로 파악된다.<sup>85)</sup> 해안가를 따라서 경북 울진에서 강원 태백으로 이동하면서 신령의 호칭에 변화가 발생한다. 강원도 동부 최남단에 위치한 삼척시 원덕읍의 해안가에 접한 마을부터 ‘풍신’이라는 호칭이 찾아진다.<sup>86)</sup> 태백시의 서남쪽으로 접하고 있는 경북 봉화·영풍 등지에서는 영등할머니라는 호칭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반면에 풍신이라는 호칭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82) 김의숙, 「강원도 북부 남북한 접경지역의 민속문화」, 『강원민속학』 11, 강원민속학회, 1995, 257쪽.

83) 강원도 횡성군의 사례로 이 지역에서는 ‘영등떡’이라 하여 일종의 송편을 쪄먹는다. 정월 그믐날 저녁에 미리 쌀을 빻아 두었다가 이튿날 송편을 빚는다. 영등할머니께 올리지 않으므로 제물로 볼 수 없다.(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가정신앙 : 강원』, 2006, 567쪽.)

84) 이와 관련한 속신으로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이월 초하룻날 날이 흐리면 동쪽은 풍년이 들고, 서쪽은 흥년이 듈다.”고 한다. 영동은 풍년, 영서는 흥년이 드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날 바람이 많이 불면 바다에 접한 영동 지역은 흥년이 들고, 바람이 없으면 영서 지역은 풍년이 듦다.(국립문화재연구소, 『강원도 세시풍속』, 2001, 362쪽.)

85) 영등신은 2월 초하루에 내려왔다가 보름에 올라가는 신으로서 주민들은 ‘영등할머니’하여 여신으로 관념한다. 영등신은 주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혹은 경상도 지역 사람들이 모시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으므로 이곳 주민들은 영등신에 대해서는 알지만 고사를 지내는 점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국립문화재연구소, 「태백시」, 『한국의 가정신앙 : 강원도』, 2006, 194쪽.)

86) 이 지역에서도 ‘영등할머니’라는 호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70~80대 노인들은 ‘풍신’이라는 호칭을 분명하게 알고, 이를 혼용하고 있다.

영등할머니 신앙이 비교적 우세한 영동지역 역시 해안가에 접한 지역과 내륙 산간 지역의 신앙 형태가 차이가 있다.<sup>87)</sup> 행정구역상으로는 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평창·인제가 이에 속하며, 면적을 보면 해안가에 접한 지역은 일부에 해당하고, 대부분이 농사짓기 힘든 산간 지역에 속한다. 앞의 두 지역 가운데 영등할머니 신앙이 보다 우세한 지역은 해안가 지역이다. 해안 지역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신령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sup>88)</sup>

그러나 두 지역 모두 바람올리기를 행하는 목적은 동일하다. 영등할머니를 인식하는 정도나 의례의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보인다. 산간지역에 비해서 해안가는 바람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는 영등할머니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실 수밖에 없다.

영동 지역의 바람올리기 절차는 영남 지역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적 소박한 편이다. 먼저 제의 장소는 집 안팎으로 뒤란이나 부엌인 경우가 많다. 특히 뒤란에서 고사를 지내는 가정이 많으며 장독대에 백지를 붙이고 그 앞에 제물을 진설한다. 신령을 상징하는 神體를 별도로 만들지는 않는다.<sup>89)</sup> 과거에는 신체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오늘날에는 신령을 맞을 때에 제물만 마련할 뿐이다.<sup>90)</sup> 그러므로 신체와 관련하여 이를 만드는 구체적 방법, 만드는 시기, 고사를 지낸 이후에 이를 처리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또한 영남 지역에서는 고사를 지낼 때에 제물 외에도 농기구·무색천·공책 등을 함께 놓아두는데 이러한 사례도 찾아지지 않는다.

- 
- 87) 행정구역으로 이를 구분하기보다는 자연 환경적인 조건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동일한 행정구역 안에서도 환경의 영향으로 신앙의 모습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영등할머니를 위하는 목적만 보더라도 해안가에 접한 마을에서는 풍어 및 해풍의 피해를 줄이는데 있고, 산간 지역은 풍농을 위해서 모시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는 신체, 제물을 비롯하여 신령을 맞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 88) 해안가에 접한 지역들에서는 최근 10년 혹은 현재까지도 영등할머니가 신앙 대상으로 모셔지고 있는 반면에 내륙으로 조금만 들어가도 신앙이 급속도로 쇠퇴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89) 현지 조사 자료가 갖는 한계 일 수도 있으나 현재로써는 강원도에서 신대를 만드는 사례는 두 건에 불과하다. 두 사례 모두 경북과 접하고 있는 강원도 동남부의 강릉과 태백에서 나타난다.
- 90) 아침 일찍 새 바가지에 물을 떠서 장독대에 놓고 부엌이나 뒤틀의 깨끗한 곳에 잎이 붙은 땃가지를 세워서 오색의 형겼 조각과 종이를 붙여서 제단을 만든다. 그 앞에는 여러 제물을 차린 후 주부가 집안의 안과태평, 가족들의 건강과 소원을 비兕한다.(문화재관리국, 「제2장 민간신앙 부락 및 가정신앙」,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강원도 편)』, 1977, 16 2~166쪽.)

제물 마련과 관련하여 경북의 해안가 지역에서는 부엌에 ‘영등까꾸리’라 하여 음력 정월에 잡은 고기 중 제일 ‘좋은 것’을 잠시 보관한다. 이러한 풍습 역시 강원도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제물로 올릴 어물을 ‘좋은 것’으로 마련하기는 해도 경북에서처럼 영등까꾸리와 같은 시설물을 마련하지는 않는다. 또한 삼척·동해 등지에서는 겨울철에 많이 잡히는 대개를 바람올리기를 할 때에 올린다.<sup>91)</sup> “2월 초하루에는 미역 한 뿌리만 캐도 장독대에 먼저 위한다.”는 속신이 전하는데, 어떤 제물이든 가장 좋은 것을 올리려는 마음가짐은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이다.

#### 4) 호남

영등할머니 신앙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영남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호남의 동부지역이다. 우선 전북은 노령산맥을 기준으로 東西 지역으로 나뉜다. 노령산맥의 서쪽은 호남평야가 넓게 펼쳐진 평야지대이고, 동쪽은 소백산맥의 능선으로 이어지는 산악지대이다. 이중 영등할머니 신앙은 소백산맥의 서쪽인 무주·진안·장수·남원·임실·순창·전주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특히 남원·무주·진안·장수가 영등할머니 신앙이 보다 우세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바람 올리기’에 해당되는 신앙의례가 구체적으로 찾아진다.

충청의 영동·옥천·금산에서처럼 이 지역에서도 소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무색천과 종이로 장식한 神體를 만든다.<sup>92)</sup> 이를 부르는 명칭은 없지만 그것을 만드는 방법, 세우는 장소, 처리하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찾아진다. 대에 무색천과 백지로 장식하는 행위를 ‘신령에게 옷을 입히기’로 관념하는 것은 이것이 신체임을 반증한다.<sup>93)</sup> 그러므로 이대는 영등이 올라가는 스무날까지 제장에 그대로 세워두었다가, 영등이 올라간 후에 보리밭으로 옮긴다. 이처럼 하는

91) 벗일을 하는 가정에서는 자신이 잡은 대개를 올린다. 이 지역은 대개를 좋은 해산물로 간주하기에 다른 어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배을 부리지 않는 집에서는 시장에서 가장 좋은 대개를 사다가 올린다. 대개는 무를 넣고 찌개를 끓여서 제물로 사용한다. 가정에서는 2월 초하루는 으레 ‘개 찌개 먹는 날’로 인식한다.(2008년 11월, 강원도 삼척시 교동의 윤옥춘씨 도움말씀.)

92) 경남에서는 이를 두고 ‘물대’라 한다.

93) 전북의 진안과 장수 지역에서는 영등할머니께 ‘옷’을 해드리고 난 후에 무색천을 만진다. 그래야만 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월은 다른 달에 비하여 눈병의 발생이 많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령께 미리 옷을 지어드리는 것이다.(국립문화재연구소, 「진안군」, 『전라북도 세시풍속』, 2003, 607쪽.)

까닭은 보리밭에 영등할머니가 잠시 머물러 있다가 상천을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sup>94)</sup>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에 보리밭이 신체를 처리하는 장소로 많이 이용이 된다.

이와 달리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신령에 대한 인식만이 있을 뿐, 별도의 신앙행위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 ① 2월 초하루에 영등할머니가 내려와 스무날 올라가는데, 초하룻날 사람이 불면 영등할머니가 올라가는 스무날까지만 지속된다. 이것을 ‘바람영등’이라고 하며, 비가 오면 ‘비영등’이라고 한다. 비영등이 내리면 그 해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될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따로 영등을 위해서 제물을 마련하여 위하지는 않는다.<sup>95)</sup>
- ② 2월을 영등달이라고 하며, 2월 1일에 영등할머니가 내려와서 그믐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예전부터 영등달에는 결혼도 하지 않는다.<sup>96)</sup>
- ③ 2월 초하룻날 영동할머니가 내려오는데, 이때 비나 사람이 불면 좋지 않다. 비가 내리면 ‘물영동’, 사람이 불면 ‘바람영동’ 내렸다고 한다.<sup>97)</sup>

위의 자료는 서해안에 인접한 군산·김제·부안·정읍·고창 지역의 사례이다. 여기서는 신앙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만 이월 초하룻날의 날씨와 관련해서 ‘바람영등’·‘물영등’·‘불영등’이라는 표현만이 나타날 뿐이다.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영등’이라는 수식어는 신령의 호칭을 줄여서 표현한 것이지만, 그 자체를 신령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③의 금강 하구의 군산에서는 영등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고, 그저 날씨와 관련해서 ‘영등’이라는 명칭만이 전한다.<sup>98)</sup>

이러한 현상을 종합해 볼 때, 호남지역에서는 대체로 영등할머니가 신앙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월은 ②에서처럼 집안의 대소사를 삼가는 조심스러운 달이다. 삼가고 근신해야 하는 이유가 ‘영등이 내려오는

94) 영등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올라갈 때는 보리밭에 있다가 올라간다. 때문에 스무 닷새에는 살강에 모셔두었던 솔가지를 가지고 손이 없는 방향의 보리밭이나 삽짝에 꽂는다.(국립문화재연구소, 「장수군」, 『전라북도 세시풍속』, 2003, 546~547쪽.)

95) 국립문화재연구소, 「부안군」, 『전라북도 세시풍속』, 2003, 365쪽.

96) 국립문화재연구소, 「정읍시」, 『전라북도 세시풍속』, 2003, 15쪽.

97) 국립문화재연구소, 「군산시」, 『전라북도 세시풍속』, 2003, 15쪽.

98) 금강은 영등할머니 신앙의 지표가 된다. 금강 아래에 위치한 군산에는 영등에 대한 인식이 있지만 금강 건너편의 충청도 서천, 보령 지역 등지에는 ‘영등’이라는 호칭마저도 찾을 수 없다.

시기'와 관련 있는 것은 화석화되어 있는 영등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전남도 전북 지역처럼 영등할머니 신앙이 우세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분명하게 구분된다. 소백산맥의 남쪽에 위치한 곡성·구례 및 경남의 해안가에 접한 광양·여수에서는 영등할머니 신앙이 우세하다. 이들 지역의 서쪽에 인접한 순천·보성·고흥은 상대적으로 영등할머니 신앙이 많은 부분 쇠퇴한 듯 보인다. 후자의 지역에서는 신령의 호칭에 대한 인식만이 전할 뿐 의례 절차와 관련한 부분은 상당부분 축소되었다.

소백산맥 남쪽의 평야 지역의 곡성·구례·광양·여수 지역에서는 영등할머니 신앙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에서는 대나무로 神體를 만들고, 가지마다 천과 백지를 매달아서 부엌의 살강 위나 장독대에 세워둔다. 대 위에는 반드시 청수를 한 그릇 떠다가 옮겨둔다. 신체를 가리켜 특별한 명칭은 전하지 않는다. 대 앞에는 보리밭에서 어느 정도 자란 보리 쌀을 뿌리 채 뽑아다가 놓거나 황토를 퍼서 그 위에 심어놓는다. 이처럼 제장에 놓아둔 보리 쌀은 나중에 밭에 가져다가 다시 심는다. 옮겨 심은 보리가 죽지 않고 잘 자라면 그해 보리 풍년이 든다는 속신이 있다. 이처럼 신체를 보리밭에 옮겨 심는 행위는 영등할머니가 보리밭과 관련성이 있는 신령임을 반증한다.

반면에 서·남해의 도서 지역 및 나주평야 일대에서는 영등할머니 신앙이 거의 찾아지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전북 지역까지 연결되는 호남 영등할머니 신앙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 지역의 서쪽에서도 2월 초하룻날의 일기와 관련하여 ‘바람영동’·‘물영동’과 같은 인식만 전할 뿐이다. 서남쪽에 치우친 영암·나주·진도 일대에서는 영등할머니에 대한 인식도 대단히 희박하다.<sup>99)</sup> 다음은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사례이다.

① 스무날에 영등할머니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안에 비가 오면 물영등, 바람

99) 필자는 2008년 8월에 나주·영암·목포·강경·진도 일대 현지 조사를 하였으며, 이 지역에서는 영등할머니 신앙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2월 초하룻날의 일기와 관련하여 수식어로 ‘영동’이 붙는 구체적인 이유도 전하지 않는다. 또한 날씨를 표현할 때에 영등할머니가 딸과 며느리를 동반하여 지상에 하강한다는 속설도 거의 전하지 않는 점도 특기 할만하다. 평균 70대 후반의 노인들이 신령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미루어 한편으로 영등할머니 신앙이 본래 없었던 지역은 아닌지 추측해 볼 뿐이다. 어떻든 소백산맥을 경계로 영등할머니 신앙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대비되는 점은 매우 특기할 만하다.

- 이 불면 바람영등이라고 하다. 물영등이 들면 그 해는 풍년이 들고, 바람영등이 들면 시절이 좋지 않다고 한다.<sup>100)</sup>
- ② 2월 달은 ‘영동달’이라고 하여 이 달에는 집안에서 혼사를 금지했다. 영동날에 혼사를 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한다.<sup>101)</sup>
  - ③ 2월 초하루에 비가 오면 ‘비영등 들었다.’고 하고, 바람이 불면 ‘바람영등’이라고 한다. 2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를 ‘영동달’이라고 하는데, 제사는 지내지 않는다<sup>102)</sup>
  - ④ 2월 보름께를 ‘영동사리’라 하는데 이날 영등이 내린다고 하며 ‘뽕할머니’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라고도 한다.<sup>103)</sup>

우선 호남 지역에서는 2월 초하루를 ‘하리드렛날’·‘하드렛날’이라고 하며, 이 날 영등할머니가 내려온다고 하여 ‘영등할매 내려오는 날’·‘할매날’·‘손이 내려오는 날’이라고 한다.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농사를 앞둔 시점이어서 이 날의 날씨로 豊凶을 점쳐본다. 또한 ②, ③의 경우처럼 집안의 대소사를 치르지 않는 등 매사에謹慎하는 달로 관념한다.

④의 경우는 진도 회동 지역의 사례이다. 이 지역에서는 음력 이월 중 물이 제일 많이 빠져나간 시기를 일러 ‘영동사리’라 부른다. 이날 마을에서는 바닷가에 나가서 ‘영등제’를 지낸다. 근래에는 영등제가 지역 문화를 알리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sup>104)</sup> 이날 위하는 신령 역시 영등할머니가 아닌 회동 지역의 설화와 관련된 ‘뽕할머니’라고 한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물때와 관련하여 ‘영등’이라는 명칭만 전한다. 영등할머니는 각 가정에서 위하는 신령이 아니다.<sup>105)</sup> 다만 영등할머니 신앙이 희박하게 찾아지는 서남해의 도서 지역에서 물때를 가리키는 명칭에만 ‘영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를 종합하면 영남 지역에서는 영등할머니 신앙이 동쪽의 산악 지역에 치

100) 국립문화재연구소, 「나주시」, 『전라남도 세시풍속』, 2003, 84쪽.

101) 국립문화재연구소, 「담양군」, 『전라남도 세시풍속』, 2003, 421쪽.

102) 국립문화재연구소, 「장성군」, 『전라남도 세시풍속』, 2003, 724쪽.

103) 국립문화재연구소, 「진도군」, 『위의책』, 2003, 788쪽.

104)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설화 속의 주인공인 ‘뽕할머니’를 모시는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군에서 축제를 주관하기 시작한 것은 1976년부터로 초기에는 ‘영등살놀이’라 하였고, 1982년부터 ‘영등제’라 하였으며, 1991년에는 ‘영등축제’로 개칭하였다.(나승만, 「진도 영등제의 축제화 과정 연구」, 『남도민속연구』 29, 남도민속학회, 1999.)

105) 필자의 현지 조사에 의하면 회동 및 섬의 몇몇 지역에서 2월 초하루에 개인적으로 영등 할머니를 위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영등할머니에 대한 인식도 나타나지 않는다. 신령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기 때문에 의례를 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남의 서남해안에 인접한 지역들에서는 영등할머니 신앙이 많은 부분 찾아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쳐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밝히기란 어렵다.<sup>106)</sup> 서해안에 인접한 호남 지역에서는 영등할머니가 신앙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는 점만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신령과 관련한 의례는 물론 2월과 관련된 금기, 속신도 영남에 비해서 전하지 않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이 농사 준비가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혼례나 장례 등 큰일을 뒤로 미룬다. 이는 모든 관심을 농사에 집중시키려는 노력인 셈이다.

## 5) 영남

영남은 영등할머니 신앙이 대단히 우세한 지역이다. 의례의 내용과 절차가 타 지역에 비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먼저 경북의 영등할머니 신앙은 동쪽 해안 지역과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능선을 따라서 발달한 내륙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해안가에서는 벗일을 하는 식구의 안전을 지켜주고, 豊漁를 보장하는 신령으로 영등할머니를 위한다.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신령으로 인식해서인지 경북 厚浦의 해안가 마을에서는 설날에는 정작 떡을 하지 않아도 이월 초 하룻날만큼은 반드시 떡을 하여 신령을 위하였다.<sup>107)</sup>

포항부터 영덕, 울진까지 바닷가 마을에서는 공통적으로 영등할머니를 위할 魚物을 부엌에 매달아 둔다. 이때 어물을 매달아 두기 위한 도구를 설치한다.<sup>108)</sup> 이는 경북의 해안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제물 마련 방식이다. 이를 가리켜 ‘영등까꾸지(영등까꾸리 · 영등갈쿠리)’라고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그 명칭은 약간씩 차이가 있다. [지도 3은] ‘영등까꾸지’가 나타나는 지역을 지

106) 그러나 조심스럽게 다음의 두 가지로 추측해 보았다. 첫째, 전북 서해안 지역 역시 영등 할머니 신앙이 대단히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찍 쇠퇴 ·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원래부터 영등할머니 신앙이 전승되지 않는 지역인데, 영남의 영향으로 영등할머니가 신앙대상으로 발전하지 않고, 관련 호칭만 화석처럼 굳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써는 이 두 가설의 진위를 밝힐 수가 없다.

107)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경상북도 편)』, 1974, 49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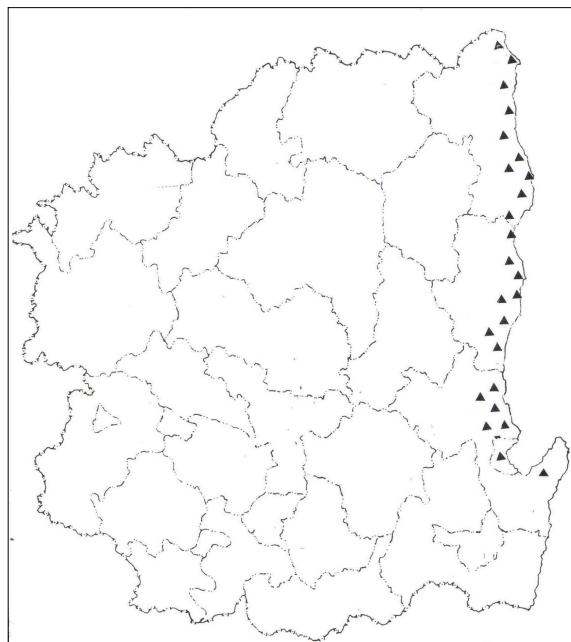
108) 포항부터 영덕, 울진까지 ‘영등까꾸지’를 만들어서 제물로 올릴 어물을 마련해 두는 풍습이 나타난다. 강원도 지역에 접하면서는 이와 관련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경북 해안가 지역에만 나타나는 신앙 형태임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특기할만한 점은 해안가에서 조금만 내륙으로 들어오면 영등까꾸지에 어물을 걸어 두는 풍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로부터 영등까꾸지는 해안가에서 구할 수 있는 어물을 신령께 받치는 특별한 장치라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도상에 표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어서 부엌의 천장에 매달아둔다. 그 형태가 낫이나 우산살을 뒤집어서 걸어 놓은 듯보여서 어물을 페어 매달기에 적합하다.

이 영등까꾸지에는 정월에 잡은 어물 가운데 처음으로 잡은 가장 좋은 것을 걸어놓는다. 미역 양식을 하는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캐온 것을 걸어 두기도 한다. 경북 영덕에서는 영등까꾸지 자체를 신체로 생각할 정도로 중요하게 인식한다.<sup>109)</sup> ‘영등까꾸지’라는 명칭처럼 이 갈고리는 영등할머니를 위할 제물만을 걸어 놓는데 이용된다. 어물은 바닷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가장 신선한 제물이다. 이곳에 어물이 매달려 있는 모습은 연중 정월부터 2월 초하루까지만 볼 수 있다. 초하루가 지나면 마치 부엌의 시설물처럼 천장에 매달아 둘 뿐 의미가 퇴색된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이날 섬떡을 만들어 먹는 풍습이 있다. 형태는 송편을 닮았으나 경기도 지역에서 해먹는 ‘나이떡’과는 의미가 다르다. 섬떡을 만드는 지역은 대체로 영등까꾸지가 나타나는 지역과 일치한다.

이처럼 영등까꾸지를 만들거나 섬떡을 빚어 먹는 풍습은 남해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곧 동해안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방식인 셈이다. 이를 통해 제물에 정성을 다하려는 마음가짐을 읽을 수 있다.<sup>110)</sup> 같은 맥락에서 배 사업을 하는



[지도 3] ‘영등까꾸지’ 분포 지역(경북 해안)

109) 경북의 해안가 지역 가운데 특히 영덕에서 이러한 사례가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북쪽의 울진과 남쪽의 포항에도 나타나기는 하나 이를 신체로 관념하는 등 이 지역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110) 경북 영덕 지역에서는 영등할머니께 올릴 제물은 일체 손대지 못하게 한다. 만약 바람올리기를 하기 전에 영등까꾸지에 걸린 어물을 먹게 될 경우에는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고

가정에서는 바람올리기를 행하는 2월 초하룻날만큼은 출어를 하지 않는다.<sup>111)</sup>

경북의 내륙 지역에서는 부엌에 영등까꾸지가 매달려 있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지역 역시 영등할머니 신앙이 보편적인 편이지만 경남 내륙 지역과 비교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의례 절차가 간소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중 어떤 신령을 위할 때보다 정성을 다하는 점에서 여느 지역보다 신령에 대한 믿음이 우세한 것은 분명하다.

영남 지역에서는 영등할머니가 세 네 차례 나누어서 승천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다만 경북은 경남에 비해 의례 절차가 간소한 편이어서, 신령이 하강하는 2월 초하루에 한 번만 바람올리기를 행하기도 한다.

제례는 부엌이 가장 많고 가정 형편에 따라서 뒤판이나 마당에 모시기도 한다. 특히 부엌에 영등까꾸리를 만들어 둔 가정에서는 그 아래에 제물을 진설한다.

경북에서는 제장에 신체로 파악되는 대를 세워두는 사례가 별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내륙과 해안에 관계없이 공통된 특징이다. 경남의 해안 지역에서는 영등할머니의 신체로 반드시 대를 만들어 세운다. 경북에서는 이를 대신하여 무색천이나 백지를 제장에 걸어놓는다. 경북에서 신체로 대가 발견되는 지역은 경남과 인접한 일부 지역 및 울릉도로 한정된다.

경남은 한반도의 남부 지역에 속하며 서쪽으로는 소백산맥, 남쪽으로는 바다가 접한 지역이다. 경남은 영등할머니 신앙의 중심 문화권이다. 신령의 호칭뿐 아니라 의례의 내용 및 절차까지 대단히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경북에 비해서도 영등할머니 신앙이 우세한 지역이다.

먼저 신령의 상천 및 하강시기를 살펴보자. 2월 초하루에 하강한 신령은 보름이나 스무날께에 한 번에 올라가기도 하지만 중간에 세 네 차례 나누어서 올라간다고 인식한다.<sup>112)</sup> 구체적으로는 ‘상층·중층·하층’으로 표현된다. 층

---

먹어야 할 정도로 조심한다.(김미주, 앞의 논문, 2007, 38쪽.)

111) 초하룻날은 한 달의 시작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出漁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월 초하루가 되면 다른 때보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출어가 불가능하다.

112) 가정에 따라서 고사를 베푸는 횟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3~4번 정도 고사를 지낸다. 다음은 기존의 자료를 통하여 영등제가 베풀어지는 횟수와 그 날짜를 정리한 것이다.

① 3회

1-1. 1일, 9일(두별바람), 19일(세별바람)

② 4회 이상

2-1. 1일 · 4일 · 9일 · 14일 ·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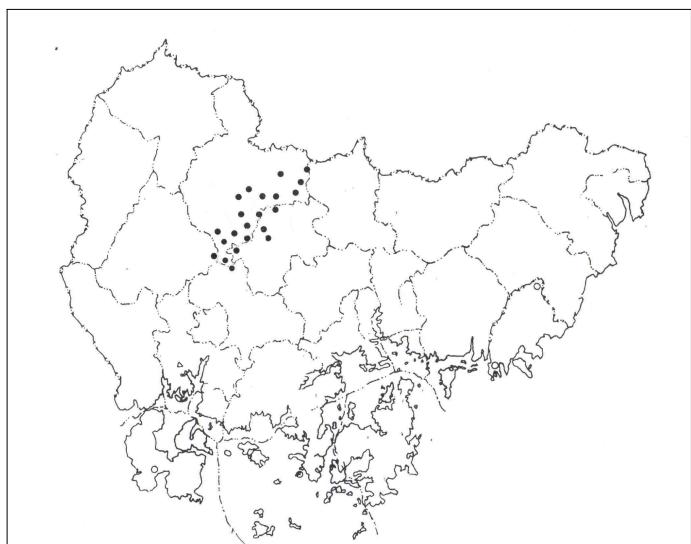
청·강원 등지에서는 이와 같은 인식이 거의 없다. 또한 영등할머니가 상천하는 ‘충’에 해당하는 시기마다 별도의 제물을 마련하여 신령을 위한다.

바람올리기의 세부 내용 및 절차도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지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소백산맥에 접한 내륙 산간 지역과 중앙의 내륙 지역, 남해안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내륙 산간 지역에 속하는 산청·함양·거창은 신체를 만드는 방식을 비롯하여 의례 절차가 비슷

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경남의 중앙부에 위치한 함천의 동남부 지역과 이를 둘러싼 인접 지역은 내륙 산간 지역과는 다른 의례 절차가 찾아진다. 이 지역에서는 안마당에서 바람올리기가 끝나면 깨끗한 냇가를 찾아

가 요왕[龍王]을



[지도 3] ‘요왕먹이기’를 행하는 지역(경남)

위한다.<sup>113)</sup> 2월 초하루는 영등할머니를 우선으로 모시기 때문에 요왕을 위하는

2-2. 9일 · 14일 · 19일

2-3. 장날 마다(사천시 동서동 신수도)

2-4. 5일(상충) · 10일(중충) · 20일(하충)

2-5. 1일(상충) · 5일(중충) · 10일(하충) · 15~20일(마지막 충)

2-6. 정월 그믐 · 2월 7일 · 14일 · 19일

2-7. 2월 초하루는 제석님이 내려오는 날이고, 아흐레는 ‘제석님이 머느리를 데려오는 날’, 열아흐레는 ‘제석님 딸이 내려오는 날’, 2월의 마지막 날은 ‘제석님 떠나는 날’이라 하여 특별히 제를 모신다.

113) 이처럼 2월 초하루에 바람올리기가 끝난 이후에 요왕먹이기를 행하는 사례는 합천군 내에서도 동남쪽 지역에 치우쳐 있다. 합천의 서북부 지역에서는 좀처럼 이러한 사례가 찾기 어렵지 않는다. 이 지역에서는 요왕먹이기를 해도 정월 열나흘날 행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에 따라서 10월 상달에 도신을 하면서도 별도로 요왕먹이기를 행하는 사례도 많이 나타난다.(2008년 11월 3일, 합천군 지역 필자 조사.) 2월 초하룻날 바람올리기를 집에서 하지 않고, 냇가로 나가서 행하고 곧바로 요왕먹이기를 하는 가정도 있다.(국립문화재연구

행위는 부대행사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요왕을 위하는 행위를 두고 이 지역에서는 ‘요왕 먹인다.’라고 표현한다.([지도 3] 참조.)

바람울리기를 하는 방법도 몇 가지 점에서 여느 지역과는 다른 점이 있다. 먼저 제장이 부엌보다는 안마당인 경우가 많고, 그 중앙에 명석을 깔고 제사 지낼 장소를 마련한다. 신체 역시 장대 끝에 백지나 무색천을 달아서 부엌 문 앞에 세워둔다. 제사가 끝나면 장대는 그대로 두고 백지와 무색천만 불에 태운다. 이를 소화시키지 않고, 스무날까지 장대 끝에 달아 두었다가 집 밖의 산나무에 매달기도 한다. 산나무에 신체를 매달아 두는 풍습은 충청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가정에서는 바람울리기가 끝나면 요왕을 위하려고 별도로 마련해둔 제물을 가지고 마을의 깨끗한 냅가나 공동우물로 향한다. 냅가에 도착하면 우선 바닥을 치우고 준비한 제물을 진설한다. 또한 주부는 짚을 가져가서 제장 옆에 불을 피우고, 집안의 안과태평 및 농사의 풍년을 위해서 비손을 한다. 이처럼 2월 초하루에 요왕먹이기를 행하는 지역은 전국에서 합천 동남부와 이를 둘러싼 일부 지역에 한정된다.<sup>114)</sup>

남부 해안가 지역에서는 대부분 대를 만들어서 신령을 위한다. 이를 가리켜 물대(제석님 물대) · 할맘네대 · 장대 · 정수대(淨水臺) · 작수바리 등 다양하게 부른다. 물대는 주부가 직접 대나무나 소나무를 꺾어다가 만들어 세운다. 대에는 ‘신령의 옷’이라고 하여 무색천과 백지를 매단다. 또한 대 위에는 반드시 정화수 그릇을 올려놓는다. 정화수 그릇 · 대 · 천은 세트화 된 神體로 인식 될 만큼 매우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그 밖에 개인의 소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농사와 관련된 낫 · 팽이 등의 농기구를 비롯하여 바느질 도구 · 책등을 제물과 함께 놓아둔다. 대는 이후에 태워버리거나 담장 위에 꽂아둔다.

서해와 남해는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한 편이어서 ‘물때’에 대한 관념이 강하게 나타난다.<sup>115)</sup> 다음은 이와 관련한 거제도의 사례이다.

---

소, 「합천군」, 『가정신앙 : 경남』, 612~613쪽.) 이를 종합하면 합천의 일부 지역에서는 2월 초하루에 바람울리기를 마치고 부대행사로 요왕을 위하는 신앙 행위가 보편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114) 현재로써는 합천 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절차상의 특징이 찾아지는 원인을 밝히기가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별도의 현지조사를 통하여 합천 지역의 영등할머니 신앙으로 별도의 논고가 정리 될 필요가 있다.

115) 이는 조석(朝夕)과 조류(潮流)를 말한다. 해수는 달과 인력작용에 의하여 규칙적으로 승강하는 상하운동과 수평운동을 되풀이한다. 이와 같은 해수의 상하운동을 ‘조석(tide)’이라고 하고 수평운동을 ‘조류(tide current)’라 한다. 조석을 일으키는 힘을 기조력이라 하는데 달은 태양보다 지구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대단히 크게 작용을 한다. 기조력에

거제도의 경우에는 1년 중 조수 간만의 차가 가장 큰 날이 이월 초아흐례로 ‘일곱물’, ‘여덟물’이라 한다. 이때를 ‘영동시’·‘영동시’라 한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2월이 ‘영동할매’가 내려오는 달이기 때문이다. 2월에는 여드레 조금에는 ‘영동시’가 있고 스무사흘조금에는 ‘영동뒤시’가 있다. ‘영동시’는 2월 보름날이고 ‘영동뒤시’는 2월 그믐날이 된다. 만약 ‘영동시’에 간만의 차가 크면 ‘영동뒤시’는 자고 ‘영동시’에 간만의 차가 작으면 ‘영동뒤시’가 가장 크다. ‘영동사리’는 2월의 일곱물에서 열물까지를 말한다.<sup>116)</sup>

거제도 뿐 아니라 해안가 지역에서는 ‘영동시’·‘영동 초시’·‘영동 뒷시’라는 물때를 가리키는 용어가 나타난다.<sup>117)</sup> 남해안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날짜는 조금씩 다르지만 2월 초하루부터 보름 사이에 조수 간만의 차가 가장 심한 때를 ‘영동시’라고 한다. 해안가는 특히 영등할머니 신앙이 우세하게 나타나므로 2월의 물때의 명칭에도 신령의 호칭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영동시는 다른 때에 비해서 潮差가 심하여 넓은 갯벌이 드러나기 때문에 조개류를 채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날 채취한 해산물을 먹기 전에 반드시 제물로써 ‘할만네대’ 밑에 잠시 놓아둔다.<sup>118)</sup>

영남은 영등할머니 신앙이 대단히 우세한 지역으로 신령을 모시는 방법이나 절차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와같은 지역적 편차의 배경은 현재로써는 밝히기가 어렵다.

## 6) 제주

---

의하여 해면이 최고위에 달했을 때를 다들이(滿潮 또는 高潮)라 하고 최저위에 달했을 때를 잣짓기(干潮 또는 低潮)라 한다. 조석의 주기는 약 24시간 50분이나 그 사이에 2회의 만조와 간조가 있는 것이 통상적이다.(「물때」, 『한국민속대관』,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82, 411쪽.) 계절과 朝夕의 변화는 어로활동에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다. 시간은 년, 월, 시, 분, 초라는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만 나뉘지는 것은 아니다. 달의 운행, 별의 출몰, 식물의 개화와 결실, 고기의 회유, 풍향 등의 자연형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것으로 시간을 구분하는 것을 태음력, 성좌력, 자연력이라고 한다.(秋道智彌, 『해양민속지』, 1995, 52쪽.)

116) 국립민속박물관, 『경남어촌민속지』, 2002, 160쪽.

117) 조수간만의 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동해안 지역에서는 이같은 명칭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서해안은 남해안에 비해 영등할머니 신앙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같은 명칭이 나타나지 않는다.

118) 국립문화재연구소, 「남해군」, 『경상남도 세시풍속』, 2002, 556~557쪽 및 541쪽.

영등할머니 신앙이 우세한 지역으로 제주 지역도 포함이 된다. 육지와 비교했을 때에 두 지역 모두 2월 초하루에 지상으로 하강하는 영등할머니를 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근접한 거리에 위치해 있다. 두 지역의 지리적인 접근성은 영등할머니 신앙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 영등할머니 신앙은 자연환경의 차이 때문인지 육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육지에서는 영등할머니를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모시는 반면에 제주도에서는 심방[무당]과 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위하는 신령으로 인식한다.<sup>119)</sup> 제주도에서는 이를 ‘영등굿’ 혹은 ‘영등손맞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영등굿을 행하는 지역은 제주도의 북부 해안가 지역을 비롯하여 동남부까지 이어진다. 서쪽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영등굿을 하는 사례가 적은 편이다. 또한 중산간 지역에서도 영등할망을 위하지만, 해안가만큼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sup>120)</sup>

제주도는 육지에 비해서 유독 바람이 강하다. 2월의 북서 계절풍을 영등할망이 물고와서 몹시 추운 시기라고 한다. 이 무렵은 ‘꽃샘추위’가 시작되는 때로, 일기의 변화가 심하여 벳일을 삼간다. 그 밖에 일상에서도 지붕 이엉을 엿는 일이나 밭에 거름을 주는 일도 뒤로 미룬다.<sup>121)</sup> 이처럼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제주도에서 영등할머니 신앙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원인을 제공한다.

영등할망은 반드시 여러 식솔을 거느리고 내방한다. 딸을 데리고 오면 날씨가 좋고, 머느리를 데리고 오면 고부간의 갈등 때문인지 궂은 날씨가 계속된다. 또한 비옷을 입은 영등우장이 오면 비가 오고, 두터운 솜 외투를 입은 영등이 오면 그해 영등달에는 눈이 많이 온다. 차림이 허술한 영등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영등달 내내 날씨가 화창하다.<sup>122)</sup>

119) 내륙에서도 마을에서 공동으로 영등할머니를 모시는 지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김의숙, 앞의 글, 1995, 268쪽.)와 전남 순창군 구림면 금창리 금상마을(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세시풍속』 II, 1998, 82~83쪽.) 두 지역에서 2월 초하루에 마을에서 공동으로 영등할머니를 위한다. 물론 후자의 경우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지내는 탑제와 혼합된 양상을 보이고, 각 가정에서도 개별적으로 영등할머니를 모시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 지역의 영등할머니 신앙은 개인 및 가정신앙의 범주로 이해된다. 강원도 장신리 역시 제주 지역처럼 본래부터 마을전체에서 신령을 모셨던 것으로는 파악되지 않는다.

120) 국립문화재연구소, 「제주시」, 『한국의 가정신앙 : 제주도』, 2008, 60쪽.

121) 현기영, 『면방에 우짖는 새』, 창작과 비평사, 1983. 55쪽.

영등제를 지내는 祭日은 마을마다 차이가 있는데, 대개 2월 보름 무렵이다. 祭場도 마을의 당집으로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영등할머니를 위한다. 제물은 공동 제비로 마련하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마련하여 가지고 나가기도 한다.<sup>123)</sup> 이날은 심방의 주도하에 제의가 거행된다. 자연 환경 때문인지 반드시 요왕을 먼저 위한다.<sup>124)</sup> 이어서 ‘씨드림’이라고 하여 갯가로 나가서 좁쌀을 뿌린다.<sup>125)</sup> 영등할망은 미역·소라·전복 씨를 뿌리고 가는 신령으로 인식을 한다. 바다는 넓은 밭이나 다름없다.

육지에서도 영등할머니는 농업·어업 등 생업을 돌보는 신령으로 관념한다. 그러나 제주도에서처럼 해산물의 씨를 뿌려주는 신령으로 그 역할이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는 제주도 영등할머니 신앙의 특징이다.

육지와 달리 영등할머니의 역할이 보다 분명하고, 그를 모시는 절차마다 의미가 담겨 있는 점은 심방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이를 포함하여 가정에서 소박하게 영등할머니를 모시는 사례는 전혀 찾아지지 않는 등 보다 구체적인 현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영등할머니 신앙은 추후에 별도의 논고가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영등할머니 신앙은 태백산맥·소백산맥 일대와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 치우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신령에 대한 인식이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또는 다소 희박한 편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영남 지역은 영등할머니 신앙의 지표가 될 만큼 의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찾아진다.

영등할머니 신앙이 우세한 지역으로 제주 지역도 포함된다. 제주도와 육지의

122) 문무병,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 영등굿』, 황금알, 2003, 21~23쪽.

123) 서귀포 지역의 사례로 이 지역에서는 2월 12일에 영등제를 지낸다. 메, 과일 몇 가지, 돌래떡, 액막이용 수탉, 팔찌라는 무색천, 紙錢, 소지를 준비하여 본향당으로 향한다. 메와 과일은 세 뜻을 마련하여 당집의 안팎에 나누어서 올린다(국립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2008, 126쪽).

124) 영등굿은 초감제, 요왕맞이, 씨드림·씨점 순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짚배를 만들어서 바다에 띄워보낸다. 이는 바다의 용왕신이나 水死者를 위한 제물을 싸서 보내는 의례 절차이다. 참석한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차려온 제상을 적당한 자리에 옮겨다 놓고 백지에 여러 제물을 조금씩 넣어서 쌌다. 이를 ‘지 쌌다.’라고 표현을 한다(문무병, 위의 책, 53쪽).

125) 아낙네들은 한참 신들린 듯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심방이 ‘씨 들입서’하는 소리에 일제히 물가로 내달려가 머리 풀고 곤두박칠치는 과도에 아랫도리를 적시며 바다에 좁쌀을 뿌린다. 이때 “좁쌀 들염수다(뿌립니다). 미역씨 들염수다. 소라·전복 씨 들염수다. 많이 열게 해줍서. 우리 마을 백성 잘살게 하여 좁서.”하고 큰 소리로 외친다(현기영, 앞의 책, 1983, 56쪽).

남해안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근접한 거리에 위치해 있다. 두 지역의 지리적인 접근성은 영등할머니 신앙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주도의 영등할머니 신앙은 인문·자연환경의 차이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영남 지역에서도 내륙 산간과 해안 지역의 영등할머니 신앙은 차이가 있다. 이는 신체 제작 여부와 그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의 내륙 산간 지역은 소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신체를 만들며 특별한 명칭이 없다. 남쪽 해안가 지역에서는 대나무로 신체를 만드는데 이를 ‘물대’·‘할맘네 대’라고 부른다. 이처럼 대를 세우는 사례는 경북보다는 경남의 해안가 지역에서 우세하게 찾아진다. 경북은 대를 만들기보다는 오색천이나 백지를 제의 장소에 붙여 두는 것으로 대신하거나 아예 신체를 만들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은 해안가를 따라서 강원도 지역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경북의 동해안 지역에서는 ‘영등까꾸지’라고 하여 제물로 올릴 魚物을 잠시 보관할 수 있도록 갈퀴 형태의 기구를 부엌에 매달아 둔다. 또한 ‘섬떡’·‘뒤주떡’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떡을 만들어서 먹는다.

이를 제외한 서부 해안가 및 평야 지대에서는 영등할머니 신앙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경기·충남·전북·전남 네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찾아진다. 또한 북으로는 충남의 대전·금산과 충북의 영동·옥천·보은까지만 영등할머니 신앙이 우세하다.

## V. 영등할머니 신앙 의례의 내용과 절차

영등할머니 신앙의 의례는 지역에 따라서 ‘영등할매 위하기’ · ‘영등할매 모시기’ · ‘풍신제’ · ‘영등맞이’ · ‘영등고사’ 등 다양하게 불린다. 이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바람 올린다.’ · ‘바람 한다’ 혹은 ‘영등 올린다’라는 표현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등제’나 ‘풍신제’와 같은 용어보다는 ‘바람올리기’를 제의 명칭으로 사용하고자 한다.<sup>126)</sup> ‘바람 올리기’는 바람신으로써의 영등할머니의 성격을 함축적으로 담아낸 고유한 용어이기 때문이다.

바람 올리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의 인문 · 자연환경과 가정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동소이한 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제의 명칭, 祭日, 제의 장소[祭場], 神體, 祭物, 禁忌 및 俗信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제의 명칭

신령의 호칭이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듯이 이를 모시는 의례의 명칭도 한 가지로 통일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 제의 명칭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바람올리기’이다. 다음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제의 명칭을 소개한다.

- ㄱ. 이월바람 올린다(이월바람 한다 · 영두 올린다<sup>127)</sup> · 초하룻날 바람낸다 · 이월영등 바람낸다<sup>128)</sup>)
- ㄴ. 영등할매 위하기(영등할매 위하기 · 풍신 위하기 · 이월한다 · 제석할매 위하기<sup>129)</sup>), 영등 모시기(할맘네 모신다 · 바람 모신다<sup>130)</sup> · 영등 띄운다<sup>131)</sup>)

126) 이 祭祀를 民間에서는 ‘영등할머니 올린다.’하고 別로 이것을 祭라 말하지는 않는다. 올린다는 말은 할머니를 산에 올라가게 한다는 意味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녀에게 祭祀를 올린다는 意味인지 分明치 않다.(孫晉泰, 「風神祭儀」, 『孫晉泰先生全集』 6, 태학사, 1981, 341쪽.) 경상도나 강원도에서 ‘영등할매제’, 영등할만네제, 영등제, 풍신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자에 의해 ‘영등제’라고 表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적합한 명칭이 아니다.

127) 국립문화재연구소, 「청도군」, 『한국의 가정신앙 : 경북』, 2007, 679쪽.

128) 국립문화재연구소, 「칠곡군」, 위의 책, 2007, 753쪽 · 760쪽.

129) 국립문화재연구소, 「산청군」, 『한국의 가정신앙 : 경남』, 2007, 301쪽.

- ㄷ. 영등맞이(풍신맞이 · 바람맞이)
- ㄹ. 영등고사(풍신고사 · 할만네고사 · 손고사)
- ㅁ. 영등제(풍신제132) · 영등할매제(우133))
- ㅂ. 이월밥 해먹기(영등밥 해먹기 · 농사밥 해먹기 · 쑥떡 명절134))

영등할머니는 1년 중 2월에 부는 바람과 깊은 관련이 있는 신령이다. 영남 지역에서는 그의 ‘이월바람 올린다’ · ‘이월바람 한다’ · ‘초하룻날 바람낸다’ · ‘이월영등 바람낸다’ 등의 제의 명칭이 주로 사용된다. 여기서의 바람은 영등할머니를 뜻한다.

바람은 공기의 순환을 통해 발생하며, 인간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불어온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든 그 시발점은 하늘이다. 하늘은 지상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공간으로 신의 영역이기도 하다. 현재 있는 곳에서 높은 지점으로 이동을 할 때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영등할머니는 지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늘로 올라간다. 곧 ‘바람을 올린다’라는 표현은 신령을 맞는 인간의 태도를 함축적으로 나타낸 것이기도 하지만 신령의 원거지가 지상보다 높은 곳이라는 관념이 투영된 명칭이다. 또한 다른 민간신앙의 경우에는 ‘올리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곧 영등할머니를 위할 때만 사용하는 용어임을 알 수 있다.

ㄴ~ㅁ은 신령의 호칭에 ‘위하기’ · ‘맞이’ · ‘고사’ · ‘제사’를 덧붙여 만들어진 명칭이다. 이러한 수식어를 붙임으로 영등할머니가 정성껏 받들어지는 신령임을 확인 할 수 있다.<sup>130)</sup> 먼저 누군가에게 마음을 쓰고, 정성을 다할 때에 ‘위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가짐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상대

130) 국립문화재연구소, 「거창군」, 『경상남도 세시풍속』, 2002, 437쪽.

131) 강원도 원주시 부굴면 정산3리의 사례로 이는 영등을 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명칭은 이외의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용어로 파악이 된다.

132) 이는 강원도 지역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명칭이다.

133) 국립민속박물관, 『경남어촌민속지』, 2002, 270~272쪽.

134) 국립문화재연구소, 「합천군」, 앞의 책, 2002, 862쪽.

135) 가정에서 믿는 여러 신령도 격이 있다. 예를 들어서 客鬼는 갑작스레 집안에 憂患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에 ‘물린다’ · ‘물리친다’ · ‘물러가게 한다’라는 뜻에서 수시로 ‘해물리기’를 당하는 대상이다. 鬼귀는 인간들로부터 공손히 받들어 지는 존재가 아니며, 항상 바자지에 된장국밥을 만들어서 풀어먹여 돌려보내는 존재인 셈이다. 신령을 모시는 행위를 표현하는 방식은 신령의 성격을 반영한다. 영등할머니는 인간들로부터 항상 정성껏 받들어지는 신령이기에 ‘마지’ · ‘고사’ · ‘祭’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를 높이는데서 비롯된다. 이는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자신을 낮추는 저급한 태도가 아니다. 영등할머니께 올릴 제물을 준비할 때에 쌀 한 틀에도 신경을 쓰는 정성이 없다면 신령을 진심으로 위하고 받든다고 볼 수 없다. 영등할머니는 매우 까다롭고 시샘이 많은 신령이기 때문에 여느 신령을 대접할 때보다 더욱 정성을 쏟게 된다.

그의 ‘맞이’는 일정한 때에 누군가를 맞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등맞이’는 인간이 영등할머니를 맞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봄, 추석 등이 돌아올 때에도 ‘맞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sup>136)</sup> 영등할머니 역시 2월이라는 일정한 절기에 모셔지는 신령이기에 ‘영등맞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손님을 맞는 가정에서는 가능하면 온갖 정성을 다하여 손님이 유쾌한 기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먹을 수 없는 특별한 음식을 마련하는 것이고, 무료하지 않도록 가루로 즐겁게 해주는 것이다. ‘맞이’는 이 모든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의 ‘영등제’·‘풍신제’·‘영등할매 제우’라는 용어는 신령의 호칭에 ‘祭祀’를 불인 것이다. 이는 집안의 남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내는 유교식 제사가 아니다. 가정주부 홀로 소박하게 지내는 것이므로 유교식의 정형화 된 절차에 전혀 얹매이지 않는다. 향을 피우거나 축문을 읽지 않아도 이미 모든 절차에 집안의 안과 태평을 바라는 주부의 정성이 담겨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영등할머니를 위하는 것을 ‘이월밥 해먹기’ 혹은 ‘영등밥 해먹기’라고 한다. 해마다 가을걷이가 끝나면 영등할머니를 위할 나락을 따로 단지에 담아서, 원새끼로 금줄을 꼬아 둘러놓기도 한다. 이 나락으로 이월초하룻날 저녁에 메와 반찬을 푸짐하게 마련하여 신령을 위한다. 이 밥을 ‘이월밥’이라고 한다.<sup>137)</sup> 이 메는 신령이 운감을 한 이후에 식구들이 나누어 먹는다.

영등할머니를 위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이같은 명칭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통하여 ‘이월밥’은 영등할머니를 위하는 지역에서만 찾아지는 제물임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이를 받는 신령의 입장에서는 평소와 다른 특별한 음식으

136) 무당이 정기적으로 신령을 만들어 모실 때에 흔히 ‘마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궂을 하는 달[月]의 뒤에 ‘마지’라는 수식어가 오는데, 4월의 초파일마지, 7월의 칠석마지, 가을의 헛곡마지, 그리고 동지마지가 이에 속한다. 비정기적으로 신령을 위할 때에는 ‘마지’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마지는 정기적으로 신령을 맞아 흥겨이 놀려 보낸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조홍윤, 『韓國의 巫』, 정음사, 1984, 44~54쪽.)

137) 국립문화재연구소, 「금산군」, 『충청남도 세시풍속』, 2002, 302 · 317 · 381쪽.

로 여겨질 것이다. 이날은 쌀밥을 먹더라도 가능하면 갖가지 나물과 생선을 푸짐하게 마련하여 함께 먹는다. 지역에 따라서 정월 보름날 오곡밥을 해먹는 것처럼 수수·팥·콩 등 여러 종류의 곡물을 섞어서 밥을 짓기도 한다.<sup>138)</sup>

또한 ‘이월할머니’라는 호칭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에서 ‘이월밥’이라는 용어가 찾아지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지역적인 문화권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sup>139)</sup>

## 2) 제일(祭日)

영등할머니는 2월에만 지상에 내려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간에 신령을 위한다. 2월은 영등할머니가 지상에 머무르는 달[月]이므로 ‘영등달(영동달·영두달·영동할매달·풍신할만네달·할매달)’·‘제석달(제석할매달)’, ‘바람달’이라고도 한다. 2월은 영등할머니와 인간이 공존하는 신성한 기간인 셈이다. ‘바람달’이라는 명칭은 영등할머니가 바람신인 이유도 있으나 여느 달보다 바람이 많은 달이라는 의미도 있다.<sup>140)</sup>

그렇다고 2월 중 아무 때나 신령을 위하는 것은 아니다. 바람올리기를 행하는 날짜는 신령이 하강하고, 상천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신령이 하강하는 시기는 대체로 2월 초승이다. 신령이 하강하는 날은 다른 때에 비해 유독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한다.<sup>141)</sup> 2월 초하루를 영등할머니가

138) 오곡의 개념을 살펴보면, 오곡을 다섯 가지 곡식으로 제한하려는 한정적 개념과 내용 구성보다는 명명을 중시하는 명목적 개념으로 양분할 수 있다. 전자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거명되는 다섯 종의 주곡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후자는 고정적으로는 거명할 수 없는 추상적으로 파악되는 다섯 종의 주곡이라는 의미와 모든 곡식이라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배영동, 「五穀의 개념과 그 중시의 배경」, 『민속연구』 8집,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1998, 240쪽.)

139) 전라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에서는 특히 ‘이월할머니’라는 호칭이 보편적으로 찾아진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는 이월할머니를 위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이월밥을 해먹는다’라고 표현한다.

140) 2월은 계절풍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절기로 꽃샘추위가 반복이 되는 시기이다. 사람들은 봄이 찾아오는 기쁨을 만끽하면서도 한겨울의 찬바람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추운 절기로 인식을 한다. 이월 바람을 한겨울에 부는 바람보다 강하게 인식을 하는 까닭은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1) 앞의 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등할머니가 내려오는 2월 초승에 유독 바람이 많이 분다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영등할머니가 바람과 깊은 관련이 있는 신령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재차 확인을 할 수가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고령군」, 『한국의 가정신앙 : 경북』, 2007, 110쪽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진안군」, 『전라북도 세시풍속』, 2003, 607쪽.)

하강하는 시기와 연관 지어서 ‘영등날(영동날·영두날·영등할머니가 오는 날)’, ‘풍신날(풍신할머니가 오는 날)<sup>142)</sup>’, ‘바람날’, ‘영등할미 열어 죽은 날<sup>143)</sup>’, ‘손이 내려오는 날’과 같이 다양하게 부르기도 한다. 이를 통하여 2월 초하루는 ‘하늘에서 영등할머니가 내려오는 특별한 날’이라는 관념이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에서는 신령이 하강하는 날짜에 맞추어서 바람올리기를 행한다. 영등할머니는 초하루에 하강을 하여 곧바로 상천을 하지 않고, 일정기간 지상에 머물러 있다가 되돌아간다. 영남 지역에서는 신령이 하강하는 날만큼 상천하는 날도 중요하게 인식한다. 이날도 별도의 제물을 마련하여 신령을 위하는가 하면 형편에 따라서 신령이 머무르는 기간내에도 두 세 차례 신령을 맞이한다.

한 가지 특기할만한 사항은 신령이 상천하는 시기는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빠르면 사흘만에도, 늦으면 그믐이 되어야 영등할머니가 상천한다고 관념하기 때문이다. 몇몇 특수 사례를 고려하면 보름이나 스무 날에 상천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달을 넘겨서는 상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3월이 되면 집안 어디서도 그녀의 자취를 찾을 수가 없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으나 영등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상천하는 날짜는 정해져 있다. 다만 보름·스무날·그믐처럼 長短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sup>144)</sup>

영남 일부 지역에서는 영등할머니가 상천하는 시기가 한날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사례이다.

- ① 영등할머니는 1월 그믐날, 2월 4일, 9일, 14일에 내려오고, 19일에 올라간다고 한다.<sup>145)</sup>
- ② 영동할매가 처음 내려온 것을 ‘상청(큰손)’, 다음을 ‘중청’, 마지막을 ‘하청(막 손)’이라고 하고 상청이 내려오는 날에 가장 크게 제사를 지낸다.<sup>146)</sup>

142) 이는 ‘風神’이라는 호칭이 찾아지는 강원도 지역에서 주로 사용된다.

143) 10월 스무날을 ‘손들이가 열어 죽은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2월 초하루도 이처럼 표현한다.(서해숙, 「섬진강유역 가정신앙의 양상과 의미」, 『한국의 가정신앙』, 민속원, 2005, 219쪽.)

144) 이와 관련하여 충청도, 강원도 지역에서는 영등할머니가 보름, 스무날, 스무닷새, 그믐 등 일정한 날짜에 상천하는 신령으로 인식 된다. 이처럼 오랜 기간 머물러 있다가 가는 이유는 그녀가 홀로 내방하지 않고 딸과 며느리 혹은 수비를 동반하는 신령이기 때문이다. 이 날 함께 온 신령도 상천을 한다.

145) 국립문화재연구소, 「거제시」, 『경상남도 세시풍속』, 2002. 32쪽.

146) 국립문화재연구소, 「김해시」, 위의 책, 2002, 75쪽.

- ③ 2월 초하루는 제석님이 내려오는 날이고, 아흐레는 ‘제석님이 머느리를 테려 오는 날’, 열아흐레는 ‘제석님 딸이 내려오는 날’, 2월의 마지막 날은 ‘제석님 떠나는 날’이라 하여 특별히 제를 모신다.<sup>147)</sup>
- ④ 풍신은 정월 그믐날 내려온다. 초아흐렛날 큰 할매가 올라가고 열나흘에 가운데 할매가 올라간다. 열아흐레에 마지막 할매가 올라간다.<sup>148)</sup>
- ⑤ 영등할머니는 초닷새가 되면 상천으로 올라가고, 초엿새가 되면 중천으로 올라가고, 보름이 되면 하천으로 올라간다.<sup>149)</sup>
- ⑥ 제석할머니는 이월초하루에 내려와서 상층·중층·하층으로 세 번에 나누어서 올라간다. 상층은 초닷새에, 중층은 초열흘에, 하층은 스무날에 올라간다. 초하루와 상층, 하층에는 밥을 하여 대접한다. 제석할머니는 여러 분이므로 여럿이 한꺼번에 올라가지 않고 나누어 올라가는 것이다.<sup>150)</sup>
- ⑦ 영등할머니는 2월 초하루에 내려와서 스무날 마지막으로 올라가는데, 모두 세 번에 걸쳐 올라가며, 처음에는 영등할머니가, 그 다음으로 머느리와 딸이 올라간다.<sup>151)</sup>
- ⑧ 영등은 2월 초하루나 초승께 내려오며, 스무날에 올라간다. 세 번에 나눠 올라가는데, 상층은 초닷새, 중층은 초열흘, 하층은 스무날에 올라간다.<sup>152)</sup>
- ⑨ 영동할미가 오르내릴 때와 관련하여 上天·中天·下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상층·중층·하층이라 하여 2월 10일에 영동할미가 처음 하늘로 올라가는 상층, 2월 15일 두 번째 올라가는 것을 중층, 2월 20일에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것을 하층이라고 한다.<sup>153)</sup>
- ⑩ 영등할머니와 같이 온 여러 신령들은 세 번에 걸쳐 하늘로 다시 올라간다. 날짜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개는 5일에서 20일 사이다. 첫 번째 신령들이 올라가는 것을 상층, 두 번째를 중층, 세 번째를 하층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한다.<sup>154)</sup>
- ⑪ 2월 초하루에 신령이 내려오며, 2월 9일에 두별바람을 하고, 2월 19일에 세별바람을 한다. 이때는 초하룻날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물을 마련하여 신령을 대접한다.<sup>155)</sup>

신령이 상천하는 시기가 단 하루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은 매우 특기 할만

147) 국립문화재연구소, 「하동군」, 위의 책, 2002, 496쪽.

148) 국립문화재연구소, 「통영시」, 위의 책, 2002, 283~286쪽.

149) 국립문화재연구소, 「군위군」, 앞의 책, 2002, 485쪽.

150) 국립문화재연구소, 「장수군」, 『세시풍속 : 전북』, 2003, 567쪽.

151) 국립문화재연구소, 「남원시」, 위의 책, 2003, 111쪽.

152) 국립문화재연구소, 「고성군」, 『한국의 가정신앙 : 경남』, 2007, 82쪽.

153) 국립문화재연구소, 「의령군」, 위의 책, 2007, 379쪽.

154) 국립문화재연구소, 「김천군」, 『경상북도 세시풍속』, 2002, 137쪽.

155) 국립문화재연구소, 「함안군」, 위의 책, 2002, 775쪽.

하다. 이는 ‘가족신’으로써의 신령의 성격이 반영된 부분이기도 하다. 영등할머니는 하강을 할 때에 딸과 며느리를 동반한다. 함께 내려오는 대상이 딸과 며느리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장이나 수비를 동반하기도 한다.<sup>156)</sup> 그러나 ④, ⑥ 등의 예처럼 동반 신령이 없어도 홀로 왕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 영등할머니를 복수의 신령으로 인식하기도 한다.<sup>157)</sup>

①, ②, ③의 경우는 영등할머니가 각각의 날짜에 홀로 내려오거나 다른 신령과 함께 와서 마지막에 모두가 함께 상천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령이 완전히 올라가는 날까지 시간을 분절하여 인식하는 사실은 다른 예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강을 하는 날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③의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등할머니는 정해진 날이 아니면 상천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날짜에 적합한 신령을 대동한다. 또한 다시 상천을 했다가 하강 할 때 다른 신령을 홀로 내려 보내거나 자신과 무관한 존재를 대동하지 않는다.

영등할머니는 완전히 상천할 때까지 적어도 세 차례 정도 나누어서 올라가는 신령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시점을 표현할 때에 ‘상층·중층·하층’이라고 한다. 지역에 따라서 방언으로 ‘상칭·중칭·하칭’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⑪에서처럼 ‘두별바람·세별바람’이라고도 한다. ‘층’ 혹은 ‘칭’이라는 단어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계단을 떠오르게 한다. 지상으로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계단이 있다면 이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오르내리는 신령의 모습이 연상된다.

‘상층·중층·하층’은 신령이 하늘로 완전히 올라가기 전까지의 기간을 분절한 표현이기도 하다. 역으로 생각하면 신령이 지상에 머무는 여러 날 중에서도 일종의 기준점에 위치한 시기인 셈이다. 영등할머니는 바람의 속성을 닮아서 한 곳에 오래도록 정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땅과 하늘을 소통하는데, 아무 때나 이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상층·중층·하층’과 같이 정해

156) 경남 함양군의 사례로 영등할머니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는 여러 신장과 함께 내려왔다가 서로 다른 날짜에 하늘로 되돌아간다. 보통 초하루에서 6일까지 상층이 올라가고, 7일부터 19일까지는 중층이 올라가고, 마지막 스무날에 모두 올라간다.(국립문화재연구소, 「함양군」, 위의 책, 2002, 825쪽.)

157) 宋錫夏는 이를 주목해야 할 영등할머니의 성격의 한 부분으로 언급한 바 있다. 곧 “영등 할머니는 명실상부하게 바람을 닮은 신령이기 때문에 그身體를 分割할 수 있는 組織體인 셈이다. 동시에 그 신 자체가 일종의 妖氣가 뭉치어진 한 개의 有體妖體라 할 수 있다. 곧 ‘可分性有毒集成體’인 셈이다.”라고 하였다.(宋錫夏, 「風神考(附 禾竿考)」, 『진단학보』 1, 1934, 169쪽.)

진 날짜에만 이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상 · 중 · 하’는 순차적인 시간성을 표현한 것이다. 한 달[月]의 시간을 세 시기로 구분을 할 때에 上旬, 中旬, 下旬이라고 하는 것처럼 신령이 올라가는 마지막 날까지를 동일한 방식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어른 먼저’라는 전통적인 관념이 작용한 탓인지 제일 이른 시기에 서열이 높은 신령 순으로 올라간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점도 흥미롭다.

영등할머니는 영구적으로 지상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이 머무는 하늘로 반드시 되돌아가는 신령이다. ⑤와 ⑨의 내용에서는 ‘총’을 곧 하늘[天]로 파악하고 있다. ‘총’은 시간 뿐 아니라 공간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서의 공간은 하늘이며, 인간 세상과는 무관한 신들의 영역이기도 하다. 영등할머니가 머무는 세상은 ‘상 · 중 · 하’로 또 다른 차원에서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상 · 중 · 하로 구분된 시간사이의 간극 역시 대단히 규칙적인 특징이 있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사례 이외에도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날짜를 살펴보면 4일 · 9일 · 14일, 4일 · 9일 · 19일, 7일 · 14일 · 19일, 5일 · 10일 · 15일, 5일 · 10일 · 20일이다.<sup>158)</sup> 대개 닷새의 시간차가 나며, 제일 이른 날짜를 상층으로 관념하고

158) 특히 경남 해안가에 접한 거제, 통영, 마산, 고성, 남해 지역은 이 날짜에 바람올리기를 행한다. 영등할머니의 하강 및 상천 시기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국립민속박물관, 『경남어촌민속지』, 2002, 256쪽 제인용.)

구 분	거 제		통 영		마산, 고성			남 해		
내려 오는 날	1.30 ↓	1.30 ↓	2. 1 ↓	1.30 ↓	1.30 ↓	1.30 ↓	2. 1 ↓	2. 1 ↓	2. 1 ↓	2.1~ 3 ↓
올라 가는 날	2.9 ↑	2. 7 ↑	2.9 ↑	2.5 ↑	2.9 ↑ 큰할 매	2.5 ↑ 중청	2.9 ↑ 큰할 망네	2.5 ↑ 한분	2.9 ↑ 첫손	2.9 ↑ 큰손
	2.14 ↑	2.14 ↑	2.14 ↑	2.9 ↑	2.14 ↑ 가운 데할 매	2.9 ↑ 중청	2.14 ↑ 작은 할망 네	2.10 ↑ 두분	2.19 ↑둘 째할 머니	2.19 ↑ 가운 데손
	2.19 ↑	2.19 ↑	2.14 ↑	2.14 ↑	2.19 ↑ 마지 막할 매	2.20 ↑ 상청	2.20 ↑ 작은 할망 네	2.15 ↑ 세분	2.21 ↑ 막손	2.21 ↑ 막손
			2.19 ↓	2.19 ↑						

중간을 중층, 마지막을 하층으로 관념하는 경우가 많다.<sup>159)</sup> 어떤 경우에는 영등할머니가 올라가는 날짜와 장이 서는 날짜(4·9일)가 일치하여 이때에 맞추어 신령을 위하기도 한다.<sup>160)</sup>

‘층’이라고 표현하는 특정한 시기를 만들어 놓은 까닭은 현실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집안에 장기간 머무는 손님이 있고 더구나 그가 나이도 많고 매우 까다로운 성격의 소유자라면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대접할 수 있을까? 이는 주인의 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더욱이 형편이 넉넉한 집에서 이같이 대접을 한다면 손님 입장에서는 서운함을 넘어서 불쾌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반대로 가난한 집에 찾아가서 여러 날 머물게 될 경우에는 음식을 나누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부담으로 느껴질 것이다.

더욱이 그 대상이 영험한 신령인 경우에는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형편에 관계없이 어느 집에서나 평소에는 정화수를 떠올리다가 정해진 때에만 풍성하게 제물을 마련하여 정성을 보이면 해결이 된다. 영등할머니는 제물보다 때마다 잊지 않고 제물을 마련하는 인간의 노력을 가상하게 여길지 모른다.

앞에서는 신령이 완전히 상천하기 전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신령이 지상을 떠나는 날은 다른 때보다 더욱 정성을 드린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사례이다.

- ① 정월 그믐에 내려온 영등할머니는 2월 3일·5일·7일에 올라가며 스무날 마지막으로 올라가는데, 이때는 타고 내려온 말고삐까지 다 가져간다.<sup>161)</sup>
- ② 스무날까지 모두 세 번 고사를 지낸다. 특히 세 번째 지내는 고사는 할머니가 올라가는 날이므로 더욱 정성을 들여서 제물을 차린다. 또한 장만할 수 있는 제물은 모두 장만한다. 주로 메, 생선, 나물 등을 차린다. 생선은 큼직한 것을 별도로 마련해 둔다. 메는 큰 그릇에 담고 그 위에 수저 한 볶을 걸쳐놓

---

			2.19↑							
--	--	--	-------	--	--	--	--	--	--	--

159) 여기서의 주기는 본문에서도 설명한 바 있지만 분명한 구분을 할 수가 없다. 또한 삼일로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도 어려운 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이 올라간다고 믿는 날짜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러한 주기에 맞추어 바람울리기를 행하기에 祭日로써 의미가 있다고 파악이 된다.

160) 국립문화재연구소, 「여수시」, 『전라남도 세시풍속』, 2003, 206쪽.

161) 국립문화재연구소, 「고흥군」, 앞의 책, 2003, 290쪽.

는다. 162)

- ③ 2월 열아흐렛날은 할맘이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날이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 상을 더 정성스럽게 차린다. 이날 상 차리는 것을 ‘막죽 올린다.’라고 한다.<sup>163)</sup>
- ④ 2월 보름은 영등할머니가 올라가는 날인데 이를 ‘영등 막는다’고 한다. 이때 제물을 마련해서 그 해의 풍년과 풍어, 또 무사히 올라가시길 빕 후 음복하고 남은 음식들을 모두 소각한다. 또한 액연을 띄워 보내기도 한다.<sup>164)</sup>
- ⑤ 대체로 영등은 초하루에 내려와서 3일에 올라갔다가 다시 두 번을 더 올라간다. 특히 스무날 올라가는 영등을 ‘막손’이라고 하여 이때는 다른 때보다 제물을 더욱 많이 차려서 영등할머니를 위한다.<sup>165)</sup>

신령이 상천하는 날은 위의 예처럼 ‘막죽 올린다’ 혹은 ‘막올린다’·‘영등 막는다’라고 하여 보다 많은 제물을 준비하여 바람올리기를 행한다. 여기서의 ‘막’은 마지막을 줄여서 표현한 것으로 신령을 배웅하는 차원에서 더욱 정성을 드리려는 것이다. ①의 경우 처럼영등할머니가 상천한 이후에는 어디서도 신령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만약 그동안 정성을 게을리 했다면 송구한 마음에 이날 더욱 정성껏 제사를 지낸다. 신령이 하강을 할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날은 제의 장소를 말끔히 정리하고, 더 이상 신령을 위하지 않는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바람올리기를 행하는 날짜는 지역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아울러 신령이 하강하는 시기나 상천하는 시기, 동반 신령의 여부 등과도 관련이 있다. 어떤 지역이든 영등할머니가 하강하는 시기는 음력 정월 그믐에서 2월 초하루 혹은 초승 무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바람올리기를 행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상천 시에도 고사를 올려준다. 영등할머니 신앙이 우세한 지역에서는 경제적인 형편이 허락한다면 신령이 승천할 때까지 분기마다 제물을 마련하여 정성을 표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적어도 3~5회 정도 제물을 마련하여 신령을 모시게 되는 셈이다.

### 3) 제의 장소[祭場]

162) 국립문화재연구소, 「남해군」, 『경상남도 세시풍속』, 2002, 556~557쪽.

163) 국립문화재연구소, 「거제시」, 『한국의 가정신앙 : 경남』, 2007, 37쪽.

164)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강원도」, 『한국의 전통마을6』, 1997, 146~147쪽.

165) 국립문화재연구소, 「여수시」, 위의 책, 2003, 206쪽.

祭日에는 식구들 모두 경건하게 신령을 맞을 준비를 한다. 이날은 온 집안이 제장이고, 구석구석 聖域이 아닌 곳이 없다. 영등할머니는 2월에만 찾아오는 손님이므로 집안에서도 가장 정결한 장소에 모신다.

바람올리기를 하는 제장은 집을 기준으로 안팎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中最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공간은 부엌이다. 부엌은 屋内에 있어서 장독대·마당·우물 등의 장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바람 등의 피해를 입지 않는 신령을 모시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다음으로 장독대에 모시는 사례도 많이 나타난다. 그 외에 마당이나 우물가에서 모시기도 한다.

집 밖의 제의 장소로는 보리밭이 대표적이다. 물론 보리밭에서 신령을 모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체로 비일상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제의 장소로 이용된다. 예컨대 집안에 우환이 발생하여 2월 초승에 바람올리기를 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처럼 바람올리기를 행하는 장소는 크게 집 안과 밖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영등할머니 신앙이 우세한 지역에서는 소나무나 대나무 등을 베어다가 제의 장소에 세워두기 때문에 부엌이나 뒤편처럼 가내에서도 가능하면 조용하고 깨끗한 공간이 선택된다.

본 절에서는 제장을 부엌·장독대와 마당·보리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장이 한 곳으로 고정되어 나타나지만 간혹 여러 장소에서 신령을 위하기도 한다.<sup>166)</sup> 이러한 경우에는 複數의 장소지만 대상 신령이 영등할머니 한 분이기 때문에 바람올리기를 하는 주된 목적에는 변함이 없다.<sup>167)</sup>

## 가. 부엌

166) ‘개인적인 여러 사정’이라고 표현 한 까닭은 지역적인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영등할머니 신앙은 오늘날 60~70대 제보자들의 시어머니 대에 많이 모셔졌기 때문에 사실상 중요 제보자들은 이미 작고한 상황이다. 현재의 제보자들은 영등할머니 신앙을 경험하기는 했어도 이전 세대가 갖고 있던 신령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정성이 별반 없기 때문에 의례와 관련한 세세한 부분의 의미를 밝히기가 어렵다. 편의상 ‘개인적인 여러 사정’이라고 표현하기는 했으나 한 세대 이전에는 영등할머니와 家神의 위치 관계가 지금보다는 분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집안의 여러 장소에서 복합적으로 영등할머니를 위하는 경우는 자신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167) 이갑술씨 댁에서는 부엌에서 영두할매를 위하고 마당에서 다시 한 번 위한다. 부엌에서나 마당에서나 똑같이 제물을 마련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신령을 위한다.(국립문화재연구소, 『합천군』, 『한국의 가정신앙 : 경남』, 2007, 590쪽.)

부엌은 음식을 조리하고, 난방을 위한 실생활의 기본이 되는 공간이다. 음식을 준비하는 일부터 전반적인 가사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몫이었기에 부엌은 주부의 사적인 작업 공간이기도 하다.<sup>168)</sup> 이곳은 생활공간이기도 하지만 神이 내재한 신성공간이며, 不淨을 씻는 淨化의 장소이기도 하다.<sup>169)</sup> 부엌을 관장하는 신령은 爩王이라 불리며 마치 부뚜막 위에 불박이처럼 坐定한 신령처럼 관념한다.<sup>170)</sup> 조왕 신앙은 원래 부엌의 불을 관장하는데서 유래되었다가, 점차 주부의 집안 전체에 대한 소원을 응대하는 신령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sup>171)</sup>

평소의 부엌은 이처럼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다. 2월 한 달 동안 부엌은 또 다른 차원에서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 된다. 비록 잠시 동안이지만 영등할머니가 다녀가기 때문에 이곳은 간이 제장이 되고, 聖域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일상생활을 완전히 중단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장치를 통하여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보인다.

재래식 부엌에는 솔을 걸 수 있도록 아궁이 위에 흙과 돌을 쌓아서 만든 부뚜막이 있다. 부뚜막은 부엌의 심장이라 여길 만큼 중심이 되는 시설물이다. 특히 이곳은 음식물이 조리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주부는 항상 깨끗이 관리한다. 이를 주부의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평가하는 잣대로 삼았다. 식구들이 부뚜막에 걸터앉거나 올라앉는 것을 지극히 꺼린 이유도 이 때문이다.<sup>172)</sup> 조왕을 모시는 장소 역시 부뚜막 위로 가마솥 뒤의 벽면에 인위적으로 흙 제단을 쌓고 항시 ‘조왕물그릇’을 놓아둔다.<sup>173)</sup>

168) 부엌은 한 집안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소인 동시에 가장 다목적으로 쓰는 공간이기도 하다. 부녀자는 몸을 씻기도 하고 아랫사람들을 이곳에서 밥을 먹는다. 머느리는 시집살이의 설움을 달랬고 부지깽이를 봇삼아 글을 깨치기도 하였다. 따라서 부엌은 조리 간과 목욕간 그리고 위안처와 글방 구실까지도 겸한 셈이다. 또 새색시에게는 시집와서 ‘부엌데기’가 되어 적어도 이삼십 년 간 하루도 빠짐없이 들락거려야 하는 근무처이기도 하였다.(김광언,『우리생활 100년·집』, 현암사, 2000, 65쪽.)

169) 최인학, 1983, 「조왕과 여성」, 『제의와 여성』, 한일비교민속학심포지엄 발표지 프린트물 5쪽. (신영순,『조왕신왕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1993, 44쪽 재인용.)

170) 爩王은 爩자와 王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낱말로서, 유사어로는 爩神, 爩君 등이 있다. 爩는 아궁이, 부뚜막, 부엌, 부엌귀신을 의미한다. 즉 爩자 자체가 부엌에서 모시는 신령의 의미한다. 이에 王이 결합되는데, 王은 임금 또는 군주를 의미하는 용어로, 여러 종의 ‘으뜸’을 나타낸다. 기본적으로 신격은 女性이고, 명칭은 불신·불단지·부루단지·불왕에서 爩王으로 변화되었다. (신영순,『조왕신왕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1993, 3~7쪽, 94쪽.)

171) 이필영, 앞의 글, 2007, 406쪽.

172) 김광언,『우리생활 100년·집』, 현암사, 2000, 173쪽.

173) 남호현,『한국 전통주거의 신성공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1987, 68쪽.

이렇듯 부뚜막은 祭壇으로 안성맞춤인 시설물이다. 바닥보다는 한층 높은 위치에 있어서 시각적으로 ‘壇’의 느낌을 주며, 매사에 음식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정결한 관리는 필수 요건이다. 다만 영등을 위할 때는 제물 뿐 아니라 신령의 신체라 할 수 있는 대를 만들어서 함께 세워놓는다. 엄밀하게 이는 부뚜막을 포함하여 부엌 공간 중 가장 淨潔하며 탈이 나지 않는 방위에 세운다.<sup>174)</sup> 경우에 따라서 부뚜막 위에 대를 세워놓을 공간을 확보하기가 모호한 상황에서는 평소에 조왕을 위하여 자리에 두기도 한다.<sup>175)</sup> 조왕도 식구들의 안녕을 수호하는 신령이기에 가장 정결한 곳에 모시기 때문이다.

부뚜막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이용되는 시설물은 살강이다. 부엌에는 주요 시설물 외에도 솔, 食器, 床 등 다양한 조리 용구를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다. 살강은 식기류 중에서도 그릇, 수저 등 비교적 가벼운 물건을 썼어서 올려놓기 위해서 벽면에 달아맨 선반이다. 세심한 주부는 발을 엮어서 그 위에 깔고, 물기로 인하여 판자가 썩는 것을 막는다.

보통 부뚜막보다는 약간 높은 위치에 살강을 드린다. 신체를 모시기에는 부뚜막 위보다는 살강이 보다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 부엌은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평소에 조심한다고 해도 제물로 올린 정화수에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sup>176)</sup> 더구나 잘못하면 아이들의 손이 탈 염려도 있으므로 地面에서 가능하면 높이 있는 곳에 놓아두는 것이 좋다. 높은 곳에 위치하다보니 한 눈에 들어오는 시각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부엌 바닥이나 부뚜막, 솔 뒤쪽은 숨은 공간이기 때문에 신체가 한 번에 눈에 띠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살강이 넓은 경우에는 바람올리기를 할 때에 마련한 제물을 모두 진설하기도 한다.

가정에 따라서 제장이 부엌에 마련된 경우에는 조왕을 먼저 위하기도 한다.

174) 부엌의 손 없는 방향에 나뭇가지를 세우고 백지, 오색형걸 등을 건다.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천으로 조그만 저고리를 만들어 걸어두기도 한다. 이 저고리를 영동할머니 옷이라 한다.(국립문화재연구소, 「청도군」, 『경상북도 세시풍속』, 2002, 816~817쪽.)

175) 신영순은 조왕의 신체 유무로 ‘건궁조왕’과 ‘조왕’ 두 종류로 구분을 하였다. 건궁조왕은 신체가 없는 것으로 평상시에는 치성을 드리지 않으나, 조왕의 자리에서는 항상 조심을 하고, 제일에만 떡을 하여 제사를 올린다. 반면에 조왕은 지역에 따라서 그 형태가 조금씩 다른데 대개 부뚜막 위나 뒤쪽에 부적이 붙이거나 항아리, 상자, 바가지 그리고 보새기 등을 놓아둔다. 이는 일종의 용기와 같은 구실을 하는 것으로 안에는 쌀, 삼베, 정화수 등을 담아둔다.(신영순, 위의 책, 1993, 116쪽.)

176) 어느 가정에서나 신령이 상천하는 날까지 매일 청수를 떠놓는다. 이를 부주의하게 다루면 불순물이 들어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는 신께 받치는 가장 정성스러운 제물이다.

조왕을 위한다고 하여 별도로 제물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밥이 다 되면 솔뚜껑을 열고 제물은 각각의 그릇에 담은 채 조왕께 비손을 한다.<sup>177)</sup> 순서에 있어서 영등할머니를 먼저 위하고, 조왕을 나중에 모시기도 한다.<sup>178)</sup>

## 나. 장독대와 마당

영등할머니는 ‘장독할마씨’라고 불릴 정도로 장독대에서 많이 모시는 신령이다.<sup>179)</sup> 장독대는 중부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고, 이북에서는 ‘장독걸이’, 영남을 비롯한 남부지역에서는 ‘장독간’,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장항굽’이라 일컫는다.<sup>180)</sup> 장독대 부근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영등할머니를 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장독대를 마주하여 제물을 진설한다. 제의 장소로 장독대 앞이 이용되는 이유는 장(醬)을 발효·숙성시키는 깨끗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옥외지만 비교적 조용하고, 정결한 장소이므로 영등할머니를 모시기에 적합하다.<sup>181)</sup> 평소에 주부 이외에 식구들은 드나들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정결하게 관리가 된다. 또한장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땅바닥보다 높게 대(臺)를 쌓아 놓았기 때문에 제단의 모습을 갖춘 셈이다.

대를 세워놓을 경우에는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황토를 파다가 바닥에 깔아놓는다. 대는 가능하면 편편하고 눈에 띠지 않는 곳에 세워둔다. 이처럼 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앞에 제물을 진설한다. 대를 만들지 않을 경우에는 장독대 앞에 짚을 가지런히 깔거나 상을 펴놓고 제물을 진설한다. 다른 방법으로 제일 큰 장독을 깨끗하게 닦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기도 한다.

177)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장이 부엌에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이날은 영등할머니를 위하는 날이므로 여느 家神들은 잘 위하지 않는다. 아마도 영등할머니가 위낙 영험한 신령이다 보니 그에게만 정성을 다하는 듯하다.

178) 서해숙, 「섬진강유역 가정신앙의 양상과 의미」, 『한국의 가정신앙』, 민속원, 2005, 219쪽.

179) 경남 해안가 지역에서는 영등할머니를 ‘할마씨’ 혹은 ‘할만네’ 등으로 줄여서 부르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장독할마씨’는 다양한 호칭 가운데 제장을 부각시킨 특별한 호칭이다.(국립문화재연구소, 「창녕군」, 『한국의 가정신앙 : 경남』, 2007, 449쪽 및 황경숙, 「부산지역의 영동할미제」, 『부산의 민속문화』, 세종출판사, 2003. 207쪽.)

180) 김광언, 『우리 생활 100년·집』, 협암사, 2000, 80쪽.

181) 이월할머니를 집 뒤 장독대 옆에 모셔 놓았다. 이는 시어머니 때부터 하던 자리이며 탁 트인 곳에서 이월할머니 속 시원하라고 모신다. 담장 밑에 모시는 경우도 있다.(한남대 역사교육과, 『춘계답사 보고서 : 옥천군』, 2001, 59쪽.)

다음으로 안마당에서 바람올리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영남 내륙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sup>182)</sup> 안마당은 대문과 안채 사이의 공간이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통행이 잦기 때문에 집안의 다른 장소보다 부정에 노출될 위험이 많다. 그러므로 인적이 드문 시간을 택하여 마당에 명석을 깔고 제물을 진설하는 등 부정이 타지 않도록 조심한다. 이때 상을 놓는 위치는 마당 한 가운데로 안채를 바라보는 위치이다. 경우에 따라서 손이 없는 길한 방위를 가려 그곳에서 바람올리기를 행한다.

장독대와 안마당은 모두 옥외로 제의 장소로 많이 이용이 된다. 안마당은 영남 내륙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이므로 영등할머니 신앙의 지역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 다. 보리밭

2월이면 추위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곳곳에 앙상한 나뭇가지와 드문드문 쌓인 눈이 보인다. 이런 환경에서 새 움이 트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보리밭이다.

오늘날 보리밭은 낯선 장소가 되었다. 약 30년 전부터 점차 보리농사를 짓지 않게 되었고, 그 땅이 논이나 특수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밭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는 주식이 쌀로 바뀐 탓이다.

과거에는 ‘없는 사람은 보리농사가 반농사다.’, ‘보리농사는 세간 밑천이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가난한 농민들에게 보리는 주식이었다.<sup>183)</sup> 음력 3~4월의 보릿고개는 겨우내 비축해 두었던 양식이 바닥나서 가장 힘든 때이기도 했다. 오죽했으면 ‘보릿고개에는 땔네 집에도 가지 말했다.’라는 속담이 생겼을까? 배고픔이 가장 견디기 힘든 설움이라고 할 정도로 보릿고개는 견디기 힘든 시기였다. 식구들은 해동기에 보리밭을 밟으면서 조금이라도 이삭이 많이 패기를 기다렸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은 보리는 나락에 비해서 알곡이 여무

182) 여느 지역에 비하여 영남 내륙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경남 합천·경북 고령·대구·칠곡·성주 등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마당이 제장으로 이용이 되었다.

183) 보리는 쌀만큼이나 귀한 곡식이었다. 특히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주식이었고, 쌀밥은 명절이나 먹을 수 있는 별식에 가까웠다. 위의 속담은 보리로 식량을 하고, 비싼 쌀은 세간을 장만하는데 사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송재선, 『농어속담사전』, 동문선, 1995, 222쪽.)

는 속도가 빨라서 짚는 기간이 단축 될 수 있다는 점이다.<sup>184)</sup>

이렇듯 보리밭은 중요한 장소였다. 바람올리기의 제의 장소로 언제부터 보리밭이 이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2월 스무날에 영등할머니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얼어 죽은 장소가 보리밭이고,<sup>185)</sup> 가난한 老婆가 밥을 얻으러 다니다가 보리밭에서 짚어죽어서 신령으로 모셔졌다는 전설과 관련된 장소이기도 하다.<sup>186)</sup>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곳은 悲運의 장소처럼 느껴진다.

이러한 관념 때문인지 보리밭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신령을 모시는 제장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평소에는 부엌이나 장독대가 제장이라면 부득이 한 사정으로 날짜가 뒤로 미루어진 경우에 제장으로 이용된다. 예컨대 비일상적인 상황과 어울리는 제장인 셈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사례이다.

- ① “이월 뼈뚜러진 것은 봄보리 밭에 가서 빈다.”고 한다. 영동할마이가 뼈지면 봄보리밭에 가서 앓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리밭에 가서 빈다.<sup>187)</sup>
- ② 영등이 들리면 까닭 하면 큰 일이 난다. 영등이 들면 보리밭골에 가서 끄르미 밥을 갖다 놓는다. 환자의 나이 수대로 고랑을 지나서 “영동할머이! 영동할머이! 이것 잡솟고 영등으로 잘 올라가세요”하고 외치면 낫는다.<sup>188)</sup>
- ③ 이월영동할머니는 스무날 올라가므로 그 후로는 그 어디에도 영동할미가 없다. 만약 스무날 이후 식구 중 누군가 영동이 틀어져서 병이 났다면 떡을 해서 보리밭으로 나간다. 스무날이 지나면 영동할만네가 이미 하늘로 올라갔으므로 집안에서는 빌 데가 없으므로 보리밭으로 나가서 비는 것이다.<sup>189)</sup>
- ④ 영동할머니달에 좋은 날을 택하여 왕콩을 섞은 떡 한 시루와 백시루를 썩어서 보리밭으로 나가 정성 발원하는 사람의 나이수대로 걸어가서 깨끗한 종이 위에 놓고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소지 세 장을 올리며(1장은 오방후토지신 봇, 1장은 영동할머니 봇, 1장은 발원자 봇) 소원을 빈다.<sup>190)</sup>
- ⑤ 이 달에 병경을 읽게 되면 보리밭 골을 환자의 나이 수대로 넘어가서 보리밥과 술 한 잔을 갖다 놓고 영동할머니에게 고한다. 2월에만 이와같이 하고 다른 달에는 하지 않는다.<sup>191)</sup>

184) “보리끝은 있어도 나락끝은 없다.”라는 속신이 있는데, 보리는 이삭이 꽂고 20일 만에 추수를 하고, 나락은 40일이 지나야 비로소 추수를 할 수가 있다.(송재선, 위의 사전, 222쪽.)

185) 국립문화재연구소, 「양산시」, 『한국의 가정신앙 : 경남』, 2007, 334쪽.

186) 국립문화재연구소, 「밀양시」, 위의 책, 2007, 240쪽.

187) 이기태, 「II. 가정신앙·세시풍속·사찰」, 『금릉민속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1, 427쪽.

188) 국립문화재연구소, 「충주시」, 『충청북도 세시풍속』, 2002, 115쪽.

189) 국립문화재연구소, 「장수군」, 『전라북도 세시풍속』, 2003, 527쪽..

190) 대전·충청도 전통밟은굿 보존회, 『무형문화재신석봉의 지정보유자료집』, 2005, 169~170쪽.

191) 국립문화재연구소, 「청원군」, 『한국의 가정신앙 : 충북』, 2006, 334쪽.

- ⑥ 영등을 위할 때에 몸이 아프면 삼색의 띠를 대나무에 꽂아서 보리밭으로 나간다. 그리고 보리를 뽑아 놓고 빈다.<sup>192)</sup>
- ⑦ 2월에는 영등제사를 지내는데, 영등제사는 보리밭에 나가서 고랑에 제물을 차려놓고 앉아서 지낸다고 한다. 2월 초하루에 영등이 내려왔다가 초열흘에 영등할머니가 올라가고, 보름날 영등할아버지가 다 걷어서 올라간다. 따라서 2월 초하루와 초열흘이 되면 영등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모두 있기 때문에 이때 보리밭에 나가서 영등제사를 지낸다. 이 무렵에 보리가 보기 좋게 올라올 시기이다.<sup>193)</sup>

실제로 보리밭에서 영등할머니를 모시는 사례는 대단히 적은 편이다. 그러나 그 지역이 ①~⑦의 사례에서처럼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영등할머니 신앙에 대한 공통적인 관념에서 시작된 특별한 제장인 것으로 보인다.

①~⑤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영등할머니는 이월 스무날 이후에는 집을 떠나는 신령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영등을 위하는 달에 집안에 憂患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신령을 잘못 모신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를 두고 ‘영등탈’·‘영등 들린다.’·‘영등이 틀어지다.’와 같이 표현을 한다.

제장이 집 밖으로 옮겨짐에 따라서 신령을 위하는 방법도 다르다. 우선 환자의 병이 깊은 경우에는 ④와 ⑤에서처럼 무당이나 법사를 대동하여 보리밭으로 나간다. 넓은 보리밭에서 환자의 나이 수대로 고랑을 넘어가서 백지를 깔고 제물을 진설을 한다. 집 밖이기 때문에 많은 제물을 준비할 수는 없고, 성의껏 마련한 조촐한 제물로 영등할머니를 위할 뿐이다.

영등할머니가 상천한 이후에 신체를 처리하는 장소로도 보리밭이 종종 이용이 된다. 이를 통해서도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제의 장소로 보리밭이 이용이 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sup>194)</sup>

보리밭은 한 겨울에도 생명이 움트는 신성한 공간이다. 嚴冬雪寒에도 보리씨앗은凍死하지 않고, 봄을 맞이하기 때문이다.<sup>195)</sup> 2월에 푸른 새싹을 볼 수

192) 송화섭 외, 「전북 완주군 봉동읍 구미리」, 『한국의 세시풍속』, 국립민속박물관, 1998, 66쪽.

193) 국립문화재연구소, 「고성군」, 『한국의 가정신앙 : 강원』, 2006, 214쪽.

194) 이월 스무날 이후에 대를 가지고 보리밭으로 나가서 한 옆에 꽂아 두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그 밖에 오색천이나 백지 등을 燒火시키는 장소로도 보리밭이 이용이 된다.

195) 바람은 날마다 눈보라를 하얗게 일으키며 심술을 부렸습니다. 그렇지만 눈 밑 흙 속의 보리씨는 꼼짝 않고 눈을 꼭 감고 봄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바람아 얼마든지 불어라. 네 마음껏.....” 보리씨는 흙 속에서 바람 소리를 들으며 힘 있게 부르짖습니다. 바람은 윙윙 높다란 목청으로 소리쳤지만, 보리씨는 바람쯤 무섭지 않았어요. 봄, 봄, 봄, 봄은 지금쯤 어디만큼 왔을까? 보리씨는 시린 손을 호호 불며 이런 생각만 합니다. 밭두둑에 쌓였던 눈이

있는 장소는 많지 않다. 보리밭은 강한 생명력의 상징적 공간이기에 환자의 치병에 제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sup>196)</sup>

영등할머니는 결국 2월에만 모시는 신령이기 때문에 터주·성주·조왕 등의 가신처럼 일정하게 머무를 공간이 확보될 수가 없다. 그는 신령들의 세계에서 손님처럼 대우를 받는지도 모른다. 주부는 영등할머니를 홀대하지 않고 가장 정결한 장소에 모시는 정성을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 이날 영등할머니를 모시고 난 이후에 방안에 들어와서 조상·성주 등 별도의 신령을 위하여나 집 밖의 내[川]로 나가서 요왕을 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영등할머니를 위한 다음에 이어지는 부대 행사로 볼 수가 있다. 특히 냇가는 요왕의 공간이라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영등할머니보다 요왕을 우선 순위에 둔다.

#### 4) 신체(神體)

가정에서는 해마다 2월 초하루가 되기 전에 대를 만들어서 祭場에 세워놓는다. 대 위에는 정화수를 한 그릇 떠다가 올려두거나 그 앞에 짚으로 봄리를 만들어서 올린다. 주부는 영등할머니가 상천하는 날까지 매일 정화수를 떠다가 올리며 집안의 안과 태평, 농사의 풍년을 기원한다.

이렇듯 영등할머니를 위하는 제장에는 항상 정화수를 올리고, 이를 받쳐두는 대가 있다. 이를 가리켜 ‘물대’라고 부르는데 이는 대의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한 명칭이다. 그러나 대는 ‘물대’로써만 제장의 중앙에 세우는 것이 아니다. 대는 시·공간을 神域으로 만드는 하나의 상징물이다. 집안에 대가 세워진 모습은 연중 2월에만 볼 수 있고, 필시 대가 있는 곳이 제장이 된다.

대는 그 자체로 신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땃가지마다 禮綬을 걸어 받치듯 여러 색깔의 천과 백지를 달아둔다. 이 천은 ‘영등할머니의 옷’으로 관념한다. 대

---

녹기 시작했습니다. 흑 속 보리씨들의 몸이 좀 가벼워진 듯했습니다. 한 보리씨가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봄이다. 이제 봄이온다.”(김요섭, 「봄의 발자국」, 『자연과 어린이』, 1985 2월호, 34~42쪽.)

196) 종교적 인간은 식물의 리듬 속에서 생명과 창조의 신비, 그리고 생생, 청춘 및 불사의 신비를 느낀다.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수목과 식물은 식물의 모범적 형상인 원형을 구현하고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그 특권적인 지위를 얻게 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은봉 역, 『聖과俗』, 한길사, 146쪽.)

는 영등할머니를 상징하는 神體이며, 2월에만 볼 수 있는 일시적인 신앙대상 물인 셈이다.

본 장에서는 대를 세우는 장소, 지역에 따라서 신체로 사용되는 도구의 종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신체를 제작하는 방법 및 절차, 바람올리기 후에 뒤처리를 하는 방법까지 포함된다.

## 가. 장소

가정에서는 하루 전에 대문 앞에 황토를 펴고, 금줄을 쳐서 모든 不淨을 막는다. 또한 집안에서도 제장으로 삼을 만한 장소는 미리 청소를 하고, 황토를 펴놓는 등 보다 정결하게 한다.

대는 이러한 준비가 끝나야 만들기 시작한다. 대를 세워놓는 장소는 부엌이나 장독대로 조용하고, 깨끗한 공간이다.<sup>197)</sup> 신체가 있는 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보편적이나 어떤 경우에는 장독대 부근에 대를 세워두고, 제사는 부엌에서 지내기도 한다. 어떻든 대를 세워 둔 곳이 영등할머니를 모시는 중심 공간이다.

주부는 신체가 있는 공간에 하루도 빠짐없이 정화수를 떠놓는다. 어떤 면에서는 정화수 그릇은 祭器이자 神體로 볼 수 있다. 이를 가리켜 ‘할머니물사발’·‘풍신대접’·‘영등바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 또한 그 안에 담긴 정화수는 제물인 동시에 인간계가 지닌 더러움을 씻어내는 최고의 상징물이다. 이런 관념을 기초로 하여 ‘不淨물’이 등장한다. 부정물은 不淨을 없애는 역할만 직접 부여받고 수행하는 정화수이다. 여기에 수반되는 숯과 고추 등은 정화수의 정화 기능을 보조하며, 또한 그것이 부정물 임을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말할 필요 없이 부정물의 요체는 정화수이다.<sup>198)</sup> 영등할머니가

197) ‘깨끗하다’라는 개념은 한국 민간신앙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의 하나이다. 곧 일체의 부정이 없는 상황을 일컫는데 민간에서는 이를 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不淨이란 낱말을 쓰면서도 이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깨끗한’, ‘깨끗하다’란 말을 쓴다. 神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 사람 그 자체, 그와 관련된 모든 사물과 현상, 그리고 관계의 시공간은 모두 깨끗하고 또한 깨끗해져야만 한다. 결국 깨끗함은 그 낱말의 내면에서만 또는 그 자체의 내용으로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부정이 가셔진 최고의 정결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이필영, 「민속학에서 본 종교」, 『종교문화비평』, 청년사, 2000/2, 106쪽.)

198) 이필영, 「우물 신앙의 본질과 전개 양상」, 『역사민속학』 26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263쪽.

상천하는 날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떠올리는 정화수로 인해 제장은 늘 깨끗하게 정화된 공간으로 바뀐다.

제의 장소 가운데 부엌, 장독대는 대를 세워놓는 중심 공간이다. 두 곳 모두 여성의 생활공간으로 전근대 사회에서는 의식적으로 남자들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였다. 주부가 영등할머니를 모시는 주체이기에 부엌이나 장독대가 제의 장소로 이용이 되는 것이다.

#### 나. 신체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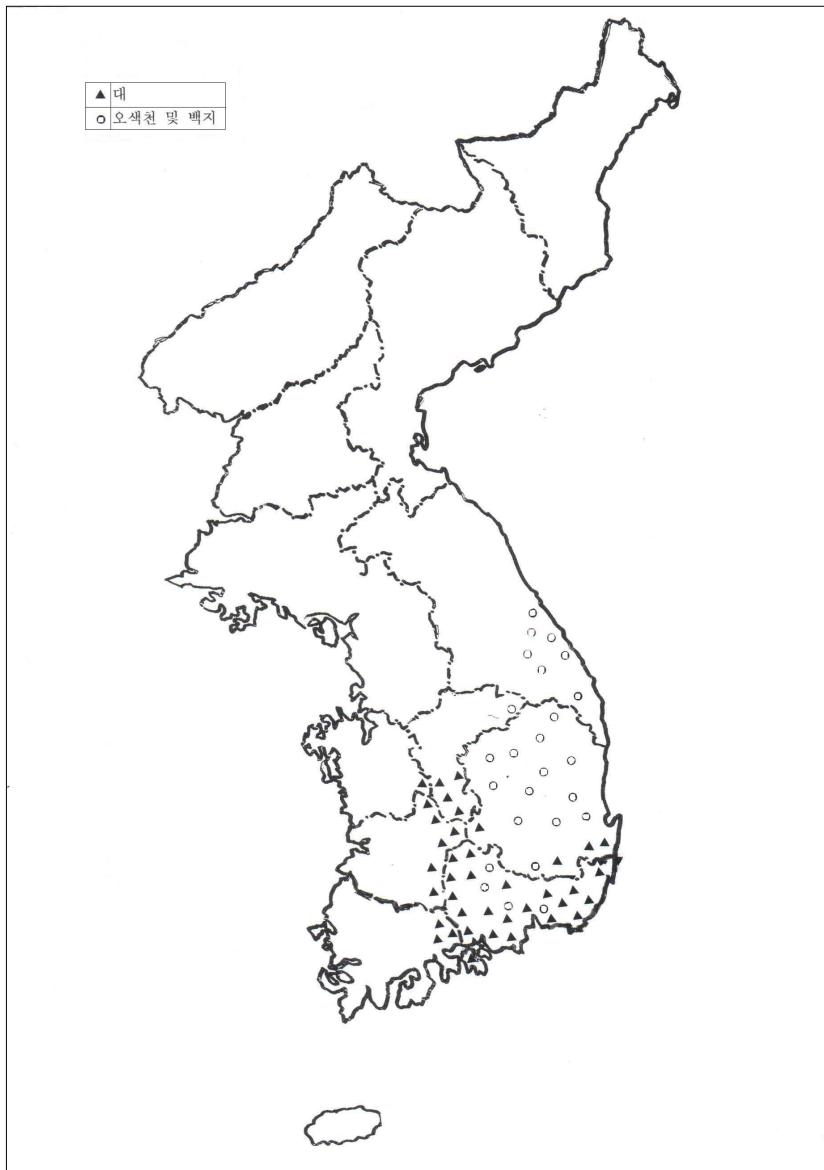
영등할머니를 위하는 가정에서는 신령이 상천하는 날까지 매일 정화수를 떠 올린다. 정화수와 그것을 떠놓는 그릇에 신령의 호칭을 붙일 만큼 상징적인 것이다. 그 자체가 제물이기도 하지만 神體인 셈이다. 그러나 정화수는 영등할머니 뿐 아니라 가내 다른 신령들께도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올리는 제물이다. 엄밀하게 영등할머니 만을 상징하는 신체로 보기에는 차별성이 떨어진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남은 2월 한 달 내내 집안에 대를 세워놓는 가정이 많다. 일반적으로 대는 安宅이나 큰 굽을 할 때에 무당이나 법사가 神意를 가늠하기 위한 도구로 만든다. 이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며 가정에서 이때를 제외하고 신체를 만드는 일은 좀처럼 없다. 영등할머니를 위할 때 만들어지는 대는 전문적인 종교직능자의 조언을 구하지 않고, 순전히 식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는 영등할머니의 이미지가 투영된 민간의 창작물인 셈이다.

대의 형태를 취하지 않더라도 신령을 상징하는 또 다른 유형의 상징물이 있다. 이는 영등할머니 신앙의 지역적인 편차를 보여준다. 경북과 강원도에서는 대를 세우기보다는 오색천이나 백지를 제장에 달아놓음으로써 영등할머니를 모신 것으로 관념한다.

영등할머니의 신체는 성주·터주·조왕 등 家神의 신체와도 구별된다. 가장 큰 차이는 2월에만 한시적으로 볼 수 있고, 해마다 새로 만든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대로 모시던 방식을 준수하여 주부가 직접 제작을 한다.

본 절에서는 신체의 類形을 크게 대와 오색천, 백지로 구분을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각각이 선택적으로 이용되므로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대, 오색천, 백지가 모두 신체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의 [지도 4]는 대와 오색천 및 백지가 찾아지는 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것이다.



[지도 4] 神體의 지역별 분포 현황

### (1)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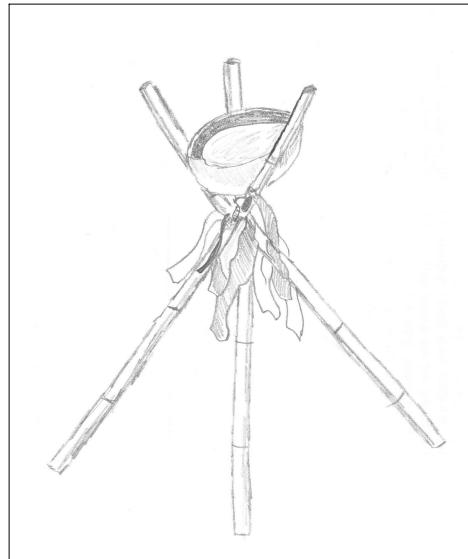
대가 신체로 사용되는 지역은 경남·호남·충청 지역이다. 보다 세밀하게 구분을 하자면 경남에서도 해안가 지역과 전라도와 충청도에서도 소백산맥이

지나는 내륙 산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강원과 경북 지역에서는 대를 만드는 사례가 별반 나타나지 않는다. 대의 제작 여부로써 영등할머니 신앙의 문화권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대의 명칭을 살펴보면, 경남의 해안가에 접한 지역에서는 ‘물대’라고 부른다.<sup>199)</sup> 그 외에 장대(작수바리)·정수대(淨水臺)·할맘네 물대(할망네대)·물대꼬쟁이·제석님 물대)·영등대<sup>200)</sup> 라고도 한다.<sup>201)</sup> 물대를 단어 뜻 그대로 해석 하면 ‘정화수 그릇을 받쳐 놓는 대’를 의미한다. ‘작수바리’ 역시 빨랫줄을 받쳐놓는 바지랑대를 가리키는 경상도 방언으로 장대와 동일한 표현이다.

이러한 명칭은 대의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정화수와 그것을 담는 용기는 제물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신령을 상징한다. 따라서 地面에 그대로 두지 않고, 일정정도를 띠운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대이다. 이를 사용함으로써 지면에 정화수 그릇을 놓아두는 것보다 한 눈에 두드러져 보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부엌에 대를 놓아 들 때는 살강에 놓기 때문에 위치상 더욱 부각된다.

어떻든 제장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그림 1] 영등할머니 神體(宋錫夏 그림)

- 199) 秋葉隆은 동해안 장승포에서는 ‘물대[水竿]라고 하여, 정월 그믐날 밤에 대나무 장대 상부를 일부 가르고 주위에 색 천을 드리우며, 그 위에 작은 그릇을 얹는다.’라고 기록한 바 있다.(『朝鮮民俗誌』, 동문선, 1993, 267쪽.) 또한 宋錫夏 역시 蔚山郡의 사례로 ‘水竿’이라고 하여 그림을 그리고, ‘青竹 三個를 交叉하여 상부에서 一尺許쯤 되는 곳을 結縛하고 色絲 · 五色布片 · 白紙를 달고 新瓢에 담은 井華水를 그 위에 둔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宋錫夏, 「風神考(附 禾竿考)」, 『진단학보』 1, 1934, 157쪽.) 앞의 글에서 ‘水竿’은 물대의 한자식 표현이다. 이를 통해서도 대의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한 명칭임을 알 수가 있다.
- 200) ‘영등대’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실질적인 사례는 별반 찾아볼 수가 없다. 전남 여천군 죽립리의 사례에서 ‘영등대’라는 명칭이 나타난다. 이 지역에서는 잎이 달린 대나무 가지를 세워놓는데, 윗부분에는 종지를 얹을 수 있도록 만든다.(순천대학교박물관, 『여천죽립 택지 개발지구 지표조사 보고서』, 1997, 97쪽.)
- 201) 이러한 명칭은 경남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며, 전라도와 충청도 내륙 지역에서는 이를 가리키는 특별한 명칭은 없다. 대개 솔가지, 댓가지 등으로 부르고, 이를 영등할머니의 神體로 관념한다.

곳은 물대가 세워진 장소이다. 그 중에서도 물대의 上部는 核心이며, 제물을 올린 ‘인위적인 祭壇’이 되는 셈이다.

대를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남자들이 집 근처의 산에서 소나무나 대나무를 적절한 크기로 잘라온다. 대개 해안가에서는 대나무를, 내륙 산간 지역에서는 소나무를 이용한다.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대의 형태가 차이가 난다. 먼저 대나무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굵은 대나무를 베어다가 땃잎을 모두 제거하고, 물그릇을 놓을 부분을 인위적으로 만든다.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대나무를 결 대로 잘라서 마치 우산살처럼 완전히 벌어지게 한다. 이처럼 만들 경우에는 대의 크기가 커지는 특징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 약 1m정도가 된다. 두 번째는 굵은 대나무 가지를 세 개 정도 마련하여 마치 간이 천막을 만들듯이 제일 윗분을 끈으로 묶어서 고정을 시킨다. 그러면 자연스레 정화수 그릇을 올려놓을 공간이 마련된다.(그림 1 참조.) 세 번째는 대나무를 꺾어올 때에 땃잎이 달려 있는 제일 윗부분의 가지를 꺾어서 그대로 제장에 놓아둔다. 이렇게 되면 정화수 그릇을 그 위에 올릴 수가 없으므로 바닥에 짚을 깔고, 그 위에 놓아둔다. 이 세 가지 형태는 가정에 따라서 골고루 나타난다.

소나무를 이용할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로 제작이 된다.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나뭇가지를 꺾어 올 때에 그릇을 올려둘 것을 감안하여 결가지가 3~5개로 벌어진 것을 선택 한다. 제장에 놓아 둘 때는 잎을 때서 표면을 매끈하게 만든다. 두 번째는 대나무와 마찬가지로 푸른 솔잎이 붙어 있는 나뭇가지를 그대로 꺾어다가 세워놓는다.

어떤 경우에는 소나무와 대나무를 모두 꺾어다가 세우고, 오색천과 색실을 달아 두기도 한다.<sup>202)</sup> 호남 지역에서는 밭에서 보리를 뿌리 채 캐어다가 그대로 신령께 받친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나무와 소나무, 보리까지를 한 대 묶어서 부엌의 살강 위에 놓아두기도 한다.<sup>203)</sup> 그 외에도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삼대를 구해 놓았다가 이것으로 대를 만들기도 한다.<sup>204)</sup> 이는 일부 지역의

202) 국립문화재연구소, 「거제시」, 경상남도 세시풍속』, 2002, 32쪽.

203) 영등은 부엌 살강 위에 땃잎사귀, 솔잎가지, 보리 뿌리를 한데 묶은 뒤에 빨강, 노랑, 파랑 천을 달아놓는다. 이는 영등이 올라가는 날인 열아흐례까지 그대로 놓아둔다.(서해숙, 「섬진강유역 가정신앙의 양상과 의미」, 『한국의 가정신앙』. 민속원, 2005, 219쪽.)

204) 부엌에 조왕을 모시는 자리에 삼대를 쪼개 반침대를 만들고 그 위에 정화수를 담은 바가지를 올려놓는다. 삼대 밑에는 황토를 뿌리고 미리 캐온 보리뿌리를 놓아둔다. 그런 다음 20일 저녁까지 비손을 하고 곧바로 치운다.(국립문화재연구소, 「광양시」, 『전라남도 세시

특수한 사례로 파악된다.<sup>205)</sup>

소나무나 대나무는 앞서 지적한 대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sup>206)</sup> 특히 대나무는 暖帶性 식물로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생장하기에 적합한 식물이다.<sup>207)</sup>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경남 해안가 지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나무로 신체를 만든다.

소나무와 대나무는 겨울철에도 푸른 잎을 볼 수 있는 사철나무이다.<sup>208)</sup> 예로부터 歲寒三友라고 하여 추운 겨울을 이겨낸 梅·松·竹을 인내를 상징하는 식물로 여긴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 한파에도 죽지 않는 강한 생명력을 지닌 식물이기 때문이다. 부엌에 세워둔 푸른 솔가지는 생명력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老松을 보면 인간보다 긴 壽命에 세월의 깊이를 느낄 수가 있다. 나무는 인간의 한정된 수명 이상의 시간성을 갖고 있다. 나이테가 곧 나무의 나이이자 세월이다. 인간이 알 수 없는 면 과거에도 나무는 존재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신성시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는 그 자체로써 종교적인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sup>209)</sup> 홀로 서 있는 기둥은 장대나 뜻대, 그리고 나무와

---

『풍속』, 2003, 17쪽.)

- 205) 영등대를 세우고 그 밑에는 뿌리 채 파온 보리를 놓아둔다. ‘보리 뿌리에 새 뿌리가 많이 나면 그 해 보리농사가 잘되고 새 뿌리가 적게 나면 잘 되지 않는다.’는 속신이 있다.(순천대학교박물관, 『여천죽림 택지개발지구 지표조사 보고서』, 1997, 97쪽.)
- 206) 특히 소나무는 영등할머니를 위한 때는 신체로써 섬김의 대상이 되지만 평소에는 삶을 영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멜감에서 건축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곤궁했던 시절에는 식량으로도 이용이 되었다. 따라서 소나무는 야산이나 깊은 계곡 등 지천에 있는 이웃나무라 할 수 있다.(김상철, 「소나무의 상징성과 정신성」, 『숲과 문화』 15권, 2006, 19~24쪽.)
- 207) 대나무는 난대성 식물이기에 북쪽지역보다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해안가 지역에서 생장하기에 적합하다. 그 외의 지역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동해와 서해의 해안가 지역에 群集되어 있다. 특히 경상남도 해안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까닭은 해안가 근해의 난류의 영향 때문이다. 남해는 1월에 약 12°C의 높은 水溫을 보이며, 年變化도 적다. 이런 海水온도는 남해안 일대에 여러 종류의 대나무류를 분포하게 하고 또優良한 竹林을 널리 分布시키는 要人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공우석, 「한반도의 대나무류 분포와 그 환경요인에 관한 식물지리학적 연구」, 『한국생태학회지』 8, 1985, 94쪽.)
- 208) 여기서의 ‘푸른’은 식물의 색인 녹색을 의미한다. 빛이 땅에 닿아 물과 공기의 혜택으로 성장하는 생기가 녹색이며, 이 말에서 연상되는 상징어는 풍요로움, 젊음, 신선함, 희망, 평화, 안전, 이상, 안락 등이 있으며, 동·서양을 통해 거의 같은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녹색에서 직접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역시 ‘자연계의 색’이다. 한자로는 緑자 외에 翠자도 녹색으로 분류하며 동시에 청색을 나타내는 뜻으로도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대나무를 일러 ‘翠竹’이라고 하고, 소나무 역시 ‘翠松’이라고 하는 것이다.(하용득,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명지출판사, 1986, 226~227쪽.)
- 209)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장대나 기둥(Poles and Posts)은 종교적이며 주술적인 의미를 지닌다. 어떠한 신전이나 사당에서도 거룩한 기둥은 필수물이었으며, 聖域의 경계를 확정시켜

마찬가지로 세계축(the world-axis)과 관련되어 있다. 이 장대를 통하여 초자연적 존재가 지상으로 하강하는 교통로가 되기 때문에 신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sup>210)</sup> 영등할머니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대를 통하여 수시로 하늘과 땅을 왕래하는지도 모른다. 2월이 지나면 대를 치우기 때문에 영등할머니의 교통로도 사라진다.

한편으로 영등할머니의 신체는 대를 포함하여 그 위에 올려놓은 정화수 그릇, 대에 달아 놓은 오색천과 백지 일체를 神體로 파악하기도 한다. 각각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원래 하나의 모습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세워놓는 것보다는 女神으로써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의미에서 보기 좋게 꾸미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영등할머니는 風神이므로 항상 구름을 몰고 다니며 지상에 비를 내리게 할 것 같다. 바람이 불면 당연히 구름이 이동을 하고, 비가 내리기 때문이다. 물대가 세워진 모습은 마치 나무 기둥으로 호수를 받치고 있는듯한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물은 농경사회에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하늘에서 비가 충분히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 영등할머니의 신체는 비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상징물로 여겨진다.

## (2) 오색천과 백지

영등할머니의 신체로 대뿐 아니라 천과 백지도 별도로 사용한다. 이는 경북, 강원도 지역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 지역에서는 정화수 만을 떠올리거나 영등할머니가 있음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색천이나 백지를 제장에 붙여 놓는다.

천과 백지가 붙어 있으면 누구든지 한 눈에 祭場임을 알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 모두 색실[色絲]로 퀘어서 걸어 두거나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놓아두기도 한다. 어떻든 이를 통하여 평소의 부엌일지라도 영등할머니를 모시는 특별한 장소로 바뀐다. 어떤 경우에는 대가 무색천을 달아놓기 위한 고정 장치로 인식이 될 만큼 후자를 중요하게 인식하기도 한다. 마당에서

---

주는 구실을 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기둥을 무너뜨리거나 베어 내서는 절대로 안되었다. 기둥이 꺾이는 것은 파국을 의미하였고 그것은 세계의 종말과 같은 것이었다. 흔히 집안의 기둥이 쓰러지면 자식이 죽거나 집안이 망한다는 속신어도 기둥의 종교적 상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이필영, 「솟대」, 『마을신앙으로 보는 우리문화 이야기』, 웅진닷컴, 1994, 351쪽.)

210) 이필영, 위의 책, 웅진닷컴, 1994, 351쪽.

제사를 지낼 경우에는 마당 어귀에 심어 놓은 나뭇가지에 그대로 매달아 두고,<sup>211)</sup> 장독대에는 밥풀로 백지만을 붙이기도 한다.<sup>212)</sup>

신령께 올린 무색천은 대를 꾸미기 위한 禮綻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신령을 상징하는 신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영동할머니의 옷(제석옷·바람옷)’이라 부르고 실제 신령을 대하는 것처럼 소중하게 여긴다.<sup>213)</sup> 일반적으로 오색천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여러 색깔의 천을 의미한다. 오색이라고 하여 반드시 다섯 가지의 색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sup>214)</sup> 다양한 색상을 표현할 때에 흔히 ‘五色’이라고 하며 이는 유채색을 뜻한다. 물감을 들인 천으로 지은 옷을 ‘무색옷’이라고 하는데, 오색천은 이와 같은 뜻을 담고 있다.

예로부터 무색옷을 입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자연적인 옷감에 염료를 침가해야만 다양한 색상을 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천연 염료만을 사용하여 색깔을 냈다. 집에서 직접 염색을 하기도 했지만 번거로워서 사다가 사용하기는 했지만 가격이 소색에 비해서 비싼 편이었다. 오색천은 소색의 천보다는 시각적으로 돋보이는 효과도 있고, 평소에는 엄두도 못내는 고운 색을 표현한 것이기에 또 다른 차원에서 귀한 예물이 된다.

이때 사용되는 천의 종류는 특별히 상관이 없다. 삼이 많이 재배되는 지역에서는 麻布를 받치기도 하고,<sup>215)</sup> 일반적으로는 목면, 면포 등의 면직물을 사용한

211) 국립문화재연구소, 「합천군」, 『한국의 가정신앙 : 경상남도』, 2007, 591쪽.

212) 백지 만을 붙이는 사례는 강원도에서 흔히 나타난다. 뒤란의 장독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곳에 직접 백지를 붙이기도 하고, 이를 원새끼로 꼳 금줄에 묶어서 장독에 걸어놓기도 한다. 부엌에서 위할 경우에는 부뚜막 뒤의 벽면이나 살장 부근에 백지를 붙이고 그 앞에 제물을 진설한다.(국립문화재연구소, 「강릉시」, 『한국의 가정신앙 : 강원』, 2006.) 동해의 해안가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영동까꾸리’를 만들어서 부엌에 걸어 두는데 이곳에도 백지를 묶어 두기도 한다.(권삼문, 『동해안어촌의 민속학적 이해』, 민속원, 2001, 294쪽 및 김의숙, 『강원도 민속문화론』, 집문당, 1995, 51쪽.)

213) 천과 백지를 신령의 옷으로 인식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나타난다. 전북 장수군에서는 천은 할머니의 옷이며, 백지는 할머니의 손수건이라는 이야기가 전한다.(국립문화재연구소, 「장수군」, 『전라북도 세시풍속』, 2003, 546쪽.)

214) 중국의 영향을 받은 음양오행사상의 원리에 따르면 靑·赤·黃·白·黑을 오행의 각 기운과 연결된 다섯 가지 기본색이라 하여 오색 또는 五彩라고 불렀다. 오색은 음양오행의 이치에 따라 의미가 부여되어, 색의 사용에 있어서 시각적인 이미지보다는 관념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따라서 평생의례 및 생활 전반에 걸쳐 음양오행에 따른 색 사용이 일반화되었고, 특히 의례나 제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색 자체의 儀式化, 제도화되어 법이나 관습의 일부분으로 정착되는 경우가 많았다.(구미래, 『한국인의 상징세계』, 교보문고, 2006, 78쪽.)

215) 국립문화재연구소, 「양산시」, 『한국의 가정신앙 : 경남』, 2007, 328쪽.

다. 천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색실[色絲]로 한 대 둑어 두기도 하고, 아예 일정한 형태의 옷을 지어서 달아 두기도 한다.<sup>216)</sup> 후자의 경우는 집안에 처녀가 있어서 바느질 솜씨가 좋아지길 기원하는 의미에서 신령의 옷을 지어드리는 것이다. 무색천을 대신하여 땅기를 매달아 두기도 한다.<sup>217)</sup> 이를 통하여 천의 재질보다는 다양한 색깔의 천을 받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오색천을 ‘영등할머니의 옷’으로 관념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영등할머니는 女神이기 때문에 고운 빛깔의 천을 좋아한다고 믿는다. 여자라면 누구든 보기 좋은 새 옷에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sup>218)</sup> 봄에 피는 꽃마저 시샘을 하는 신령이기에 이날 오색천을 받치지 않으면 그 달 내내 심술을 부린다고 한다. 심한 경우에는 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오색천은 중요하게 쓰인다.<sup>219)</sup> 비록 할머니이기는 하지만 女心을 자극하기에는 이만한 물건이 없다. 신령이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처럼 보인다. 동일한 맥락에서 영등할머니가 여신인 점을 감안하여 祭酒를 올릴 때에도 이를 대신하여 정화수나 甘酒를 올린다.

대에 오색천이 달려 있는 모습은 마을의 신앙대상물인 ‘서낭당’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길손이 서낭당을 지나면서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것도 오색천이기 때문이다. 이는 신께 받치는 예물이다. 일정한 때마다 제물을 마련하여 신령을 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聖所임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치는 예물도 개인의 정성을 표하는 수단이 됨을 알 수 있다.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이를 통해 수시로 신령을 느끼고, 그에 대한 믿음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백지를 별도로 올리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전통적인 종이는 닥

- 
- 216) 고성 · 사천 · 청도 등지에서는 처녀들이 고운 색깔의 천으로 영등할머니께 받칠 저고리와 치마를 정성껏 만들어서 올리는 사례가 찾아진다. 이때 한복은 대에 매달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만들며, 꽃을 꽂거나 골무도 함께 달아 둔다.(국립문화재연구소, 『경상남도 세시풍속』, 2002, 479~480쪽 및 816~817쪽.)
- 217) 2월 초하룻날 오색댕기를 부엌의 솔 뒤에 걸어 둔다. 이것은 나중에 마을에서 위하는 당 신목에 가져다가 걸어 놓는다.(국립문화재연구소, 『군위군』, 『경상북도 세시풍속』, 2002, 458쪽.)
- 218) 평안도 지방에서는 천연두에 걸린 환자가 있을 때에 감색 보자기에 여자의 새 저고리, 바지, 베선, 무명 석 자, 삼베 한 자에 수수떡 한 되를 빚어서 함께 싸서 길 한 복판에 버리는 풍습이 있다. 천연두는 여성의 속성을 지닌 역귀이므로 본능적으로 옷으로 옮아갈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다시 말해 역귀를 유인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이규태, 『한국인의 생활구조 : 한국인의 옷 이야기』, 기린원, 1994, 146쪽.)
- 219) 영등할머니께 옷을 해드리지 않고 무색 것을 만지면 식구가 눈병이 난다. 다른 때에 비에 음력 이월에는 눈병이 많이 걸리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옷을 지어드리는 것이 좋다.(국립문화재연구소, 『진안군』, 『전라북도 세시풍속』, 2003, 625~626쪽.)

나무[楮]를 원료로 하여 대단히 질긴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窓戶紙, 包裝紙 등으로 불리며, 생활용품으로 이용이 되었다.<sup>220)</sup> 白紙는 無色, 素色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sup>221)</sup> 白色은 자연계의 모든 色 중에서 明度가 가장 높기 때문에 모든 빛을 반사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어두운 공간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백색은 신성·고귀·순결함의 이미지를 갖는다.<sup>222)</sup> 백색은 깨끗함의 표상이며, 淨化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 앞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이다.<sup>223)</sup> 祭需 용품으로 백지가 사용이 되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또한 백지의 본래 용도가 文字를 表記하여 의사를 전달하는데 있는 것처럼 제사를 지낼 때에도 ‘소지(燒紙)’를 올려 인간이 바라는 바를 신에게 전달하는 매체로 사용한다. 이때의 백지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인간의 소망을 상징한다.<sup>224)</sup> 실제로 백지에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적고, 그것을 오색 천과 함께 달아 두기도 한다.<sup>225)</sup>

백지의 이러한 이미지 때문에 영등할머니의 神體 뿐 아니라 자신의 神體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때에도 사용이 된다.<sup>226)</sup> 대나무에 백지를 다는 행위를 ‘영등

220) 최남선, 「조선의 종이」, 『조선상식문답』, 삼성문화재단, 1972(1947), 57쪽.

221) 素자는 흰 소(白也) 또는 순백 소(無色)라 하여 빛깔이 흰옷을 素衣(大夫士去國 素衣素裳冠[禮記])라 했으며 겨울의 흰눈을 素雪, 흰 얼굴을 素顏이라 쓰기도 했으며, 가을을 음양 오행의 백색이므로 素秋라 했다. 옷감을 짜기 전의 실의 원사를 모양이나 염색을 하지 않은 바탕대로의 상태를 素地라 하며, 결국 표백이나 착색의 기술도 색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본래의 바탕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한다면 인류의 색채문화의 근본은 소색에 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하용득, 『한국의 傳統色과 色彩心理』, 명지출판사, 1986. 22쪽.)

222) 하용득, 위의 책, 1986, 15~29쪽.

223) 신항식, 『색채와 문화 그리고 상상력』, 프로네시스, 2007, 64쪽.

224) 강태옥, 「종이」, 『한국문화상징사전』 2, 2000, 635쪽.

225) 소지 종이에는 “몇 살 먹은 누가 1년 열두달 무사히 보내게 해주소.”하고 한 가지 소원을 적어둔다.(국립문화재연구소, 「기장군」, 『한국의 가정신앙 : 경남』, 2007, 131쪽.) 부엌의 벽면에 백지를 붙여놓고 나중에 아이가 이곳에 글씨 연습을 하면 총명해진다는 이야기가 있다.(충북대학교박물관, 『청주-상주간 고속도로건설예정지구 지표조사보고서』, 1999, 306~307쪽.)

226) 집안을 관장하는 최고신인 성주는 성주독을 그 신체로 삼기도 하지만, 경기도를 비롯한 충청, 경상, 강원 지역에서는 한지를 신체로 삼는다. 가로 세로 각각 30cm×40cm 정도의 크기로 접은 한지를 대들보나 안방문 위 대공에 붙이는데, 이곳을 성주신이 머무르는 것으로 여긴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조왕의 신체로 한지를 부엌에 붙이는 것으로 대신한다. 또, 집터를 지키는 터주나 財神인 업의 경우에도, 뒤꼍에 곡식을 담은 단지 위에 짚으로 주저리를 만들어 써우고 그 위에 한지를 걸어 놓는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대문을 지키는 문신(또는 수문장신)의 신체로서 종이를 가늘게 잘라 대문에 걸어 두기도 하였다.(김선풍, 「종이」, 『한국문화상징사전』 2, 2000, 636쪽.)

할머니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데, 이를 통하여 백지를 신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매일 소지 한 장씩을 대에 매달기도 한다.<sup>227)</sup>

한편으로 백지는 대의 부속물이자 인간의 소원을 신령께 알리기 위한 수단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바람올리기를 행할 때에 이를 소지로 사용하거나 아이들에게 글씨 연습을 하도록 일부러 주기 때문이다. 심지어 세상에 깔았던 종이도 버리지 않고 같은 용도로 사용한다. 아이들에게 종이를 주는 이유는 다름 아닌 공부를 잘 하길 기원하기 위해서이다. 종이를 태워서 그 재를 물에 띄워 아이에게 먹이기도 한다. 이처럼 백지는 아이들의 학업 성취를 기원하기 위한 상징적인 물건으로도 사용이 된다.

그 밖에 색실[色絲]을 대에 걸어 두기도 하고, 바가지 위에 동백꽃을 꺾어다가 띄우기도 한다.<sup>228)</sup> 이 또한 신령께 받치는 예물이다. 영등할머니께는 가능하면 화려하고 보기 좋은 물건을 올린다.

#### 다. 신체의 처리

대를 치우는 날은 신령이 상천을 하는 날이기도 하다. 이날 주부는 별도의 제물을 마련하여 신령을 보낼 준비를 한다. 제사가 끝나면 비로소 제장을 청소하고, 신체로 모두 치운다.

대와 그에 달려 있던 천과 백지는 영등할머니의 신체이므로 함부로 처리하지 않는다. 대를 처리하는 방식도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대를 포함한 천과 종이 일체를 깨끗한 장소에서 태우거나, 집 안팎의 빈 공간에 끊어둔다. 대를 태우거나 버릴 때에는 해마다 새로 만들 것을 전제한다.<sup>229)</sup>

집 밖에서 신체를 처리할 경우에는 보리밭으로 나가는데, 밭고랑에서 태우거나 한 옆에 끊어 둔다. 호남 지역에서는 보리농사의 풍년을 위해서 신령께 받쳤던 보리를 가져다가 밭에 다시 심는다.<sup>230)</sup> 이는 보리밭이 영등할머니와 깊

227)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옥천군」, 『한국의 가정신앙 : 충북』, 2006, 204쪽.

228) 경남 통영 지역에서는 동백꽃이 꾀면 영등할머니께 이를 받친다.(宋錫夏, 「風神考(附 禾竿考)」, 『진단학보』 1, 158쪽.)

229)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다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장독대 한 옆에 그대로 놓아두었다가 이듬해에 그대로 사용을 한다. 경남 하동군에서는 바람올리기가 끝나면 대를 종이에 둘둘 말아서 대밭에 가져다가 손 없는 방향에 끊어 두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대를 버리지 않고 집에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손재주가 생긴다고 한다.(국립문화재연구소, 「하동군」, 『한국의 가정신앙 : 경남』, 2007, 512쪽.)

은 관련이 있는 장소임을 시사한다. 전설에 영등할머니가 보리밭을 거쳐서 상천을 한다거나, 이곳에 자신과 함께 온 수비들을 떼어 놓고 올라간다고 한다.<sup>231)</sup> 또한 이곳은 영등할머니를 모시는 특별한 제의 장소이기도 하다.<sup>232)</sup>

충북 지역에서는 2월 초하루에 고사가 끝나면 대를 집 안팎의 나무에 걸어 놓는다.<sup>233)</sup> 이때 樹種은 가리지 않고, 반드시 살아있는 나무여야 한다. 이는 신령을 살아 있는 나무로 옮겨서 모시는 행위이다.<sup>234)</sup> 그렇다고 영등할머니를 나무에 얹지로 坐定시키려는 의도는 아니다. 이는 살아 있는 나무의 왕성한 생명력을 빌어서 영등할머니가 하늘로 쉽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도우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사람들은 대를 애써 태우지 않아도 때가 되면 없어지는 것을 보고 마음을 놓는다. 앞서 살펴본 보리밭 역시 생명력을 상징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산 나무와 공통점이 있다.

때에 따라서는 대와 천·백지를 분리하여 처리하기도 한다. 특히 영등할머니께 올린 천은 ‘신령의 옷’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민속 상에서 ‘옷’은 그것을 입는 사람의 채취를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상징물이기도 하다.

또한 정성껏 마련한 제물로 신령의 배고픔을 달래드린 이후에는 옷을 지어 올림으로 추위로부터 보호를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전근대사회에서 새 옷을 지어 입는 일은 흔치 않았다. 영등할머니는 그만큼 중요한 신령이기에 그녀에게 ‘새 옷’을 지어드리는 것이다.

영등할머니께 올린 천은 신령의 옷이므로 한편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를 잘 보관했다가 주머니를 만들면 福이 들어온다는 속신이 있다.<sup>235)</sup> 어떤 경우에는 불에 태워서 재를 청수에 섞어서 마시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도 한다.

남의 집에서 만들어 둔 오색천을 몰래 훔쳐다가 사용을 하면 원하는 일이 더욱 잘 성취 된다는 속신이 있다.<sup>236)</sup> 기본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230) 제장의 황토에 함께 심어 놓았던 보리는 다시 밭에 내다 심는다. 이 보리가 잘 여물면 보리풍년이 든다고 믿는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라남도의 향토문화(하)』, 2002, 755쪽.)

231) 국립문화재연구소, 「장수군」, 『전라북도 세시풍속』, 2003, 546쪽.

232) 본 논문의 ‘제장’에서 설명한 바 있지만 집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예 보리밭에서 대를 꽂아 놓고 신령을 모신다.

233) 충북에서도 특히 영동군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경남 합천, 창녕 등 일부 지역에서도 산 나무에 대를 걸어 놓는 사례가 나타나기는 이 지역에서는 매우 특수하게 나타난다.

234) 국립문화재연구소, 「영동군」, 『한국의 가정신앙 : 충북』, 2006, 143쪽 · 153쪽.

235) 국립문화재연구소, 「양산시」, 『한국의 가정신앙 : 경남』, 2007, 318쪽.

236)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조사(1)」, 『국어국문학지』, 문창어문화회, 1991, 9쪽 및 한

는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숨어서 몰래 진행이 된다. 신체를 만들어 모시는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이 없는 일이다. 그러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은 그에 상응하는 시간과 노력, 아울러 심적 부담도 크게 작용한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반드시 소유하려고 하는 행동은 영등할머니의 신체를 그만큼 귀하게 생각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대체로 이것을 훔치는 사람은 처녀들이다. 이처럼 천을 훔치면 바느질 솜씨가 좋아진다고 한다.

영등할머니의 신체는 항상 깨끗한 장소에서 처리하며, 그곳은 생명력이 있는 공간이다. 신체이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 잘못 처리할 경우에는 動土가 난다는 속신이 있을 정도이다.<sup>237)</sup>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 가장 수령이 오래된 나무에 신체를 걸어두기도 하는 것이다.<sup>238)</sup>

## 5) 제물(祭物)과 기원물(祈願物)

제물은 신령께 인간의 정성을 표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세상에 온전히 올려지기까지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다. 주부는 영등할머니의 영험하고 욕심이 많은 성격 때문인지 제물에 각별히 신경을 쓴다.

식구나 이웃사촌과 같이 매일 대면하는 사이에는 오해나 서운함이 쌓여도 화해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신경을 덜 쓰는 편이다. 반면에 원거리에 사는 친척이나 친구 사이에 서운함이 쌓이게 되면 관계 회복이 쉽지 않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신령을 대하는 식구들의 태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영등할머니는 특정한 때에만 찾아오는 신령이기에 그 때를 놓치면 결국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이유로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조심하고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본 절에서는 제물과 관련한 상항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영등할머니께 올리는 제물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이것을 장만하는 과정에서 혹은 세상에 진설하기까지 지켜지는 규칙을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신령이 운감한 이후에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국정신문화연구원, 『전라남도의 향토문화(하)』, 2002, 755쪽.

237) 국립문화재연구소, 「함양군」, 위의 책, 2007, 562쪽.

238) 국립문화재연구소, 「창녕군」, 위의 책, 2007, 457쪽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군위군」, 『한국의 가정신앙 : 경북』, 2002, 458쪽.

제물과 함께 신체 앞에는 개인이 소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함께 놓아둔다. 이 물건을 필자는 기원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이는 자신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영등할머니의 영검이 그 물건을 통해서 실현되길 祈願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러한 물건을 통하여 가족 전체 혹은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영등할머니를 모시는 보다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 가. 제물의 종류

영등할머니께 올리는 제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常時 올리는 정화수이고, 둘째는 바람올리기를 할 때에 준비하는 떡과 메·찬류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別食에 해당되므로 특히 푸짐하게 준비한다.

신령이 지상에 머무는 동안은 “영등할머니 목만 잘 축여주어도 평안하다.”는 속언이 있을 정도로 정성껏 대접한다.<sup>239)</sup> 어떤 신령들에게도 정화수 없는 기도나 정성은 있을 수 없다. 다른 제물은 준비하지 않고 정화수만 떠다 놓아도 신령에 대한 정성을 표할 수 있거니와, 혹여 각종 제물을 푸짐하게 차려 놓아도 정화수가 빠져서는 온전한 陳設이 되지 않는 것과 같다.<sup>240)</sup> 매일 떠올리는 정화수는 정성이 없으면 가장 구하기 힘든 제물이기도 하다. 주부는 우물에서 정화수를 길어오며 하루의 시작을 영등할머니께 받친다.<sup>241)</sup>

정화수가 가장 기본이 되는 제물이라면 떡을 비롯하여 메와 찬류는 이따금 올리는 별식에 해당한다. 이날 올리는 떡은 제철에 구할 수 있는 식재료를 사용하여 마련한다. 밥은 정월 대보름처럼 오곡밥을 하고, 무국과 여러 종류의 나물을 준비한다.

영등할머니께는 소·돼지·닭 등의 肉類는 거의 올리지 않는다. 이 점은 내륙이든, 해안가든 지역적인 차이가 없다. 대신 제철에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魚物을 올린다. 이 또한 비린 음식이라고 하여 아예 올리지 않는 경우도 있으

239) 국립문화재연구소, 「태백시」, 『한국의 가정신앙 : 강원도』, 2006, 178쪽.

240) 이필영, 「우물 신앙의 본질과 전개 양상」, 『역사민속학』 26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261쪽.

241) 정화수를 떠 올리는 시각은 ‘존재가 비롯하는 때’이고 정화수는 그렇게 ‘처음’을 담고 있다. 깨끗함과 맑음의 본체인 정화수는 俗世를 淨化시킬 수 있다. 정화수는 신령에 대한 제물인 동시에 인간계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최고의 상징물이다.(이필영, 위의 글, 2008. 281쪽.)

나 일반적으로는 장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입하여 제물로 사용한다. 어촌에서는 정월에 배를 타고 나가서 잡은 고기 중 제일 좋은 것을 골라두었다가 제물로 사용한다.

이렇듯 영등할머니께 올리는 제물은 크게 정화수, 떡, 메와 반찬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떡과 메를 분류하는 까닭은 경우에 따라서 떡만을 올리거나 메와 반찬만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1) 정화수(井華水)

정화수는 자연과 인간이 찾아 낸 최고의 清淨水이다. 깨끗함과 맑음의 본체인 정화수는 더럽고 탁한 주변 세계를 淨化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정화수를 올린다는 것은 신령에 대한 제물인 동시에 인간계가 지닌 더러움을 씻어내는 최고의 상징물이다. 더러움과 탁함은 신령이 거부하는 세계이기도 하다.<sup>242)</sup>

정화수는 2월에 영등할머니께 올리는 제물이기도 하다. 2월의 시간성과 영등할머니에 대한 온전한 정성이 있을 때에 비로소 정화수는 ‘영등물(영두할매물)’·‘이월물’·‘제석할매물’로 불리기도 한다.<sup>243)</sup>

주부가 2월 초하룻날 새벽에 정화수를 뜨러 나가는 과정부터 제의 장소에 올려놓기까지 모든 과정은 의미가 있다. 종교적인 심성이 없다면 정화수를 올리는 일은 없을지도 모른다. 다음에 한 달 동안 영등할머니께 정화수를 올리는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영등물을 떠올리는 횟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신령이 상천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수는 영등할머니께 올리는 제물임과 동시에 신령이 가내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하는 상징물이다. 신령이 상천하는 날 영등할머니께 올렸던 정화수 그릇도 치우고, 달이 지나면 더 이상 신령을 위하지 않는다.

주부는 하루 전날 미리 沐浴齋戒를 하는 등 신령을 맞을 준비를 한다. 당일 새벽 혹은 그믐날 자정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물을 길어오기 위해서 가까운 우물로 향한다. 과거에는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일

242) 구미래는 우물이 지닌 ‘생명력과 정화력’에 초점을 맞추어서 강이나 바다가 아닌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로써 정화수의 신성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구미래, 「우물의 상징적 의미와 사회적 기능」, 『비교민속학』 23집, 319쪽.)

243) 간혹 ‘영등할머니께 올리는 물’이라는 의미에서 이같이 부르기도 한다.

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첫 물을 길어오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이용하지 않는 깊은 골짜기의 샘을 찾아가기도 했다.<sup>244)</sup> 가능하면 다른 이의 손이 타지 않은 淸淨水를 올리려는 주부의 노력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처럼 먼저 물을 길어 온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다. 예컨대, 첫물을 길어오면 그 해에 운이 좋다거나 복을 많이 받는다는 속신이 있다. 특히 “농사 壯元을 먹는다.<sup>245)</sup>”와 같이 농사와 관련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 이는 영등할머니가 가정에 베푸는 축복이라 할 수 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영등할머니를 위하는 목적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주부는 우물에서 집까지 오는 길에 부정이 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한다. 길손을 만나면 인사도 하지 않고 모른척 지나온다. 이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인적이 드문 새벽녘이나 저녁시간을 택하여 물을 뜨러 나가기도 한다. 만약 길에서 죽은 짐승의 시체를 보면 이 또한 부정하다고 여겨 물을 길가에 봇고 새로 길어온다. 심지어 정성이 지극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서 머리목욕을 다시 하고 우물로 향한다.<sup>246)</sup>

이처럼 정성스레 떠온 정화수는 부엌이나 장독대에 가져다 놓는다. 간혹 정화수를 떠놓는 장소와 제의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초하룻날 부엌에서 고사를 지낸 뒤에, 뒤판의 장독대나 마당에 신령이 올라가는 날까지 정화수를 떠놓기도 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 정화수를 먼저 떠다놓고 이후에 고사를 지내기도 하므로 순서는 바뀔 수 있다. 어떻든 정화수를 떠놓는 곳은 집안에서도 신령이 머무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다. 이곳은 항상 정결하게 관리되는 성스러운 공간이다.

주부는 물을 떠놓는 그릇도 가능하면 새것으로 장만한다. 그릇의 종류는 주로 바가지를 사용하며, 沙器나 甕器류의 대접으로 대신하기도 한다.<sup>247)</sup> 어떤 경우에는 늦여름에 박을 타서 바람올리기를 할 때에 사용할 바가지를 별도로 준비해둔다.<sup>248)</sup> 새 그릇은 기존에 사용하던 食器와는 구별이 되는 한 번도 사

244)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가정신앙 : 경남』, 2007, 264쪽.

245)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시』, 『한국의 가정신앙 : 경북』, 2007, 72쪽.

246) 김승찬, 「고성지역의 영동할미제와 금기속신」, 『한국문화연구』 7집, 474쪽.

247) 대접은 위가 넓고 윤두가 낮은 모양의 그릇을 말하며, 국이나 숭늉 등을 담을 데 사용을 한다. 沙鉢 역시 아래는 좁고 위는 넓은 사기로 만든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혹 밥·국·술 따위를 사발에 담아서 그 분량을 세는 단위로 쓰이기도 한다.(「대접」 및 「사발」, 『동아 새국어사전』.)

248) 국립문화재연구소, 『거창군』, 『한국의 가정신앙 : 경남』, 2007, 441쪽, 영등물을 떠놓는

용하지 않은 깨끗한 것이다.

이처럼 2월 한 달 동안 집안 어딘가에 영등할머니를 모시기 위해 놓아둔 바 가지나 그릇은 제물을 담는 用器,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바가지가 놓이는 공간에는 항상 황토가 놓여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地面으로부터 일정 정도를 띄워서 올린다.

‘물대’라는 호칭에서처럼 이는 정화수 그릇을 받치는 기능을 한다.<sup>249)</sup> 물대는 대나무의 한쪽 부분을 삼발이처럼 조개어서 물그릇을 충분히 올려놓을 수 있도록 만든다. 그 위에는 짚을 봐리처럼 꼬아서 놓아두기도 한다. 물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짚을 깔거나 황토를 두둑하게 펴놓고 그 위에 정화수 그릇을 놓아둔다. 마당에서 신령을 위한 경우에는 소반에 받쳐서 올리기도 하고, 장독대에서는 가장 큰 독 위에 올려두기도 한다.<sup>250)</sup>

어떻든 바가지는 지면으로부터 일정정도를 띄워서 높은 위치에 놓이게 한다. 시각적으로도 돋보이고, 황토, 짚 등이 있어서 정결한 장소임을 알 수 있다. 정화수 그릇은 祭場의 중심에서도 대의 上部에 올려두기 때문에 누구도 이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 이때의 바가지는 그 자체가 신령을 상징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물사발’·‘풍신대접’·‘영등바가지’으로 신령의 호칭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종종 그릇을 실외에 잘못 두어서 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릇에 금이 간다거나 깨지는 현상은 凶兆로 인식하여 얼른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sup>251)</sup> 한편으로 영등할머니께 그동안 정성을 다하지 못해서 받은 벌로 여겨 다시 한 번 마

---

바가지는 사용을 하고 난 이후에도 잘 모셔놓았다가 이듬해에 다시 쓴다. 만약 깨지면 보기에 제일 좋은 것으로 클라서 사용한다.(국립문화재연구소, 「함양군」, 『한국의 가정신앙 : 경남』, 2007, 568쪽.)

- 249) 경상남도의 해안가 인접 지역들에서는 ‘물대[水竿]’라고 하여 물그릇을 받쳐놓는 받침대로 써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대가 가지고 있는 神體로써의 상징성도 상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므로 별도의 장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 250) 장독대 주변은 나무 울타리로 되어 있는데, 나무 울타리에 물대를 감아서 고정한다. 그 아래에 황토를 놓는다. 부엌 선반에 둘 경우에는 짚을 깔고 그 위에 종지를 올려두기도 한다. 이 물대 위에 놓는 종지를 ‘풍신대접’이라고 한다.(국립민속박물관, 「거제시」, 『경상남도 세시풍속』, 2002, 270~272쪽.)
- 251) 가정에 따라 물그릇을 살강에 올려놓기도 한다. 이 물그릇은 ‘할머니물사발’이라고 부르며, 여기에는 매일 새벽마다 첫 우물을 길어다가 떠놓는다. 할머니물을 떠올 때는 동이에 바가지를 띄운 채이고 오지 말아야 하며, 물그릇도 새 것으로 사다가 써야지 집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2월은 봄시 춥기 때문에 할머니물사발이 얼어서 터지기라도 하면 다시 장에 가서 새 것으로 사다가 갈아 놓고 정성껏 빈다.(국립문화재연구소, 「고성군」, 위의 책, 2002, 479쪽.)

음을 다잡는 기회로 삼는다.<sup>252)</sup> 2월에 사용한 정화수 그릇은 이후에도 아무 물건이나 함부로 담지 않도록 주의한다.<sup>253)</sup>

이월 초하룻날 처음으로 물을 떠올리는 것을 ‘첫바람을 한다.’라고 한다<sup>254)</sup> 제장이 마련된 이후에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물을 갈아 올리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두 세 차례씩 수시로 갈아놓을 만큼 정성을 드린다.<sup>255)</sup> 주부는 새로 물을 갈 때마다 식구들의 건강과 한 해 농사의 풍년을 빈다.<sup>256)</sup>

마지막으로 청수를 처리할 때는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고, 샘이나 장독대, 삽짝 주변과 같이 가능하면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공간에 부어놓는다.<sup>257)</sup> 신령의 상천하면 더 이상 정화수도 떠다놓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화수를 떠놓는 날은 식구들이 한 모금씩 나누어 마시거나 밥을 지을 때에 사용한다.<sup>258)</sup>

## (2) 떡

떡은 영등할머니께 올리는 제물 중에서도 비교적 손이 많이 가는 제물이다. “정월에 먹던 밥, 2월에 먹던 떡”이라는 속언처럼 떡은 2월의 대표적인 음식이기도 하다.<sup>259)</sup> 부잣집에서는 이날 일부러 떡을 많이 하여 마을사람들을 불러

- 
- 252) 영등을 모시기 위해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 놓았는데 하루는 깜빡하고 정화수를 새로 갈지 않았다. 그러자 이튿날 사기그릇에 금이 가있었다. 추운 날씨에 그릇이 얼어붙어서 금이 간 것으로 여길 수도 있으나 이를 영등할매에게 치성을 다하지 않아서 화를 당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후에 새 그릇을 꺼내어 정화수를 떠다 놓고, “어리석어서 몰라서 그랬습니다. 밍계 보지 마시고, 만복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벌었다.(국립문화재연구소, 「경산시」, 『한국의 가정신앙 : 경북』, 2007, 56쪽.)
- 253) 정화수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정화수를 깨끗한 곳에 봇고 정화수 그릇은 하루 동안 엎어 놓은 뒤 사용하는데, 이후에도 비린 것을 담지 않는다.(국립문화재연구소, 「의령군」, 『한국의 가정신앙 : 경남』, 2007, 387쪽.)
- 254) 국립문화재연구소, 「진주시」, 위의 책, 2007, 406쪽.
- 255) 2월 초하룻날부터 영등제가 행해지는데 새벽에 일어나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며 하루에 세 차례 물을 간다.(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한국의 전통마을6』, 1997, 146~147쪽.)
- 256) 국립문화재연구소, 「고성군」, 앞의 책, 2007, 112쪽.
- 257) 정월 보름까지 매일 아침에 새로 길어온 물로 갈아 두는데, 정성을 드린 물이므로 함부로 버리지 않고 삽짝 앞에 살짝 봇는다.(충북대학교 박물관, 『청주-상주간 고속도로건설예정지구 지표조사보고서』, 1999, 299쪽.)
- 258) 禮祭를 지낸 이후에 飲福을 하는 것과 동일한 차원으로 이해된다. 이때 어린 아이들에게는 侑食을 한 물을 마시면 무서움을 타지 않는다고 하여 남김없이 마시게 한다. 제물을 나누어 먹으면 복을 받고, 무서움을 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이면에는 ‘조상이 먼저 잡수신 음식’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 259) 이는 정월 대보름의 오곡밥과 2월 초하루의 영동할매떡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 집이 나

모아 대접을 하기도 한다.<sup>260)</sup>

그러나 이날 넉넉하게 떡을 할 수 있는 가정은 많지 않았다. 무엇보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 많았기 때문에 정월에 이어서 떡을 해먹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특히 주부의 입장에서 2월은 설, 대보름 등 큰 名節을 치르고 난 이후여서 심적 여유도 없는 때이다. 게다가 본격적인 농사준비가 시작되므로 “2월 초하루에 머느리들이 산에 목매달려 간다.”는 속언이 있을 정도로 바빠지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올리기를 행하는 가정에서는 제물로 떡을 올린다. 이 떡은 ‘영등떡(영등할머니떡 · 영두떡 · 할매떡 · 할만네떡)’ 혹은 ‘이월떡’이라고 부른다. 떡의 재료, 만드는 방식 등이 지역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점도 영등떡의 특징이다. 10월 상달에 해먹는 가을떡은 일부러 그 양을 많이 해서 이웃과 나누어 먹는데, 영등떡은 식구들이 먹기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 적당한 분량을 한다.

기본적으로 2월 초하루는 농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쉴 수 있는 마지막 여유 시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을 ‘머슴날’ · ‘노비일’이라고 하여, 시절음식을 해먹는다.<sup>261)</sup> 떡은 제철에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절음식이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이를 ‘나이떡’이라고 하여 자신의 나이 만큼 숟가락으로 쌀을 떠 넣어서 송편을 빚는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나이

---

누어 먹는다고 하여 전하는 말이다.(국립민속박물관, 『경남어촌민속지』, 2002, 283~286쪽.)

260) 마을에서 아무리 큰 부자여도 인심이 박하면 일꾼이 모이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한창 바쁠 농사철에 일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절기에 한 번씩 음식을 대접하는 것으로 부잣집에서는 인심을 잊지 않을 수 있고, 마을의 화합까지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마리 도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2008년 8월 10일, 충북 옥천군 안내면 현리 필자 조사.)

261) 『京都雜誌』에는 ‘정월 보름날 세운 벗가릿대[禾竿]를 풀어내려 솔잎을 깔아 찐 떡을 나이 수대로 노비들에게 먹인다. 세속에서는 이 날을 노비일이라고 하는데 농사일이 이날부터 시작되므로 먹이는 것이라고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東國歲時記』에는 ‘정월 보름 날 세워 두었던 벗가릿대[禾竿]에서 벼이삭을 떨어서 흰떡을 만드는데, 크기는 큰 것은 손바닥 만 하게, 작은 것은 계란만 하게하며 모두 반달 옥 같은 모양을 낸다. 콩을 불려 만든 소를 넣고 그것들 사이에 솔잎을 겹겹이 넣어 시루에 찐다. 이것이 푹 익으면 꺼내어 물로 씻어 참기름을 바른다. 이를 송편[松餅]이라고 한다. 이 송편을 노비들에게 나이 수대로 먹인다. 그래서 이 날을 속칭 노비날[奴婢日]이라고 한다. 농사일이 이때부터 시작되므로 이렇게 노비들을 먹이는 것이라고 한다. 떡집에서는 팔 · 검은콩 · 푸른콩을 떡소로 넣거나 혹은 거기에 꿀을 버무려 만들기도 하고, 혹은 찐 대추나 삶은 미나리를 떡소로 넣어 떡을 만들기도 한다. 이 달로부터 이 떡을 시절음식으로 친다.’라고 하여 송편의 모양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節食은 節日에 만들어 먹는 특별한 음식을 말하며, 시절음식과 명절 음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姜仁姬 · 李慶馥, 『한국식 생활풍속』, 158쪽.)

떡에 대한 인식이 경기도와 접한 충청 북부 일부 지역까지만 찾아지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호남 지역에서는 2월 초하루를 ‘하리드랫날’이라고 하며 농사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쉬는 날 정도로 여길 뿐 특별한 음식을 해먹지 않는다.<sup>262)</sup>

영남과 강원 지역에서는 경기 지역과 같이 ‘나이떡’은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로 일꾼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떡을 준비한다. 경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대보름 날 벗가릿대를 세워두었다가 2월 초하룻날 내리면서 그 속에 있던 곡식으로 떡을 빚어서 일꾼들에게 대접하는 풍습이 있다.<sup>263)</sup>

영등할머니를 위하는 가정에서는 일꾼들을 위해서 많은 양의 떡을 준비했을 지라도 반드시 제물로 사용한 이후에 나누어 먹는다. 제물로 올리기는 것이므로 ‘영등떡’이라고 불린다. 이와 관련하여 영남 지역에서는 깨끗한 짚을 추려서 양 끝을 묶고, 가운데에 떡·메·나물 등을 넣어 ‘끄르미’라고 불리는 것을 만든다. 이것은 장독대나 광에 놓아두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마치 까치밥처럼 감나무에 묶어 두기도 한다. 끄르미 안의 제물은 그대로 두면 자연스레 없어지기도 하지만 먹을 것이 귀한 시절에는 가져다가 나누어 먹었다.<sup>264)</sup>

“밥 위에 떡”이라는 속담처럼 떡은 別食이라는 개념이 강하다. 별식에는 계절에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사용된다. 여름에는 메밀가루나 밀가루를 사용하여 만든 국수나 밀전병, 수제비 등을 먹고, 겨울에는 떡·엿·만두·죽 등을 별식으로 먹는다. 이는 입맛을 돋우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지역에서만 특산물을 사용하여 지역음식이 되기도 한다.<sup>265)</sup>

2월 초하룻날 먹는 떡도 별식이므로 그 재료나 만드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역의 인문·자연 환경적 요소나 가정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날의 떡을 한 종류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또한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떡을 올리는지, 그리고 떡을 찌거나 재료를 선택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서 가을에 영등할머니를 위할 나락을 미리 마련해 두기도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평소에 먹던 가마니의 쌀을 사용하지 않고, 새 가마니

262) 더욱이 전라도 서남부 지역은 영등할머니 신앙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물로써 ‘영등떡’에 대한 인식도 나타나지 않는다.

263) 국립문화재연구소, 「벗가릿대 쓰러뜨리기」, 『총괄편 세시풍속』, 2006, 231쪽.

264) 문화재관리국, 앞의 책(경상남도 편), 771~776쪽.

265) 姜仁姬·李慶馥, 『한국식생활풍속』, 109~110쪽.

를 헐어서 제물을 마련한다. 이는 부정을 피하기 위한 주부의 노력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安宅이나 가을떡을 할 때처럼 켜켜로 팥을 넣어서 시루떡을 찌는 가정은 많지 않은 편이다.<sup>266)</sup> 영등할머니는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한다고 하여 아무것도 넣지 않은 백설기를 올리는 사례가 보다 많다.<sup>267)</sup> 간혹 팥·콩을 드문드문 섞어서 찌기도 한다.

그 외에 절기에 맞는 특별한 재료를 섞어서 찐다. 그 대표적인 것이 쑥과 호박이다. 먼저 쑥은 충청도보다는 영남·호남 지역에서 떡을 찔 때에 부재료로 많이 사용한다. 쑥은 냉이·달래 등의 나물과 함께 봄철에 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나물이다. 그러나 2월은 아직은 절기상 겨울에 가깝기 때문에 봄나물을 캐기에는 이른 시기이다. 때문에 이전에 미리 갈무리 해 둔 쑥을 사용한다. 예로부터 쑥은 약재로써도 그 효능이 뛰어나 민간의료에서도 다양하게 사용 되었다. 또한 춘궁기에는 救荒작물로 이를 뜯어다가 죽을 쑤거나 그대로 삶아서 먹는 일이 많았다.<sup>268)</sup> 봄이면 길가·논·밭 등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色과 香이 좋기 때문에 영등할머니가 쑥떡을 좋아한다는 속언이 있을 정도이다.<sup>269)</sup>

쑥을 부재료로 사용한 떡은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다양하다. 맵쌀 가루에 쑥을 섞어서 켜 없이 무리떡으로 찌기도 하고,<sup>270)</sup> 마치 인절미를 만들

266) 농사를 많이 짓는 가정에서는 일꾼들을 대접하기 위해서라도 한 말 이상 시루떡을 찌셔 영등할머니께 올리고, 나누어 먹는다(2008년 8월 10일, 충북 옥천군 안내면 현리의 한석복 談), 경북 상주의 사례로 시루떡을 찔 때에 제일 위 켜의 중앙에 한 대접 분량의 맵쌀가루를 소복하게 별도로 찌기도 한다. 이 떡은 용단지 앞에 사흘 동안 놓아두었다가 치운다.(충북대학교 박물관, 『청주-상주간 고속도로건설예정지구 지표조사보고서』, 1999, 288쪽.)

267) 경북 지역에서는 백설기를 일러 ‘백찜’이라고 부른다.

268) 춘궁기에는 草根本皮를 곡식과 혼용 혹은 그것만으로 식량 대용하였다. 『救荒撮要』와 『增補山林經濟』에는 송엽·송기(松肌)·유피(榆皮)·칡뿌리·메밀꽃·콩잎·콩깍지·토란·마·도토리·삽주뿌리·메뿌리·둥굴레·득대뿌리·천문동·백합·마름·고욤·개암·쑥·은행·잣·호마·느티나무잎·팽나무잎·새삼씨·소루쟁이 등의 구황식품이 수록되어 있다.(金良喜, 「구황식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69) 제물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쑥떡’이다. 이월영동이 쑥떡을 좋아해서인지 어느 가정이나 쑥떡은 빠드리지 않는다.(장수군의 사례, 국립문화재연구소, 세시풍속, 2003, 547쪽.) 최남선은 春夏秋冬 4時 일년 열두달 때마다 맞춰 먹는 음식을 時食이라고 정의하고, 2월의 시식은 물쑥청포를 들었다.(『조선상식문답』, 삼성문화재단, 1972(1947), 84쪽.)

270) 봄철에 햇 쑥으로 만들기 때문에 향기가 좋고 서민적인 떡이다. 쑥버무리라고도 한다. 쑥을 섞은 쌀가루와 거피팥고물을 켜켜로 하여 찌기도 하는데 이를 쑥편이라고 한다.(김경자, 「경남의 향토요리 연구」, 『생활과학연구논문집』 4집, 동아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듯이 쑥과 찹쌀가루를 섞어서 곁에 콩고물을 묻히기도 한다.<sup>271)</sup> 그 밖에 쑥과 함께 콩이나 팔 등을 섞어서 찌기도 한다. 경남 하동 지역에서는 ‘비정떡’ 혹은 ‘비침떡’이라고 하여 앞의 설명처럼 콩고물을 묻혀서 먹음직스럽게 만든다.<sup>272)</sup>

쑥과 더불어 호박도 부재료로 많이 사용한다. 가을에 늙은 호박을 갈무리 해두었다가 맵쌀가루를 섞어서 찌는 방식이 가장 많다.<sup>273)</sup> 겨울철에 늙은 호박은 끼니를 대신하는 비상식량이기도 했다. 그러한 까닭에 미리 구해놓지 않으면 봄철에는 구하기 힘든 재료였다. 그렇기 때문에 “영두 고사에 호박떡을 하면 소 한 마리 잡은 것과 같다.”라는 속신이 있을 정도로 귀한 재료였다.<sup>274)</sup>

경북의 해안가에 접한 지역에서는 이날 ‘두지[뒤주]떡’, ‘섬떡’, ‘꼬막떡’이라고 불리는 떡을 만든다. 모양은 송편과 유사하나 크기는 어른이 두 주먹을 모은 정도로 훨씬 크다. 나중에 식구들이 먹을 것을 고려하여 몇 개만 크게 만들고, 나머지는 작게 빚는다. 두지떡 안에는 마치 새알심처럼 생긴 작고 동그란 모양의 소를 넣는데, 이 작은 떡을 ‘꼬막떡’이라고 한다. 광 안에 섬이 쌓여 있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섬을 채운다.’라고도 한다.<sup>275)</sup> 가정에 따라서 송편처럼 생긴 떡을 ‘꼬막떡’이라고 부르고 그 속에 아무것도 넣지 않기도 한다. 이처럼 속을 비우는 까닭은 영등할머니가 그 안에 福을 채워주기 때문이라고 한다.<sup>276)</sup>

뒤주는 곡식을 담아두는 세간의 하나이고, 섬 역시 짚으로 엮어 만든 곡식을 보관하는 용기이다. 모두 곡식, 농사와 관련이 있는 물품이다. 바람올리기가 끝나면 섬떡은 그릇에 담아서 광의 가마니 위에 갖다 둔다. 그리고 3일이 지나면 “섬 먹자, 섬 먹자”라고 말을 한 이후에 내려서 먹는다.<sup>277)</sup>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풍농에 대한 염원을 확인할 수 있다.

---

1996, 75쪽.)

271) 국립문화재연구소, 「장수군」, 『전라북도 세시풍속』, 2003, 526~527쪽.

272) 국립문화재연구소, 「하동군」, 『한국의 가정신앙 : 경남』, 2007, 511·520·528쪽.

273) 경남 지역에서는 겨울철에 이 떡을 주로 만들어 먹는데, 늙은 호박을 얇게 저며서 쌀가루와 섞고, 고물은 거피팔으로 시루에 켜켜로 안쳐서 젠다. 그 맛이 대채로 소박한 특징이 있다.(김경자, 「경남의 향토요리 연구」, 『생활과학연구논문집』 4집, 동아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996, 72쪽.)

274) 국립문화재연구소, 「울주군」, 위의 책, 2007, 346쪽.

275) 황경순, 「경북지역 영등신앙 연구」, 『향토문화』 17, 대구향토문화연구소, 2002, 311쪽.

276) 김미주, 『생업차이에 따른 영등신앙의 존재양상』, 안동대석사학위논문, 2007, 46쪽.

277) 국립문화재연구소, 「영덕군」, 『경상북도 세시풍속』, 2002, 585~589쪽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영덕군」, 『한국의 가정신앙 : 경북』, 2007, 435쪽.

이날 먹은 한 종류만 올리는 것은 아니다. 가정 형편에 따라서 여러 종류를 올리기도 한다.<sup>278)</sup> 몇몇 지역에서는 쌀을 대신하여 수수나 조를 이용하여 떡을 찌는 경우도 많다.<sup>279)</sup>

강원도에서는 떡의 재료로 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한다. 아무래도 곡물보다는 옥수수·감자 등이 많이 나기 때문에 떡을 찔 때도 맵쌀 대신 옥수수 가루로 대체하고, 산에서 난 취나물을 섞어서 찐다. 이 떡을 ‘취떡’이라고도 하는데, 송편처럼 빚어서 소로 삶은 팥을 넣는다.<sup>280)</sup> 시루떡을 대신 하여, ‘팥쥐어미떡’이라고 하여 팥만 삶아서 둥글게 빚어 올리기도 한다.<sup>281)</sup>

‘영등떡’은 신령께 받치는 제물 중에서도 別食에 해당한다. 별식이라고 하여, 반드시 귀하고, 좋은 재료만을 사용하지 않는다.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지만 정성껏 마련하여 제물로 올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등떡은 비교적 소박해 보이지만 계절과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특별한 제물이다.

### (3) 메와 반찬

“2월 초하루에는 능금장사도 쌀밥을 하여 돌 위에 올리고 소지를 올린다.”<sup>282)</sup>는 영남 내륙지역에서 전승되는 이야기로 장사꾼들도 메를 지어서 영등할머니를 위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령이었다. 그러므로 민가에서는 일상적인 음식이더라도, 더욱 먹음직스럽게 준비하여 신령께 올린다. 2월이 지나면

278) 경북 청도군 화양읍 송금리의 사례로 이 지역에서는 시루떡·백설기·엄비떡·고물이 많이 들어간 찰떡 모두 네 종류의 떡을 찐다.(국립문화재연구소, 『경상북도 세시풍속』, 2002, 797쪽.) 경북 울진군 기성면 기성리의 사례로 공굴떡·시루떡·절편 세 종류의 떡을 한다. 공굴떡은 차조와 서숙을 뺏아서 동그랗게 빚은 떡의 한 종류이다.(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세시풍속』, 1998, 289쪽.)

279) 김미주, 『생업차이에 따른 영등신앙의 존재양상』, 안동대석사학위논문, 2007, 42쪽.

280) 임동권 외, 『태백산민속지』, 민속원, 1997, 121쪽 및 이현수, 「정선지역의 세시풍속 연구 : 풍신제를 중심으로」, 『강원민속학』 21, 강원민속학회, 2007, 175쪽.

281) 국립문화재연구소, 『속초시』, 『강원도 세시풍속』, 2001, 100쪽.

282) 이는 충청북도 지역에서 전승되는 이야기이다.(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충청북도 편)』, 1976, 260쪽.) 경남 지역에서도 같은 의미로 ‘할만네는 쪽지게 밑에서도 한다.’라는 속신이 전한다.(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경상남도 편)』, 1972, 771~776쪽) 아울러 쪽지게를 지고 다니는 등 짐장이가 풍신을 위하는 작은 단지를 달고 다녔다고 한다. 그 안에는 소량의 쌀을 넣어 두고, 해마다 2월 초하루에 새것으로 갈아 주었다.(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시』, 『경상북도 세시풍속』, 2002, 63쪽.)

영등할머니를 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정성을 드리는 것이다.

영등할머니께 올리는 제물 전체를 가리켜 ‘이월밥’ 혹은 ‘영등밥’이라고 할 만큼 메는 대표적인 제물이다. 특히 충청도 지역에서는 ‘이월밥을 해먹는다’ 혹은 ‘농사밥 해먹는다’라고 하여 別食으로 관념한다. 밥이 있으면 찬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국이나 찌개·나물·생선 등을 메와 함께 올린다.<sup>283)</sup>

메를 가리킬 때에도 그 앞에 신령의 호칭을 붙여서 ‘영등밥’·‘이월밥’·‘바람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sup>284)</sup> 그만큼 중요한 제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농사가 잘되길 기원하는 의미에서 ‘농사밥’이라고도 한다.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이월에 해먹을 나락을 별도로 마련해두기도 한다.<sup>285)</sup> 이처럼 하는 까닭은 영등할머니가 영험하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신령이기 때문이다. 아예 작은 단지에 별도로 보관하거나,<sup>286)</sup> 경우에 따라서 마치 신체처럼 단지의 입구를 封하여 깨끗한 장소에 놓아둔다.<sup>287)</sup> 이처럼 제물로 쓸 나락을 별도로 보관하기란 보통 정성 없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메는 가을에 처음으로 타작을 한 나락을 모아두었다가 사용하거나 한번도 먹지 않은 새 가마니를 헐어서 준비한다.<sup>288)</sup> 심지어 메를 그릇에 담을 때

283) 손진태는 東萊지역의 풍신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靑魚·菜蔬·雜穀飯(쌀·찹쌀·멥·차조·찰기장·콩 등의 밥) 等을 장독간에 바쳐 祭祀지내고, 巫女를 招致않고 主婦가 執行하며 祝詞는 각각 생각난 것을 말 한 것으로 一定하지는 않지만 農家에서는 農事의 豐登과 家內의 泰平을 祈願하고 商家에서는 장사의 繁昌과 家內의 泰平과를 손을 비비면서 낮은 소리로 祈禱한다.(孫晉泰, 『孫晉泰先生全集』 6권, 태학사, 1981, 342~343쪽.)

284)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가정신앙 : 경남』, 2007, 174쪽·550쪽.

285) 지성으로 위하는 가정에서는 가을걷이 후에 미리 이월할머니를 모시기 위한 쌀을 별도로 마련해둔다. 이 쌀은 성주 밑에 단지에 담아서 놓아두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성주 매거리(쌀이 약 100kg정도 들어가는 커다란 단지로 방안이나 대처에 안택을 하면서 모신 성주 밑에 가져다 둔다. 이 쌀은 봄에 꺼내서 밥을 해먹는데 쌀 한 틀이라도 구정물에 넣지 않아야 하므로 쌀을 셋을 때나 밥을 먹을 때 쌀이 유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라고 표현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집안에 있는 새 가마니를 헐어서 방아를 짹어서 밥을 한다. (충북대학교박물관, 『청주-상주간 고속도로건설예정지구 지표조사보고서』, 1999, 216쪽.)

286) 충북대학교박물관, 위의 책, 1999, 185쪽.

287) 이 단지를 일러 ‘부단지’라고 표현을 하며, 곡식이 3~4되 분량이 들어간다.(국립문화재연구소, 「보은군」, 『한국의 가정신앙 : 충북』, 2006, 107쪽.) 해마다 가을걷이를 하면 이월 할머니 위할 나락은 따로 단지에 담고, 원새끼 금줄을 꼬아 둘러놓는다.(국립문화재연구소, 「금산군」, 『충청남도 세시풍속』, 2002, 302쪽.)

288) 어떤 경우에는 가을에 첫 타작을 하는 날 마당에 떨어진 찌꺼기 쌀을 모아 두었다가 이것으로 영등할머니를 위하는 제물을 만든다. 타작을 할 때 떨어진 것은 우수리 떨어진 것으로 제일 먼저 타작된 쌀이기 때문이다.(국립문화재연구소, 「영천시」, 『경상북도 세시풍속』, 2002, 333쪽.)

에도 제일 먼저 푸기 때문에, ‘선밥’이라고도 한다.<sup>289)</sup> 이처럼 영등할머니께 올리는 제물은 ‘처음’, ‘새 것’이어야 한다. ‘처음’은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새 것이기 때문에 汚染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까지를 고려한 것이다. 여느 신령을 위할 때보다 제물에 더욱 신경을 쓰는 이유는 까다로운 영등할머니의 성품 때문만은 아니다. 집안에 오래도록 머무르지 않고, 손님처럼 때가되면 되돌아가는 신령이기에 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보다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다.

당일에 영등밥을 지을 나락은 햇볕에 잘 말려서 방아를 짹어 놓는다. 땔감도 깨끗한 참깨대를 사용할 정도로 깨끗하게 준비한다.<sup>290)</sup> 쌀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보름처럼 잡곡밥을 주로 한다. 지역에 따라서 찰밥·오곡밥·잡곡밥 등 다양하게 부른다. 여러 종류의 곡물을 섞지 않고, 한 두 종류의 곡물을 섞어서 밥을 짓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팔밥과 조밥이다. 다른 지역보다 경남과 강원도 지역에서 이처럼 메를 지어서 올린다.

메와 함께 국은 기본적인 식단이다. 영등할머니를 위할 때도 반드시 국을 올리는데, 종류는 가리지 않으나 대개 맑은 무국을 올린다. 충청도와 강원도에서는 이를 ‘왁다지(왁다리·왁데기)탕’이라고 부른다.<sup>291)</sup> 경북 지역에서도 ‘무찌개’ 혹은 ‘악자지’라고 하여 유사한 제물을 올린다. 경북의 해안 지역에서는 정월에 잡아온 고기를 넣고 된장을 풀어서 조리한다.<sup>292)</sup> 특히 바닷가가 가까운 지역은 魚物이 풍부하기 때문에 국과 생선찌개를 별도로 마련하여 올리기도 한다. 이 때는 찌개는 푸짐하게 장만하고, 국은 무와 콩나물로 소박하게 끓인다.<sup>293)</sup> 그 밖에 평소에 먹는 된장국·북어국·미역국 등을 올리기도 한다. 간혹 忌祭를 지낼 때에 올리는 湯의 형태로 세 종류의 탕을 마련하여 올리기도 한다.<sup>294)</sup>

어떻든 이날 제물로 사용하는 국은 무와 두부를 넣고 맑게 끓인다. 경우에 따라서 북어를 넣기도 하나 고춧가루는 사용하지 않는다. 평소의 무국과 다른 점은 무를 듬성듬성 썰어서 넣기 때문에 조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부잣

289) 국립문화재연구소, 「울주구」, 『한국의 가정신앙 : 경남』, 2007, 363쪽.

290) 국립문화재연구소, 「고성군」, 『경상남도 세시풍속』, 2002, 497쪽.

291) 湯은 국을 달리 이르는 말로, 흔히 제사에 건더기가 많고 국물이 적은 찬(饌)을 가리킨다.(「탕」, 『겨레말 용례사전』, 한글문화연구회, 1996.)

292) 국립문화재연구소, 「포항시」, 『한국의 가정신앙 : 경북』, 2007, 805쪽.

293) 김미주, 『생업차이에 따른 영등신앙의 존재양상』, 안동대석사학위논문, 2007, 30·34·38쪽.

294) 국립문화재연구소, 「합천군」, 『한국의 가정신앙 : 경남』, 2007, 590쪽, 국립문화재연구소, 「삼척시」, 『한국의 가정신앙 : 강원』, 2007, 96~99쪽.

집에서는 이날 텅술에 많은 양을 하여 이웃에 나누어 준다.

반찬으로는 주로 나물을 무쳐서 올린다. 나물은 어느 가정이나 즐겨먹기 때문에 가을에 갈무리 해둔 것으로 마련한다. 봄나물이 나오기에는 이른 시기 이므로 고사리·무·콩나물·취나물·호박 나물 등 평소에 먹는 것을 올린다. 정월 대보름날만큼은 아니어도 비교적 나물을 많이 먹는다. 경남 남해 지역에서는 ‘비비미’라고 하여 밥과 나물을 한 대 비벼서 먹는 풍습이 있다. 또한 나물을 조리할 때에도 마치 텅을 만들 듯이 하기 때문에 ‘나물텅’이라고도 한다.<sup>295)</sup> 나물을 무칠 때에도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는 마늘도 금기시 된다. 기제사를 지낼 때 붉은 색이 들어간 제물을 올리면 조상이 운감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피하는 것과 같다.

그 밖에 겨울철에 간식으로 먹는 배추 뿌리를 다듬어서 올리거나 삶은 호박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sup>296)</sup> 나물과 함께 김도 올리는데, 이때는 온장으로 올린다. 요즘은 김이 흔한 편이지만 예전에는 제사나 명절 때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다. 특히 농촌에서는 일부러 장에 나가서 비싼 값을 주고 사와야 했다. 해안가 지역에서는 해산물이 풍부하다보니, 김과 함께 삶은 미역을 올리기도 한다. 남해안의 통영을 비롯한 주변 지역에서는 굴을 제물로 올린다.

생선도 빼놓을 수 없는 제물 중 하나이다. 지역에 따라서 생선의 종류나 이를 마련하는 과정, 조리법 등이 차이가 있긴 하나 반드시 올리는 제물이다.<sup>297)</sup> 충청도와 강원도, 경상도 내륙 지역에서는 특히 청어를 온마리로 굽거나 찐 많이 올린다. 청어는 오늘날에는 그 이름조차 생소한 魚種이지만 과거에는 명태, 대구, 조기와 함께 한국인이 가장 즐겨 먹는 생선이었다.<sup>298)</sup> 청어는 길이는

295) 국립민속박물관, 「남해군」, 『경남어촌민속지』, 2002, 308~309쪽.

296) 호박 찐 것을 ‘소 잡는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 이유는 삶은 호박을 반으로 쪼개면 붉은 속이 들어나기 때문에 ‘소 잡아 올린다.’ 것처럼 보이고, 그만큼 귀한 제물이기 때문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영천시」, 『경상북도 세시풍속』, 2002, 333쪽.)

297) 간혹 영등할머니가 비린 것을 싫어한다고 하여 아예 생선을 올리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이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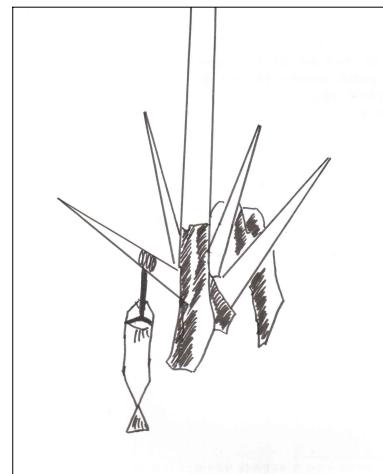
298) 청어는 오늘날에는 우리나라 연안에 거의 來遊하지 않고 있으나 조선 시대에는 초기부터 가장 중요한 어류 자원의 하나로 반도의 전해역에서 다산하여 모두가 즐겨 먹었다. 19세기 초에 저술된 서유구의 『蘭湖漁牧志』와 『林園十六志』에는 청어 어군의 대량 회유 상황, 회유 시기 및 회유 지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청어는 겨울철에 관북해양에서 산출되어 冬末 春初에 동해를 돌아 남쪽 영남 해양에 이르고, 여기에서 더욱 많아진 청어는 서쪽으로 회유하여 海西의 해주 앞 바다에 이려 더욱 살이 찌고 맛이 있어 져서 3월에 이르러 대어군이 회유한다.(박구병, 「한국 청어 어업사」, 『부산수산대 논문집』 17, 1976, 부산수산대학교, 33쪽 및 『한국어업사』, 정음사, 1975, 81~83쪽.)

한 자 남짓하며 몸이 좁고 빛깔이 푸른 생선으로 본래 동해청어와 서해청어로 나뉘며 품종도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서해청어는 동해청어보다 기름기도 많고 맛도 좋을뿐더러 큼직하여 예로부터 선비들을 살찌게 한다고 하여 肥儒漁라고 불렸다.<sup>299)</sup> 그런데 특기할 만 한 점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시기마다 어획량의 변동이 심한 어종이었다.<sup>300)</sup> 그러한 까닭에 과거에는 한반도 전역이 산지였다면, 최근에는 동해안이 중심 산지가 되었다.<sup>301)</sup>

청어는 2월에 구할 수 있는 제철 어물에 속한다. 어획량이 많다보니 다른 절기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내륙지역에도 많이 보급이 되어서 시장에서 손쉽게 청어를 구할 수 있었다. 그에 비하면 조기는 가격이 비싸고 구하기 어렵기 때문인지 선뜻 제물로 사용하지 않는 편이다. 비단 경제적인 이유에서만 청어를 올렸던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그 맛이 좋고 겨울철에 구할 수 있는 제철 어물이기 때문에 영등할머니께 올릴 제물로는 손색이 없다.<sup>302)</sup>

漁村에서는 숭어·돔·서대 등 바닷가에서 구해지는 대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제물로 올린다. 배 사업을 하는 가정에서는 정월에 잡은 고기 중 가장 크고, 좋은 것을 선별해둔다.

동쪽 해안가에 접한 지역에서는 생선을 보관하는 특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sup>303)</sup> 이



[그림 2] 영등까꾸지

299) 주강현, 『조기에 관한 명상』, 한겨레신문사, 1998, 209쪽.

300) 박구병, 위의 책, 1975, 81~83쪽.

301) 조선 청어의 대부분은 동해안 일대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곳은 경북 영일만이며 전체 산액의 반절이 이곳에서 생산된다. 그 다음은 함북, 강원, 함남, 경남 순이다. 함북에서는 오상진, 어대진, 청진, 조산만에서, 강원도에서는 장진, 묵호진, 거진리에서, 함남은 원산만에서 경남은 울산만이 중심이 된다. 漁期는 각 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개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요. 성어기는 경상남북도가 정월·2월·강원도가 1월·2월·3월 함남도가 3월·4월, 함북도가 11월·2월·3월이다.(권삼문, 『동해안어촌의 민속학적 이해』, 민속원, 2001, 355~356쪽.)

302) 충북대학교 박물관, 『경부고석도로(옥천-영동간) 확장사업구간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2001, 115쪽.

303) 현재까지 조사 된 바에 의하면 강원도(동해시, 삼척시)부터 해안가를 따라서 경북 울진·영덕·포항까지 찾아진다. 포항 이남의 해안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보

를 ‘영등까꾸리(영등까꾸지 · 영등갈고리 · 영등갈쿠리)’라고 부른다. 앞에 영등을 붙이지 않고, ‘까꾸지(까꾸리)’라고 부르는 지역도 있다. 우선 형태를 살펴보면 소나무를 베어다가 ‘배의 닻’이나 ‘뒤집어 놓은 우산 살’처럼 중앙에 대가 있고, 밖으로 가지가 뻗어 있다. 대개 부엌의 천정에 매달아 두고 정월에 바다에서 잡은 고기 중 가장 좋은 것만을 걸어둔다. 이를 두고 ‘까꾸리’라고 부르는 까닭은 그 모양이 갈퀴와 닮았기 때문이다.<sup>304)</sup> 이곳에는 영등할머니께 올릴 어물만을 올리기 때문에 ‘영등’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2월이 지난 이후에도 특별히 치우지 않고, 그대로 놓아둔다.<sup>305)</sup> 평소에도 잡아온 고기를 이곳에 걸어두면 재수가 있고, 고기가 잘 잡힌다고 믿는다.<sup>306)</sup>(그림 2 참조)

‘영등까꾸리’에 걸어둔 고기는 품질이 가장 좋은 첫 어획물이다. 경우에 따라서 미역 채취를 주업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물고기와 함께 미역도 매달아 둔다. 이는農家에서 첫 수확물을 薦新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파악된다. 어촌에서는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어물이고, 생계 수단이다. 따라서 뱃일을 하는 가정에서는 안전한 항해와 豊漁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신령께 가장 좋은 제물을 받친다.<sup>307)</sup>

요컨대 2월 초하루에는 잡곡밥과 함께 지역에서 제철에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로 찬을 준비한다. 해안가에서는 정월에 잡은 고기 중 제일 좋은 것을 선별하여 제물로 사용한다. 또한 특히 농촌에서는 평소에 구하기 어려운 생선을 올리는 것으로 미루어 영등할머니를 극진하게 위했음을 알 수 있다.

## 나. 진설 방식

---

아 동해안 지역의 특징으로 파악된다.

- 304) 갈퀴는 경상도 방언으로 ‘까꾸리’라고 부른다.(김광언, 「갈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지역에 따라서는 바람올리기가 끝나면 이것을 내려서 미역이나 다시마 등 해조류를 채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기본적으로 ‘갈퀴’ 형태이기 때문에 바위틈에 낀 해조류를 채집하기에는 안성맞춤이다.(이승철, 「동해 영등제의 존재양상 분석」, 『강원민속학』 21, 강원민속학회, 2007, 73쪽.)
- 305) 김미주, 앞의 글, 안동대석사학위논문, 29쪽.
- 306) 황경순, 「경북지역 영등신앙 연구」, 『향토문화』 17, 대구향토문화연구소, 2002, 313쪽.
- 307) 영등할매는 어업을 하는 가정에서 주로 모시는데 형편이 여의 않으면 청수라도 떼놓는다.(권삼문, 앞의 책, 294쪽.) 2월은 날씨가 변덕이 심해서 뱃일을 하는 사람은 위험한 달로 영등할만네를 위했다. 영등할만네를 잘 모시면 안전하게 조업을 하고 좋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김미주, 앞의 글, 안동대석사학위논문, 37쪽.)

앞서 영등할머니께 올리는 제물을 정화수·떡·메와 반찬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들 중 정화수는 常時에 올리는 제물이라면, 떡·메와 반찬은 신령이 하강하거나 상천할 때에 올리는 특별한 제물로 이해된다.

기제사를 지낼 때는 별도로 마련된 제기에 제물을 정갈하게 담아서 상위에 올리지만 자신을 위할 때는 신령의 성격이나 위계에 따라서 다양한 祭床이 마련된다. 예를 들어 성주를 위할 때는 대들보 아래에 상을 가져다가 놓고, 터주를 위할 때는 짚을 ‘一’자로 가지런히 깔고 제물을 그 위에 진설한다. 조왕에는 평소에는 정화수만 떠올리고, 안택을 하게 되면 부뚜막 위에 여러 제물을 그대로 놓아두고 신령이 운감하도록 한다. 정월에 요왕제나 서낭제를 지낼 때는 바닥에 반드시 짚을 깔게 되어 있다.<sup>308)</sup>

영등할머니 역시 가정에서 모시는 신령이기에 위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제장이 어느 곳에 마련되느냐에 따라서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먼저 상을 놓지 않을 경우에는 바닥에 명석을 깔고, 그 위에 짚을 일자로 가지런히 깔거나 백지를 깔고 제물을 진설한다. 짚은 위에서 언급하였듯 자신을 위할 때에 사용이 되는 간이 제상이다.

祭場에 깔았던 짚은 함부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것은 봄에 모내기를 하면 모를 뚫는 끈으로 사용한다.<sup>309)</sup> 짚의 용도가 이처럼 정해진 까닭은 영등할머니가 농업을 관장하는 신령이기에 그의 능력이 짚에 깃들어 효험을 보기 위함이다.

백지 역시 함부로 처리하지 않고 깨끗한 곳에서 소화시키거나 아이들에게 주어서 글씨 연습을 하는 종이로 사용하도록 한다. 후자의 경우는 영등할머니의 도움으로 아이가 공부를 잘 하길 기원하는 뜻이 담겨있다.<sup>310)</sup>

어떻든 제물을 올리기 전에 깔아두는 짚과 백지는 제의 장소를 정결하게 만든다. 시각적으로 보이는 정결함도 중요하지만 부정을 막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바닥에 황토를 펴놓고, 그 위에 백지나 짚을 까는 경우가 이를 반영

308) 이러한 벗짚 제상은 一字形과 十字形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대체로 보아 삼신, 칠성, 터주 등의 가신들에게는 일자형 벗짚 제상이 차려진다. 이에 반하여 집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除厄, 곧 액막음의 성격이 강한 제의에서는 열 十字로 벗짚을 깔고 제물을 차린다. 음력 정조나 열나흘날에 모시는 거리제, 서낭제, 요왕제 등은 반드시 十字形으로 한다.(이 필영, 앞의 글,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433~434쪽.)

309) 다른 지역에 비해 충북 보은·옥천·영동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사례이다.

310) 이를 ‘영등종우[영등종이]’라고 하여 아이들이 글을 배울 때 그곳에 글씨를 쓰면 글을 빨리 익힌다고 한다. 그리고 영등종우에 글을 써서 불에 태운 재를 물에 넣어서 마시면 공부를 잘 한다는 속신이 전한다.(국립문화재연구소, 「군위군」, 『한국의 가정신앙 : 경북』, 2007, 180쪽.)

한다. 부뚜막 위에 제물을 진설할 경우에는 솔뚜껑을 뒤집어 놓은 채 제물을 올린다.<sup>311)</sup>

준비가 다 되면 주부는 마련한 제물을 차려놓기 시작한다. 제물은 각각의 그릇에 담는데, 가능하면 푸짐하게 보이도록 제법 많은 분량을 올린다. 특히 메는 바가지에 가득 푸거나 밥솥 채로 뚜껑만 열어둔다. 이처럼 많은 제물을 마련하는 까닭은 영등할머니가 욕심이 많은 신령이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제물을 올릴수록 신령의 영험으로 자손도 많고, 財富도 늘어난다고 믿는다.<sup>312)</sup>

이어서 숟가락을 밥에 꽂는다. 여느 신령을 위할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식구들의 것을 모두 꽂는다는 사실이다. 식구가 많은 집은 열 개도 넘는 숟가락을 꽂는다. 이처럼 많은 숟가락을 꽂는 첫 번째 이유는 영등할머니 뿐 아니라 그녀와 함께 온 딸과 며느리, 수하 신령들을 배려해서이다. 뭇동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이처럼 여러 개의 숟가락을 같은 밥그릇에 꽂는 경우는 여느 가신을 위할 때와 다른 모습이다. 먼저 숟가락은 영등할머니가 인격화된 신령임을 보여주는 물건이다.

두 번째는 숟가락을 사용하는 식구가 일 년 동안 건강하기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식구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것을 꽂는다. 숟가락은 공용 식기이지만 식사를 할 때는 공유하지 않는 개인 물건이다. 주부는 숟가락을 꽂을 때마다 ‘식구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하고 안녕을 기원한다.<sup>313)</sup> 그 밖에 준비한 제물도 큰 그릇에 담고, 기제를 지낼 때처럼 그 위에 젓가락을 올려두기도 한다.<sup>314)</sup>

#### 다. 제물의 처리

영등할머니를 위하고 난 이후에 제물은 조왕·성주 등의 가신은 물론 영등할머니와 함께 온 여러 신령들, 식구, 심지어 까치·까마귀에게 까지 나눈다. 지역에 따라서 방식은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이날 올린 제물은 가내 신령부터 인간, 동물까지 나누어먹는 음식이다.

식구들이 먹기 전에 반드시 메와 반찬 등 마련한 제물을 종류별로 조금씩

311) 국립문화재연구소, 「포항시·달성군」, 『경상북도 세시풍속』, 2002, 374·917쪽.

312) 국립문화재연구소, 「칠곡군」, 위의 책, 2007, 753쪽.

313)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산시」, 위의 책, 2007, 44쪽.

314) 국립문화재연구소, 「의령군」, 『한국의 가정신앙 : 경남』, 2007, 379쪽.

담아서 제장에 놓아둔다.<sup>315)</sup> 이는 영등할머니 뜻의 제물이다.<sup>316)</sup> 바가지에 담아두기도 하고, 제물을 담을 수 있도록 짚으로 그릇을 만들기도 한다. 주부는 이처럼 제물을 떼어놓으면서 “영두 할매 올라가실 때 진 거는[물기가 있는 음식] 다 드시고 가시고, 마른 거는[물기가 없는 음식은] 싸 가지고 가시오.”하고 비손한다.<sup>317)</sup>

짚에 제물을 담는데, 이를 만드는 방법·놓아두는 장소·이후에 처리하는 방법은 지역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 경북 지역에서는 마치 씨오챙이처럼 물건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여 ‘오챙이’라고 부른다.<sup>318)</sup> 안의 내용물도 ‘꺼렁지밥’·‘떡 거저리’라고 한다.

영등할머니 뜻으로 제물을 떼어놓은 이후에 조왕·성주 등 가내 신령께도 제물을 올린다. 특히 성주는 집안의 어른으로 관념하여 조왕에서 위하고 난 이후에 별도로 상을 차려서 방안에서 위한다.<sup>319)</sup> 경북 내륙지역에서는 방안에 쌀을 담은 단지를 놓아두는데 이를 성주로 관념하며, 그곳에 제물을 가져다 놓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 단지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제물을 직접 넣어 두기도 한다.<sup>320)</sup>

경북의 일부 지역에서는 ‘노적밥’ 혹은 ‘노적가리’라고 하여 풍농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제물을 짚에 싸서 나락을 보관하는 장소에 가져다 놓는다.<sup>321)</sup> 부자가

315) 제장이 부엌인 경우에는 선반 위에, 장독대인 경우에는 제물을 올렸던 곳에 놓아두기 마련이다. 충북 옥천군의 사례로 신령이 잊지 말고 제물을 가져가시라는 뜻에서 제물을 담은 짚을 일곱 개로 나누어서 대문 앞에 놓아 두기도 한다. 이것만큼은 아이들이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하게 한다.(국립문화재연구소, 「옥천군」, 『한국의 가정신앙 : 충북』, 2006, 180쪽.)

316) 충북대학교 박물관, 『경부고속도로(옥천-영동간) 확장사업구간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2001, 145쪽.

317) 국립문화재연구소, 「영덕군」, 『한국의 가정신앙 : 경북』, 2007, 420쪽.

318) 경상도와 강원도 지역의 방언으로 오챙이를 ‘오장치’라고 한다. 오챙이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경우로 씨앗을 담아두는 ‘씨오챙이’가 있다. 씨오챙이는 그 해에 첫 수확한 곡식 중에서도 좋은 것만 골라서 담아둔다. 짚은 생산, 신성함을 상징한다.(김광억, 「짚」, 『한국문화상징사진』 2, 2000, 660쪽.)

319) 국립문화재연구소, 「달성군」, 위의 책, 2007, 230쪽.

320) 조왕에서 영등할매를 위한 다음에 밥을 퍼서 ‘성주독’에 가져다 놓는다. 밥그릇에는 숟가락을 꽂고 절을 한다. 이때 벼 종자 중 제일 좋을 독 안에 넣어놓았다가 풍농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나중에 사용한다.(국립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2007, 250쪽.) 음식을 나누어 먹기 전에 밥과 반찬을 키에 조금씩 담아서 성주 미에 놓아두었다가 삼일 만에 가져다가 먹는다. 이것은 아이들이나 이웃에 주지 않고 어른들만 먹는다. 또한 주먹만한 크기의 주머니를 세 개 만들어서 밥과 반찬을 넣고 끝을 끈으로 묶어서 담 위에 걸쳐놓는다.(충북대학교 박물관, 『청주-상주간 고속도로건설예정지구 지표조사보고서』, 1999, 306~307쪽.)

321) 노적(露積)은 농가의 마당이나 넓은 터에 원통형으로 쌓아두는 곡식 단으로 대개 벗단이나 보릿단·조단 등을 뜻한다. 황해도·평안도에서는 날가리라고 하며, 경기도 이남에서는

되길 기원하는 의미에서 뒤주에 별도로 밥을 한 그릇 갖다 놓는 경우도 있다.<sup>322)</sup> 이 밥은 나중에 꺼내서 상일꾼에게 준다.<sup>323)</sup> 농사를 지을 때는 상일꾼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려를 먼저 한다.<sup>324)</sup>

충청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제물을 골고루 담아서 쌀독에 넣어 두었다가 삼일만에 꺼내서 먹는다. 초하룻날 곧바로 음복을 하지 않고, 삼일 후에 먹는 이유는 영등할머니가 여러 집을 둘러보고 늦게 찾아와도 제물을 운감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함이다. 신령이 잘 다녀간 경우에는 쌀독 안에 넣어두었던 밥에 윤기가 나고, 떡에 금이 가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sup>325)</sup>

일반적으로 2월 초하루에는 영등할머니만 위하고, 그 외의 신령께는 정성을 드리지 않는다. 단, 가정에 따라서 조상 대대로 요왕이나 칠성 등의 신령을 모신 경우에는 별도의 제물을 마련하여 이들 신령을 위한다.<sup>326)</sup> 어떻든 집 안에서는 성주·조왕을 먼저 위하고, 제물을 나누어 먹는다.

영등할머니를 따라온 신령들을 배려하여 대문 밖에 제물을 짚에 싸서 내놓기도 한다.<sup>327)</sup> 이는 까마귀·까치 등 날짐승의 뜻이다. 이를 ‘까마귀 밥’이라고 부

---

노적 또는 노적가리라고 부른다. 거두어들인 벼·보리·조는 탈곡해서 섬에 담거나 도정하여야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거두어들인 곡식은 탈곡이나 도정을 일시에 할 수가 없어 곡식나락을 노적으로 쌓아 보관하는 것이다.(임석재, 「노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322) 국립문화재연구소, 「고령군」, 『한국의 가정신앙 : 경북』, 2007, 103쪽.

323) 국립문화재연구소, 「군위군」, 위의 책, 2007, 180쪽.

324) 머슴을 극진히 대접하는 지역에서는 이날 생선도 온마리로 주고, 김도 자르지 않고 온장을 준다.(국립문화재연구소, 「달성군」, 『경상북도 세시풍속』, 2002, 927쪽.) 경북 경산군 일대에서는 정월 대보름에도 좋은 반찬을 마련해서 일꾼들을 대접하는데, 생선을 한 마리 통째로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논두렁이 무너진다는 속신이 있다.(김평인, 『우리 생활 100년·집』, 현암사, 2000, 354쪽.)

325) 충북대학교박물관, 『경부고속도로(옥천-영동간) 확장사업구간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2001, 115쪽.

326) 경남 합천을 중심으로 몇몇 지역에서는 집안에서 바람을 올리고 나면 곧바로 별도의 제물을 준비하여 요왕을 먹이고 돌아온다. 요왕을 먹이는 장소는 물이 흐르는 냇가 중에서도 깨끗한 곳이다.(2008년 11월 3일, 필자 조사.) 또한 바닷가에 인접한 지역의 사례로 바람올리기를 마치고 가신과 날짐승 뜻으로 제물을 떼어놓고, 바가지에 제물을 담아서 바닷가로 가지고 나가서 용왕을 위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두고 ‘요왕국에 먹인다.’라고 표현하며, 주부는 바가지 안의 내용물을 바다에 모두 뿌리고 돌아온다.(황경순, 「경북지역 영등신앙 연구」, 『향토문화』 17, 대구향토문화연구소, 2002, 317쪽.)

327) 영등할매를 위하고 난 이후에 짚에 밥, 떡, 나물을 조금씩 담은 ‘꺼렁지 밥’을 만들어서 대문 밖에 내놓는다. 이는 신령을 따라온 졸자들의 뜻이다.(국립문화재연구소, 「달성군」, 『한국의 가정신앙 : 경북』, 2007, 250쪽.) 이월할머니는 홀로 오지 않고, 수하를 테리고 오기 때문에 짚을 추려서 제물을 담아서 장광에 놓아둔다. 시간이 지나면 이 밥은 자연스레 없어진다.(한남대 역사교육과, 『한남대 역사교육과 춘계답사 보고서 : 충북 옥천군』,

르며, 담장 위에 놓아두는 사례도 많이 찾아진다. 짚 위에 한 뜶만 준비하기도 하고, 세 개나 다섯 개로 여러 뜶을 나누어서 마련하기도 한다.

초하룻날 떡을 많이 해두고, 그것을 부엌의 살강 위에 올려 두었다가 신령이 올라가는 날 내려서 다시 썩어서 올리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오늘날과 달리 떡이 귀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신령이 상천하는 날 다시 썩어서 올리는 것이다. 상천하는 날 올린 떡은 식구들이 모여서 나누어 먹는다.

바람올리기가 끝날 무렵이면 마을의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떡과 밥을 얻으러 돌아다니곤 했다. 그러면 어느 집이나 제물을 준비해 두었다가 아이들에게 나누어 준다. 여러 사람이 영등밥을 얻으러 가는 집일 수록 그 해 농사가 잘 된다고 한다.<sup>328)</sup> 마을에서 인심 좋은 집은 바쁜 농사철에도 일손이 부족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것이다.

#### 라. 기원물(祈願物)

영등할머니를 위할 때는 신체와 제물을 제외하고, 몇 가지 특별한 물건을 받친다.<sup>329)</sup> 이 물건들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생활 용품인 경우가 많다. 어떻든 제물 외에 여러 물건을 올리는 사례는 영남 내륙 지역에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물건은 祭壇 위에 직접 놓기도 하지만 부피가 크기 때문에 바닥에 자리를 깔고 별도로 놓아두기도 한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물건들은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과 관련된 것들이다. 물건만 보더라도 가족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농가에서는 일년 농사가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이 있는 물건을 반드시 올린다. 대표적으로 낫·도끼·삽 등의 농기구를 들 수 있다. 직업이 목수인 경우에는 작업을 할 때에 사용하는 연장을 올려놓는다. 또한 닭이 잘 되길 기원하는 의미에서 달걀을 갖다 놓기도 한다.

아이들의 학업성취를 위해서 이와 관련이 있는 공책·연필·책 등의 학용품도 놓아둔다. 그 외에도 모든 음식의 기본이 되는 장의 주재료인 메주를 올리

---

2001, 122쪽.)

328) 국립문화재연구소, 「의성군」, 『경상북도 세시풍속』, 2002, 734쪽.

329) 민속 상에서 제물 이외에 개인의 소원을 성취하려는 목적으로 받쳐지는 물건을 이르는 용어는 정의된 바가 없다. 경우에 따라서 적합하지 않은 표현일 수는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개인의 소원과 관계된 물건이라는 뜻에서 '기원물(祈願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고 올해도 변함없이 장맛이 달게 해달라고 비손을 한다. 처녀들은 손재주가 좋아지길 기원하는 의미에서 천으로 옷을 지어서 신체에 매달아 두기도 한다.

만약 식구가 아플 경우에는 약(藥)을 먹기 전에 신체 앞에 잠시 놓아두었다가 먹는다. 신령이 머무는 기간에 환자가 생길 경우에는 영등할머니의 효험을 얻어 완치되길 기원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살인(殺人)을 비롯하여, 불길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부엌칼을 놓아두기도 한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보리를 뿌리 채 캐어다가 황토를 펴놓고 그 위에 심어두는 사례가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이 또한 보리농사의 풍년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의례이다. 신령이 상천한 이후에 보리를 뽑아보고 그 뿌리의 개수로 농사의 豊凶을 점쳐보기도 한다. 이처럼 제물과 함께 올리는 다양한 기원물은 가족 구성원들의 소원을 표현한 상징적인 물건임을 알 수 있다.

## 6) 禁忌와 俗信

‘사납다·괴팍하다·시샘 많다·무섭다·심술맞다·짓궂다·영겁하다·요란스럽다·별나다’는 하나같이 영등할머니의 성격을 표현한 어휘들이다. 영등할머니는 대단히 까다롭고 작은 실수에도 불호령을 내릴 것만 같은 심술 맞은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고착화된 신령의 이미지이기도 하다.

영등할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이처럼 굳어진 까닭은 2월의 시간성과 무관하지 않다. 2월은 완연한 봄은 아니지만 서서히 생명이 躍動하는 시기이다. 節氣를 변화시키는 힘은 자연의 섭리이며,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다. 영등할머니에 대한 믿음은 자연에 대한 지극한 敬畏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느 가신과 영등할머니가 다른 이유는 자연의 섭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2월은 농사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와도 맞물려 있다. 어느 지역이나 절기상 2월이면 농사 준비가 시작되기 때문에 서서히 바빠지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의 대소사를 삼가는 등 농사일에 전념하려는 마음가짐으로 돌아간다.

영등할머니에 대한 믿음은 이러한 마음가짐을 굳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는 집안의 안과 태평은 물론 1년 농사의 풍흉을 관장하는 신령이기 때문이다. 2월은 인간과 신령이 공존하는 신성한 달[月]인 셈이다. 그러므로 각 가

정에서는 귀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

손님을 맞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정성을 다하려는 마음가짐이다. 이는 모든 부정을 금하는데서 출발한다. 이는 어떤 신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원칙이다. 다만 영등할머니는 인간의 작은 실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까다로운 신령이므로 조금 더 신경을 쓴다.

본 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바람올리기 절차상에 나타나는 다양한 금기 및 속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영등할머니 신앙과 관련한 금기 및 속신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그 안에서도 의례를 베풀기 이전에 부정을 막기 위한 방법, 제물 마련과 관련된 부분, 2월 한 달 동안 지켜지는 금기 및 속신으로 구분이 된다. 또한 신령을 정성껏 위하지 못했을 때 혹은 금기나 속신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월동토’도 살펴보고자 한다.

영등할머니가 농업과 어업을 관장하는 신령이기 때문인지 날씨와 관련한 속신이 많이 찾아지는 편이다. 이는 바람올리기 절차와는 관련이 없지만, 1년 농사 및 어업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이상의 영등할머니 신앙과 관련한 금기와 속신은 민간의 오랜 경험이 농축된 지혜와 진리가 담겨 있다. 이는 경험에서 비롯된 삶의 원칙인 셈이다.

### 가. 바람올리기 의례에 나타나는 금기

우선 바람올리기를 행하는 가정에서는 하루 전날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모두 금한다. 대문 앞에 황토를 깔거나 백지를 끼운 금줄을 쳐둔다. 만약 근처에 우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근에도 황토를 세 네 군데 펴서 부정을 예방한다. 경남 지역에서는 대문 앞에 나무 막대기를 가로로 걸쳐 두어서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

마을 사람은 물론 외지인들도 대문 앞에 이러한 표시물을 확인한 이후에는 함부로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는 암묵적인 약속이다. 특히 襫主를 비롯하여, 상갓집에 다녀온 사람은 어떠한 부정에 노출되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한다. 부정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죽음과 관련된 부정이다. 다음은 이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 ① 제물을 구입을 할 경우에도 商店을 찾을 때에 襫家인지 확인한다. 만약 상인이 상주일 경우에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2월에는 잠시 服을 벗고 달이 지난 이후에 다시 服을 입을 정도이다.<sup>330)</sup>
- ② 2월에 초상이 나면 그 해에는 아예 고사를 지내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부정하면 이월할머니가 운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sup>331)</sup>
- ③ 영등할머니를 위하기 전에 상주를 만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 말을 주고받지 말아야 한다.<sup>332)</sup>
- ④ 마을에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가 있는 집이 있을 경우에는 초상이 나기 전에 열른 ‘이월밥’을 해먹는다.<sup>333)</sup>
- ⑤ 2월에는 집안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도 되도록 하지 않는데, 사람이 죽어도 땅을 파서 묻지 않는다. 다만 시체에 흙을 뿌리고 그대로 놓아두었다가 2월 20일 이후에 장사를 지낼 정도이다.<sup>334)</sup>

집안에 초상이 난 경우는 물론이고, 마을에 초상이 난 경우에도 바람올리기를 중단한다. ④의 예처럼 초상이 날 기미가 있으면 미리 영등할머니를 위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충북 지역에서는 “이월을 안 하면 남의 궂은일도 못 본다”, “부정할 때는 이월할머니가 모르는 게 낫다”라는 俗諺이 전한다.<sup>335)</sup>

초상이 난 가정에서는 다른 가정을 배려하여 끊하는 소리가 담장을 넘지 않도록 조심한다.<sup>336)</sup> ⑤의 예처럼 전남 지역에서는 2월 스무날 이전에 초상이 나면 일종의 草殯을 해두었다가 영등할머니가 상천한 이후에 비로소 장사를 지낸다. 실제로 이러한 장례 풍습이 존재했는지 그 진위 여부는 과학하기가 어렵

330) 전경태, 「죽전리지」, 『충청문화연구』 4, 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1996, 267~268쪽.

331) 국립문화재연구소, 「울릉군」, 『한국의 가정신앙 : 경북』 2007, 589쪽,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집안에 초상이 발생하여 삼년상을 치르는 경우에는 영등할머니를 위하지 않는다. 초상이 나면 부정이 들기 때문이다.(국립문화재연구소, 「포항시」, 위의 책, 2007, 787쪽.) 아울러 마을에 상이 나면, 이웃에서는 할머니에게 올리는 물을 길지 않고 사발을 엎어 버리고 고사 날짜를 뒤로 미룬다. 마을 전체가 부정하여 할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국립문화재연구소, 「고성군」, 『경상남도 세시풍속』, 2002, 479~480쪽.)

332) 국립문화재연구소, 「장수군」, 『전라남도 세시풍속』, 2003, 전남 보성군의 사례로 이 달에 사람이 죽으면 초분을 해 두었다가 영등할머니가 올라가는 21일 이후에 장사를 지낸다. 또한 아이들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시신을 나무에 매달아 둔다.(국립문화재연구소, 「보성군」, 『전라남도 세시풍속』 2003, 545쪽.)

333) 충남대학교 박물관, 『경부고속철도 대선사토장·영동 보수기지 예정부지 고고·민속조사 보고』, 1997, 106쪽.

334) 국립문화재연구소, 「광양시」, 『전라남도 세시풍속』, 2003, 34쪽·48쪽.

335) 충북대학교박물관, 『청주-상주간 고속도로건설예정지구 지표조사보고서』, 1999, 288쪽, 국립문화재연구소, 「영동군」, 『한국의 가정신앙 : 충북』, 2006, 143쪽.

336) 국립문화재연구소, 「고성군」, 『경상남도 세시풍속』, 2002, 479~480쪽.

다. 그러나 시신의 埋葬을 금하는 이유가 영등할머니와 관련이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무날이 지나면 영등할머니가 지상에 없기 때문에 장례뿐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관념하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喪主는 장례를 모시는 주체이므로 부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주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은 금기시 하고, 길에서 혹은 장에서 만나는 것조차 꺼린다. 영등할머니에 대한 믿음이 강한 경우에는 ①의 예처럼 상점을 운영할 경우에는 2월 한 달간 장사를 위해서 상복을 벗을 정도였다.

마을에서 예상치 못한 초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집집마다 떠 올렸던 정화수를 비워 버리고, 그릇을 엎어 놓는다. 그릇을 엎어 놓는 행위는 더 이상 신령을 위하지 않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영등할머니를 위하고 싶어도 마을공동체 사회 속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실제로 마을에 초상이 나면 이웃에서는 개인적인 일들을 잠시 중단하고, 장례기간 동안 상갓집에 찾아가서 일을 듣기 때문이다. 수시로 상갓집에 왕래해야 하므로 깨끗하게 신령을 모실 수 없다.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의미는 정성을 다하는 마음까지가 포함이 된다. 아무래도 비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신령에 대한 정성이 소홀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②의 내용에서 영등할머니는 조금이라도 부정한 장소는 殘感을 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부정을 꺼리는 관념과 미쳐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실제 상황에 대한 배려가 담겨있다.

초상만큼이나 꺼리는 것은 출산과 관련한 부정이다. 지역에 따라서 ‘산부정’이라 하여 죽은 부정보다 더 좋지 않은 것으로 관념하기도 한다.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피[血]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비물이 유출되기에 부정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다.<sup>337)</sup> 평소에도 產家 출입은 아이와 산모를 위해서 금하지만, 신령을 모시는 기간에는 더욱 주의한다. 자칫 잘못하여 產家에 왕래를 한 경우에는 바람올리기를 하지 않는다.<sup>338)</sup>

의례를 앞두고 소·돼지·개 등의 집짐승을 잡는 일도 삼간다. 기본적으로 殺生은 동물을 해치는 일이고, 그로 인해 피를 봐야 하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영등할머니께는 생선을 제물로 올리므로 집에서 가축을 잡을 일이 별반 없다. 특히 여러 동물 중 개는 부정하다고 인식을 하여 신령을 위

337) 죽은 부정보다 산부정이 더 좋지 않다는 인식이 강한 이유는 죽은 사람은 곱게 가지만, 산모가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피를 봐야하기 때문이다.(한남대학교 박물관, 『옥천 삼청건널목 접속도로 개설공사 구간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2004, 62쪽.)

338) 국립문화재연구소, 「성주군」, 『한국의 가정신앙 : 경북』, 2007, 349쪽 · 351쪽.

하는 기간에는 절대 잡지 않고, 이를 잡는 것을 목격하는 것조차 꺼린다. 심지어 바람을리기를 하고 난 제물은 “손은 쥐도 개는 안 준다.”라는 속언이 있을 만큼 부정한 동물로 관념한다.<sup>339)</sup> 마찬가지로 닭을 함부로 잡으면 침도 넘기지 못할 만큼 목이 붓게 된다.

영등할머니는 대단히 영험한 신령이기에 인간의 부주의를 용서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 인간의 실수로 부정이 타면 그에 상응하는 罰을 내린다. 식구 중에 갑자기 환자가 생기는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바로 그 벌이다. 문제의 원인을 알면 이를 해결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신령께 먼저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다. 주부는 마당 가운데에 정화수를 떠놓고 신령의 노여움이 풀리길 간절히 비춘다.<sup>340)</sup>

## 나. 제물과 관련한 속신

주부는 다른 무엇보다 제물을 마련하는데, 정성을 다한다. 제물은 정성을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다양한 금기와 속신이 찾아진다. 제물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穀物로 나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속신이 전한다.

① 새가 나락을 쪼아 먹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

1-1. 이월할 나락을 새가 쪼아 먹으면 눈이 먼다.

1-2. 이월에 쓸 나락은 새들이 쪼아 먹을까봐 제대로 마르지 않았더라도 하는 수 없이 방아를 짚어서 껍질을 벗긴다.<sup>341)</sup>

② 제물로 올릴 곡식은 절대 외부로 내보내지 않는다.

2-1. 이월할머니를 위하는 가정에서는 이월밥을 해 먹기 전에는 집에 있는 곡식을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이웃에서 곡식을 빌리려 와도 이월밥을 아직 해 먹지 않았으니 오후에 오라고 돌려보낸다.<sup>342)</sup>

2-2. 초하룻날에는 제석할머니가 계시므로 집안의 곡식을 밖으로 내지 않는다. 만약 곡식을 내야 한다면 제석할머니 앞에 먼저 고해야 한다. 평소에도 저녁에는 곡식을 내지 않는데, 이는 福을 주는 것으로 관념하기 때문이다.<sup>343)</sup>

339) 국립문화재연구소, 「밀양시」, 『한국의 가정신앙 : 경남』, 2007, 249쪽.

340) 국립문화재연구소, 「옥천군」, 『한국의 가정신앙 : 충북』, 2006, 180쪽.

341) 국립문화재연구소, 「김천시」, 위의 책, 2007, 205쪽.

342)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경부선 대전-옥천간 선로개량 노반공사 구간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2002, 99쪽.

- 2-3. 장에 가기 전에 반드시 영등할머니께 물을 떠올리고 다녀온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곡식을 밖으로 내지 않는다.<sup>344)</sup>
- 2-4. 영등을 모시는 달에는 쌀을 함부로 남에게 팔거나 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손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sup>345)</sup>
- 2-5. 또 이월에는 곡식을 꾸어 주지도 않고, 동냥아치가 와도 양식을 내주지 않는다.<sup>346)</sup>

2월은 춘궁기가 가까운 시기로 어느 집이나 식량 사정이 여의치가 않았다. 나락 없이는 제물을 마련할 수가 없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가을에 추수를 하면, 제일 먼저 이날 쓸 나락을 비축해 둔다. 영등날 올릴 나락은 제일 처음 수확한 것으로 항아리에 담아서 입구를 봉하고, 금줄을 두르는 등 깨끗하게 보관한다.

영등할머니께 올릴 제물은 상 위에 진설하기 전까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다. 영등할머니는 욕심이 많아서 날짐승이 자신의 식량을 건드리는 일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그 이면에는 햇볕에 나락을 말릴 때에도 정성을 다하라는 의도가 숨어있다. 또한 나락을 신령이 운감하기 전에 함부로 賣買를 한다거나 타인에게 내주어서도 안 된다. 2-2의 내용처럼 곡식을 내주는 것은 福을 차는 것과 같다. 2월은 신령이 머무는 기간이기에 이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부정에 오염이 될 수도 있음을 상기시킨다.

제물을 조리할 때에도 다음의 몇 가지 규칙이 있다.

#### ① 제석밥은 남보다 먼저 해먹어야 좋다.

- 1-1. 제석밥은 남보다 먼저 먹어야 좋다. 일찍 밥을 마련한 집으로 제석할머니가 가시기 때문이다. 때문에 서로 일찍 밥을 지으려고 오후 3시부터 저녁을 준비한다.<sup>347)</sup>
- 1-2. 이 날 하는 떡과 물을 ‘영등떡’과 ‘영등물’이라고 부른다. 영등떡을 많이 하면 할수록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으며, 영등물을 남보다 먼저 뜨면 재수가 있다.<sup>348)</sup>
- 1-3. 영등고사를 가장 먼저 지내는 집은 더 큰 복을 받는다.<sup>349)</sup>

343) 국립문화재연구소, 「장수군」, 『전라북도 세시풍속』, 2003, 547쪽.

344) 전북문화재연구원, 『전라선 익산-순천간 복선전철화 사업관련 송전선로 및 변전설비부지 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2005, 62쪽.

345) 서해숙, 「섬진강유역 가정신앙의 양상과 의미」, 『한국의 가정신앙』, 민속원, 2005, 221쪽.

346) 국립문화재연구소, 「금산군」, 『충청남도 세시풍속』, 2002, 317~318쪽.

347) 국립문화재연구소, 「장수군」, 위의 책, 2003, 547쪽.

348) 국립문화재연구소, 「달성군」, 『한국의 가정신앙 : 경북』, 2007, 249쪽.

349) 국립문화재연구소, 「울릉군」, 위의 책, 2007, 589쪽.

1-4. 2월 초하루에 다른 집보다도 먼저 고사를 지내야 복을 받는다고 하여 새 벽에 지내는 집들이 많았다. 영등할머니가 2월 초하루에 가장 먼저 들어 가서 운감하는 집이 그 해 농사를 잘 짓는다.<sup>350)</sup>

② 제물은 절대로 먼저 맛보지 않는다.

2-1. 영등할매에게 올릴 나락을 사람이 먼저 먹으면 입이 부르튼다.

2-2. 영등상에 올리는 음식을 먼저 먹으면 영등할머니가 노해서 입이 삐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간도 보지 않는 것이 좋다.<sup>351)</sup>

2-3. 영등할머니보다 먼저 맛을 보면 입이 붓거나 붙어버리고, 이가 아리다.<sup>352)</sup>

2-4. 제물을 조리할 때에 맛을 보면 입이 돌아간다.<sup>353)</sup>

③ 비린 것은 올리지 않는다.

3-1. 영등할매를 위할 때는 떡을 하고 비린 것을 올리지 않고 채소로만 친을 준비한다.<sup>354)</sup>

3-2. 이월밥을 할 때는 네발 가진 짐승의 살은 올리지 않는다.<sup>355)</sup>

3-3. “영두 고사에 호박떡을 하면 소 한 마리 잡은 것과 같다.” 이는 영두할머니가 호박떡을 특히 좋아하기 때문에 생겨난 속신으로 이 떡을 ‘영두떡’이라고 한다.<sup>356)</sup>

첫째, 이날은 다른 집보다 먼저 메를 지어서 영등할머니를 위한다. 이는 영등할머니를 제일 먼저 모시기 위한 노력을 반영한 것이다. ‘처음’은 가장 깨끗한 상태이므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영등할머니께 처음 수확한 나락을 올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신령께 새벽의 정화수를 떠올리는 행위는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개인이 드릴 수 있는 정성은 이보다 큰 것이 없다. 왜냐하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최고의 제물을 받치려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고로움을 무릅쓰고, 정성을 다하면 그 노력에 상응하는 福을 받게 된다.

둘째, 제물은 절대 먼저 맛을 보지 않는다. 간을 보는 것보다 아무도 먹지 않은 깨끗한 음식을 신령께 받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제물은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다. 영등할머니가 노하면 맛을 본 사람의 입이 붓거나 삐뚤어지는 등 그

350) 국립문화재연구소, 「태백시」, 『한국의 가정신앙 : 강원도』, 2006, 178쪽.

351) 국립문화재연구소, 「곡성군」, 앞의 책, 2003, 353쪽.

352) 국립문화재연구소, 「임실군」, 앞의 책, 2003, 480쪽.

353) 국립문화재연구소, 「거제시」, 『한국의 가정신앙 : 경남』, 2007, 60쪽.

354) 국립문화재연구소, 「성주군」, 위의 책, 2007, 350쪽.

355)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경부선 대전-옥천간 선로개량 노반공사 구간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2002, 71쪽, 한남대 역사교육과, 『춘계답사 보고서 : 충북 옥천』, 2001, 16 3~164쪽.

356) 국립문화재연구소, 「울주군」, 위의 책, 2007, 346쪽.

에 상응하는 罰을 내린다. 얼마나 무서운 신령인지 마루 위에 제물로 올리려고 놓아둔 감주를 어린 아이가 먹고, 혼절한 사례도 있다.<sup>357)</sup>

주부는 제물을 조리할 때 뿐 아니라 이후에도 아이들의 손이 타지 않도록 주의를 한다. 기제사나 차례를 지낼 때에도 제물을 정성껏 준비하지만 바람을 리기를 할 때 만큼 엄격하지는 않다. 그만큼 영등할머니를 영험한 존재로 인식하여 작은 실수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셋째, 비린 것은 제물로 올리지 않는다. 여기서 비린 음식은 생선이 아닌 소·돼지 등의 네 발 달린 집짐승을 가리킨다. 흔히 육류는 누린내가 난다고 표현을 한다. 여기서 비린 음식은 육류를 포함하여 신령이 운감할 수 없도록 만드는 모든 제물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영등할머니도 마치 인간처럼 자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음식이 있다는 점이다. 영등할머니가 여신이기 때문인지 맑고, 깨끗해 보이는 음식을 좋아한다. 그래서 조리를 할 때도 가능하면 깨끗하게 보이도록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으며 무를 기본 재료로 넣는다. 또한 비린 음식을 싫어하기 때문에 육류 대신 호박이나 다른 재료로 제물을 마련한다.

육류를 제물로 사용하지 않는 점은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까지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2월에 육류를 먹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소·돼지는 집에서 도살을 하지 않으면 장에서 비싸게 구입을 해야만 한다. 이를 대신하기에는 청어·명태 등의 제철에 구할 수 있는 생선이 적합하다.

그 밖에 신령께 올리는 제물과 관련한 속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정화수

- 1-1. 정화수를 떠 올 때는 동이에 바가지를 띄운 채 이고 오지 말아야 하며, 그릇도 새 것으로 사다가 써야지 집에서 쓰던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sup>358)</sup>
- 1-2. 영등할머니께 올린 물로 세수를 하면 피부가 고와진다.<sup>359)</sup>
- 1-3. 영등물을 훔쳐 먹으면 봄을 안타고, 얼굴에 검은 벼침도 안 생긴다.<sup>360)</sup>
- 1-4. 이월초하루부터 시작해서 열흘까지는 영등할머니를 위해 장독대 위의 물을 날마다 갈아준다. 그만큼 정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몰래 훔쳐 먹으면 좋다.<sup>361)</sup>

357) 국립문화재연구소, 「영양군」, 『경상북도 세시풍속』, 2002, 613쪽.

358) 국립문화재연구소, 「고성군」, 『경상남도 세시풍속』, 2002, 479~480쪽.

359) 국립문화재연구소, 「포항시」, 위의 책, 2002, 374쪽.

360) 국립문화재연구소, 「청도군」, 『한국의 가정신앙 : 경북』, 2007, 703쪽.

- 1-5. 영등고사를 지내고 제물 일부를 대문 바깥에다가 내놓는데 이것을 아이들이 훔쳐 먹으면 좋다. 이를 훔쳐 먹으면 ‘날아가는 별을 밟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운이 좋다.<sup>362)</sup>
- ② 이월초하루에 약밥과 청어를 먹으면 논둑이 터지지 않는다.<sup>363)</sup>
  - ③ 이월을 위하지 않는 집에는 제물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
- 3-1. 만약 이월 할머니를 위하지 않는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난다.<sup>364)</sup>
- ④ 이월밥을 부정하게 잘못 해 먹으면 곧바로 가정에 탈이 생긴다.<sup>365)</sup>
- 4-1. 장에서 솔을 사울 때에 너무 무거워 영등상 위에 잠시 올려놓았는데 그 솔에 떡을 찌는데 갑자기 솔뚜껑이 날아갔다.<sup>366)</sup>

정화수는 신령께 받치는 가장 기본적인 제물이다. 제사가 끝난 이후에는 정화 수도 신령이 殤感한 제물이기에 식구 이외에는 나누어 먹지 않는다. 외부인이 이를 먹기 위해서는 1-3과 1-4의 내용처럼 몰래 훔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지역에 따라서 1-5의 내용처럼 제물 일부를 대문 밖에 내놓고, 마을의 아이들이 나누어 먹게 한다. 남의 집 제물은 구하기 어려우므로 이것을 얻어먹게 되면 그만큼 운이 좋다고 믿는다. 또한 식구들이 먹지 못한다고 하여 함부로 家畜에게 주어서도 안 된다. ⑤의 내용은 이를 반영한다.

②의 내용은 이월초하루날 약밥과 청어를 풍족하게 준비하여 일꾼들과 나누어 먹을 것을 권하는 것이다. 일꾼들에게 음식을 풍족하게 대접하면 인심을 얻어서 농번기에도 일손을 구하기가 쉽다.

한 마을에서도 영등할머니를 위하는 가정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다. ③의 내용은 이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집안의 가신을 위할 때에는 다른 집에서 위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집과 거리를 두지는 않는다. 이처럼 영등 할머니를 위하지 않는 가정을 머리하는 것은 신령의 까다로운 성격 때문이다.

사람들은 영등할머니의 성품을 고려하여 그녀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외부인 중에서도 영등할머니를 위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차이가 있다. 신령을 위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소대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361) 국립문화재연구소, 「청도군」, 『경상북도 세시풍속』, 2002, 783~784쪽.

362) 국립문화재연구소, 「태백시」, 『한국의 가정신앙 : 강원도』, 2006, 178쪽.

363) 국립문화재연구소, 「달성군」, 위의 책, 2002, 917쪽.

364) 한남대 역사교육과, 『춘계답사 보고서 : 충북 옥천군』, 2001, 99쪽.

365) 한남대학교중앙박물관, 『경부선 대전-옥천간 선로개량 노반공사 구간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2002, 99쪽.

366) 국립문화재연구소, 「영천시」, 위의 책, 2002, 333쪽.

부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굳이 이를 피할 이유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등 할머니를 위하는 가정은 그만큼 조심스러워 질 수밖에 없다. ③의 내용은 부정이 타는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반영한다.

이는 한국 민간신앙의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sup>367)</sup> 영등할머니를 위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신령 또한 그 가정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반대로 영등할머니를 모시는 가정에서는 2월 한 달 동안은 모든 일을 할 때에 의식적으로 영등할머니를 먼저 고려한다. 이러한 까닭에 영등할머니를 위하지 않는 집과는 자연히 分離된 생활을하게 된다.

‘이월밥’은 신령께 받치는 제물의 대명사라 할 수 있다. 여러 제물 중 메를 뜯하는 것이기도 하나 지역에 따라서는 ‘바람올리기’의 전 과정을 ‘이월밥을 해 먹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모든 제물을 가리킨다. ④의 내용은 영등날 올리는 제물을 마련할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 상에 올리는 모든 제물에는 머리카락 한 올, 돌 한 개라도 들어가서는 안된다. 이는 인간의 부정한 모든 행위를 경계한 속신인 셈이다. 더욱이 4-1과 같이 제상을 제물을 진설하는 공간이므로 늘 깨끗해야 하고, 함부로 물건을 올려놓아서도 안된다.

신령께 받치는 모든 제물은 인간의 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 월밥을 할 때는 여느 때보다 정성을 기울인다. 이는 영등할머니가 워낙 까다롭고, 영험하여 조금이라도 부정하면 罰을 내린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별이 두려워서 정성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제물은 인간의 정성을 나타내는 수단이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령에 대한 믿음도 그만큼 커진다. 그러나 유독 제물과 관련한 금기, 속신이 많은 까닭은 대상 신령이 인간의 작은 부주의에도 서운해 하는 ‘할머니’ 신령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영등할머니는 인간이 정성을 다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상을 내리는 신령이기도 하다. 해마다 정성껏 신령을 위한 가정에는 福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경남에서는 영등할머니가 농사를 관장하는 신령이므로 “할만네를 정성껏 위하면 밭에 두더지가 없어진다.”라는 속신이 전한다.<sup>368)</sup> 이 또한 영등할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이유라 할 수 있다.

## 다. 기타

367) 이필영, 『마을신앙으로 보는 우리문화 이야기』, 웅진닷컴, 1994, 258쪽.

368)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경상남도 편)』, 1972, 771~776쪽.

영등할머니를 위하는 가정에서는 2월 한 달 동안 모든 일을 삼간다. 특히 앞서 언급한 속신 이외에도 신령이 상천하기 전까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일들은 주의한다. 첫째, 영등할머니는 대단히 욕심이 많은 신령이기 때문에 이 달에는 어떤 신령도 함부로 모시면 안 된다. 둘째, 가능하면 혼사도 치르지 않는다. 셋째, 신령을 모시는 당일 혹은 그 무렵에는 외출·빨래·물건의 매매 등 일상적인 일도 가능하면 삼간다. 다음에 이 세 가지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영등할머니 이외의 신령 위하지 않기

2월은 할만네가 제일이라고 하여, 어떤 신령에 대한 제사도 지내지 않는다.<sup>369)</sup> 영등할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가정에서는 이달에 기제사가 있어도 지내지 않고,<sup>370)</sup> 삼년상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几筵에 상식을 올리는 일도 잠시 중단을 한다.

지역에 따라서 궤연에 상식을 올리지 않는 기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바람올리기를 하는 당일에만 상식을 올리지 않기도 하고, 신령이 완전히 상천하는 보름 혹은 스무날까지 아예 중단을 하기도 한다. “제석달은 제석이 어른이라 조상이라도 물을 못 얹어먹는다.”라는 속언은 이를 반영한다.<sup>371)</sup> 부정을 완전히 가리는 의미에서 灵戶의 문을 닫아 두고, 달이 지나면 비로소 상식을 올리기도 한다.<sup>372)</sup>

조상 뿐 아니라 마을의 신령을 위하는 일도 2월은 피한다. 만약 음력 정월에 마을 고사를 지내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날을 받는데, 이월은 영등할머니를 위하는 기간이라 하여 삼간다. 이 때문에 마을 고사의 제일이 음력 3월로 옮겨지기도 한다.

이를 종합하면 음력 이월은 오직 영등할머니 한 신령만을 위하는 기간인 셈이다. 영등할머니는 욕심이 대단히 많아서 다른 신령을 위하는 것을 용납하지

369) 국립문화재연구소, 「포항시」, 『한국의 가정신앙 : 경북』, 2007, 805쪽.

370) 충남대학교박물관, 『경부고속철도 대선사토장·영동 보수기지 예정부지 고고·민속조사보고』, 1997, 71~72쪽.

371) 국립문화재연구소, 「장수군」, 『전라북도 세시풍속』, 2003, 547·526~527쪽.

372) 국립문화재연구소, 「진안군」, 위의 책, 2003, 626쪽.

않는다. 때문에 궤연에 상식을 올리는 날에는 영등할머니가 빠져서 집안에 우환이 발생한다. 우수개 소리로 “이월할만네가 제일이지, 조상이 제일이냐”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을 만큼 영등할머니를 영험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373)</sup> 그러나 부득이하게 2월 초승에忌祭를 지내야 한다면 조상 제사가 끝나고 영등 할머니를 위한다.<sup>374)</sup>

집안에 궤연을 모신 상황은 삼년상이 끝나지 않은 비일상적인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2월은 영등할머니를 모시는 기간이므로 어느 신령을 위할지 선택을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삼년상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하다고 하여 아예 신령을 모시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평소처럼 영등할머니를 모셔야 한다면 조상을 위하는 일을 잠시 중단한다. 아마도 영등할머니의 무섭고, 영험한 성격 때문에 어떤 신령보다 우선으로 모시는 것으로 이해된다.

## (2) 혼인하지 않기

2월은 다른 달에 비해서 유독 婚姻을 하는 것을 꺼린다. 혼인은 집안의大事로 배우자를 정하는 일부터 婚禮式을 치르는 당일까지 매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擇日도 두 집안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당한 日時로 정한다. 일반적으로 혼례식 날짜를 가릴 때에 양가 부모가 혼인한 달을 피하는 등 몇 가지 금기가 지켜진다.

2월에 혼인을 꺼리는 이유는 영등할머니 신앙과 관련이 있다. 영등할머니를 위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금기가 거의 찾아지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호남과 영남의 남부 지역에서 이같은 금기가 강하게 지켜지고 있다. 다음은 이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 ① 2월은 ‘영등달’이라 금해야 할 것이 많은데, 집안에 중대한 일이 있어도 영등 할머니의 노엄을 살까 두려워 20일 안에는 집안에 혼사가 있어도 미룬다.<sup>375)</sup>
- ② 이월에는 혼인도 하지 않는다. 한 달 내내 큰손님(이월 할머니)이 와 계시기

373) 국립문화재연구소, 「금산군」, 『충청남도 세시풍속』, 2002, 317~318쪽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포항시」, 『경상북도 세시풍속』, 2002, 388쪽, 심지어 영등할머니를 ‘大神’으로 섬겨 조상보다 영험하다고 관념한다. 그러므로 영등할머니를 모시는 기간에는 裹廳부근에도 가지 않는다.(국립문화재연구소, 「경산시」, 위의 책, 2002, 46쪽.)

374) 국립문화재연구소, 「울주군」, 『한국의 가정신앙 : 경남』, 2007, 344쪽.

375) 국립문화재연구소, 「광양시」, 『전라남도 세시풍속』, 2003.

때문에 큰일을 치를 수가 없다.<sup>376)</sup>

- ③ 이월달은 남의 달 즉 인간의 달이 아니라 하여 이사도 하지 않으며 결혼도 하지 않는다.<sup>377)</sup>

2월을 ‘남의 달’ 혹은 ‘영등달(할매달)’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남의 달’이라는 명칭은 윤달[閏月]을 가리킬 때에 사용한다.<sup>378)</sup> 윤달은 ‘공달[空月]’이라고도 하며 이 달에는 재액(災厄)이 없다고 하여 민간에서는 결혼, 건축, 이사 등 어떤 일을 해도 지장이 없다.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윤달에 수의를 짓는 풍습이 전한다.<sup>379)</sup> 이때의 윤달은 신령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어떠한 일을 해도 탈이 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2월에도 간혹 윤달이 들긴 하지만 이와 같은 의미로 ‘남의 달’이라고 부르는 것 같지는 않다. 여기서의 ‘남의 달’이라는 호칭은 인간의 시간이 아닌 신령이 관여하는 달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2월은 인간과 영등할머니가共存하는 기간인 셈이다. 그만큼 영등할머니의 존재를 인정하고, 모든 일을 신령 위주로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신령이 굽어 살피는 가운데 혼례를 치르는 것이 좋겠지만 정결하게 영등할머니를 모실 수가 없다. 중요한 손님을 맞은 상황에서 개인 일을 우선으로 한다면 손님은 무시를 당한 기분을 느낄 것이다. 더욱이 영등할머니는 성품이 너그럽지 않기 때문에 ①의 예처럼 가족들에게 노여움을 느낀다. 영등할머니를 위하는 가정에서는 신령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2월을 ‘영등달’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러한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혼인은 앞서 언급한 대로 집안의大事이기 때문에 매사에 신중을 기한다. 또한兩家의 경제적인 상황도 충분히 고려하여 오랜 준비를 한다. 2월은 계절적으로 겨울에 속하기 때문에 혼인을 하기에도 적합한 시기는 아니다. 경제적으로도 춘궁기가 가까워서 어느 집이나 풍족하지가 않다. 게다가 농사 준비로

376) 국립문화재연구소, 「고성군」, 『경상남도 세시풍속』, 2002, 497~498쪽.

377)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강원도 편)』, 1977, 162~166쪽.

378) 태음력(太陰曆)으로는 계절의 추이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에 그것을 조절하기 위하여 4년에 한 번씩 평년의 12개월보다 1개월을 보태어 만들어진 것이 윤달이다. 민간에서는 이를 ‘손이 없는 달(액이 없는 달·탈이 없는 달·무해무덕한 달·손재수 없는 달·손이 타지 않는 달)’·‘죽은 달(썩은 달)’·‘공달[空月](덤으로 더 있는 달·군달·군색 드는 달·이름 없는 달·공짜달·빈달)’ 등 다양하게 부른다.(국립문화재연구소, 「윤달」, 『총괄편 세시풍속』, 2008, 468쪽.)

379) 김성배, 『한국의 민』 속, 집문당, 1980, 31쪽.

바빠지므로 심적으로도 여유가 없다. 이러한 실질적인 이유는 영등할머니의 영험한 성품에 가려 부각이 되지 않을 뿐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다.

이런 여건을 감수하고 혼사를 치르게 되었을 경우에는 신랑·신부의 앞날이 순탄하지가 않다.<sup>380)</sup> 막 혼례를 치른 부부에게 이보다 큰 불행은 없을 것이다. 혼인은 어떻든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다.

혼례나 초상 모두 비일상적인 상황이긴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인간의 의지대로 피해가거나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혼례는 擇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탈하고, 좋은 날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영등달을 피해 혼사를 치른다.

### (3) 그 밖의 다양한 속신

2월에는 大事を 뿐 아니라 집안의 일상적인 일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장을 담그는 일이나 가내의 파손된 시설물 수리, 물건을 사거나 파는 일도 가능하면 삼간다. 이러한 금기가 지켜지는 까닭은 2월이 영등할머니를 모시는 신성한 기간이기 때문이다. 평소라면 날을 가릴 필요가 없는 일들이다.

먼저 장 담그기는 기초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므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정에서는 시기적으로 10월~12월에 미리 메주를 쑤고, 정월~3월에 장을 담는다. 장이 만들어지기 까지는 메주 쑤기, 메주 띄우기, 장 담기, 발효와 숙성, 장 뜨기와 같이 절차가 복잡하며, 대단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sup>381)</sup> 그 중에서도 장을 담그는 일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날로 擇日을 한다.<sup>382)</sup> 민간에서는 손 없는 날인 10일·20일·그믐날 또는 말날[午日]·돼지날[亥日]에 주로 장을 담근다.

맛좋은장을 담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과 신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주부는 장을 담기 사흘 전부터 외출을 삼가고 당일에는 沐浴齋戒를 한다. 심지어 장

380) 경남 기장에서는 이 달에 혼인을 하면 영동할미의 노여움을 사서 부부의 성기가 불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속신이 전한다.(김승찬, 「기장지방의 금기속신」, 『한국민족문화』 8, 1996.)

381) 정현미, 「장담그기[沈醬]」, 『한국세시풍속 사전』 봄편, 국립민속박물관, 2005, 356쪽.

382) 예로부터 장 담그는 날짜는 반드시 길일로 택일을 하였다. 『山林經濟』(卷之二 治膳 造醬)에는 ‘造醬吉日丁卯. 忌辛日. 必用亥事 宜諸吉神日. 亥事 正月雨水日及十月立冬日造醬. 築要水日造醬. 則生蟲.(장 담그는 길일은 丁卯일이니 辛日은 꺼린다. 또한 모든 吉神日이 마땅하다. 정월 雨水日과 10월 立冬日에도 장을 담근다. 水日에 장을 담그면 가시가 생긴다.)라는 기록이 있다.

을 담글 때에 아예 창호지로 입을 봉하기도 한다. 장을 담근 이후에는 장에 숯·고추·깨 등을 띄우고 장독에 금줄을 드리우거나 벼선본을 거꾸로 붙여서 부정을 방지한다.<sup>383)</sup> 장은 오랜 숙성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정이 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정성을 쏟아야만 한다.

장을 담기 위해서는 일단 온 집안이 깨끗해야 한다. 영등할머니를 위하는 가정은 2월 한 달 동안은 聖域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집안 곳곳이 깨끗하게 관리 된다. 다만 농사를 앞둔 시기여서 집안일에 신경을 쓰기가 어렵다. “이월에 장을 담그면 조상이 제사를 받지 않는다.”<sup>384)</sup>라는 속신은 이를 뒷받침한다. 정성이 담기지 않은 음식은 제물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는 2월에도 장을 담그는 가정이 많다. 2월을 ‘남의 달’로 관념하여 아예 장을 담그는 것을 피하기도 하지만,<sup>385)</sup> 신령께 먼저 고하고 장을 담그기도 한다. 이때는 반드시 제물과 함께 메주 한 덩어리를 상 위에 올린다. 아예 ‘제석할머니 장’이라고 하여 영등할머니께 올릴 장을 먼저 담그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장을 담기도 한다.<sup>386)</sup> 이처럼 영등할머니를 먼저 위해야만 집안이 무탈하다.<sup>387)</sup>

다음으로 부엌의 부뚜막을 손보거나 방문에 구멍을 막는 일도 그대로 두었다가 신령이 상천한 이후에 한다.<sup>388)</sup> 또한 집안에서도 변소를 부정한 공간으로 인식하여 변소를 푸는 일도 삼간다.<sup>389)</sup> 부정한 일을 하면 반드시 탈이 나기 때

383) 1950년대까지도 장독에 마른 벼선본을 코가 위로 향하도록 거꾸로 붙여 놓은 것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이처럼 벼선을 붙여 놓으면 장맛이 좋아진다고 하며, 시각적으로 장독대에 불을 밝힌 것처럼 환한 느낌을 준다.(김광언,『우리 생활 100년·집』, 현암사, 2000, 80쪽.)

384) 김성배,「한국금기어 考」, 국어국문학회, 1968, 268쪽.

385) 전라도 지역에서 특히 2월에 장 담그기가 금기시 된다. 그 이유는 2월을 ‘남의 달’로 관념하기 때문이며, 다른 때에 비해 장맛이 좋지 않다고도 한다.

386) 이월에 장을 담게 되면 제석할머니장을 먼저 담근다. 제석할머니 장은 장광에 메주 한 짹, 소금, 물 한 그릇을 올렸다가 작은 단지에 담근다. 이 장은 제석할머니를 위해 별도로 마련한 것으로 이를 담은 후에야 본격적으로 장을 담을 수 있다. 메주가 뜯 후에는 제석 할머니장과 나중에 담은 장을 섞는다.(국립문화재연구소,『장수군』,『전라북도 세시풍속』, 2003, 547쪽.) 경남 합천을 비롯하여 경북 내륙 지역에서도 2월에 장을 담아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석장’을 먼저 담근다.(2008년 11월 3일, 합천군 일대 필자 조사.)

387) 국립문화재연구소,『진안군』,『전라북도 세시풍속』, 2003, 626쪽.

388) 국립문화재연구소,『밀양시·의령군』,『한국의 가정신앙 : 경남』, 2007, 240쪽·249쪽·397쪽, 문화재관리국,『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전라남도 편)』, 1969, 642~648쪽.

389) 국립문화재연구소,『창녕군』, 위의 책, 2007, 450쪽 및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한국의 전통마을 : 경북 구미시 무을면 무이리』, 1997, 158쪽, 이와 관련하여 제사를 지낼 때

문이다. 그 밖에 바람올리기를 하는 당일에는 집안 일도 잠시 중단한다. 대표적인 예로 빨래를 하지 않는다.<sup>390)</sup>

그 밖에 집안에 물건을 새로 들이거나 밖으로 내는 일도 가능하면 하지 않는다. 물건을 賣買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땅을 매매도 삼간다.<sup>391)</sup> 이웃집에 칼이나 끌 등의 날카로운 도구를 빌려주는 일 역시 피한다.<sup>392)</sup> 음력 이월 초하룻날에는 아예 칼질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전날 미리 음식을 하는 등 조심한다.

식구들은 부정한 장소는 물론이고, 무당에게 점을 보러가는 일도 피한다.<sup>393)</sup> 영등할머니가 모든 일을 관장하는 시기이므로 다른 신령을 의지하는 행위를 하면 영등할머니가 노하여 별을 준다고 믿는다.

이러한 금기 및 속신은 바람올리기를 지낼 무렵에 더욱 강하게 지켜진다. 또한 謹慎해야 할 사람은 주부를 포함한 가족 전체로 확대된다. 물건을 매매하거나 점을 보기 위해서는外出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부정이 탈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 라. 이월 동티[動土]

음력 이월에 신령을 모시지 않았거나 정성을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집안에 憂患이 발생하면 ‘이월 동티’라 한다.<sup>394)</sup> “이월할머니를 잘못 모시면 집안이 망한다.” 혹은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영등할머니를 잘못 위한 탓이다.”라는

---

에 변소 문을 열어 두면 초상이 난다는 속신이 있을 정도로 부정하게 인식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국립민속박물관,『경남 어촌 민속지』, 2002, 308~309쪽.)

390) 최래옥,『한국민간속신어사전』, 집문당, 1995, 231쪽.

391) 국립문화재연구소,『창녕군』,『한국의 가정신앙 : 경남』, 2007, 457쪽.

392) 국립민속박물관,『통영시』,『경상남도 세시풍속』, 2002, 283~286쪽.

393) 국립문화재연구소,『칠곡군』,『경상북도 세시풍속』, 2002, 877쪽.

394) 동티[動土]의 사전적 정의는 흙이나 나무·돌 따위를 잘못 건드려 자신의 노여움을 사서 받는 제양,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잘못 건드려서 생긴 걱정이나 불행을 뜻한다.(「동티」,『동아 새국어사전』.) 동토는 神體를 상징하는 물체나 귀신이 거주하는 것, 신이 관장하는 자연물과 인공물을 함부로 훼손 또는 침범하거나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다루지 않았을 때 일어난다. 이러한 경우 신이 진노하여 神罰을 내리거나 정해진 종교적 질서를 깨트림으로서 그 자리에 사악한 잡귀가 침범하기 때문에 동토가 나게 된다는 것이다.(崔吉城,『동티』,『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341쪽.) 지역에 따라서 ‘동티’·‘동토’·‘동투’·‘동정’ 등 다양하게 불리기도 하는데, 이월과 관련해서는 ‘이월 동티’·‘이월 동토’라는 호칭이 보편적이다.

속언은 이러한 상황을 대변한다.<sup>395)</sup> 동토는 평소에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집안에서 흙을 잘못다루거나 가옥 구조의 변경, 가구의 위치 변경, 크고 작은 물건의 반·출입만 잘못해도 동토가 발생한다.<sup>396)</sup>

동토로 인한 증후로 갑작스레 식구가 아프거나 심한 경우 죽음에 이른다. 이처럼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가도 별반 효험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病因을 진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환자를 포기할 수는 없으므로 병을 고치기 위한 방법을 여러모로 모색한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울 때에 종교에 의지하게 되는데, 그래서인지 무당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sup>397)</sup>

이월 동티는 2월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발생하며, 그 원인을 영등할머니와 결부킨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신령을 모실 때에 조금이라도 미흡함이 있을 때에 동티가 발생한다고 믿어서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신령께 잘못을 시인하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뿐이다. 주부는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는 인간이 무엇을 알겠습니까”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병이 낫길 비兕한다. 病因이 결국 영등할머니를 모시는 인간의 부주의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별을 내리는 것도 영등할머니이고, 그것을 걷어가는 것도 영등 할머니이기에 이월 동티는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다.

동티가 난 상황은 신령의 심기가 불편한 상태를 반영한다. 이러한 심리 상태는 ‘탈이 나다.’·‘덧나다’<sup>398)</sup>·‘빼뜰어지다’<sup>399)</sup>·‘틀어지다’<sup>400)</sup>·‘노하다’ 등의 표현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탈(頃)은 예상 밖에 궂은일을 당한 상황을 가리키는데, 몸에 병이 났을 때 이같이 표현을 한다. 마찬가지로 상처나 병이 잘못되어서 심해졌을 때 ‘덧나다’라고 표현한다. 빼뜰어지거나 틀어졌다라는 표현

395)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은군」, 『한국의 가정신앙 : 충북』, 2006, 107쪽.

396) 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한국민속대사전』, 民衆書館, 1998, 435쪽,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초현리에서는 영등할머니의 까다로운 성품 때문에 이월에는 화려한 색깔의 옷도 입는 것을 금하며 동티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이월할머니의 동티라고 한다.(이해준·강성복, 『진악산 기슭에 꽂피운 천년의 터전-비단고을 유림의 고향 초현리』, 금산문화원, 2006, 297~306쪽.)

397) 그들이 원인을 찾는 방식이 때로는 논리에서 벗어나고, 비과학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그 안에도 분명한 논리가 있고, 그자체가 민간사고의 응축물이다. 직접 혹은 간접 경험을 통한 숨은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398)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은군」, 『한국의 가정신앙 : 충북』, 2006, 95쪽.

399) 국립문화재연구소, 「달성군」, 『한국의 가정신앙 : 경북』, 2007, 230쪽.

400) 국립문화재연구소, 「남원시」, 『전라북도 세시풍속』, 2003, 111~112쪽.

역시 평소와는 다른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만 사용한다. 누구든 불편한 상황이 시정되지 않고, 지속된다거나 앞서의 상황보다 더 심각한 충격을 받았을 때는 노여움을 느낀다.

이러한 심리상태는 평상심을 잊은 불안정한 상황을 반영한다. 또한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 특히 젊은이에 비해 감정변화가 심한老人이 쉽게 노기를 띠는데, 이는 영등신이 ‘할머니’라 불리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유발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금기를 반드시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동티가 나는 일반적인 경우를 정확하게 알고 조심하는 것이다. 전남·경남의 남부 지역에서는 무엇보다 흙을 다루는 일을 함부로 하지 않는데, 심지어 초상이 나도 시신을 假埋葬했다가 신령이 상천한 이후에야 비로소 장례를 치른다.<sup>401)</sup>

간혹 영등할머니를 위하는 가정에 외부인이 찾아와서 경망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탈이 나기도 하는데, 이를 ‘영등 불었다’라고 표현한다. 이는 외출을 나갔다가 갑자기 병을 앓게 되면 객귀가 붙어서 그런 것으로 여겨 ‘해물리기’를 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와 유사한 상황이다. 외출을 하여 병을 얻은 것 이므로 ‘불었다’라는 수식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sup>402)</sup>

또한 2월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신령께 먼저 고해야 한다. 이웃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온 경우에 먹기 전에 영등할머니께 먼저 받치고, 그 외에 돈을 비롯하여 생필품을 집안에 들여도 마찬가지로 신께 먼저 올려야 한다. 환자가 발생하여 약을 먹여야 할 경우에도 신령의 효험을 통해 완치되길 기원하는 뜻에서 제단에 갖다 두었다가 먹게한다.<sup>403)</sup> 신령을 모신 기간에 먼 곳으로 출타를 할 때에도 영등할머니께 먼저 고하기는 마찬가지이다.<sup>404)</sup>

여러 물건 가운데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무색천이다. 무색천은 노랑, 빨강, 파랑 등의 다양한 빛깔의 천을 말한다. 평상복은 素色에 가까운白衣이고,

401) 국립문화재연구소, 「밀양시」, 『한국의 가정신앙 : 경남』, 2007, 240쪽 및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전라남도 편)』, 1969, 642~648쪽, 이 달에는 초상이 나도 땅을 파지 않고, 영등할머니가 하늘로 떠나 이후에야 땅을 파고 사람을 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영등달에 사람이 죽으면 ‘덕발’이라고 해서 돌을 쌓아놓고 그 위에 시신을 올려놓고 영등할머니가 올라가기를 기다렸다.(국립문화재연구소, 「광양시」, 『한국의 가정신앙 : 전남』, 2008, 143쪽)

402) 대전시 서구 문화공보실, 『서구향토지』, 대문사, 1991. 188쪽.

403) 충북대학교박물관, 『청주-상주간 고속도로 건설예정지구 지표조사보고서』, 1999, 241쪽.

404) 국립문화재연구소, 「장수군」, 『전라북도 세시풍속』, 2003, 547쪽.

간혹 명절에 아이들에게 색동옷을 지어주는 일이 전부였기 때문에 무색천으로 지은 옷을 입는 일이 별반 없었다.

2월에 무색천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등할머니와 관련이 있다. 영등할머니는 자신보다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을 시샘하여 재앙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녀의 신체로 관념하는 대에는 禮緞으로 무색천과 백지가 달려 있다. 백지가 깨끗함 혹은 정결함을 상징하는 예단이라면 무색천은 신령의 고운 옷이다. 영등할머니는 여신이기에 누구보다 고운 옷으로 治裝하길 원한다.

2월에는 영등할머니 외에는 누구도 무색옷을 입을 수가 없다. 만약 이를 어기면 집안에 憂患이 발생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우환 중에서도 주로 눈병[目病]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는 2월의 일기와도 관련이 있다. 2월은 계절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유독 심하게 불고, 그로 인하여 黃砂가 발생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사소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작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영등할머니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가능하면 동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장롱 안의 무색천조차 함부로 만지지 않으려고 한다. 또한 무색천을 집안에 들이더라도 영등할머니께 먼저 올린 이후에 사용을 해야 아무런 탈이 없다. 만약 잘못하여 무색천으로 인한 동토가 발생한 경우에는 祭場에 나아가 정화수를 새로 갈아 올리고, 하루 빨리 병이 완치되길 기원한다.

이처럼 우환의 원인은 영등할머니를 잘못 모신 식구들의 잘못으로 귀결된다. 여러 원인 중 첫째는 집안에 초상, 출산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부정에 노출되었을 때이다. 그 밖에 식구들의 정성이 부족한 탓에 신령이 운감하지 않는다. 이렇듯 영등할머니는 부정과 상극인 신령이다.

둘째는 제사와 관련한 부분인데, 평소에 지내던 제사를 갑자기 중단하거나 간략하게 행한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祭日을 이유 없이 뒤로 미루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는 신령의 영험성과 관련이 있다.<sup>405)</sup> 영등할머니는 제사가 중단되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뿐더러 그 서운함을 집안의 우환으로 나타내는 신령이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영등할머니를 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해결책도 그 안에서 찾아야 한다. 주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당을 찾아가게 되면 오히려

405) 1960년대만 하더라도 집안에서 이월할머니를 모시지 않으면 해를 본다하여, 많은 가정에서 이월할머니를 반드시 모셨다.(충북대학교박물관, 『경부고속철도 대선사토장·영동 보수기지 예정부지 고고·민속조사보고』, 1997, 97쪽.)

탈이 나고, 집안에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sup>406)</sup> 그러므로 우선은 인간의 잘못을 신령께 고하고 다시 제물을 마련하여 서운함을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불행이 초래된다.<sup>407)</sup>

영등할머니가 하강해 있는 동안은 집안에서 정성껏 위하지만 상천한 경우에는 제장을 보리밭으로 옮긴다. 이른 봄의 보리밭은 매우 특별한 장소이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이곳보다 생명력을 왕성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은 없다. 더욱이 영등할머니와 보리밭은 특별한 관련을 맺는다.<sup>408)</sup> 생명력은 재생과 치유를 전제한다. 보리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환자의 병을 치유하길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에서 제장을 옮기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영등할머니가 지상을 떠난 이후에는 이곳 외에 신령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리밭은 비일상적인 상황에서 영등할머니를 만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동토는 시시때때로 발생하지만 2월의 동토는 그 원인이 영등할머니와 관련이 있다. 원인을 알면 문제의 해결은 오히려 쉽게 찾아진다.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는 인간이 무엇을 알겠습니까”하고 영등할머니께 비손을 하는 것처럼 인간은 그 앞에서 대단히 겸손해진다. 그래야만 집안의 우환도 영등할머니의 보살핌으로 해결된다. 또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무방수날’·‘무방새날’이라고 불리는 2월 9일에 한다. 이 날은 무슨 일을 해도 신령이 관여하지 않는 날로 관념한다.<sup>409)</sup>

## 마. 日氣와 관련한 俗信

- 
- 406) 2월에 집안에 변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거나 특별한 양밥을 하지 않고 오직 영등할머니께만 빌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국립문화재연구소, 「포항시」, 『경상북도 세시풍속』, 2002, 402쪽.)
- 407) 집안에 우환의 종류도 여럿이겠지만 가장 큰 비극은 신령을 제대로 위하지 못한 탓으로 식구가 목숨을 잃는 일일 것이다. 영동할머니는 까다로운 신령이기에 잘못 모시면 식구 중 한 사람을 데려 간다고도 한다.(대전시 대덕구, 『대덕구민속지』, 1989, 105쪽.)
- 408) 전설에 따르면 영등할머니가 보리밭에서 얼어죽었다고도 하고, 또한 신령이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날에는 모든 것을 보리밭에 버리고 간다는 속신이 전한다.
- 409) 2월 9일은 무방수날로서 나무를 심는 날이다. 이때는 나무를 심기에 적기이기도 하지만 탈이 없는 날이기도 하다.(한국문화재보호재단, 『왜관 일반지방산업2단지 진입도로 추가 구간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005, 45쪽.) 이 날은 손이 없는 날이라 귀신도 눈을 감는 날인데 이사를 간다든지 함부로 어려웠던 일들을 한다.(안동대학교 국학부 민속학전공, 『순흥사람들의 삶과 문화』, 2004, 205쪽.) 또한 성주 기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없는 좋은 날이라고 한다.((財)한국선사문화연구원, 『여주-충주-문경간 철도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006.)

2월은 환절기로 일교차가 심하고, 다른 절기에 비해 바람이 많이 분다. 이러한 까닭에 영등할머니와 관련한 속신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2월의 일기와 관계된 것이다. 이 달의 날씨는 神意를 가늠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며, 일 년 농사의 풍흉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2월의 예상치 못한 추위는 일상생활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월과 2월은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농기구를 손보는 등 본격적인 농사 준비에 들어간다.

특히 2월 초하루는 일꾼들이 마지막으로 쉬는 날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이 날을 명절로 관념하여 설이나 추석처럼 절식도 만들어 먹고, 온종일 즐겁게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sup>410)</sup> 일부지역에서는 그 흔적이 남아서 이월 초하루를 일러 ‘이월 명절’이라고 하여, 쑥떡, 섬떡 등의 떡을 하고 일꾼들을 불러 모아 음식을 나누는 특별한 날로 인식하였다.

영등할머니는 바람을 인격화한 신령이기에 항상 구름과 비를 대동한다. 이는 가족신의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영등할머니가 가는 곳에는 딸과 며느리가 함께 한다. 특히 영등할머니가 딸을 데리고 내려오면 그의 치마가 바람에 날려 아리땁게 보이도록 바람이 불고,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밉게 보이도록 비가 내린다는 속신이 전한다. 이를 통해 자애로운 어머니와 어려운 시어머니의 모습을 모두 발견할 수 있다.

다른 때보다 신령이 내려오는 날인 2월 초하룻날의 날씨를 통해서 그 해의 풍흉을 짐치는 예가 많다. 비가 와야 풍년이 들고, 바람이 불면 흉년이 든다고 하여 비가 오길 기원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인식하기도 한다.

반드시 풍흉과 관계되지 않더라도 이 달에 바람이 많이 불면 일 년 내내 바람이 잦고, 비가 내리면 물이 풍부하다고 여긴다. 충청도 지역에서는 ‘이월 초하룻날에 장닭[수탉] 꼬리만 날려도 봄바람이 세다.’라는 속신이 전하는데, 여느 때보다 바람이 많이 부는 절기이기에 이같은 속신이 전하는 것으로 보인다.<sup>411)</sup>

410) 2월 초하루도 본래는 큰 名日이던 것이 後世에 이날 이름이 없어지고 옛날에 하던 행사가 약간 남아 있는 모양이다.(최남선, 「2월 초하루의 의미」, 『조선상식문답』, 삼성문화재단, 1972(1947), 101쪽.)

411)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으로 위의 속언은 충청도 이북 지역에서만 전하고, 경상도 및 전라도, 강원도 등지에서는 전하지 않는다. 날씨와 관계된 속신을 통해서도 영등할머니 신앙의 문화권을 구분해 볼 수가 있다. 속설에 따르면 영등할머니가 내려와 있는 동안은 다른 날보다도 바람이 유독 센 편이라고 한다.(서해숙, 「섬진강유역 가정신앙의 양상과 의미」, 『한국의 가정신앙』, 민속원, 2005, 219쪽.)

또한 2월 초하루나 스무날 등 신령이 하강하거나 상천하는 특정한 날짜의 날씨는 여느 때보다 더욱 중요하게 인식한다. 특히 초하루는 한 달이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바닷가에서는 이날 뱃일을 나가지 않는다고 하며, 여자들이 남의 집에 일찍 가지 못하게 한다.<sup>412)</sup> 이는 비단 이월 초하루에만 해당하는 금기는 아니다. 그러나 2월 초하루가 중요한 까닭은 이날의 일기 상황이 그 달의 날씨는 물론 일 년의 일기를 예측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스무날의 날씨도 같은 이유에서 의미가 있다.<sup>413)</sup>

신령이 하강하거나 상천하는 특정한 날짜의 날씨를 가리켜 ‘물영등’·‘바람영등’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해안가 지역에서는 물영등이 드는 해에는 豊漁를 하고, 바람영등이 들면 出漁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한다. 이러한 표현은 영등 할머니 신앙과 비·바람 등의 일기 현상이 섞여서 만들어진 표현이다. 전라도 서남부의 영등할머니를 모시지 않는 지역에서도 2월의 날씨를 ‘비영등’·‘바람영등’·‘불영등’과 같이 표현하는 점은 특기할 만한다.<sup>414)</sup> 또한 강원도 산간지역에

412) 음력 이월 초하루 아침부터 집안에 여자가 들어오면 그 해에 맑아 안 된다고 하며(충북 영동, 이필영·김효경, 위의 책, 1997, 80쪽.) 또한 키가 작은 사람이 들어올 경우에는 삼농 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속신이 전한다. 여자가 이날 굴뚝을 지나도 마찬가지로 맑아 잘 되지 않고, 초상이 난다고 한다.(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한국의 전통마을1』, 1997, 119~120쪽.)

413) 영두할매는 이월 스무날에 올라가는데, 이 날은 “부지깽이를 거꾸로 세워도 잎이 나오고 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생명력이 왕성한 날로 관념한다.(안동대학교 민속학 연구소, 『경북의 전통마을 3 : 청송군 청속읍 청운리 민속지』, 2004, 94쪽.) “열이를 바람, 스무 날 비”라는 말이 있는데, 스무날 경에 비를 맞아야 영등할머니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한다.(국립문화재연구소, 「진도군」, 『전라남도 세시풍속』, 2003.) 2월 12일에 바람이 불고, 20일에 비가 와야 그 해의 시절이 좋다.(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전라남도 편)』, 1969, 642~648쪽.)

414) 전라도의 서남부 지역에서는 영등할머니 신앙이 희박한 편이다. 한편으로는 신령에 대한 믿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영등’·‘물영등’·‘불영등’과 같이 초하룻날 일기와 관련하여 ‘영등’이라는 명칭이 전해지는 점은 특기할만 하다. 여느 지역에서는 ‘불영등’이라는 용어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데 반하여 이들 지역에서는 따뜻한 날이 지속될 경우에는 이처럼 표현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사례이다. 2월 초하루에 바람이 불면 ‘바람영등’이 내리고, 바람이 불지 않고 날이 좋으면 ‘불영등’이라고 한다. 이날 바람이 불면 2월 한 달 내내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한달 내내 비가 온다. 영등은 그믐에 올라간다.(국립문화재연구소, 「정읍시」, 『전라북도 세시풍속』, 2003, 245쪽.) 그믐 자정에 날씨가 구름만 끼면 ‘무영등’ 딸과 함께 내려오면 치맛바람을 일으킨다고 ‘바람영등’이라고 하며, 바람도 불지 않고 구름도 끼지 않으면 ‘지름 영등’이라고 한다.(국립문화재연구소, 「보성군」, 위의 책, 2003, 531쪽.) 2월 초하루에 바람이 불면 바람 영등, 하늘이 맑아 햇볕이 쬐면 불영등,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면 물영등이 내린다고 하며 바람 영등이 내리면 그 해 바람이 많고 불영등이 내리면 그 해 가물고, 물영등이 내려야 그해 비가 흔하여 풍년이 든다고 한다.(문화재관리국, 위의 책, 642~648쪽.)

서는 2월의 일기를 통하여 영동과 영서의 풍흉을 점친다.<sup>415)</sup> 또한 농사를 짓는 지역에서는 단연 물영등이 내려야 좋으나 농사와 관계없는 산간 지역은 바람영등이 낫다는 이야기도 전한다.<sup>416)</sup>

2월 한 달 동안은 신령이 지상에 머물기 때문에 바람이 유독 많이 분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등할머니가 상천해야 바람이 멈추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영등할머니를 정성껏 위해 농사일이 수월한데, 이 달에 신령을 여러 차례 정성껏 위하여 풍년이 든다.<sup>417)</sup> 이와 관련하여 영등할머니가 정월 그믐에 지상으로 내려오는 이유도 집집마다 농사 준비를 잘 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게으름을 피우는 농가에는 전보다 많은 잡초씨앗을 뿌려서 농사짓기 어렵게 만든다는 속신이 있다.<sup>418)</sup> 같은 맥락에서 바람울리기를 할 때에 사용했던 짚이나 물그릇을 받쳐 놓은 뼈리로 모를 뚫어서 사용하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보리를 뿌리 채 파다가 제场上에 놓아두었다가 보리농사의 풍흉을 예상하기도 한다.<sup>419)</sup> 또한 이날 정화수를 떠올 때에도 새벽에 제일 먼저 떠와야 농사 장원을 한다는 속신이 전한다.<sup>420)</sup> 2월 스무날에 이월밥이 다 되면 뚜껑을 열고 그 김이 오르는 것을 보아서 그 해의 吉凶을 점치기도 한다.<sup>421)</sup>

정월의 다소 들뜨고, 한가했던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의미에서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한다.<sup>422)</sup> 또한 정월에 풍농을 기원하기 위하여 세워 둔 벗가릿대를 헐

415) 2월 초하루에 날씨가 흐리면 동쪽은 풍년이 들고 서쪽은 흥년이 든다. 즉 영동지역은 풍년이 들고 영서 지역은 흥년이 든다. 이날 바람이 많이 불면 바다에 접해 있는 영동 지역은 흥년이 들고, 바람이 없으면 서쪽 즉 영서 지역은 풍년이 든다.(국립문화재연구소, 「인제군」, 『강원도 세시풍속』, 2001, 362쪽.)

416) 국립문화재연구소, 「영양군」, 『강원도 세시풍속』, 2001, 178쪽.

417) 영동할망네 때 쑥국을 세 번 끓여 먹으면 풍년이 든다.(국립민속박물관, 『경남어촌민속지』, 2002, 283~286쪽.)

418)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여주-충주-문경간 철도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006.

419) 영등대 밑에는 뿌리채 파온 보리를 놓는데, ‘보리 뿌리에 새 뿌리가 많이 나면 보리가 잘되고, 새 뿌리가 적게 나면 보리가 잘 안 된다고 하는 속신이 전한다.(순천대학교박물관, 『여천죽림 택지개발지구 지표조사 보고서』, 1997, 97쪽.)

420) 울주군의 사례,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가정신앙 : 경남』 위의책, 2007, 363쪽.

421) 이 때 김이 곧게 잘 오르면 길조로 풍년이 든다고 한다. 그리고 이날 바람이 세거나 비가 오면 한해의 농사를 망치게 된다고 한다. 또 굴뚝의 연기가 곧게 올라가면 풍년이 든다고 믿는다.(국립문화재연구소, 「마산시」 및 「양산시」, 『경상남도 세시풍속』, 2002, 98쪽·252쪽.)

422) 2월 초하루의 풍속으로 초가에서는 노래기를 쳐기 위해서 솔가지를 지붕에 올려 둔다. 또

고,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연날리기를 하지 못하게 한다.<sup>423)</sup> 강원도 일부 지역의 풍속으로 마을에서 공동으로 음력 정월 열나흘날에 삼대를 세우는데, 이 삼대 역시 2월 초하루에 내린다.<sup>424)</sup>

봄에 비가 많으면 풍년이 든다고 믿는 까닭은 오랜 경험에서 얻어진 산지식이다. 대표적인 예로 삼사월에 마을의 느티나무 잎이 피어나는 모양새를 보고 그 해 풍흉을 점쳐본다.<sup>425)</sup> 2월의 비와 눈이 일 년 농사와 관계있는 까닭은 수량 때문이다. 2월에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방법으로는 초하루나 스무날 일기를 보는 것 외에도 몇 가지 방법이 더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좀생이별 보기로 “정월 대보름에는 달만 잘 뜨면 되고, 이월 초엿샛날은 좀생이만 잘 가면 된다.”는 속언이 있다. 음력 이월 초엿새를 일러 좀생이 보는 날이라고 하는데 달과 별의 거리, 별의 빛깔 등을 살펴서 한 해의 풍흉을 점친다.<sup>426)</sup> 그 외에도 이월 중이나 한식날의 천동소리로 그 해의 풍흉이나 국가의 길흉을 점친다. 겨울에는 추녀 끝에 열리는 고드름을 보고 풍흉을 점치기도 한다.<sup>427)</sup>

---

한 콩을 볶아먹는다. 콩이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걱으로 저으며 ‘달달 볶아라, 콩을 볶아라, 새알도 볶고, 쥐알도 볶아라.’라고 말한다. 이렇게 하면 새와 쥐가 없어져서 곡식을 축내는 일이 없어진다고 하며, 더불어 노래기도 없어지게 진다고 믿는다.(장주근, 『한국의 세시풍속』, 형설출판사, 1984, 211~212쪽.) 또한 이 콩을 식구들이 먹으면 일년 동안 몸에 부스럼이 나지 않고 치통도 없어지며 밭에 꾀가 생기지 않아서 농작물이 잘 자란다.(충북대학교박물관, 『경부고속도로(옥천-영동간) 확장사업구간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2001, 132쪽.) 결국 집 안 곳곳의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봄맞이를 하는 셈이다.

- 423) 대개 2월부터는 연을 날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영등을 위할 때에 대에 붙여 두었던 한지로 연을 만들어 날리기도 한다. 이 연이 집안의 감나무에 걸리면, 그 집 식구가 죽는다는 속신이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경산시」, 『경상북도 세시풍속』, 2002, 19쪽.)
- 424) 이를 세우는 까닭은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살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김진순, 「강원도 민속의 지역적 정체성-산간민속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29, 비교민속학회, 2005, 210쪽.)
- 425) 느티나무 잎이 피는 모양은 누구나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노인들의 치밀하고 유심한 관찰을 통하여 가려질 수가 있다. 전남 고흥지방에서는 ‘오가피나무 잎이 피면 보리밭 김을 매야 한다.’는 말이 있다. 오갈피나무 잎은 봄에 제일 먼저 잎이 핀다고 한다. 자연력은 지역마다 가장 정확한 일기 관측법인 셈이다.(장주근, 『한국의 세시풍속』, 형설출판사, 1984, 37쪽.)
- 426) 황경순, 「좀생이점」, 『한국세시풍속사전』 봄편, 국립민속박물관, 2005, 72~74쪽
- 427) 고드름이 열린 모습이 마치 동곳을 닮아서 이를 ‘동곳점’이라 한다. 눈비가 많고 추우면 처마 밑에 고드름이 자연 많이 달리게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그 해에는 땅 속에 물이 풍부하게 확보되어 농사철에 물 걱정을 덜게 된다는 것이다. 충청도 지역에서는 처마 밑의 키고 길쭉한 고드름을 아이들이 장난삼아 끊으면 벼의 모가지를 끊는 것이라 하여 어른들에게 크게 꾸중을 들었다. 동곳과 풍년 여부를 단순히 상관 짓는 관념을 넘어서, 심지어 동곳을 벼라고 상징적으로 여겼던 것이다.(김효경, 「동곳점」, 위의 책, 2005, 122~123쪽.)

## VII. 맷음말 : 영등할머니 신앙의 성격과 의의

영등할머니는 2월 초하루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風神이다. 민속 상에서는 ‘영등’·‘영동’·‘영두’·‘영등지석’·‘이월할머니’·‘이월’·‘이월영등’·‘이월제석’·‘풍신할머니’·‘제석할머니’·‘제석’·‘손님’·‘손’ 등 매우 다양한 호칭으로 불린다. 여러 호칭 상의 의미를 종합하면 영등할머니는 2월에 하늘로부터 찾아오는 바람신을 의미한다.

영등할머니가 내방하는 2월은 절기상 春分에 해당한다. 이때부터 점차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고, 햇볕이 따뜻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꽃샘추위가 반복되는 불안정한 때이다. 오늘날도 2월이면 봄방학과 입학식을 할 즈음이다. 봄의 기운을 느끼면서도 차가운 바람 때문에 옷깃을 더욱 여미게 된다. 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람을 더 차게 느끼는지도 모른다. 환절기에는 감기,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의 발생률도 평소보다 높아서 일상생활에 여러 불편을 초래한다.<sup>428)</sup>

계절의 변화로 야기된 불규칙하고, 무질서한 일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령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된다. 자연현상은 예측이 불가능하기에 인간의 행복을 깨뜨리고 생각지 않은 불행을 야기할 수 있다. 2월의 불안정한 일기도 자연 현상의 일부이다. 이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다. 영등할머니에 대한 지극한 정성은 무질서한 세계를 질서 정연하게 만드는 종교적 수단이다.

주부는 가내 평안을 위해서 영등할머니께 온갖 정성을 다한다. 영등할머니는 집안의 안과태평, 식구들의 건강, 일년 농사의 풍흉까지 모두 관여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주기적으로 내방하는 영등할머니의 加護로 가정은 평안한 삶의 터전으로 보장받는다.

영등할머니는 자연현상인 바람의 속성을 그대로 닮아 있다. 바람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을 한다. 또한 구름과 비를 동반한다. 이는 인간의 경험에 의해 얻어진 진리이다.

영등할머니는 한 가정에 오랜 기간 정착을 하지 않는다. 2월이 지나면 하늘로 다시 되돌아간다. 따라서 성주·티주·조왕이 집안에서 모시는 신령이라면

428) 이예숙, 「환경위생 및 환절기 안전」, 『동광』 54, 어린이재단, 1971, 한국은행조사부, 「환절기 위생 : 호흡기 질환」, 『지방행정』 20,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영등할머니는 집 밖의 신령이 된다. 집 밖 신령으로는 요왕·거리·서낭 등이 있다. 이들 신령과 영등할머니가 다른 점이 있다면 반드시 2월에만 한시적으로 모신다는 사실이다. 영등할머니는 2월이 지나면 가정신앙에서 망각된다.

또한 제의 장소 역시 집 밖의 신령들과는 차이가 있다. 영등할머니는 집 밖의 신령이긴 하나 가내에 제장을 마련한다. 그녀가 지상에 머무는 기간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집안의 정결한 곳에 祭場을 마련한다. 제장에는 15일이나 20일 정도 신령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놓아둔다. 이는 정화수 한 그릇인 경우도 있고, 별도의 神體를 만들어서 놓아두기도 한다. 이로써 가정은 영등할머니가 함께하는 聖域이 된다.

바람이 구름을 이동시키고, 그로 인하여 비가 내리듯이 영등할머니는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 딸과 며느리를 동반한다. 이들은 영등할머니를 따라온 그녀의 가족이다. 가정에서는 영등할머니와 함께 온 신령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는다. 제물을 마련 할 때에 이를 고려하여 가능하면 푸짐하게 장만하고, 숟가락을 놓을 때에도 여러 개를 메에 꽂아 놓는다. 또한 제의가 끝나면 별도의 제물을 짚에 싸서 싸리문 밖에 내놓는다.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영등할머니가 홀로 내방하는 신령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2월 초하룻날 신령이 딸과 며느리 중 누구를 대동하는 지는 한 해 농사의 豊凶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이날 영등할머니가 딸을 데리고 오면 그녀의 분홍치마가 아리땁게 보이도록 바람이 불고,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일부러 밉게 보이이라고 비가 내린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물은 식수, 생활용수, 농수 등으로 사용이 되며 인간 삶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농부가 날씨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 변화에 따라서 농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봄에 비가 많으면 풍년이 듦다거나 삼사월에 마을의 느티나무 잎이 피어나는 모양새를 보고 그 해 豊凶을 점치는 이유도 비를 기다리는 마음 때문이다. 2월 초하루나 초엿새에 달과 좀생이별의 관계를 보고 한 해 농사를 점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마음이 영등할머니 신앙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영등할머니가 며느리와 함께 와서 풍년이 들길 희망한다.

신령의 호칭에 나타나는 ‘할머니’라는 수식어처럼 영등할머니는 작은 일에도 잘 빼치는 신령이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노인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감동하고, 반면에 서운함도 그만큼 빨리 느낀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동시에 그 표

현이 솔직해지는 것이다. 이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자신감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감정의 변화이다. 이처럼 노인의 보편적인 성격은 영등할머니의 성품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이를 감안하여 가정에서는 영등할머니가 조금도 서운하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고 정성을 기울인다. 초상이 나서 집안에 궤연(几筵)이 있는 경우에도 문을 닫고 상식을 올리지 않고, 마을의 공동 제사 역시 영등할머니를 모시는 기간은 피한다. 가능하면 혼사가 있어도 ‘영등달’은 피하고, 제사를 지내야 한다면 이웃을 배려하여 곡소리가 담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뿐만 아니라 초상이 나도弔問을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예 영등할머니를 모시는 일을 중단한다. 그 밖에도 이사·집수리·땅 賣買 등 모든 일을 삼간다. 가능하면 가장 정결한 환경에서 영등할머니를 모시려고 노력한다.

영등할머니의 영험하고 욕심이 많은 성품은 제물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단편적으로 “제물로 쓸 나락을 새가 쪼아 먹으면 즉사한다”는 속언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때문에 메와 떡에 쓸 穀物은 별도로 마련해 둘 정도이다. 또한 제물을 인간이 먼저 맛보게 되면 입이 불어 튼다고 하여 먼저 손대는 일도 없다. 아이들에게도 영등할머니께 올릴 제물은 손대지 못하게 각별히 주의를 시킨다. 제물을 진설할 때에도 가능하면 푸짐하게 보이도록 메는 큰 양푼에 가득 펴놓고, 국이나 나물도 마련한 그릇째 놓아둔다. 영등할머니가 비린 음식은 싫어한다고 관념하여 청어·개·미역·김·북어 등의 해산물은 올려도 소·돼지·개와 같은 집짐승은 제물로 올리지 않는다.

이러한 신령의 성품 때문인지 제의 장소도 집 안에서 가장 정결한 곳에 마련한다. 가내에서는 부엌과 장독대 부근이 안성맞춤이다. 신령이 상천하는 날 까지 2월 한 달 동안은 이곳에 井華水를 한 그릇 떠올린다. 이는 제물인 동시에 인간계가 지닌 더러움을 씻어내는 최고의 상징물이다. 주부는 영등할머니가 올라가는 날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화수를 새로 떠 올릴 때마다 제장은 정화된 공간으로 변한다.

제장에는 이와 더불어 신령을 상징하는 대를 놓아둔다. 대는 그 자체로써 종교적인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홀로 서 있는 기둥은 장대나 뚝대, 그리고 나무와 마찬가지로 세계축(the world-axis)과 관련되어 있다. 이 장대를 통하여 초자연적 존재가 지상으로 하강하는 교통로가 되기 때문에 신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영등할머니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대가

통로가 되어 하늘과 땅을 왕래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는 2월이 지나면 치우기 때문에 신령의 교통로도 자연히 없어진다.

영등할머니 신앙은 지역적인 편차를 비교적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가정 신앙의 연구주제이다. 태백산맥 일원과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 치우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특징을 보이며, 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영등할머니에 대한 인식이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또는 다소 회박한 편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영남 지역은 영등할머니 신앙의 중심 또는 지표라 할 만큼 의례의 내용과 절차가 구체적이고 다양하다.

이처럼 영남에서 영등할머니 신앙이 우세한 이유는 명확하게 밝히기가 어렵다. 지역의 역사·문화적인 배경과 자연 환경적인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남에서도 내륙 산간과 해안 지역의 영등할머니 신앙은 차이가 있다. 이는 신체 제작 여부와 그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의 내륙 산간 지역은 대부분 소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신체로 삼는다. 남쪽 해안가 지역에서는 대나무로 신체를 만들며, 이를 ‘물대’·‘할맘네 대’라고 부른다. 이처럼 대를 세우는 사례는 경북보다는 경남의 해안가 지역에서 우세하게 나타난다. 경북은 대를 만들기보다는 오색천이나 백지를 제의 장소에 붙여 두는 것으로 대신하거나 아예 신체를 만들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은 해안가를 따라서 강원도 지역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띤다.

경북의 동해안 지역에서는 ‘영등까꾸지’ 혹은 ‘영등까꾸리’라고 하여 제물로 올릴 魚物을 잠시 보관할 수 있도록 갈퀴 형태의 기구를 부엌에 매달아둔다.

영등할머니 신앙은 서부 해안가 및 평야 지대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경기·충남·전북·전남 네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찾아진다. 또한 북으로는 충남의 대전, 금산 두 지역을 경계로 영등할머니 신앙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충북에서도 영동·옥천·보은 남부 지역에 우세하다.

영남 지역에서도 동쪽의 산악 지역에 치우쳐 영등할머니 신앙이 집중한다. 반면 서해안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영등할머니가 신앙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월 초하룻날의 날씨를 언급할 때에 ‘바람영등’·‘물영등’·‘불영등’이라는 명칭만이 전승될 뿐이다. 이처럼 동서의 지역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현재로써는 잘 파악되지 않는다. 추후에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전국적으로 영등할머니 신앙은 많은 부분 쇠퇴·소멸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오늘날의 산업화·도시화는 이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영남 및 충청의 내륙 산간 및 해안가 그리고 제주도 지역에서는 남아있다. 이처럼 영등할머니를 오늘날까지 각 가정에서 위하는 이유는 신령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영등할머니는 2월에만 각 가정에 내방하는 영험하고, 욕심이 많은 할머니이기 때문이다. 주부는 영등할머니께 정성을 다함으로 家內의 平安을 보장받는다.

본 논문에서는 영등할머니 신앙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와 지역적인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는 영등할머니 신앙의 전체적인 모습을 살피기 위한 과정이었다. 여전히 발굴되지 않은 현지 조사 및 역사문화 자료가 많아서 미진한 부분이 곳곳에서 찾아진다.

우선 영등할머니 신앙이 한반도 동남부의 제주도 및 영남 지역에 집중하는 원인이 밝혀져야 한다. 이는 자연과학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반도 동남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음력 2월에 부는 바람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그래야만 ‘영등할머니’가 이 지역들에서 극진하게 믿어지는 이유를 규명할 수 있다.

끝으로 전국적인 영등할머니 신앙의 실태를 살피는 과정에서 미진하게 연구된 몇몇 지역들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제주도, 합천 지역이 이에 속한다. 영등할머니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을 파악 할 수 있는 지역이기에 추후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1. 역사문헌사료

- 『三國史記』
- 『三國遺事』
- 『京都雜誌』
- 『冽陽歲時記』
- 『東國歲時記』

### 2. 단행본

- 강무학, 『한국세시풍속기』, 청화, 1981.
- 권삼문, 『동해안어촌의 민속학적이해』, 민속원, 2001.
- 김내창·선희창, 『조선의 민속』, 사회과학출판사, 1986.
- 김내창, 『조선의 풍습』, 사회과학원민속학연구실, 한민글밭, 1993.
- 김광언, 『주거민속지』, 민음사, 1988.
- 김광언, 『우리 생활 100년·집』, 현암사, 2000.
- 김광언, 『한국의 집지킴이』, 다락방, 2000.
- 김승찬, 『부산지방의 세시풍속』, 세종출판사, 1999.
- 김승찬,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세종출판사, 1994.
-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세종출판사, 1993.
- 김연옥, 『한국의 기후와 문화 : 한국 기후의 문화 역사적 연구』, 이화여자대학출판부, 1985.
- 김의숙, 『강원도 민속문화론』, 집문당, 1995.
- 김재호, 『생태적 삶을 일구는 우리네 농사연장』, 소나무, 2004.
- 김태곤, 『韓國民間信仰研究』, 집문당, 1985.
- 김택규, 『한국농경세시의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85.
- 김형주, 『민초들의 지킴이 신앙』, 민속원, 2002.

- 문무병, 『바람의 축제 칠며리당 영등굿』, 황금알, 2005.
- 박구병, 『韓國漁業史』, 정음사, 1975.
- 박완서,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 헛빛출판사, 1990.
- 박완서, 『호미』, 열림원, 2007.
- 박찬익, 『조선민속풍습』, 서광학술자료사, 1992.
- 송영규, 『프랑스의 세시풍속』, 만남, 2001.
- 송재선, 『농어속담사전』, 동문선, 1995.
- 이완주, 『흙을 알아야 농사가 산다』, 들녘, 2002.
- 이은봉, 『한국고대종교사상』, 집문당, 1999.
- 이필영, 『마을신앙으로 보는 우리문화 이야기』, 웅진닷컴, 1994.
- , 『부여의 민간신앙』, 부여문화원, 2001.
- 장주근, 『제주도 영등굿』, 열화당, 1971.
- , 『한국의 세시풍속』, 형설출판사, 1984.
- 전경욱, 『함경도의 민속』, 고려대학교출판부, 1999.
- 조홍윤, 『韓國의 巫』, 정음사, 1984.
- 주강현, 『조기에 관한 명상』, 한겨례신문사, 1998.
- 최래옥, 『한국민간속신여사전』, 집문당, 1995.
- 최창조, 『韓國의 風水思想』, 민음사, 1984.
- 하용득, 『한국의 傳統色과 色彩心理』, 명지출판사, 1986.
- 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창작과 비평사, 1983.
-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 황경숙, 『부산의 민속문화』, 세종출판사, 2003.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농경문화 1』, 태웅그래픽, 2000. 12.

### 3. 연구논문

- 강은해, 「기후속신연구」, 『한국학논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0.
- 공우석, 「한반도의 대나무류 분포와 그 환경요인에 관한 식물지리학적 연구」, 『한국생태학회지』 8, 1985
- 구미래, 「우물의 상징적 의미와 사회적 기능」 『비교민속학』 23집, 비교민속학회, 2002.

- 권귀숙, 「제주 해녀의 신화와 실체 : 조혜정 교수의 해녀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0집, 1996.
- 길희성, 「자연, 인간, 종교」, 『종교연구』 11, 한국종교학회, 1995.
- 김명자, 「가신신앙의 성격과 여성상」, 『여성문제연구』 13,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4.
- , 「원두들의 민간신앙과 세시풍속」, 『안동문화』 7집, 안동대 안동문화 연구소, 1986.
- , 「岳砂의 동제와 가신신앙」, 『안동문화』 8집, 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 1987.
- , 「송천동의 가신신앙과 세시풍속」, 『안동문화』 9집, 안동대 안동문화 연구소, 1989.
- , 「청운마을 사람들의 신앙생활」, 『줄당기기와 길쌈이 유명한 청운마을』, 한국학술정보, 2004.
- , 「풍기의 민속종교와 신앙생활-동신신앙과 가신신앙을 중심으로」, 『민속연구』 3, 안동대 민속학 연구소, 1993.
- , 「세시풍속의 순환의미」, 『한국민속학』 16, 한국민속학회, 198
- 김미주, 『생업차이에 따른 영등신앙의 존재 양상 :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상철, 「소나무의 상징성과 정신성」, 『숲과 문화』 15권, 2006.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조사(1)-민간신앙·민간요법」, 『인문논집』 38, 부산대학교, 1991.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조사(2)-통파의례·세시풍속·금기생활」, 『국어국문학지』 28, 문창어문학회, 1991.
- 김용섭, 「서여 민영규 선생 고희기념 논총 : 農家月令의 農業論」, 『동방학지』 54~5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7.
- 김의숙, 「강원도북부 남북한접경지역의 민속문화」, 『강원민속학』 11, 강원민속학회, 1995.
- 김 인, 「신안군 도초면지역 민속종합조사보고」, 『남도민속연구』 2집, 남도민속학회, 1993.
- 김정숙, 「한국민요에 나타난 고부관계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15, 한국가정관리학회, 1997.

- 김진순, 「강원도 민속의 지역적 정체성-산간민속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29, 비교민속학회, 2005
- 김기설, 「영동지방 세시풍속에 대한 고찰」, 『강원민속학』 1, 강원도민속학회, 1983.
- 김재호, 「영등신앙의 제의적 특징과 생태학적 해석」, 『실천민속학연구』 10, 실천민속학회, 2007.
- 김택규, 「한국 농경세시의 이원성」, 『한국문화인류학』 20, 한국문화인류학회, 1988.
- 김효경, 「음력 정월의 세시의례와 가정주부 : 초하루·정초·열나흘날·보름의 분화된 시간을 중심으로」, 『샤머니즘연구』 5, 한국샤머니즘학회, 2003.
- 나승만, 「진도 영등제의 축제화 과정 연구」, 『남도민속연구』 5, 남도민속학회, 1999.
- 나경수, 「전남 나주시 동강면 일대 조사보고 : 복룡리 세시풍속」, 『남도민속연구』 8, 남도민속학회, 2002.
- 문무병, 「제주도의 해신신앙」, 민속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1999.
- 문무병, 「제주도의 영등굿」, 『비교민속학』 13, 비교민속학회, 1996.
- 문순덕, 「세시풍속에 나타난 제주 여성 속담」, 『반교어문연구』 14, 반고어문학회, 2002.
- 문정옥, 「한국가신의 분류」, 『한국민속학』 15, 민속학회, 1982.
- 민성기, 「農家月令과 16세기의 農法」, 『부산사학』 9, 부산대사학회, 1985.
- 박순호, 「군산지방의 민속」, 『향토문화연구』 1, 원광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1978.
- 박환영, 「속담과 수수께끼 속에 보이는 가족과 친족의 민속학적 연구」, 『강원민속학』 17, 강원민속학회, 2003.
- 배영동, 「금줄의 의미와 기능」, 『비교민속학』 5, 비교민속학회, 1989.
- 배영동, 「五穀의 개념과 그 중시의 배경」, 『민속연구』 8집,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1998,
- 서정화, 「영동 산간지역의 가신신앙 연구 : 삼척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서해숙, 「가택신앙과 주거공간의 상관관계」, 『남도민속연구』 10, 남도민속학회, 2004.

- 서해숙, 「섬진강유역 가정신앙의 양상과 의미」, 『한국의 가정신앙』 하, 민속원, 2005.
- A. Guillemuz, 「삼신할머니 : 동해안의 한 어촌에서의 신앙과 무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7, 한국문화인류학회, 1975.
- 설성경, 「손돌 전설의 변이유형 연구」, 민속학회편, 『설화』, 교문사, 1989.
- 宋錫夏, 「風神考(附 禾竿考)」, 『진단학보』 1, 1934.
- 송정숙, 「할머니의 향기」, 『한국논단』 173집, 한국논단, 2004.
- 송화섭, 「가정신앙에서 영등제와 철릉제」, 『한국의 가정신앙』 하권, 민속원, 2005.
- 신영순, 『조왕신앙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3.
- 유기쁨, 「생태주의 : 다시 사유하는 인간의 조건, 그리고 종교」, 『종교문화비평』 5,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4.
- 이경엽, 「서남해의 여성 주체의 신앙과 의례」, 『남도민속연구』 8, 남도민속학회, 2002.
- 이경엽, 「전남지역 세시풍속의 특징과 분포」, 『지역민속의 세계』, 민속원, 2004.
- 이기태, 「II. 家庭信仰 · 歲時風俗 · 寺刹」, 『금릉민속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1.
- 이남식, 「농경생산신의 역할구조와 민간신앙체계-가사리 곡령신앙의 민속지적 고찰」, 『사회문화논총』 3집, 사회문화영남학회, 1983.
- 이보형, 「神대와 農旗」, 『한국문화인류학』 8, 한국문화인류학회, 1976.
- 이수립 · 조성호, 「나이듦과 지혜 : 성공적 노화의 통합적 개념화」,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13, 한국심리학회, 2007
- 이승철, 「동해 ‘영등제’의 존재양상 분석」, 『강원민속학』 21, 강원도민속학회, 2007.
- 이승호 외, 「꽃샘추위의 발생 분포와 변화 경향」, 『대한지리학회지』 40, 대한지리학회, 2005.
- 이예숙, 「환경위생 및 환절기 안전」, 『동광』 54, 어린이재단, 1971.
- 이유수, 「영등신의 일고찰」, 『울산향토사연구』, 처용출판사, 1992.
- 이종철 외, 「지도지역의 신앙민속」, 『도서문화』 5,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

- 소, 1987.
- 이필영, 「민속의 지속성과 시대성」, 『한국 민속문화의 탐구』, 국립민속박물관, 1996.
- , 「(도둑잡이)뱅이」, 『민속학 연구』 4, 국립민속박물관, 1997.
- , 「충남지역 가정신앙의 제유형과 성격」, 『샤머니즘 연구』 3집, 한국샤머니즘학회, 2000.
- , 「가을떡과 安宅 : 충청지방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1 가을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1.
- , 「민속학에서 본 종교 : 마을 및 가정신앙을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2, 청년사, 2002/02.
- , 「해물리기와 잔밥먹이기」, 『한국의 가정신앙』 하, 민속원, 2005
- , 「X와 十의 상징성」, 『박물관학보』 10 · 11, 한국박물관학회, 2006.
- , 「가정신앙과 제물」, 『역사민속학』 24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 , 「우물 신앙의 본질과 전개 양상」, 『역사민속학』 26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 이해준 · 강성복, 『진악산 기슭에 꽂피운 천년의 터전-비단고을 유림의 고향 초현리』, 금산문화원, 2006.
- 이현수, 「정선지역의 세시풍속 연구 : 풍신제를 중심으로」, 『강원민속학』 21, 강원민속학회, 2007.
- 이효재, 「한국 가부장제와 여성」, 『여성과 사회』 7, 한국여성연구소, 1996.
- , 「한국여성과 종교」, 『종교 · 인간 · 사회-휴머니티의 회복을 위하여』 서의 필선생회갑기념논문집, 서의필선생회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1998.
- 임승범, 「충남 태안 지역의 안택과 병경」, 『한국의 가정신앙 하』, 민속원, 2005.
- 임재해, 「한국민속학 20년의 반성과 과제 : 세시풍속」, 『한국민속학』 23, 한국민속학회, 1990.
- 임동권, 「세시풍속에 나타난 禿鬼俗」, 『한국문화인류학』 5, 한국문화인류학회, 1972.
- 장주근, 「가신신앙」, 『한국민속대관』 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2.
- , 「가신 · 가신신앙」,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 정동찬 외, 「겨레과학인 무쇠 솔」, 『비교민속학』 28, 비교민속학회

- 정승모, 「歲時關聯 記錄들을 통해 본 조선시기 歲時風俗의 變化」, 『역사민속학』 13, 역사민속학회, 2001.
- 정래진, 『삼신받기 연구』, 한남대 대학원 문화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 정용승, 「황사가 무엇이길래」, 『환경연구논문집』 8, 한국교원대학교 환경과학연구소, 2004.
- 주강현, 「農旗 의례와 놀이考」, 『한국민속학보』 6, 한국민속학회, 1995.
- 최광식, 「三國史記 所載 老軀의 性格」, 『史叢』 25, 역사학연구회(구 고대사학회), 1981.
- 최광용 외, 「우리나라 사계절 개시일과 지속기간」, 『대한지리학회지』 41, 대한지리학회, 2006.
- 최래옥, 「民間俗信語에 보이는 韓國人의 自然觀」, 『비교민속학』 21, 비교민속학회, 2001.
- 최백, 「한국의 집-그의 구조 분석」, 『한국문화인류학』 13, 한국문화인류학회, 1981.
- 최창렬, 「풍신제와 선농제의 민속과 어원」, 『어학』 16집, 전북대학교 어학연구소, 1989.
- 한국은행조사부, 「환절기 위생 : 호흡기 질환」, 『지방행정』 20,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현용준, 「제주도의 영등굿」 『한국민속학』 1, 한국민속학회, 1969.
- , 「躍馬戲考」, 『정암현평호박사 회갑기념논총』, 형설출판사, 1980.
- , 「영등굿의 문화제적 의의」, 『제주시』 24, 제주시, 1973.
- 황경순, 「경북지역 영등신앙 연구」, 『향토문화』 17집, 사단법인 대구향토문화연구소, 2002.
- 황루시, 「제주영등굿」, 『한국인의 굿과 무당』, 1998.

#### 4. 번역서

- 秋葉隆 지음, 심우성 옮김, 『朝鮮民俗誌』, 동문선 문예신서 25, 1993(1954).
- \_\_\_\_\_ , 김난희 옮김, 「도·산의 민속 : 제주도의 신화」, 『신라문화』 12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2.
- 村山智順 지음, 김희경 옮김, 『朝鮮의 鬼神』, 동문선, 1990(1929).

- \_\_\_\_\_ ,『釋尊·祈雨·安宅』, 朝鮮總督府, 1938.
- 今村鞏,『朝鮮風俗集』, 斯道館, 1914.
- 政岡伸洋,「제주도의 내방신儀禮 : 동아시아의 비교연구에 관하여」,『국제아세아민속학』2, 국제아세아민속학회, 1998.
- 미르치아 엘리아데 지음, 이은봉 역,『종교형태론』, 형설출판사, 1979.
- \_\_\_\_\_ , 이은봉 역,『聖과俗』, 한길사, 1998.

## 5. 각 시·도·군지 및 연구보고서

- (재)고려문화재연구원,『평택 오성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2004.
- 공주군,『내고장 으뜸 가꾸기① 계룡산 산마을 상신리』, 1992.
- 국립민속박물관,『위도의 민속 : 당제, 가신신앙, 세시풍속, 통과의례 편』, 1987.
- 국립민속박물관,『한국의 세시풍속』I, 1997.
- 국립민속박물관,『한국의 세시풍속』II, 1998.
- 국립민속박물관,『경남어촌민속지』, 2002.
- 국립민속박물관,『한국세시풍속사전』봄편, 2005.
- 국립민속박물관,『조선대시세시기 II』, 2005.
- 국립민속박물관,『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 신문·잡지편』, 2003.
- 국립민속박물관,『충남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민속지』, 2006.
- 국립문화재연구소,『경기도 세시풍속』, 2001.
- 국립문화재연구소,『강원도 세시풍속』, 2001.
- 국립문화재연구소,『제주도 세시풍속』, 2001.
- 국립문화재연구소,『충청북도 세시풍속』, 2001.
- 국립문화재연구소,『충청남도 세시풍속』, 2002.
- 국립문화재연구소,『경상북도 세시풍속』, 2002.
- 국립문화재연구소,『경상남도 세시풍속』, 2002.
-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세시풍속』, 2003.
-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남도 세시풍속』, 2003.
- 국립문화재연구소,『총괄편 세시풍속』, 2006.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 편)』, 2005.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가정신앙(강원도 편)』, 2006.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가정신앙(충청북도 편)』, 2006.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가정신앙(충청남도 편)』, 2006.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가정신앙(경상북도 편)』, 2007.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가정신앙(경상남도 편)』, 2007.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가정신앙(제주도 편)』, 2007.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가정신앙(전라남도 편)』, 2008.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가정신앙(전라북도 편)』, 2008.
- 김한중, 『옥천지』, 고향문화사, 1991.
- 논산문화원, 『놀뫼(論山)의 民俗』, 1987.
- 대전광역시 중구청, 『중구지』, 대전중구문화원, 학예인쇄사, 1998.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구지』, 대덕구지편찬위원회, 1996.
- 대전직할시 서구 문화공보실, 『서구향토지』, 대문사, 1991.
- 대전직할시편찬위원회, 『대전시사 제3권』, 1992.
- 대전·충청도 전통앉은곳 보존회, 『무형문화재 신석봉의 지정보유자료집』, 2005.
- 대전직할시 대덕구, 『대덕구민속지』, 1989.
- 대천문화원, 『우리고장의 민속(대천시·보령군)』, 명문당인쇄사, 1994.
- 문공부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전라남도 편)』, 1969.
- 문공부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전라북도 편)』, 1971.
- 문공부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충청남도 편)』, 1975.
- 문공부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충청북도 편)』, 1976.
- 문공부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경상남도 편)』, 1972.
- 문공부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경상북도 편)』, 1974.
- 문공부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강원도 편)』, 1977.
- 문공부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경기도 편)』, 1982.
- 문공부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주도 편)』, 1974.
- 문공부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함경도 편)』, 1982.
- 부여군지편찬위원회, 『부여군지』, 2003.
- 서원문화연구소, 『조사보고서1 : 鎭川의 民俗』, 서원대학교 서원문화연구소, 한양출판사, 1997.

- 서해숙, 「항산 이현수박사 정년퇴임 기념 논총 : 전남곡성군 오곡면, 죽곡면 일대 하계조사 보고」, 『남도민속연구 10』, 2004.
- 순천대학교 박물관, 『여천죽림 택지개발지구 지표조사 보고서』, 1997.
- 안동대학교 국학부 민속학전공, 『영양사람들의 삶과 문화(민속학연구 제7집)』, 2002.
- 안동대학교 국학부 민속학전공, 『의성사람들의 삶과 문화(민속학연구 제8집)』, 2003.
- 안동대학교 국학부 민속학전공, 『순흥사람들의 삶과 문화(민속학연구 제9집)』, 2004.
-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경북의 전통마을2 : 문경시 산양면 현리 민속지』, 2003.
-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경북의 전통마을3 :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 민속지』, 2004.
- 안면도지편찬위원회, 『안면도지』, 1990.
- 영동문화원, 『향토사료 제4집 : 향토지(민속편)』, 삼양사, 1994.
- 이창식, 『삼척지역의 민속문화』, 삼척문화원, 2000.
- 임동권 외, 『태백산민속지』, 민속원, 1997.
- 전남민속학연구회, 「신안군 도초면지역 민속종합조사보고」, 『전남민속연구 : 창간호』, 1991/12.
- 전남민속학연구회, 『완도읍·군외면 민속조사 보고서』, 1992.
-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전라선 익산-순천간 복선전철화 사업관련 송전선로 및 변 전설비부지 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2005.
- 전북대학교 박물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임실-구례간) 건설사업 부지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2003/4.
- 청양군지편찬위원회, 『청양군지』, 1995.
- 충남대학교박물관, 『경부고속철도 대선사토장·영동 보수기지 예정부지 고고·민속조사보고』, 1997.
- 충북대학교중앙박물관, 『청주-상주간 고속도로(보은-서상주간)건설예정지구 지 표조사보고서』, 1999.
- 충북대학교중앙박물관, 『경부고속도로(옥천-영동간)확장사업구간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2001.

- 충북대학교중앙박물관, 『청주 선화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2002.
- 충북대학교중앙박물관, 『단양 향산리사지 지표조사보고서』, 2002.
- 충북대학교중앙박물관,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지구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2003.
- 충북학연구소, 『충북학연구총서 제2집 : 충북의 민속문화』, 충북개발연구원 부설 충북학연구소, 2001.
- (財)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덕산-예산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구간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2000.
- (財)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서산-당진 간 국도 2호선 확장 및 포장 공사구간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2000.
- (財)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청양 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 공사구간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2000.
- (財)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장항선(온양온천-장항간)제5공구 노반개량공사 구간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2001.
- (財)충청문화재연구원, 『계룡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2002.
- (財)충청문화재연구원, 『아산배방 택지개발사업부지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추가)보고서』, 2005.
- (財)충청문화재연구원, 『군장국가산업단지 장항지구(호안도로 및 토취장)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2005.
- (財)충청문화재연구원, 『행정중심 복합도시 연계 대전-천안간 광역도로 민간 투자사업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2006.
- (財)충청문화재연구원,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2006.
-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전통마을 4 : 영동 부상마을』, 선진티앤씨, 2006.
-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전통마을 3 : 옥천증약마을』, 선진티앤씨, 2006.
- 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충남 보령지방의 민속연구 I : 외연도 사람들의 삶과 문화』, 1992.
- 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충청문화연구』 4집, 1996.
- 한남대학교중앙박물관, 『경부선 대전-옥천간 선로개량 노반공사 구간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2002.

- 한남대학교중앙박물관, 『옥천 삼청전널목 접속도로 개설공사 구간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2004.
- 한남대학교중앙박물관,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지구 문화유적 지  
표조사보고서』, 2007.
-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1, 동아출판, 1992.
-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2, 두산동아, 2000.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왜관 일반지방산업2단지 진입도로 추가구간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2005.
- (財)한국선사문화연구원, 『여주-충주-문경간 철도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  
획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006.
-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한국의 전통마을2 : 대전 중구 무수동』, 1995.
-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한국의 전통마을3 : 경북 문경시 호계면 부곡  
리』, 1996.
-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한국의 전통마을8 : 경북 구미시 무을면 무이  
리』, 1997.
- 한양대학교박물관, 『의정부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부지 문화유적 지  
표조사』, 2005.
- 홍성문화원, 『洪城의 民俗』, 홍성문화원, 조양인쇄사, 1994.

## 【사진 설명】

- [사진 1] 강원도 삼척시 문암리 권달용씨 댁 풍신제(임승범 촬영)
- [사진 2] 강원도 삼척시 궁촌리 박일권씨 댁 풍신제(임승범 촬영)
- [사진 3] 강원도 삼척시 궁촌리 박일권씨 댁 정화수 올리기  
(임승범 촬영)
- [사진 4] 강원도 삼척시 영등떡 돌리기(임승범 촬영)
- [사진 5] 충청도 이월할머니 신체(이필영 소장)
- [사진 6] 충청북도 옥천군 닭양리 장인순씨 댁 이월할머니 신체(이필영 소장)
- [사진 7] 충청북도 옥천군 닭양리 장인순씨 댁 메에 순가락을 꽂는 모습(이필영 소장)
- [사진 8] 충청북도 옥천군 닭양리 장인순씨 댁 이월할머니께 소지 올리기(이필영 소장)
- [사진 9] 충청북도 옥천군 닭양리 장인순씨 댁 이월할머니 신체에 제물 올리기
- [사진 10] 경남 고성군 양촌리 황찬두씨 댁 바람올리기 전에 우물가에 황토 휘놓기
- [사진 11] 경남 고성군 양촌리 황찬두씨 댁 물대
- [사진 12] 경남 고성군 양촌리 황찬두씨 댁 바람올리기 제물 차림
- [사진 13] 경남 고성군 양촌리 황찬두씨 댁 가내 화평을 위해서 영등할머니께 비손하기
- [사진 14] 경남 고성군 양촌리 황찬두씨 댁 바람올리기 이후에 짚에 제물 싸기
- [사진 15] 영등할머니께 정화수 올리기(김효경 촬영)
- [사진 16] 전라도 지역의 냅가지로 만든 영등할머니 신체(김효경 촬영)
- [사진 17] 전라도 지역의 솔가지로 만든 영등할머니 신체(김효경 촬영)

\*\* 김효경(한남대학교 강사)

\*\* 임승범(국립문화재 연구소 학예사)



[사진 1] 강원도 삼척시 문암리 권달용씨 댁 풍신제



[사진 2] 강원도 삼척시 궁촌리 박일권씨 댁 풍신제



[사진 3] 강원도 삼척시 궁촌리 박일권씨 택 정화수 올리기



[사진 4] 강원도 삼척시 영동면 들리기



[사진 5] 충청도 이월할머니 신체



[사진 6] 충청북도 옥천군 담양리 장인순씨  
댁 이월할머니 신체



[사진 7] 충청북도 옥천군 담양리 장인순씨 택  
메에 숟가락을 끓는 모습



[사진 8] 이월할머니께 소지 올리기



[사진 9] 이월할머니 신체에 제물 올리기



[사진 10] 경남 고성군 양촌리 황찬두씨 댁 바람을리  
기 전에 우물가에 황토 펴놓기



[사진 11] 경남 고성군 양촌리  
황찬두씨 댁 물대



[사진 12] 바람올리기 제물 차림



[사진 13] 가내 화평을 위해서 영등할머니께 비손하기



[사진 14] 바람을리기 이후에 짐에 제물 싸기



[사진 15] 영동할머니께 정화수 올리기



[사진 16] 전라도 지역의 맷가지로 만든 영동할  
머니 신체



[사진 17] 전라도 지역의 솔가지로 만든 영동할머니  
신체

## ABSTRACT

The study of Yeongdeung grandma(the goddess of the wind) belief

Nam Hyang

Dept. of Cultural Heritage  
The Graduate School of Hannam University

Yeongdeung grandma, worshipped at home, is the goddess of the wind. After coming and looking around the human world in February in lunar calendar every year, she goes back to the heaven. In the household belief, her existence is mostly forgotten except February because she visits a household temporarily.

Her character is similar to the unstable weather of the early spring. February in lunar calendar accords with the period of 'the end of hibernation' and 'the spring equinox' and at this time the land is melted and the sunshine becomes warm. However, it is still a changeable time, a cold weather in the blooming season being repeated. The unpredictable irregularity of the natural phenomenon can hurt the happiness of human beings and cause unexpected sorrow. To proceed into a stable condition, people should overcome the irregularity and the danger.

Making a stable and happy life is impossible only with the will and effort of humans. A household overcomes an unstable and disordered life under the protection of Yeongdeung grandma. Furthermore, February in an agricultural village is a highly important season preparing for farming of

that year. In the society of premodern farming, the reason Yeungdeung grandma was worshipped sincerely is because she takes charge of the farming. Being accompanied by rain and cloud, compared as daughter-in-law and daughter respectively, Yeungdeung grandma brings good harvest to a family

Yeungdeung grandma belief is a study subject that can look at the regional differences rather clearly. This belief is distributed concentratedly in Tae Back mountain range and southeast regions of the Korean peninsula, but except these areas there are no or little recognition about this goddess. In present, it is difficult to clarify the background of such a regional difference.

In short, Yeongdeung grandma belief is an important study subject observ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 belief and annual cyclic rites among several folklore fields. In a broad sense, it is also the subject that is able to look at the view of Korean about nature through the process of recognizing the wind, a natural phenomenon, as the goddess.

This paper consists of six parts. The first part is related with the name of the goddess and, through this, it introduces Yeungdeung grandma in the historical documents and the present folklore. The second part analyzes the character of Yeungdeung grandma. It is summarized as 'regularly visiting goddess of wind', 'grandma of miracle and greed', 'grandma accompanied by daughter and daughter-in-law', 'grandma looking after the stability and peace of the household and farming and the fishing industry. The third part looks at the regional actual state of Yeungdeung grandma belief. The fourth part includes structural elements of Yeungdeung grandma belief such as the name, the date, and the place of ancestral rites, a sacrificial offering, taboo, and a vulgar belief.

Housewives depends on Yeungdeung grandma as to the stability and peace of each household, the health of family members, a rich or poor harvest of the farming of that year. Every household turns into a regular and stable place of living under the protection of Yeungdeung grandma.